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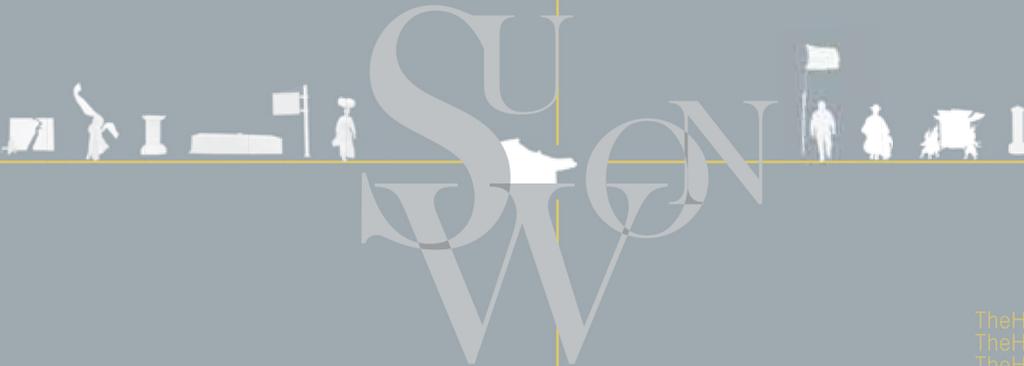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Urban Space and Structure of Suwon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
2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수원시사편찬위원회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
TheHistory

수원시사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일리|두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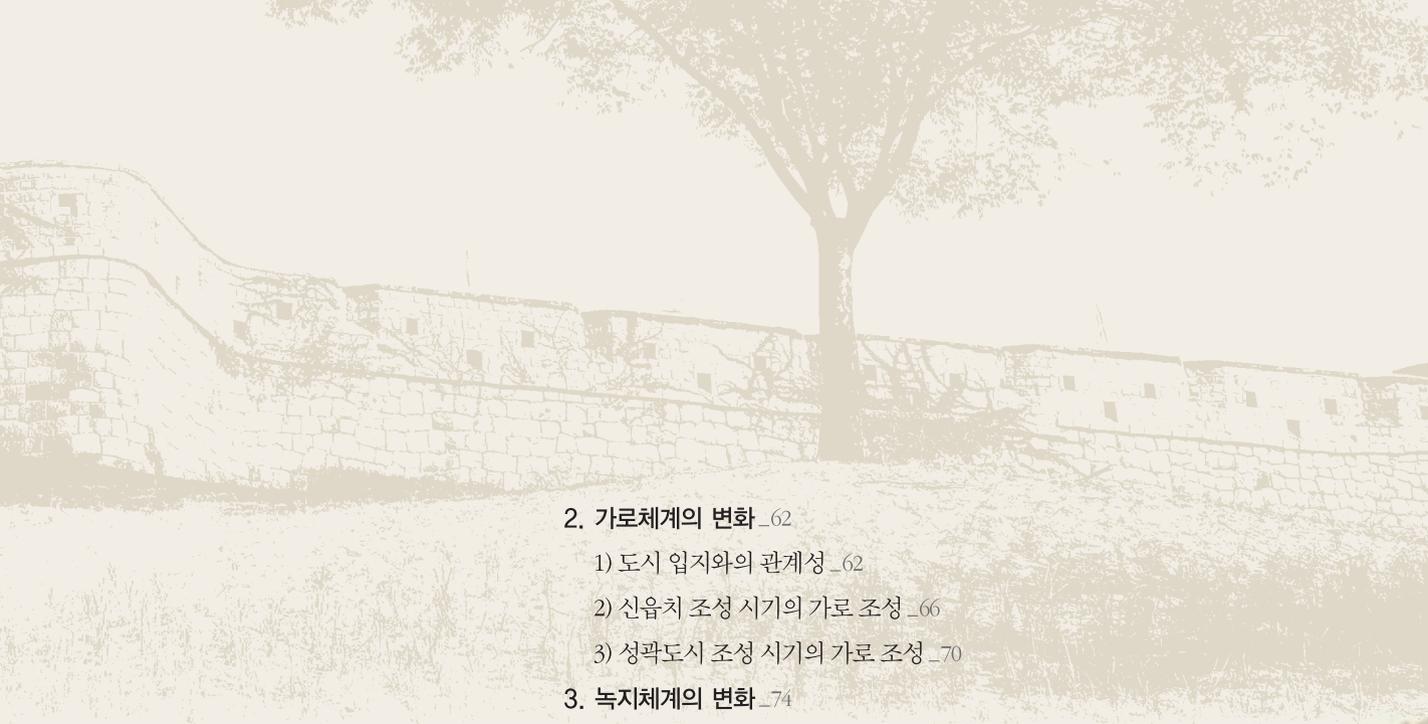
제1부
신읍치의 공간구조와
도시체계

제1장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상징경관 ————— 이기봉

1. 세계문명사와 한국 역사 속의 수원 새 읍치 _13
2. 풍수로 조영된 도시의 상징 이해하기 _15
 - 1) 조선 권위 건축물의 입지·규모·표현의 특이함 _16
 - 2) 서울의 간선도로망과 상징경관 _18
 - 3) 풍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 _23
 - 4) 한반도에서 풍수의 정착과 확산 _25
3. 수원의 읍치 이동 탐색 _29
 - 1) 수원의 건치연혁과 고대의 읍치 _29
 - 2) 화성시 안녕동 옛 읍치의 읍토성과 읍성 _33
 - 3) 옛 읍치의 구조와 상징 _38
4. 새 읍치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상징 _40
 - 1) 새 읍치의 입지 _40
 - 2) 새 읍치의 구조와 간선도로망 _44
 - 3) 새 읍치의 권위적 상징경관 _47

제2장 화성의 도시체계 ————— 백종철

1. 도시구조의 변화 _53
 - 1) 신읍치 조성 시기 _53
 - 2) 성곽도시 조성 시기 _56



- 2. 가로체계의 변화 _62
 - 1) 도시 입지와와의 관계성 _62
 - 2) 신읍치 조성 시기의 가로 조성 _66
 - 3) 성곽도시 조성 시기의 가로 조성 _70
- 3. 녹지체계의 변화 _74
 - 1) 정조 대 식목관과 식목정책 _74
 - 2) 『화성성역의궤』 분석을 통한 녹지체계 파악 _78
 - 3) 화성의 녹지체계 _84
- 4. 수리체계의 변화 _87
 - 1) 성곽 내부의 수리체계 _88
 - 2) 성곽 외부의 수리체계 _96

제2부
근대 식민도시의
형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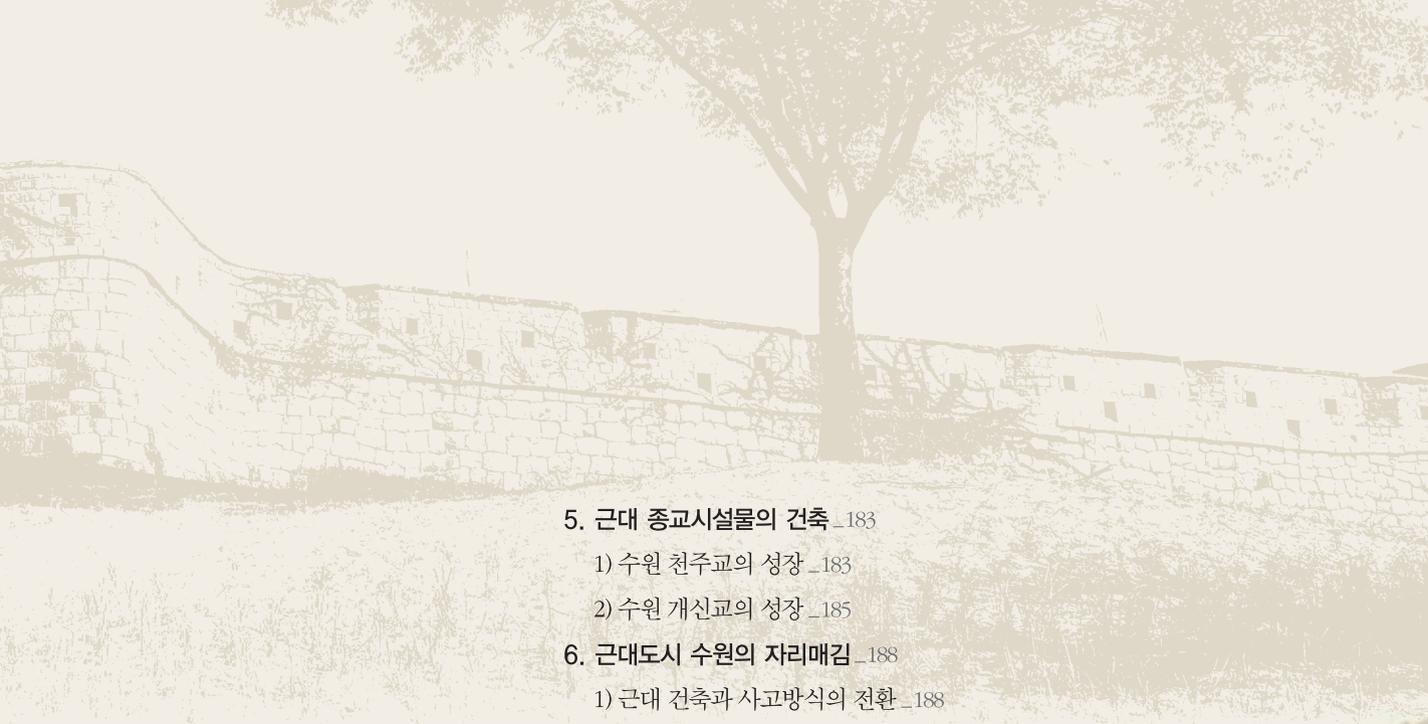
제1장 근대 식민도시수원의 형성과 성격 ————— 김백영

- 1. 고도(古都) 수원, 근대와 조우하다 _103
 - 1) 조선의 개항과 수원의 근대화 _103
 - 2) 수원의 지리적 환경과 전통적 유산 _107
- 2. 식민도시 수원의 탄생(1895~1914) _111
 - 1) 행정구역의 식민지 근대적 변화 _111
 - 2) 경부선 철도 부설과 수원역 건설 _113
 - 3) 권업모범장의 설치와 일본인 인구 증가 _116
- 3. 식민지 농업 모범도시 수원의 발전(1914~1930) _122
 - 1) 권업모범장의 변화와 일본인 상권의 확대 _122
 - 2) 수원의 일본인 상가 형성과 도시경관의 변화 _125

- 3) 역사도시 수원의 관광도시화 _133
- 4. 수원의 공업도시화와 전시체제하의 도시계획(1931~1945) _139
 - 1)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의 전환 _141
 - 2) 수여선과 수인선의 개통 _143
 - 3) 전시체제와 도시계획의 도입 _148

제2장 수원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 김재국

- 1. 전통공간의 근대도시화 _154
- 2. 근대 공공기관의 건축 _158
 - 1) 수원면사무소 _159
 - 2) 수원군청 _161
 - 3) 한성우체사 수원지사 _162
 - 4) 경기재판소 _164
 - 5) 수원전기주식회사 _166
 - 6) 수원자혜의원 _169
- 3. 근대 농업기관의 건축 _171
 - 1) 권업모범장 _172
 - 2) 수원농림학교 _174
 - 3) 수원공립농업학교 _175
 - 4) 주식회사 부국원 _176
- 4. 근대 교육기관의 건축 _178
 - 1) 수원군공립소학교 _179
 - 2) 삼일학교 _181
 - 3) 수원상업강습소 _182



- 5. 근대 종교시설물의 건축 _183
 - 1) 수원 천주교의 성장 _183
 - 2) 수원 개신교의 성장 _185
- 6. 근대도시 수원의 자리매김 _188
 - 1) 근대 건축과 사고방식의 전환 _188
 - 2) 근대적 도시 발달 과정 _189
 - 3) 근대적 도시 발달 과정의 특징 _192

제3장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과 시설 변화

한동수

- 1.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연혁 _195
- 2.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설과 관련된 사료의 현황 _197
- 3.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 구성 변화 _201
- 4.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 주요 시설의 변화 _212

제3부 해방 후 도시개발과 공간 변천

제1장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이창수

- 1. 해방 후~196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_229
- 2. 197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_234
- 3. 198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_242
- 4. 199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_251
- 5.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_264

제2장 수원의 도시경관 변화

정부매

1. 입지 환경과 도시개발의 전개 _276
 - 1) 수원시 입지 환경과 도시화의 진전 양상 _276
 - 2) 행정 영역의 확대와 도시계획구역의 변동 _280
 - 3) 도시개발의 전개 과정 _283
2. 다핵 도시로서의 면모와 생활권역별 주요 경관 _286
 - 1) 화성생활권 _287
 - 2) 영통생활권 _290
 - 3) 광교생활권 _292
 - 4) 북수원생활권 _292
 - 5) 서수원생활권 _293

제3장 수원 현대 건축의 전개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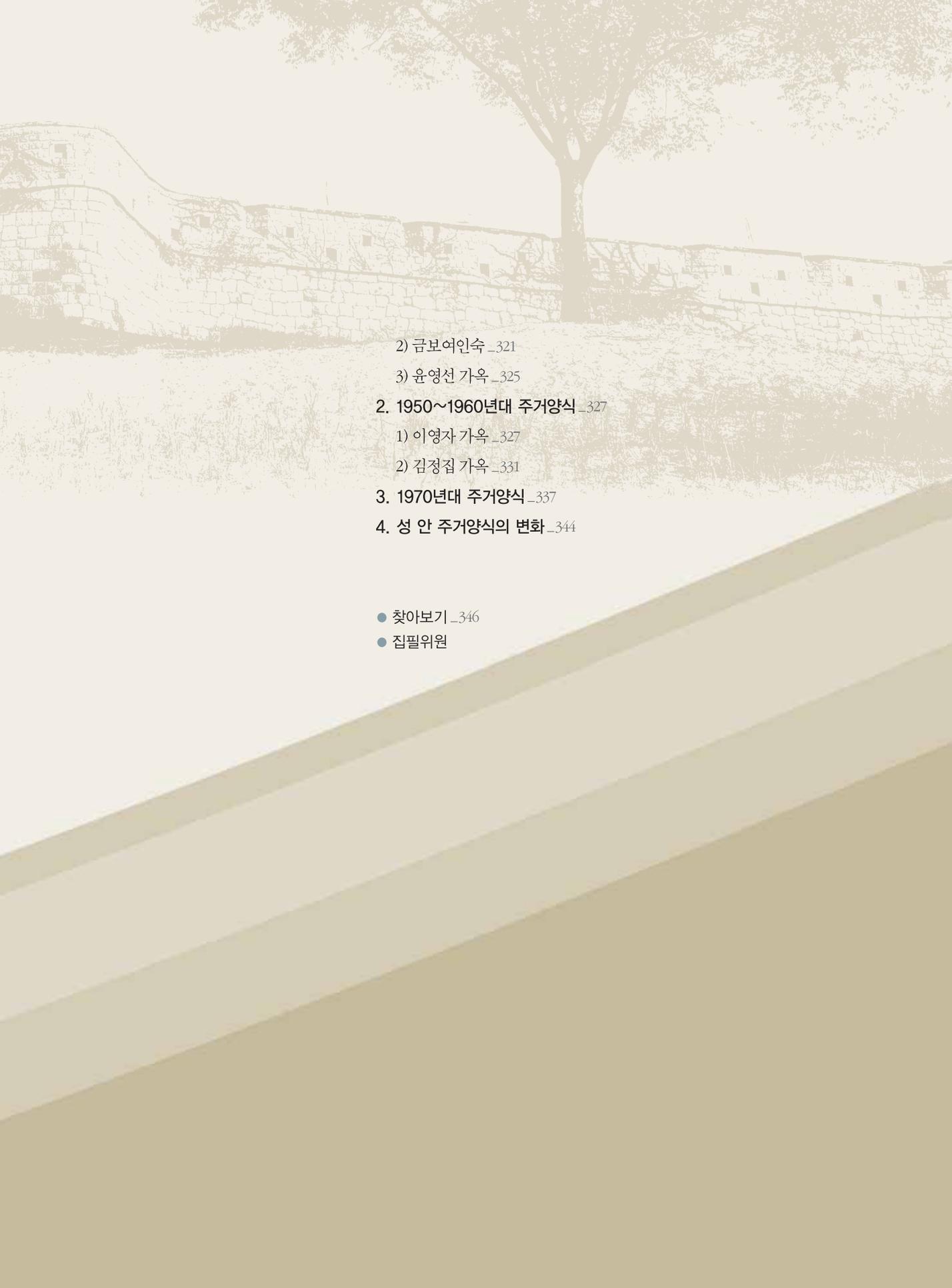
한동수

1. 공공건축 _300
2. 교육문화시설 _303
3. 주거지 개발과 아파트의 건립 _306
4. 산업시설 _310
5. 체육시설 _312

제4장 화성 안의 도시화와 주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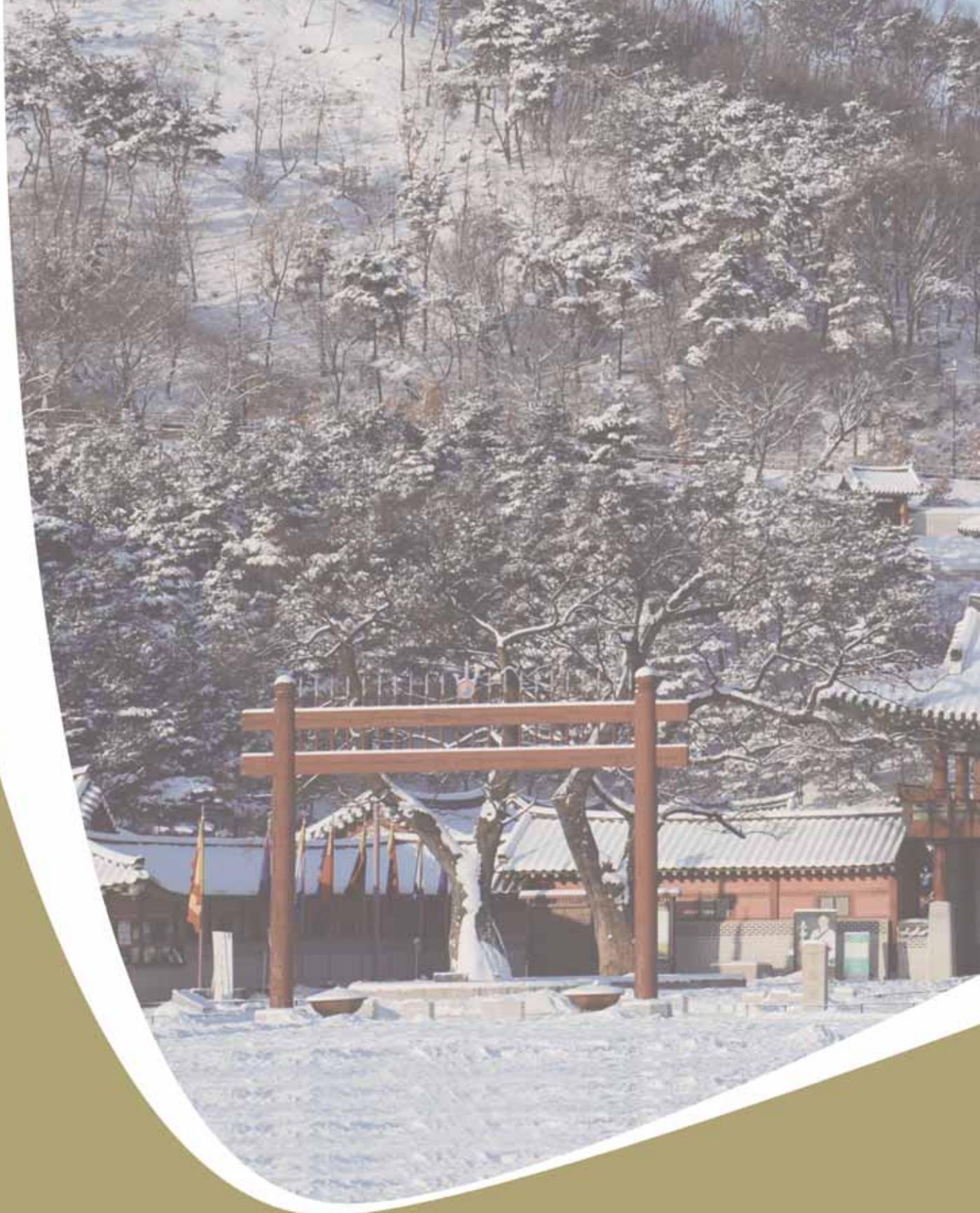
김지석

1. 1950년대 이전 주거양식 _318
 - 1) 화성사업소 옆 무예 24기 사무실 _318



- 2) 금보여인숙 _321
- 3) 윤영선 가옥 _325
- 2. 1950~1960년대 주거양식 _327**
 - 1) 이영자 가옥 _327
 - 2) 김정집 가옥 _331
- 3. 1970년대 주거양식 _337**
- 4. 성 안 주거양식의 변화 _344**

- 찾아보기 _346
- 집필위원





제1부

신읍치의 공간구조와 도시체계

제1장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상징 경관

제2장 화성의 도시체계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

1. 세계문명사와 한국 역사 속의 수원 새 읍치
2. 풍수로 조영된 도시의 상징 이해하기
3. 수원의 읍치 이동 탐색
4. 새 읍치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상징



제1장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상징경관

1. 세계문명사와 한국 역사 속의 수원 새 읍치

1789년 7월 정조(재위 1776~1800년)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우원(永祐園)을 새로 안치(安置)시키기 위해 수원의 읍치¹ 이동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9월에는 팔달산 동쪽 아래에 왕이 행차했을 때 머무는 행궁(行宮)을 중심으로 새 읍치의 모습이 거의 갖추어졌다.

1794년 2월부터 새 읍치를 둘러싸는 화성(華城)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년 반이 지난 1796년 7월에 둘레 약 5.7km의 성곽이 완공을 보았다. 화성의 건설과 함께 7월 18일에 행궁의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고, 188여 칸이던 행궁이 576칸으로 세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² 이어 도시 안의 도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그 모습이 『화성

1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고을의 중심지는 읍치(邑治)로, 그 이전은 치소(治所)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둘 다 '고을을 다스리는 중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읍치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2 김준혁,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61~63쪽.

성역의궤』의 「화성전도(華城全圖)」로 자세하게 남게 되었다.

수원의 새 읍치는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조의 개혁정책과 맞물려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도시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입지와 구조를 하고 있다거나 근대적인 상업도시를 지향했다³고 보는 등 도시의 입지와 구조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양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소제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수원 새 읍치에 들어선 중요 권위 건축물의 위치와 도로의 구조 및 상가 밀집지구의 입지 등 도시의 전반적인 정보가 대부분 파악되었다. 다만 ‘정조의 개혁 도시’였음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지만 세계문명사적 측면에서 ‘왕의 도시’로서 가져야만 되는 도시의 상징,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시의 구조와 배치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인류가 문명을 일으켜 국가를 건설하면서 인간 집단 사이의 차별을 전제로 운영된 신분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정점에는 왕이 있었다. 근대 이후 평등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출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짧은 혁명적 변화기를 제외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는 전통사회에서 왕의 권위는 그에게 신분적 지위를 물려준 조상의 신성한 핏줄로부터 전해졌다. 그리고 현세 왕을 비롯한 모든 왕실의 권위는 인간 사회 외적 존재 중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최고 권력자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인식은 모든 전통문명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 역시 전통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없었고, 실제로 벗어난 적도 없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하늘 또는 하늘과 연결된 어떤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왕이 사는 도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왕의 도시’라는 관점의 도입은 ‘왕의 도시=하늘의 도시’일 수밖에 없었던 세계문명사의 흐름이 전통문명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관철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왕이 사는 도시,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왕궁 등의 이해에서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왔던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전통도시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자연

3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4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어유당출판사, 2008.

친화적 계획 속에서 건설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연은 땅이며, 이를 합리화하는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풍수(風水)라고 불러 왔다.

하지만 어떤 전통문명권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연은 하늘이었고, 땅은 언제나 2인자의 권위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란 인식이 대부분의 전통문명권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우리나라의 전통도시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연인 하늘의 도시가 아니라 2인자의 권위만을 갖고 있는 땅의 도시라고 인식해야만 하는 것일까.

수원 새 읍치는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왕이 머무는 행궁이 건설된 전통도시였다. 행궁은 지방관의 권위가 아니라 왕의 권위가 표현되어야 하는 공간이었고, 따라서 왕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행궁을 중심으로 건설된 수원의 새 읍치 전체도 하늘의 권위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하늘의 도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바로 ‘왕의 도시’란 세계문명사적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여 수원의 새 읍치 속에 구현된 도시의 상징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시의 입지와 구조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정조가 실시한 개혁 정책의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에 있었던 기존 도시와의 차별성에 지나치게 주목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전통도시의 역사적 흐름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풍수로 조영된 도시의 상징 이해하기⁵⁾

수원 새 읍치가 아무리 혁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전통문명 속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 둘째, 조선이란 국가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도시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 새 읍치 그 자체만 보아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조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이해되어 온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구조와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상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5 기본 내용은 필자의 「서울에서 세계문명을 보다」(『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0)와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새문사, 2008)에 수록되어 있다.

1) 조선 권위 건축물의 입지·규모·표현의 특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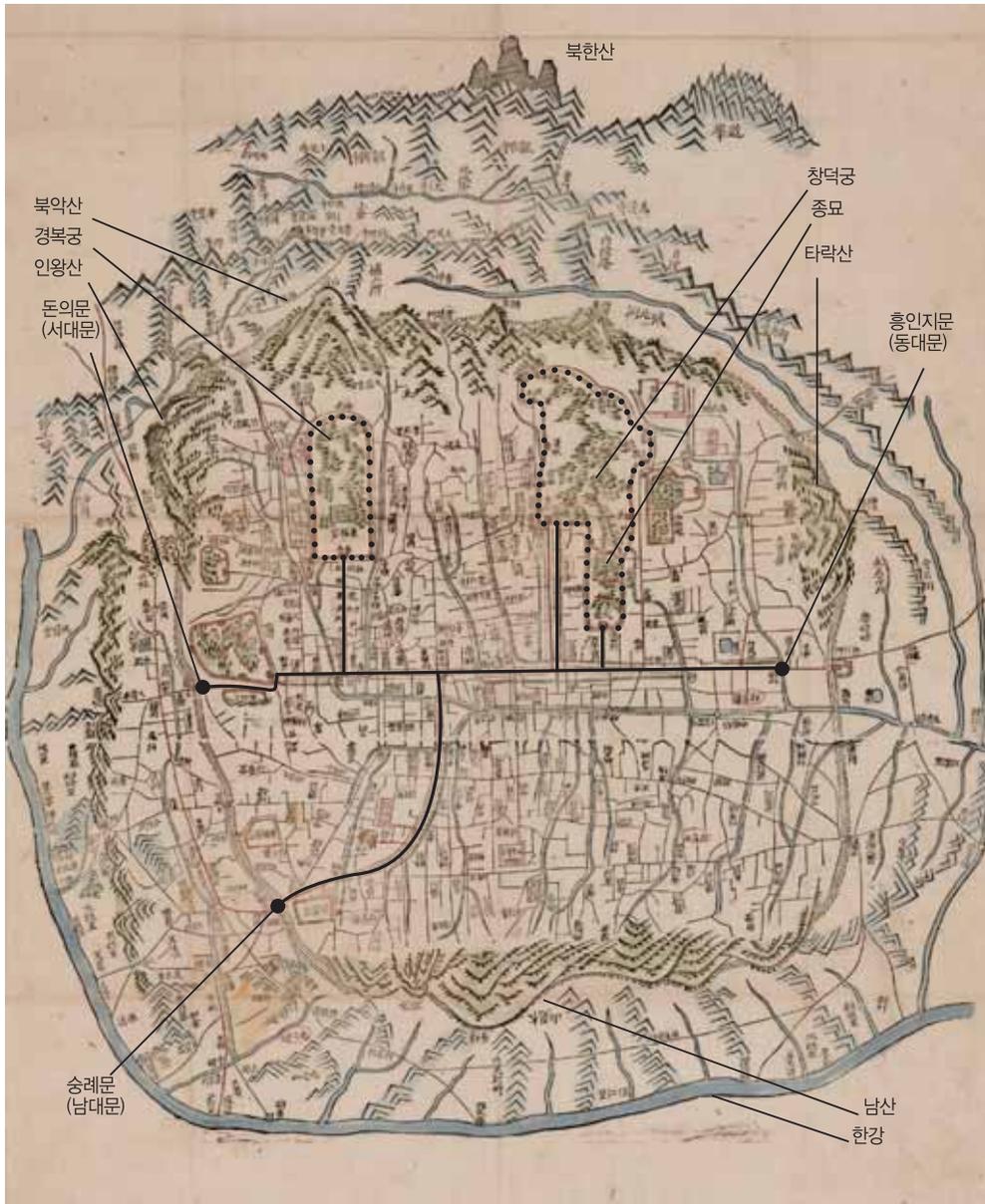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이 풍수의 명당 논리에 의해 도시의 입지와 구조가 결정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풍수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땅의 논리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명권 어디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인격체로서의 자연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왕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인식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전통문명의 국가였던 조선의 수도 서울 역시 왕이 사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입지·구조·상징에 가장 핵심적 논리였던 풍수가 세계문명의 보편적 흐름을 벗어나 하늘이 아니라 땅의 논리라고 보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풍수의 복잡하고 세련된 논리를 떠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세계 다른 문명권의 수도와 조선의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지금부터 언급할 측면은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의심조차 갖지 않았던 특징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만 하면 어떤 문명권에서도 익숙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것이었음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서울에 구현된 입지·구조·상징의 세계문명사적 보편성과 조선적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특이함은 궁궐이 산 밑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도시 속에서 궁궐은 왕의 신성한 권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도시의 어디에서도 궁궐의 안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궁궐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를 위해 산이 멀리 떨어진 평지에 도시와 궁궐을 조성하거나, 도시에 산이나 언덕이 있다면 그 아래가 아니라 위에 궁궐을 짓는다.

그런데 서울은 풍수의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인 북악산(342m)-인왕산(388m)-타락산-남산(262m)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안에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작은 산 줄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을 조성할 때 최고의 명당이라 인식하여 자리 잡은 경복궁, 조선 후기에 가장 오랫동안 정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 등 어떤 궁궐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쉽다. 이는 다른 문명권의 수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궁궐이 산 밑에 조성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최상의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궁궐 주변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형이 있다는 것



〈그림 1〉 그림식 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 속의 서울(한古朝61-4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은 첫째, 밖의 높은 곳에서 궁궐 안쪽을 공격하기 쉽고, 둘째, 궁궐 안쪽의 움직임을 밖에서 훤히 파악하며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 밑에 궁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궁궐을 산 밑에 조성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시각적으로 궁궐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궁궐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도 더 웅장하고 화려한 자연인 산 밑에 있으면 시각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단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권위의 상징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서울에서는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전통건축물 중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경복궁의 근정전은 높이가 21.3m, 정면의 폭이 30m, 측면의 폭이 21m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높고 웅장하지만 세계 다른 문명권의 권위 건축물과 비교해 보면 경복궁의 근정전은 규모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뜩이나 웅장한 산 밑에 있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기 어려운데, 건축물 자체도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하게 건축된 특이함은 세계 어떤 문명권에서도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복궁 근정전을 넘어 수도와 지방도시인 읍치에 있었던 조선의 모든 권위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⁶

2) 서울의 간선도로망과 상징경관

불평등이 전제된 신분제와 세습에 의해 운영되는 전통사회에서 제1인자인 왕의 권위는 인간 외적 존재 중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던 하늘과 연결되어야 정당성이 형성·유지된다. 왕이 사는 도시에서 이것의 실현은 시각적 상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 경관의 관점에서 전통도시의 상징을 읽어 내야 한다. 결

⁶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중국 대륙의 여러 국가와 늘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항기 이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약소국이란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을 합한 인구는 7,300만 명 정도 되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독일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거의 모든 나라의 전통 권위 건축물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명권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구나 건축물의 규모 사이에는 거의 관련이 없다. 둘째, 조선의 물산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전통문명 국가끼리만 비교하면 조선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전통시대 물산의 풍부함은 인구의 지지력으로 나타나며, 결국 인구밀도가 높으면 전체의 물산 역시 풍부한 것이다. 셋째, 조선은 백성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유교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선이란 국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것만 최고라는 국수주의적인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넷째 산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산이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나라의 경우에도 권위 건축물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산이 아주 많은 곳에 도시를 건설할 경우 산 위에 웅장하고 화려한 권위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세계 다른 문명권에서 아주 흔한 경우이다. 또한 조선과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신라에서도 높이 80m의 황룡사 9층탑을 만들었으며, 30-50m의 목탑지가 경주에는 많이 남아 있다.

국 평면적 구조는 입체적 상징경관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왕의 권위가 왕의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왕 이외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형성·유지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도시의 구조와 상징경관 역시 왕이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왕의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조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의 구조와 상징경관의 파악에서도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가면서 시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은 서울의 간선도로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조선시대의 지도 중 하나다. 서울의 최초 조영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곳은 남향한 경복궁이기 때문에 계획자가 도성의 정문으로 생각했던 곳은 당연히 남대문인 숭례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숭례문에서 경복궁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간선도로가 없다. 숭례문을 들어서면 어떤 사람도 경복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활처럼 휘 숭례문→종각의 대로를 따라 가다가 종각에서 서쪽으로 꺾어서 간 후 현재 세종로라 불리는 육조거리 끝에 서야 경복궁을 처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서대문인 돈의문으로 들어가든, 동대문인 홍인지문을 들어가든 동일하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최초 조영자는 육조거리 끝에 서야만 경복궁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는데, 그 끝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은 〈그림 2〉처럼 하늘-산(북악산·문수봉)-경복궁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최초 조영자가 보여 주고 싶었던, 왕의 공간인 경복궁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관이다.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궁궐을 평지에 조영하든, 산이나 언덕 위에 조영하든 처음 보이는 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하늘-궁궐이란 2단계의 경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에서 궁궐은 넓고 큰 하늘과 바로 연결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높고 웅장하게 건축된다.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중국에서 일반



〈그림 2〉 육조거리 끝에서 바라본 하늘-산-경복궁의 3단계 상징경관



〈그림 3〉 티베트 포탈라궁(좌)과 일본 히메지성(우)의 하늘-권위 건축물의 2단계 상징경관

적인 평지 도시의 경우 도성의 정문에서 궁궐까지 직선의 넓은 도로를 조성한다.

서울에는 숭례문과 경복궁이 연결된 직선의 넓은 도로도 없고, 경복궁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높고 웅장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는 조선 후기 정궁의 역할을 가장 오랫동안 했던 창덕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현세 왕의 권력을 있게 한 선대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 하늘로부터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종묘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국 서울의 간선도로망이나 상징경관 어떤 것도 중국의 도시와 닮은 점이 없으며, 이는 세계 다른 문명권의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그렇지만 왕의 공간인 궁궐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상징 표현에서 조선의 수도인 서울은 세계 다른 문명권과 다르지 않다. 다만 하늘-높고 웅장한 궁궐이란 2단계의 상징경관이 일반적인 데에 비해 서울에서는 중간에 산이 매개가 되어 하늘-높고 웅장한 산-상대적으로 높고 웅장하지 않는 궁궐이란 3단계의 상징경관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서울에서 궁궐이 상대적으로 작고 화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도 3단계의 상징경관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축물은 높이 148m의 이집트 쿠푸왕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경복궁 뒤에 있는 북악산(342m)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다.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높고 웅장한 대상을 건축물 자체에 두었지만 서울에서는 경복궁이란 건축물 바로 뒤에 웅장하게 우뚝 솟아 있는 북악산·문수봉에 두었다. 그리고



〈그림 4〉 평지의 직선 도시 명·칭 북경의 구조(『여지도』(古大4709-7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5〉 진입로에서 바라본 창덕궁(좌)과 종묘(우)의 상징경관

육조거리 끝에서 바라볼 때 높고 웅장한 북악산·문수봉과 경복궁이 합일된 상징경관을 만들어 내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징 방법에서는 건축물인 경복궁 그 자체는 높고 웅장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육조거리 끝에서 바라보이는 자연인 북악산·문수봉은 기암괴석과 수목이 어우러져 화려하다. 인간의 솜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변화무쌍한 자연만큼 화려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규모와 마찬가지로 화려함을 건축물 자체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였지만 서울에서는 경복궁 바로 뒤의 북악산·문수봉이란 자연의 화려함을 그대로 빌려 왔다. 대신 인공적인 건축물인 경복궁은 자연의 화려함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화려하지 않게 만들어 시각적인 대비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3단계의 상징경관에서 산은 하늘의 권위를 경복궁의 권위와 연결시켜 주는 매

7 조선 중기 이후의 지식인들은 쿤룬산(崑崙山)에 시작된 산줄기가 백두산에서 솟아나 조선의 조종산(祖宗山)이 되고, 그것이 다시 계속 남하하여 수도 한양의 조산인 삼각산이 되었다가 다시 주산인 백악으로 솟아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풍수에서 쿤룬산은 천지의 중심이고, 모든 산은 쿤룬산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쿤룬산을 모든 산의 출발점으로 본 것은 이 산이 하늘과 연결된 첫 번째 하늘산(天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쿤룬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수도 한양의 주산인 백악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은 궁극적으로 수도 한양의 현실적 권위를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권위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이 개국하여 한양으로 천도할 때부터 주산인 백악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출발점을 쿤룬산으로 인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천산인 쿤룬산이나 백두산에서 출발했든, 아니면 삼각산이나 백악을 하늘과 바로 연결된 하늘산으로 보았든 산은 하늘의 권위를 땅의 권위와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고려의 개성과 조선의 한양도 땅의 권위를 하늘에서 부여받았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통시대 세계 문명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개체로서 하늘산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하늘산은 신성한 공간이어야 한다.⁷ 하늘산으로부터 경복궁까지 연결되는 산줄기 공간 역시 신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풍수에서는 이를 지기(地氣)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리고 서울에서 왕을 대리하여 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관부들은 경복궁으로 진입하는 공간인 바로 남쪽의 육조거리 좌우에 들어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다른 문명권의 수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별로 특이할 것은 없다.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 조영 모델로 알려진 『주례』 「고공기」로 대표되는 평지형의 대칭적 전통도시에서 궁궐 뒤쪽은 꼭 필요하지만 권위와 관련 없는 시장이 입지한다. 하지만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서 경복궁 뒤쪽은 하늘로부터 하늘산을 거쳐 경복궁까지 권위를 연결해 주는 공간이어서 신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시장과 같은 것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경복궁의 권위와 관계가 없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동서대로의 종로를 따라 시장이 입지해 있다.

3) 풍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

조선 후기에 풍수는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와 마을까지, 궁궐뿐만 아니라 고을의 동헌 및 양반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은 자의 공간인 무덤에까지 거의 모든 터잡기의 기본 논리가 되었다. 이 중 무덤의 터잡기인 음택(陰宅)의 폐해 때문에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고, 현재도 그런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는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을 찾는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⁸ 하지만 풍수에서 이론 속의 명당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된 명당을 살펴보면 앞의 인식이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의 도시로서 최고의 명당은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 최고의 명당은 경복궁이다. 서울은 왕이 사는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도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권위가 항상 살아 숨 쉬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경복궁은 질서와 규칙을 통한 통제가 일상화된 장소이고, 하늘로부터 왕의 권위가 부여받았다는 상징을 표현해야 하는 중심이다. 과연 이러한 명당이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확장시켜 보아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명당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창덕

⁸ 대표적인 책으로는 최창조의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민음사, 1992)와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한국 풍수사상의 이론과 실제』(서해문집, 1994)가 있다.

궁·창경궁·경희궁·덕수궁 등의 궁궐, 종묘 역시 통제와 권위가 늘 존재해야 한다. 고을에서 최고의 명당에 자리 잡은 곳은 대부분 읍치이고, 그곳에서도 지방관인 사또가 집무를 보며 백성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동헌이다. 이곳 역시 고을에서 통제와 권위가 가장 중요한 곳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마을 중에서 가장 세련된 풍수의 논리로 설명되는 곳은 양반 마을이며, 그 안에서도 양반 주택이 최고의 명당이라 인식되고 있다. 이들 역시 마을 중에서 가장 통제와 권위가 중요한 장소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무덤 중에서 최고의 명당은 누가 뭐라 해도 왕릉을 비롯하여 왕족과 관련된 곳이며, 그다음은 고위층의 양반 무덤으로 이런 죽음의 공간 역시 통제와 권위가 중요한 장소임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풍수는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을 찾는 이론’이 아니라 ‘권위 있는 공간을 찾는 이론’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권위 있는 공간’은 ‘권위 없는 공간’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는 공간의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전제로 성립된 이론이다. 나아가 전통사회가 불평등한 다양한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배신분 내에서도 다양한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권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인 풍수에서의 명당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권위 있는 공간’은 조선만이 아니라 모든 전통문명권의 국가에서 존재했던 현상이다. 따라서 복잡함이나 세련됨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통문명권에서도 ‘권위 있는 공간을 찾는 이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풍수는 중국·한국 등에서 유행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세계 문명사적 보편성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세계 문명사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 이면서도 구체적 형태나 방법에서 다른 전통문명권과 구별되는 풍수의 독특함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궁궐·관아건물·집·무덤 등 인공 축조물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산이란 매개체를 끌어들여 그 아래에 만든다. 둘째, 궁궐·관아건물·집·무덤 등 인공 축조물의 규모와 기교가 다른 전통문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하다.

이는 풍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대부분의 전통문명권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통해 권위를 표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풍수는 권위의 상징적 경관 표현에서 분명 혁신적인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이론은 사회·정치적 혁신과 맥을 같이하여 창조되었던 것이다.

4) 한반도에서 풍수의 정착과 확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하고 세련된 풍수 이론은 현재의 중국 지역에서 유래하였으며, 신라 말에 한반도로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⁹ 몇몇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풍수를 가장 잘 정리한 이론 시기의 저술로서 잘 알려진 것이 중국 한나라 때의 『청오경(靑烏經)』과 진나라 때의 『금낭경(金囊經)』이다. 그런데 두 저술 모두 무덤과 관련된 음택(陰宅) 중심의 풍수서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풍수가 음택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풍수가 한반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가 중국의 이론 풍수와 결합되었다고 보는 자생풍수론이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땅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라고 이해한다.¹⁰ 하지만 풍수를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축조물을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글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상도에 남아 있는 6세기 중반까지의 거대한 고분들은 시각적으로 어떻게든 크고 웅장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풍수와 관련이 없다. 다만 6세기 중반부터 경주시 내의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 형식의 고분들이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주변의 산지로 옮겨 가면서 중·소형의 옆트기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 형식으로 변화된 것은 권위의 표현에서 분명 혁신적인 전환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사회·종교의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법흥왕(재위 514~540년)의 개혁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¹¹

법흥왕 이후 신라의 수도에서는 더 이상 초대형의 고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통일신라-후삼국-고려-조선 전 기간에 걸쳐 시각적으로 크고 웅장하게 보이려는 형식의 무덤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고구려·백제의 무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신라만을 놓고 보면 6세기 중반의 법흥왕 시기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풍수 논리처럼 산을 중간 매개체로 하여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이 만들어졌다.

9 권선정(『대덕(大德)의 풍수』, 대덕문화원, 2004, 15-17쪽)은 풍수의 발생 및 전래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풍수이론의 발생지는 크게 중국 발생설(윤홍기, 최창조, 이병도, 최병현, 이종항, 조광, 이희덕)과 한반도 자생설(박용숙, 김득황, 박시익)로 나누어지며, 중국 발생설의 한반도 전래 시기는 삼국시대(최병현, 조광)와 통일신라 전후(윤홍기, 최창조, 이병도, 이종항, 이희덕)로 나누어진다.

10 대표적인 책으로는 최창조의 『한국의 자생풍수』(민음사, 1997)가 있다.

11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푸른역사, 2007)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림 6〉 범흥왕릉이라고 전해 오는 고분

고구려·백제를 제외하고 신라만으로 좁혀서 볼 때 이러한 풍수 논리가 양택(陽宅)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는 682년 신문왕이 아버지인 문무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감은사이다. 이곳에 남아 있는 감은사지 3층석탑은 돌로 만든 신라 3층석탑 중 최초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높이는 약 13.4m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은사지 3층석탑을 보고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 다른 문명권의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단순한 형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감은사는 바로 동북쪽의 높은 산줄기를 등지고 진입 방향인 남동쪽을 향해 들어서 있는데, 이는 산을 중간 매개체로 하여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풍수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감은사지 3층석탑 이전에 만들어진 신라의 탑은 대부분이 목탑이며, 석탑으로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이 유일하다. 여기서 재질보다 중요한 사실은 감은사지 3층석탑 이전의 신라탑이 높이 약 80m에 이르는 황룡사 9층목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듯이 세계 다른 문명권과 비교해 보아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의 수도에서도 양택의 측면에서 크고 높게 건축물을 만들어 권위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감은사지 3층석탑 이후에 만들어진 탑은 가장 높아야 20m가 안 되는 소형 석탑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듯이 감은사 이후에 만들어진 유명한 사찰 대부분이 산 속에 있거나 산을 뒷배경으로 하여 들어서 있다. 결국 사찰에서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인 풍수는 신라만을 놓고 볼 때는 680년경부터 일반화되었으며, 이후 향교·서

원 등 거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었다.

풍수가 도시나 궁궐에 적용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무덤이나 사찰보다 훨씬 어렵다. 복잡하고 세련된 풍수 이론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고 알려진 중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풍수의 명당 형국인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작은 분지 지형에 들어선 도시, 거기에 산 밑에 지은 궁궐을 볼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림 7〉 진입로에서 바라본 검은사지와 3층석탑

중국에서는 도시나 궁궐뿐만 아니라 양택 중의 하나인 사찰에 풍수가 적용된 사례를 찾는 것도 거의 어렵다. 다만 음택으로서의 풍수는 최소한 명나라(1368~1644년)와 청나라(1644~1912년)의 황제릉에 적용되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수도,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궁궐에 풍수의 논리가 적용된 경우는 없다. 물론 뒤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건축물이 주로 테피식의 산성 안에 만들어진 고을의 읍치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다.

풍수가 적용된 최초의 도시와 궁궐은 898년에서 905년까지 후고구려(후에 태봉)의 수도였다가 919년부터 고려의 수도가 되었던 개성과 그곳의 만월대에 조성된 궁궐이었다. 여러 영웅호걸이 등장하던 후삼국시대에는 총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중 오래전부터 경주시에 있었던 신라의 도성, 동고산성에 궁궐을 조성한 후백제의 전주 도성,¹² 철원의 넓은 평지 한가운데에 조성했던 태봉의 철원 도성은 풍수의 논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풍수는 후삼국시대 수도와 궁궐의 조성에 적용된 여러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의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수도와 궁궐 등 왕의 권위와 관련된 공간의 입지·구조·상징에서 풍수는 유일한 논리가 되었는데, 후대의 연구에서 이를 국도풍수(國都風

12 전영래, 「후백제와 전주」,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주류성, 2001, 11~50쪽.

水)라 이름 붙였다.¹³ 이것은 고려에서는 풍수가 왕의 권위 표현 논리로서만 기능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성이 약해 지방호족들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던 고을 읍치의 입지·구조·상징에는 풍수 논리가 사용될 수 없었다. 주로 테피식의 산성에 있던 읍치의 중심이 산성을 떠나 밑으로 내려오던 고려 말에도 다수가 완전 평지나 언덕 위에 자리 잡는 등 풍수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¹⁴

조선의 개국은 국가의 분열과 재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고려와 단절하면서도 계승해야 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성에서 서울로의 수도 이전을 통해 고려와의 단절을, 풍수를 수도 조영의 핵심 원리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고려의 계승을 절묘하게 이루어 냈다. 그리고 조선의 3대 왕 태종(재위 1400~1418년)은 고려 중기부터 서서히 체계가 잡혀 가던 중앙집권제를 강력하게 실행하였다.

첫째, 당시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향·소·부곡·처·장 등의 행정단위가 갖고 있던 독자성을 부정하고 대부분을 주현에 통합시키는 직촌화(直村化)를 실행하였다. 둘째, 왕을 대리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의 지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⁵ 그 결과 고을의 읍치는 왕을 대리하는 지방관의 힘이 발현되는 확실한 왕의 공간으로 변모시켰고, 수도에만 적용되던 풍수 논리가 읍치의 입지·구조·상징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종(재위 1418~1450년) 때부터는 새롭게 읍성을 만드는 읍치의 입지·구조·상징의 조영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풍수 논리를 적용시켜 나갔다.¹⁶ 이후 16세기를 지나면서 고려시대에 풍수적으로 입지하지 않은 읍치까지도 비보(裨補) 등의 방법을 통해 완벽한 풍수 논리로 의미 구조를 완성하는 경향이 정착하게 되었다.¹⁷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마을은 피지배의 공간이었고, 따라서 권위 있는 공간 찾기의 세련된 이론이 적용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려 중기까지는 지배층의 대다수가 지방도시인 고을의 읍치에 살았기 때문에 풍수와 같은 복잡하고 세련된 권위 있는 공간 찾기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고려 말부터 양반층이 고을의 읍치에서 마을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15세기를 지나 16세기에 들어서면 거의 모든 양반이 고을의 읍

13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특히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80.

14 이기봉·홍금수,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고려 말 이후 입지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3), 2007, 321~340쪽.

15 이수진,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50~99쪽.

16 이기봉, 「낙안읍성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경관: 읍치에 구현된 조선적 권위 상징의 전형을 찾아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2008, 68~83쪽.

17 이기봉, 「조선적 지방도시로서의 권위 표현과 읍치숲」, 『문화역사지리』 21(3), 2007, 62~80쪽.

치가 아닌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다.¹⁸

그 결과 양반 마을을 중심으로 권위 있는 공간 찾기 이론인 풍수 논리로 마을의 의미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나아가 마을 안 양반 주택의 입지와 마을 주변 산지의 양반 무덤 입지에도 풍수가 중요한 논리가 되어, 조선 후기에는 민간 소송에서 무덤의 명당자리를 둘러싼 산송(山訟)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까지 만들었다.¹⁹ 다만 왕과 관련되지 않은 신분의 공간에까지 풍수 논리가 확산되면서 권위 표현에서 '하늘' 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하늘의 논리' 가 아니라 '땅의 논리' 로서 이해되는 현상이 발생·정착하게 되었다.

3. 수원의 읍치 이동 탐색

1) 수원의 건치연혁과 고대의 읍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가 고대부터 고을 읍치의 조영에 중요한 논리였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산이 많은 자연 조건,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기후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부터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어느 시기까지 읍치의 중심은 산 밑이 아니라 산 위의 테피식 산성에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²⁰ 또한 경상도의 모든 고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풍수가 고을 읍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조선 초부터였으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권장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재위 1418~1450년) 때부터였음이 확인되었다.²¹

18 이수진,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19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0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민수, 「아차산에서의 고대사의 제문제」, 구리문화원, 1999; 박성현, 「신라 <군현성>과 그 성격: 6-8세기 한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심봉근, 『한국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유재춘, 『한국 중세축성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윤경진, 「고려 문종 21년 南京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문화』 49, 2010, 125~149쪽; 이기봉,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와 역사적 변화」, 『지리학논총』 45, 2005, 415~432쪽;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동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2005, 191~222쪽; 최종석, 「나말여초 성주·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 『한국사론』 50(한영우 선생정년기념호), 2004, 69~148쪽; 최종석,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 95, 2005a, 177~216쪽; 최종석, 「조선 초기 성황사의 입지와 치소」, 『동방학지』 131, 2005b, 37~87쪽; 최종석,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최종석, 「대몽항쟁·원간섭기 산성해도입보책의 시행과 치소성」, 『진단학보』 105, 2008, 37~71쪽.

21 이기봉·홍금수,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고려말 이후 입지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3), 2007.

1789년 행궁이 건설되기까지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 고을의 하나였던 수원 역시 우리나라 전통도시의 큰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어렵다. 그리고 그 흔적을 수원의 각종 지리지 속에 기록된 건치연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치연혁은 기존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일부 변화된 사실만 첨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때 기준이 된 것은 대부분 조선 전기까지의 지리지로서,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의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경덕왕이 (759년에 水城郡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수주(水州)다. (『삼국사기』, 1145년)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신라에서 고쳐서 수성군(水城郡)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고을(郡) 사람 김칠·최승규 등 200여 명이 귀순한 후 온 힘을 다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격시켜 수주로 삼았다. 성종 14년(995)에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고, 목종 8년(1005)에 그것을 파한 후 현종 9년(1018)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삼았다. (『고려사』, 1451년)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신라에서 고쳐서 수성군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고을(郡) 사람 김칠·최승규 등 200여 명이 귀순한 후 온 힘을 다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격시켜 수주로 삼았다. 성종 14년(995) 을미에 단련사를 두었고, 목종 8년(1005) 을사(즉 송나라 진종(眞宗) 경덕(景德) 2년에 그것을 파한 후 현종 9년(1018) 무오에 다시 지수주사로 삼았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신라에서 수성군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고을(郡) 사람 김칠·최승규 등이 귀순한 후 온 힘을 다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격시켜 수주로 삼았다. 성종 때 도단련사를 두었고, 목종 때 그것을 파한 후 현종 9년(1018)에 다시 지수주사로 회복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모든 지리지의 수원 건치연혁에 공통으로 수원의 고구려 때 이름은 매홀군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 수성군으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홀=수성이기 때문에 매홀은 한자의 소리를 따서, 수성은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와 통일신라 때 수원의 읍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고을의 이름에 성곽을 의미하는 홀(忽)·성(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수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홀 또는 수성은 고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임과 동시에 고을 읍치에 있었던

중심 성곽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록을 통해 매홀군 또는 수성군의 읍치가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러면 매홀 또는 수성은 현재의 어디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수원 영역이 아니라 고구려 때나 통일신라 때 매홀군 또는 수성군(앞으로는 수성군으로 통일)의 영역이 어느 범위였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의 수원 영역에는 고려시대의 주현(主縣)-속현(屬縣) 체제 속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주현이었던 수원에 완전히 속하게 된 많은 속현의 영역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원의 속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의 속현조와 고적조에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가 독립하지 못하고 수원에 완전하게 속하게 된 속현·향·부곡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상세하게 나온다.²²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괄호 안은 거리(里)를 가리킨다.

서쪽: 분촌향(15리), 정송폐현(15리), 사랑부곡(20리), 청구부곡(20리), 공이향(30리), 쟁홀부곡(30리), 제촌부곡(30리), 쌍부현(45리)

남쪽: 공촌부곡(15리), 주석향(15리), 광덕폐현(60리), 육내미부곡(60리), 포내미부곡(60리)

앞의 기록에서 거리는 수원 옛 읍치의 중심에서 각 속현의 중심지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역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더 짧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향·부곡의 규모는 작으면 일제강점기의 마을 단위에서 크면 면 단위까지 다양했으며, 작은 경우 다른 고을 안에 완전히 포섭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수성군의 영역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분촌향(15리)은 봉담읍 분천리에, 정송폐현(15리)은 정남면 백리²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쪽으로는 이 외에도 많은 향·부곡·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성군의 서쪽 경계는 화성시 봉담읍·정남면의 어느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공촌부곡(15리)은 정남면 귀래리²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

22 처(處)와 장(莊)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나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3 백리의 한자는 '柏里'인데, 순우리말 이름인 잣골에 대해 한자의 뜻+뜻 형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갯'은 성(城)에 대한 순우리말로서 정송폐현의 중심지에 있었을 성(城) 때문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독성산성과 읍토성(꽃뫼)의 위치

며, 그 바로 남쪽은 진위현의 땅이었던 서탄면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남쪽 지역으로는 많은 향·부곡·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성군의 남쪽 경계도 정남면의 어느 부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동쪽·북쪽·동남쪽에 해당되는 옛 화성군의 동탄읍, 수원시 대부분, 오산시 지역에는 더 이상의 속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고구려와 통일신라 때 수성군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원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가 독립하지 못하고 수원에 완전히 편입된 속현·향·부곡의 위치를 통해 대략적인 범위를 알아낼 수는 있다. 그렇게 추정해 낸 고구려나 통일신라 때 수성군의 대략적인 영역은 화성시의 태안읍·동탄읍 대부분과 정남면·봉담면의 일부, 수원시 대부분 정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성군의 영역 속에서 조선 이전에 있었던 중요 성곽은 1789년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 전의 읍치가 있었던 화성시 안녕동의 읍토성(또는 읍성·부성)과 오산시 양산동의 독성산성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부합한지는 다른 고을에서 나타나는 성곽의 일반 흐름과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통일신라 때 한주의 군현성(郡縣城)을 연구한 논문의 결과²⁵와 다른 연구 성과물을 종합하면 이들 성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활면에서 높아야 200m 안팎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통치를 수행하기에 어렵지 않다. 둘째,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지가 많을 경우 최소한 고을의 주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셋째, 지형의 경사도를 이용한 중소형의 테피식 산성이기 때문에 중·단기전에 강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24 귀래리의 한자는 '歸來里' 인데, 순우리말 이름인 구래울·구래울·구려울에 대해 한자의 소리+소리+뜻 형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공촌부곡에서 공촌의 한자인 공촌(公村)도 구래울·구래울·구려울에 대해 한자의 소리+뜻 형식으로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5 박성현, 「신라 〈군현성〉과 그 성격: 6-8세기 한주(漢州)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반대로 장기전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장기 포위전에는 방어력이 약하다.

화성시 안녕동의 읍토성(또는 읍성·부성)과 오산시 양산동의 독성산성 중 앞의 특징에 더 부합하는 성곽은 독성산성이다. 해발 207.6m의 산봉우리를 둘러싼 둘레 약 3.2km의 석축 테피식 산성인 독성산성에서는 고구려와 통일신라 때 수성군의 영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된다. 게다가 독성산성에 대한 발굴 결과 고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고고학적으로도 수성군 읍치의 중심성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²⁶

또 하나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고구려와 통일신라 때 고을 읍치의 중심 성들이 대부분 석축의 테피식 산성이었다는 점이다. 수성군은 통일신라의 주-군-현 지방통치체제 속에서 비록 영현(領縣)은 없었지만 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석축의 산성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 점에서 석축의 테피식 독성산성이 수성군 읍치의 중심성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²⁷

결국 고구려와 통일신라 때 수성군의 읍치는 중요 관아 건물들이 들어선 현재의 독성산성을 중심으로 덜 중요한 관아 건물과 일반 도시민이 살던 산기슭과 산 밑이 결합된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의 읍치에 너무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도시에 대해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과 이슬람 등 세계 다른 문명권에서는 흔한 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다.

2) 화성시 안녕동 옛 읍치의 읍토성과 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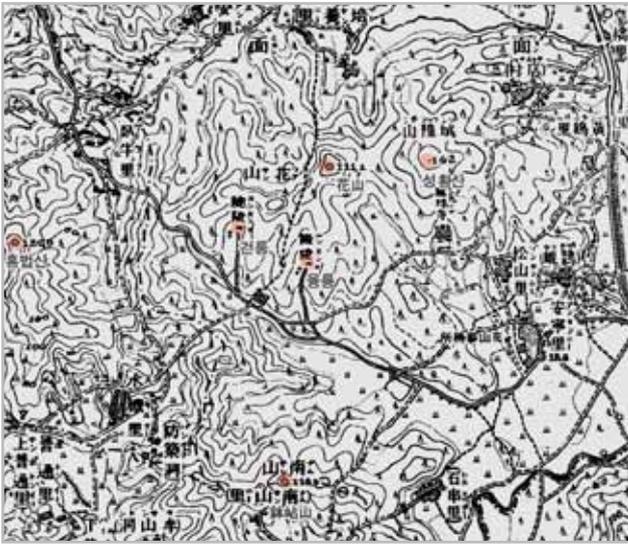
1789년 7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안치시키기 위해 팔달산 동쪽으로 옮기기 전 수원 옛 읍치는 화성시 안녕동 용릉의 바로 서남쪽에 있었다. 그리고 현릉원을 옮기기 전부터 수원의 옛 읍치는 풍수의 논리에 따라 당연히 조성되어야 하는 최고의 왕릉 입지처 중 하나로 인식되어 봉표(封標)가 설정되어 있었던 곳이다.²⁸

일제강점기인 1916년의 1:5만 지형도를 통해 보아도 순우리말인 고지피 또는 꽃피(앞으로는 꽃피로 통일)를 한자의 뜻+뜻 형식으로 표기한 화산(花山 : 111.1m)을 주산으로

26 박성현, 「신라 <군현성>과 그 성격: 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7 여기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산천조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독성산(禿城山)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게 된다. 독성산은 '독성(禿城)이 있는 산'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독성이 바로 매울 또는 수성에 대한 다른 한자 표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독성에서 독(禿)은 순우리말 '뿔'에 대한 한자 표기 중의 하나로, '매·뿔'과 '뿔'은 소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28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1789) 7월 11일 을미.



(그림 9) 1:5만 지형도의 수원 옛 읍치



(그림 10) 1720년대 안팎 그림식 지도 속의 수원부 옛 읍치(『해동지도』(古大4709-41), 「수원부」 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하여 좌청룡-우백호-안산의 형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또한 최초의 원본이 1720년대 안팎에 제작된 수원부의 그림식 지도에도 꽃피를 한자의 소리+뜻 형식으로 표기한 곳산(串山)을 주산으로 하여 좌청룡-우백호-안산의 형세 및 명당수의 흐름이 한양과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결국 수원 옛 읍치의 입지에서 풍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현릉원이 조성되면서 옛 읍치의 대다수가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의 옛 읍치에서 나타난 풍수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풍수가 수원의 읍치 입지와 구조에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 것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풍수의 논리가 읍치의 입지 및 조영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 그중에서도 세종 때부터였고, 고려시대 어느 시기까지 읍치의 중심지는 주로 테피식의 산성에 있었다. 화성시 안녕동의 옛 읍치에 대한 기록 속에서도 이와 같은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에 읍토성(邑土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주에 “둘레가 270보이고, 안에 우물 2개가 있다.”는 문구가 나온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성곽조에 읍성이 나오고, 세주에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4,035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기록만으로는 읍토성 또는 읍성이 동헌을 비롯한 중요 관아 건물들을 둘러싼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1656년(효종 7) 유형원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여지지』 수원도호부 성곽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이 부성(府城)으로 바뀌어 기록되었지만 세주의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산천조에는 후대 화산(花山) 또는 꽃산(串山)으로 표기된 꽃피가 성산(城山)²⁹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주에 “부(의 동헌) 북쪽 1리에 있는데, 토성이 있기 때문에 (城山으로) 이름 붙여졌다. 그 북쪽의 산등성이를 화산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동국여지지』 수원도호부의 산천조 기록을 통해 후대 화산 또는 꽃산으로 기록된 북쪽 1리의 성산에 토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토성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여기서 읍치 부근에 테피식 산성이 있는 산을 성산이라 기록한 것이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도 고을만 예로 들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오는 성산 위의 산성들은 모두 테피식의 중소형³⁰ 산성이며, 생활면으로부터 높아야 200m 안팎의 높이에 있지만 고을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동국여지지』 수원도호부의 산천조에 기록된 성산은 중소형의 테피식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의 읍토성(邑土城) 둘레가 270보인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과 『동국여지지』의 부성(府城) 둘레는 4,035보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1보는 6척이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의 읍토성 길이는 270보×6척=1,620척이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과 『동국여지지』의 부성 길이인 4,035보와 비교해 볼 때 40.2%밖에 안 된다. 수원은 전국적으로 호구수가 가장 많은 고을 중의 하

29 성산은 성(城)의 순우리말 이름인 '갯' (또는 재)과 산(山)의 순우리말 이름인 '피' 에 대해 한자의 뜻+뜻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현재도 중소형의 테피식 산성 바로 부근에 갯고개·갯골(또는 갯골)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는데, 경기도의 사례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를 언급하면 성(城)에 대한 순우리말 이름인 '갯' (또는 재)이란 용어는 고려 중기 이후 축조된 초대형 산성이나 고려 말 이후 축조된 평지 또는 평산지의 읍성 부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을	산성	현재 위치	한자 표기	순우리말
교하현	오두산성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상동 (城洞)	갯골
고양군	고봉산성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상동	갯골
고양군	행주산성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상동	갯골
적성현	철종성	파주시 적성면 고읍리		갯고개
안산군	군자산성	시흥시 군자동		갯고개
양주목	태모산성	양주시 어문동	백현 (栢峴)	작고개
용인현	할미산성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백현	갯고개

출처: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인천편), 한글학회, 1986;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방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1.

30 이 글에서는 소형 1,000m 이하, 중형 1,000~2,000m, 대형 2,000~3,000m, 초대형 3,000m 이상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시킨다.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의 고을 부분에 기록된 성산

고을	출처	산 이름	거리	산성		
				둘레		형식
				기록	현재	
고양군	봉수	고봉성산 (高峯城山)	서 15리		약 250m	석축 테뫼식
교하현	산천, 고적	오도성산 (烏島城山)	서 5리	2,071척	620m	석축 테뫼식
김포현	산천, 고적	북성산 (北城山)	북 2리	2,650척		석축 테뫼식
색녕군	산천	성산(城山)	동 5리			테뫼식
양천현	산천, 고적	성산	북 1리	726척	약 330m	석축 테뫼식
여주목	산천, 고적	북성산 (北城山)	서 7리		1,150m	석축 테뫼식
음죽현	산천	성산	서 5리		약 1,000m	석축 테뫼식
인천도호부	봉수	성산봉수 (城山烽燧)	남 2리	430척	577m	석축 테뫼식
적성현	산천, 고적	성산	서 3리	1,937척	603m	석축 테뫼식
파주목	산천	성산	서 2리			석축 테뫼식
포천현	산천, 고적	성산	북 1리	1,937척	1,080m	석축 테뫼식

나였는데, 비슷한 규모이면서 읍성의 축조 시기가 분명한 경주·안동·전주와 비교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수원·경주·안동·전주의 읍성 관련 기록 비교

고을 이름	형식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축조시기
		길이	척 환산	물 관련	길이	물 관련	
수원	읍토성	270보	1,620척	우물 2	4,035보	기록 없음	미상
경주	읍석성	679보	4,074척	우물 80	4,075보	우물 80	1378
안동	읍석성	528보	3,168척	우물과 샘 18	2,947보	샘 18, 도랑 1	1380
전주	읍석성	1,288보	7,728척	기록 없음	5,356보	우물 223	1388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경주·안동·전주의 읍석성은 모두 1380년 안팎에 축조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평지 또는 평산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처럼 『세종실록지리지』의 보 길이를 척으로 환산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훨씬 짧은 경우는 없다. 경주·안동의 경우 비슷하며, 전주의 경우는 오히려 더

길게 환산되어 있다.

성곽 안의 물 관련 기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고을에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 세주에는 장기전에 꼭 필요한 물 관련 기록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수원 읍토성의 경우 우물 2개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경주·안동·전주의 읍성에 대한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물 관련 기록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다. 반면에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중소형 테피식 산성의 우물 숫자는 지형적 조건상 수원의 읍토성처럼 아주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충청도 면천군의 몽산석성은 북쪽 4리에 있는데, 둘레가 543보이고 우물이 1개이다. 또한 충청도 서산군의 주산석성은 북쪽 2리에 있는데, 둘레가 468보이고 우물이 3개이다.

결국 기록의 잘못이 아니라면 성산 정상을 둘러싼 테피식의 중소형 산성이었던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의 읍토성을 언젠가 넓혀 쌓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 길이로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발굴보고서를 통해 수원 고읍성의 둘레가 10여 km였다는 기존의 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면서 4,035척 또는 그림식 지도의 3,035척 기록에 따라 둘레가 1~1.3km였을 것으로 보았다.³¹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 앞으로의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이나 그림식 지도 등에 입각해 보면 풍수 논리가 화성시 안녕동 수원 옛 읍치의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의 읍토성이 중소형의 테피식 산성이었고, 언젠가 확장시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의 읍성이 되었음을 알아보았다.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매홀군과 통일신라 때의 수성군 중심지가 석축 테피식의 독성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안녕동 옛 읍치 꽃피의 읍토성으로 읍치가 이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단기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후삼국시대에 꽃피의 읍토성보다 중단기전에 훨씬 강한 방어력을 갖고 있었을 독성산성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해 호족의 독자적인 통치가 용인되었던 고려 초기에도 이는 바뀔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누정조 윤금루의 세주에 이색(1328~1396년)의 기문이

31 이남규, 『수원 고읍성』, 한신대학교박물관·화성군, 2000.

나오는데, 『고려사』 권37 「세가」 권377, 1347년(충목왕 3)에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된 전성안(全成安)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꽃피의 소형 테피식 산성에서 읍치의 중심지가 밑으로 내려온 것은 1347년 이전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고려 초기 이후부터 1347년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수원의 읍치가 독성산성 지역에서 꽃피의 소형 테피식 산성 지역으로 옮겨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옛 읍치의 구조와 상징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수성군의 읍치는 독성산성에 있었다. 왜 이곳을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전국적인 흐름에 입각해 볼 때 첫째, 일상적인 통치를 수행하기에 어렵지 않은 높이이고, 둘째,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며, 셋째, 중단기전에 강한 방어력을 보유한 성곽을 축조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곳이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읍치에서 중요한 관아건물 대부분은 독성산성 안에 있었고, 덜 중요한 건축물이나 일반 백성들의 주거지는 산기슭이나 산 밑에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의 규모뿐만 아니라 위치도 알기 어려워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경우 우뚝 솟은 산 위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권위 건축물을 조영하는 2단계의 상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시대 어느 시기에 수원의 읍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독성산성에서 화산(花山 : 꽃피)의 테피식 산성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늦어도 1300년대 중반이 되면 중요한 관아가 화산(꽃피) 아래의 옛 읍치에 만들어지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풍수의 명당 논리 때문은 아니었다. 산성과 결합되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던 산 밑으로 관아건물이 내려올 때 남쪽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서쪽도 많으며, 북쪽인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 당시에는 풍수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산성에 오르내리기 쉬운 곳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풍수가 읍치의 관아 건물 입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던 경향은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480년) 수원도호부의 산천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²

³² 연도는 각 지리지의 내용이 처음으로 정리된 시기를 가리킨다.

풍수 논리의 측면에서 옛 읍치의 안산, 우백호에 해당되는 발점산(鉢岾山 : 부 남쪽 2리에 있는데, 鎭山이다.)과 홍법산(弘法山 : 부 서쪽 5리에 있다.)은 나오지만 주산에 해당되는 꽃피(串山, 花山, 城山)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14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풍수적 형국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 중 꽃피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것은 1656년 유형원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여지』 수원도호부의 산천조에서다. 거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산이라 기록하면서 세주에 “부(의 동헌) 북쪽 1리에 있는데, 토성이 있기 때문에 (城山으로) 이름 붙여졌다. 그 북쪽의 산등성을 화산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꽃피를 같은 뜻의 한자인 ‘花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에 해당되는 발점산(부 남쪽 2리에 있는데, 일명 南山이라고도 한다.)이 적혀 있는데, 세주에서 진산(鎭山)이 사라지고 주산과 대척적으로 볼 수 있는 남산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백호에 해당되는 홍법산(弘法山)은 동일하게 나온다.

좌청룡에 해당되는 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풍수의 명당 논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던 주산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4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중반 사이에 읍치 주변의 산세에 대한 이해가 풍수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원본이 1720년 안팎에 제작된 <그림 10>의 수원부 그림식 지도에는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풍수 논리의 완벽한 정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789년 이전의 정조시대에 편찬된 『수원부읍지』³³의 산천조에는 앞의 세 지리지와 달리 주산인 화산이 가장 앞쪽에 나오고, 이어 안산인 체점산(體岾山)과 우백호인 홍법산이 차례대로 기록된다.

현릉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원 옛 읍치의 관아 입지와 간선도로망이 거의 완전하게 파괴되어 구조와 상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1500년대 이후에는 풍수 논리가 읍치의 권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거의 분명하며, 최고의 풍수적 명당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는 봉표가 있었다. 따라서 읍치에서 가장 권위를 표현해야 하는 공간인 동헌을 중심으로 서울과 거의 유사한 구조와 상징경관을 보여 주려 했을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33 『경기도읍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에 수록된 「수원부읍지」(규 10743).

4. 새 읍치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상징

1) 새 읍치의 입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옛 읍치로 천장(遷葬)하기를 결정한 것은 1789년(정조 13) 7월 11일이다. 그로부터 4일 후인 7월 15일에 수원의 새 읍치로 팔달산 밑을 정하는데, 이에 대해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1789)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①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광주의 2개 면을 떼어 속하게 했다. 전교하기를, “이 고을에 원소(園所)를 쓰기로 정한 뒤에 다수의 민가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근심이 밤낮으로 풀리지 않는다. 대개 민심이 기뻐한 뒤에야 내 마음도 조금 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진년(1760)에 머물러 묵으실 적에 백성들을 사랑해 돌보셨던 덕의(德意)를 우리러 본받을 수 있다. 말이 이에 미치고 보니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미 돈 10만 냇을 이 고을에 떼어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수원부사의 장계를 보건대 읍터를 팔달산 아래로 정하였는데 국세(局勢)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하나, 그 백성들은 땅이 광주의 일용(一用) 등 두 면과 맞닿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뜻이 없지 않다고 하니, 사실 그렇다면 수원으로 떼어 붙이는 것을 어찌 아끼겠는가. 일용 등 두 면의 백성들도 산성(山城: 남한산성)과의 거리가 100여 리나 되기 때문에 모두 수원에 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이에 두 면의 군정(軍政)과 적정(糶政) 등의 폐단이 광주 백성들에게 가증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미 헤아린 바가 있다. 감사가 등연(登筵)할 때 마땅히 조처를 내리겠거니와 수원 백성을 위하고 광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양쪽 다 좋은 이 계책을 가지고 거듭 밝게 당부하는 바이니,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알고서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②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수원 새 읍치를 이미 팔달산 아래로 정했으니, 앞으로 원소로 거동하실 때 지나시는 길의 차례가 대궐 문에서 과천까지가 30리이고, 과천에서 수원 새 읍치까지가 40리이고, 새 읍치에서 원소까지가 20리입니다. 주정과 숙소는 본래 정한 곳이 있으니, 미륵당에는 창사(倉舍)만을 세워 검암참(黔巖站)의 예와 같이 임시 머무시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좋다고 하였다.

①의 자료를 보면 수원 새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정한 이유가 “국세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했기” 때문으로 나오지만 그 지역이 광주의 땅과 너무 가까워 수원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의 땅이었던 일용면의 영역은 현재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정자동·조원동·과장동 지역으로, 화성(華城)의 북문인 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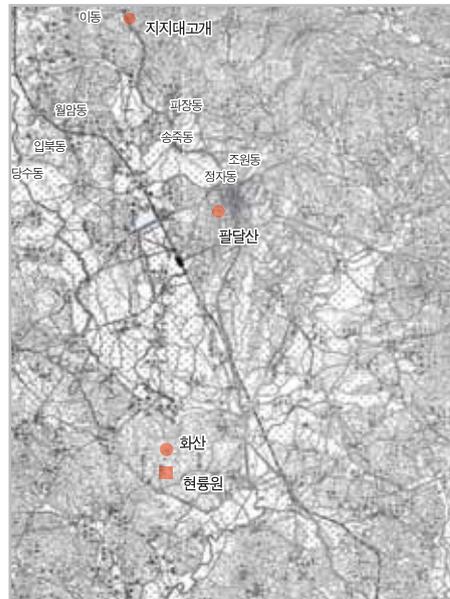
문과 겨우 몇 백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수원 사람들이 이런 곳에 새 읍치의 터를 잡는 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면을 수원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팔달산 아래의 새 읍치 자리를 고수한다.

당시 수원부의 영역은 일부를 제외한 수원시 대부분, 옛 남양부(마도면,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옛 남양면) 지역을 제외한 화성시 대부분, 오산시, 현재의 시내·진위면·서탄면·고덕면·팽성읍을 제외한 평택시 대부분에 걸쳐 있는 아주 큰 고을이었다. 따라서 팔달산의 높이나 규모 정도의 산은 수원부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새 읍치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한양에서 사도세자의 원침지인 현릉원이 있는 수원 옛 읍치까지의 사이에서 구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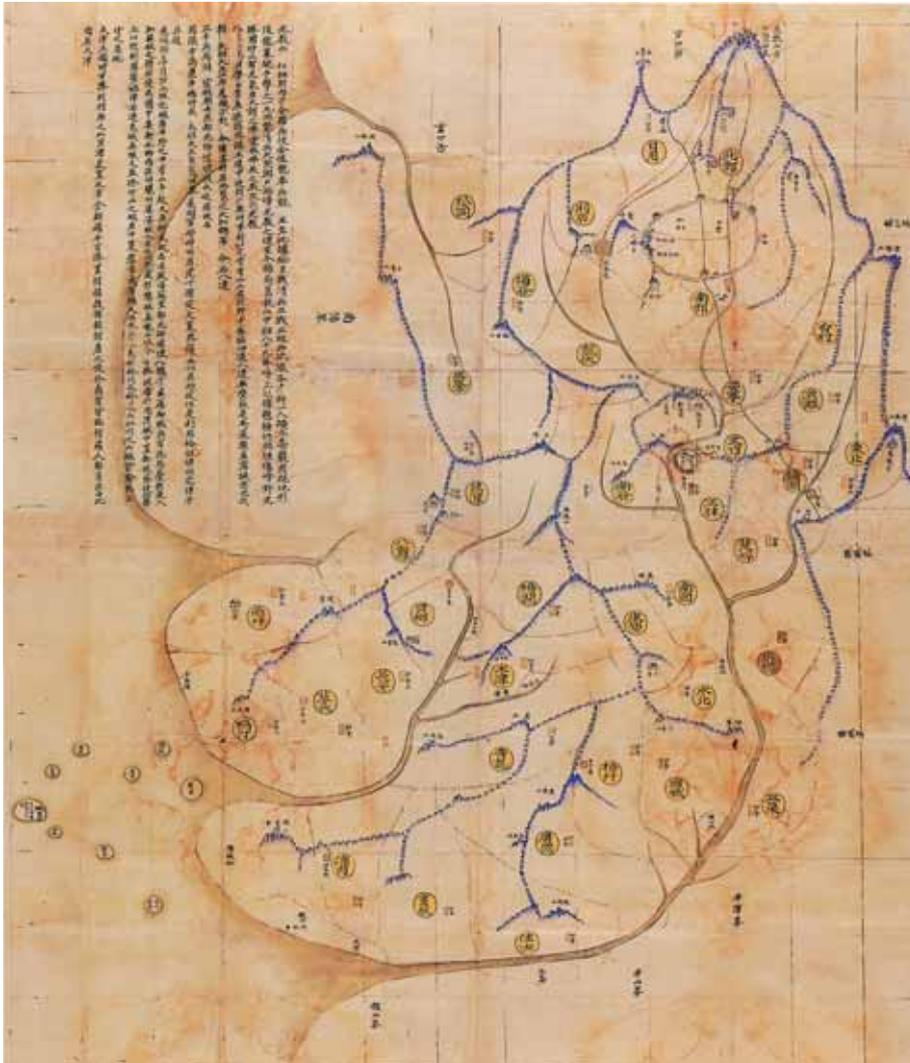
②의 자료를 보면 대궐 문에서 과천까지가 30리이고, 과천에서 수원 새 읍치까지가 40리이며, 신읍에서 현릉원까지가 20리로 나온다. 여기서 대궐의 문에서 현릉원까지의 거리가 90리 정도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60~70리였음을 감안하면 왕이 머무는 행궁이 있어야 하는 새 읍치의 터는 당연히 현릉원 북쪽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현릉원 북쪽의 수원 영역은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넓은 평지 중 하나이고, 이 지역에서 우뚝 솟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산은 팔달산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局勢)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한” 곳은 세계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완전 평지에 입지시키면 되고, 현릉원 북쪽의 수원부 영역에는 그렇게 넓은 평지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수원 새 읍치의 터를 살필 때 첫 번째 조건이 된 것은 넓은 평지의 여부가 아니라 우뚝 솟은 팔달산의 존재였다. 여기서 우리는 수원 새 읍치의 입지 선정에서 행궁으로 표현되는 왕의 권위가 하늘산을 매개로 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3단계의 상징경관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팔달산(128.2m)은 절대 높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방이 낮은 평지와 구릉으



(그림 11) 현릉원과 팔달산 주변 지도 위에 현재의 동 이름이 기록된 지역은 광주 땅이었다.



〈그림 12〉 새 읍치의 입지(「수원부지도」, 1872, 수원박물관 소장)

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웅장하게 우뚝 솟은 느낌이 강한 산이다. 결국 팔달산은 하늘의 권위를 왕의 권위와 연결시키는 하늘산으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고, 그런 조건 속에서 “국세가 크게 트여 큰 진의 터로 합당한” 곳을 새 읍치의 터로 잡게 된다. 그리고 팔달산을 중심으로 평지가 가장 넓게 펼쳐진 곳이 바로 동쪽 부분이었으며, 그곳에 새 읍치의 터를 잡게 된 것이다.

수원의 새 읍치가 팔달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동향하여 들어섰다는 것이 종래 도시의 남

향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⁴ 하지만 조선의 읍치 중 남향한 것이 가장 많지만 동향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서향한 것도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광주부 읍치 역시 수원부와 마찬가지로 행궁이 있는 왕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동향을 하였다. 따라서 읍치의 좌향은 주변 산세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남향이 절대 원칙으로 고수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팔달산을 등지고 동향한 수원의 새 읍치는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을 충실히 따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다만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과 내명당수의 풍수적 완결성은 수원의 새 읍치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수원의 읍치 어디에도 새 읍치의 풍수적 명당성을 강조하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 후기에는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고을 읍치의 상징적 권위 표현에서 풍수가 당연한 논리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원 새 읍치의 입지는 분명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릉원과 한양을 연결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도시가 들어서야 할 새 읍치의 터를 잡아야 했던 당시의 한계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과 내명당수의 풍수적 완결성을 갖춘 읍치 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수원부 전체도 아니고 현릉원 북쪽 일부 지역의 평지가 많은 지역에서 새 읍치의 터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형세의 풍수적 명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천장 터로 수원 옛 읍치를 잡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조실록』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풍수적 완결성에서 수원 옛 읍치의 뛰어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풍수의 장단점을 떠나 풍수가 왕과 왕실의 권위 표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현실을 정조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수도와 읍치의 권위 표현에서도 풍수 논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현실을 정조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수원 새 읍치의 풍수적 완결성은 주산을 제외하면 상당히 떨어진다. 이를 통해 정조가 수원 새 읍치 터로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풍수적 완결성을 보여 주는 지역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 읍치 터의 선정에 풍수 논리를 너무 강조하지 않은 것, 심하게 말하면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4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40~43쪽.

2) 새 읍치의 구조와 간선도로망

새 읍치의 조영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왕이 머무는 행궁이다. 비록 왕이 행차했을 때만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왕의 공간이란 성격에서는 서울의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마찬가지로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 읍치에서 행궁의 위치는 다른 권위 건축물의 위치 선정과 전체적인 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궁은 읍치의 이동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89년 7월부터 겨우 2개월 정도가 지난 9월에 188여 칸 규모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1794년에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추진되어 576 칸으로 세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지만 기본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 왜 이곳에 행궁의 위치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세세한 측면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론적 측면에서 왕의 권위가 표현되어야 하는 행궁이 팔달산 동쪽의 바로 아래에 조영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계 대다수의 전통문명권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려 이전의 국가에서는 산 밑에 왕궁을 건설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고려의 개성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수원 새 읍치의 행궁 조영에서도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화성행궁의 이러한 위치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 밑에 왕궁을 짓지 않는 전통문명을 주로 경험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산 밑에 조영된 수원 새 읍치의 행궁은 특이하게 보일 것이다.

궁궐의 정전에 해당되어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하는 봉수당을 비롯하여 새 읍치의 행궁 규모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편인데, 남한산성의 행궁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경복궁을 비롯한 수도 서울의 궁궐 규모가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편이라는 점과 일맥



(그림 13) 수원 새 읍치의 구조와 간선도로망

상통하는 것으로 역시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그렇다고 하여 크고 웅장함을 통한 권위 표현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만 하늘산인 팔달산의 크고 웅장함이 다른 문명권에서 일반적인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팔달산은 하늘의 권위를 행궁과 연결시켜 주는 하늘산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져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또한 하늘산인 팔달산으로부터 행궁까지 연결된 공간 역시 하늘의 권위가 왕의 권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보호받았다. 따라서 이곳에는 왕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기능도 입지할 수 없고 실제로도 입지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의 이상적인 도시 조영 원리에서 궁궐 뒤쪽은 꼭 필요하지만 권위와는 관련이 없는 시장을 입지시킨다. 하지만 조선의 도시에서 궁궐 뒤쪽은 하늘 → 하늘산 → 궁궐로 이어지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을 입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는 권위와 상관없는 공간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서대로인 종로에 시전을 입지시켰다.

수원 새 읍치에서도 시전은 동향한 행궁의 입장에서 볼 때 권위 표현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종로 부근의 남북대로에 자리 잡고 있다. 후에 장시가 시전의 기능을 압도할 때도 실질적 권위 표현과 관련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남문 밖, 북문 밖에 입지하였다.³⁵ 이와 같은 시장의 입지 경향 역시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도성에서의 정문은 남향한 경복궁의 관점에서 볼 때 남대문인 숭례문이고,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망 역시 도성의 정문과 경복궁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수원 새 읍치에 건설된 화성의 4대문 중 관념적 차원에서의 정문은 동향한 행궁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문인 창룡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은 창룡문이 아니라 북문인 장안문이며, 그다음이 남문인 팔달문이다. 이는 서울의 도성과 고을의 읍성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원 화성만의 특징이다.

수원의 새 읍치와 화성은 단지 고을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건설된 것이 아니다.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인 현릉원에 행차하기 위해 들러서 머물며 특별 업무를 보는 기능이 첨가된 도시다. 그런데 정조는 북쪽에 있는 서울에서 수원의 새 읍치에 와서 머물다가 남쪽에 있는 현릉원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현릉원에서 수원의 새 읍치에 와서 머물다가 북쪽에 있는 서울의 도성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수원의 새 읍치가 남북 방향으로

35 이정일, 「정조시기 읍치 이전(移轉)과 수원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수원역사문화연구』 1, 2012, 90쪽.

는 평탄한 지형이 계속되지만 동쪽에는 현재의 수원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구릉성 지형 역시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어 단절의 느낌이 강하다.

그 결과 정조는 도시 조영의 관점에서 정문이어야만 될 동문인 창룡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을 드나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올 때 첫 번째로 거치는 문이 북문인 장안문이었다. 따라서 장안문이 가장 크게, 팔달문이 그다음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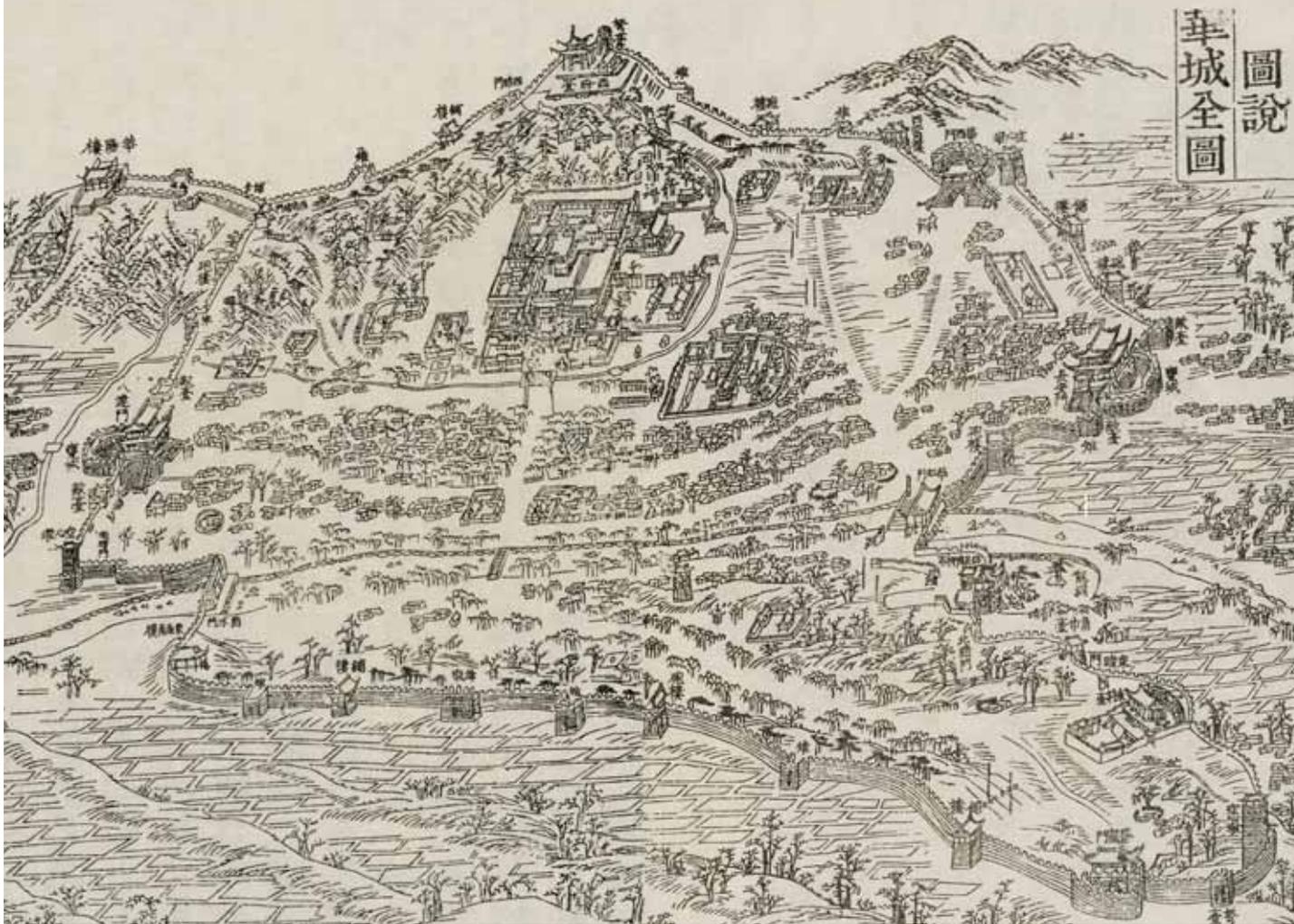
중국의 이상적인 도시 조영 원리에서 간선도로망은 기본적으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성의 정문으로부터 궁성의 정문까지 직선의 남북도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서울의 간선도로망은 나성의 정문인 남쪽의 숭례문으로부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까지 직선의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원 새 읍치에서도 관념 속의 나성 정문인 동쪽의 창룡문으로부터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까지 직선의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활처럼 휘다가 현재의 수원천 위에 있는 매향교 부근에 와야 행궁의 신평루와 연결된 직선도로가 보인다. 구체적인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나성의 정문에서 최고 권위 건축물의 정문까지 직선의 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도성인 서울의 경우 북대문인 숙정문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망과의 연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념상의 북대문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나성의 북대문에서 궁성의 뒤쪽인 북문까지 직선의 도로로 연결된 중국의 이상적 도시 형태와는 전혀 다른 조선의 도시 조영 특징 중 하나이다.

전주·경주처럼 고려 말 완전 평지에 만들어진 읍성의 경우 동서남북의 4대문 체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낙안읍성처럼 조선 초 이후 풍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읍성의 경우 동서남 3대문 체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헌의 뒤쪽 방향은 하늘산, 그리고 그로부터 동헌까지 연결된 산줄기가 신성하게 여겨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수원 새 읍치의 행궁 뒤쪽에도 하늘산인 팔달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조선의 도시 조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팔달산 줄기가 북쪽으로 끝나는 성곽 서북쪽에 서문인 화서문이 만들어진 것은 풍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읍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의 이상적 도시 형태에서 나타나는 북대문과 비슷한 것도 아니다. 화서문까지 조영된 간선도로는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와 만나게 되어 있지 행궁까지 직접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14〉 『화성성역의례』의 『화성전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 새 읍치의 권위적 상징경관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을 찾고 있으며, 그 핵심 중의 한 곳이 복원된 행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계 대부분의 전통문명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권위적 상징경관을 보고 이해하며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이는 관광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통도시의 구조와 상징경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도시의 이해에서 도시의 평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입장에서의 도시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자는 궁극적으로 가시적 경관 속에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자 노력하게 된다. 결국 도시의 구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입체로서 보이는 상징경관의



〈그림 15〉 동문인 청룡문에서 바라본 팔달산

효과를 가시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권위적 상징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걸어 다녔다는 단순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통도시로서의 수원 새 읍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리고 일부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경우만 가마를 타거나 느리게 조랑말을 타고 다니는 상황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다. 따라서 행궁을 걸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상징경관이 펼쳐지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수원 새 읍치,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권위 공간인 행궁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왕의 권위는 왕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왕 이하의 사람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궁의 권위 표현에 대한 이해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왕의 시선이 아니라 왕을 방문하는 자의 시선 입장에서 권위적 상징경관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의 권위가 자연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잘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화성 밖에서 행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봉수당을 찾아가면서 어떤 상징경관이 펼쳐지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매항교에서 봉수당까지 시각적 상징경관의 변화

수원 새 읍치에서는 관념상의 정문인 동문 창룡문, 가장 큰 북문 장안문, 그다음으로 큰 남문 팔달문, 그리고 서북쪽에 만들어진 서문 화서문 어디에서 도시로 진입하여도 행궁

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이는 수도인 한양뿐만 아니라 풍수로 조영된 고을의 읍치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선의 도시 조영 전통을 충실히 따른 모습 중의 하나이다. 높은 곳에 궁궐을 짓는 문명권이나, 완전 평지에 짓더라도 나성의 정문에서 궁궐의 정문까지 연결된 직선의 도로를 뚫는 문명권에서는 도시의 어디에서든 웅장하고 높은 궁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과 분명히 다른 점이다.

관념상의 정문인 동문 창룡문으로 들어오면 새 읍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하는 수원천 위의 매향교에 서야 행궁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문인 장안문, 남문인 팔달문, 서문인 화서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팔달문-장안문을 잇는 남북대로와 행궁에서 동쪽으로 난 동서대로가 만나는 현재의 종로사거리에서 서쪽을 바라보아야 하늘-팔달산-행궁의 3단계 상징경관을 볼 수 있다.

현재 행궁의 바로 동쪽 앞에는 넓은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래의 수원 새 읍치에는 없던 것이다.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를 보면 신평루 바로 앞쪽의 홍살문까지 난 동서대로의 양쪽에는 민가와 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때문에 종로사거리에서 바라본 하늘-팔달산-행궁의 3단계 상징경관에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라인은 행궁에서도 왕의 권위를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봉수당까지의 직선 방향이다.

그런데 넓은 화성행궁 광장이 조성되면서 종로사거리에서 서쪽을 보면 홍살문과 신평루뿐만 아니라 좌우의 남군영과 북군영 모습까지 모두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화성전도처럼 동서대로의 좌우에 집과 나무가 줄지어 있게 되면 홍살문-신평루-좌익문-중양문-봉수당으로 이어지는 직선 방향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팔달산-행궁의 시각적 비율에서 팔달산이 지나치게 크고, 행궁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봉수당까지의 직선 방향에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도시의 최초 조영자가 행궁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 삼은 곳은 신성한 공간이 시작되는 표시점인 홍살문부터이다. 이곳부터는 누구나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 속에서 행동해야 하며, 신평루-좌익문-중양문의 직선 통로를 지나면 행궁 중에서도 왕의 권위에 가장 중요한 봉수당이 엄중하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는 상징경관의 끝이자 핵심인 왕을 보게 된다. 결국 하늘에서 시작된 시각적 상징 이미지가 하늘산을 거쳐 마지막으로 왕으로 끝나는 3단계의 상징경관 표현 방식을 통해 왕의 권위가 하늘산을 매개로 하늘로부터 부여되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징경관은 하늘-높고 웅장한 궁궐의 2단계 상징경관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왕의 권위를 표현하던 세계 다른 문명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풍수적으로 조성된 고을의 읍치 대부분에서도 나타나
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징경관에 아주 익숙하며, 수원 새 읍치의 조
영이 조선 도시사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이
와 같은 상징경관 속에서 행궁의 규모 그 자체는 크거나 웅장하지 않아도 된다. 행궁의 규
모는 시각적 차원에서 하늘로부터 권위가 연결되는 첫 번째의 크고 웅장한 존재인 하늘
산 팔달산과 얼마나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하면 첫째, 수원 새 읍치는 팔달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동향한 행
궁에서 직선으로 뻗은 동서대로에 서지 않는 한 행궁을 볼 수 없도록 구조와 간선도로망
을 배치하였다. 둘째,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만나는 종로사거리에 보이는 하늘-팔달
산-행궁의 3단계 상징경관의 비율이 최초의 도시 조영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
적인 것이며, 산을 매개로 하여 자연 최고의 존재인 하늘로부터 왕의 권위가 부여받았
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셋째, 홍살문부터는 직선으로 이어진 신
풍루-좌익문-중앙문-봉수당 라인에 시각이 집중되어 마지막으로 봉수당에 앉은 왕
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풍수로 조성된 대부분의 고을 읍치에서 하늘-하늘산-권위 건축물의 3단계 상징경관
표현의 중심은 지방관이 집무를 보는 동헌이었다. 하지만 수원 새 읍치는 비록 일시적이
라고 하더라도 왕의 도시여야 했기 때문에 3단계 상징경관 표현의 중심은 행궁이어야 했
다. 그 때문에 유수(留守)가 집무를 보는 유여택과 그것을 보조하는 관청은 3단계 상징경
관 표현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신풍루-봉수당 라인의 오른쪽에 만들어
져 있다.

전통적으로 오른쪽보다 더 높은 곳으로 여겨진 왼쪽에는 왕의 집무실인 낙남헌, 휴식
공간인 득증정·노래당 등이 자리 잡았다. 또한 화성유수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왕에
대한 충성 맹서의 의식을 거행하는 객사인 우화관 역시 왼쪽에 위치시켰다. 행궁이 동향
을 하고 있는 반면 우화관은 남향을 하고 있는데, 광주유수부의 읍치가 있었던 남한산성
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을 읍치
에서도 객사는 주변 지형과 상관없이 남향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1801년(순조 1)에 건축된 정조의 영전(影殿)인 화령전도 행궁의 왼쪽에 동향하여 건설되
어 있다.



백종철 자연유산보존협회 사무국장

1. 도시구조의 변화
2. 가로체계의 변화
3. 녹지체계의 변화
4. 수리체계의 변화



제2장

화성의 도시체계

1. 도시구조의 변화

조선 후기 화성의 도시구조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현릉원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구읍치를 수원으로 이전하며 신읍치를 조성하는 신읍치 조성 시기(1789~1793년)이고, 두 번째 시기는 신읍치 주변에 성곽을 조성하고, 도시를 경영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는 성곽도시 조성 시기(1794~1800년)이다. 그 후 도시의 공간구조와 경제구조가 조성 시기별로 특색을 보이며 화성의 필지와 도시조직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1) 신읍치 조성 시기

신읍치 조성 시기는 장헌세자의 묘소를 수원읍으로 천장하기로 결정한 1789년(정조

1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7월 11일,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로 영우원을 천장하기로 결정하다.

13) 7월 11일부터로, 구읍치의 행정관아 지역을 원소(園所)로 사용하기 위해 구읍치 행정관아를 팔달산 아래로 이주시킨 때이다.² 1789년 7월부터 정조가 능행을 오는 가을까지 읍치의 기본 시설들이 이전하여,³ 능행의 휴식처를 만들고자 하였다.⁴

신읍치 조성 시기의 도시구조는 다음과 같이 조성되어 갔다. 먼저, 관아 건물을 팔달산 아래로 옮겨서 지었고, 이를 행궁으로 사용하였다. 팔달산을 배산으로 하여 팔달산 동편 기슭에 행궁과 관아가 들어섰고, 관아 전면으로는 한양과 삼남을 잇는 도로가 남북으로 조성되었다.

1790년(정조 14)에는 도시 중심부에 8개의 시전(市廛)과 팔달문과 장안문 밖에 장시(場市)가 설치되었고⁵ 일반 살림집들이 조성되었으며,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과 객사가 들어섰다. 팔달산 남쪽에는 공자의 위패가 모셔진 향교가, 북쪽에는 사직단이 자리 잡았다.

신읍치의 관아건물은 1790년(정조 14)에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1796년(정조 20)경에 대부분 완공되었다.⁶ 1791년(정조 15) 수원부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은 경기 지역의 교통 요지로, 한양을 보호하는 도성(都城)의 5부처럼 보고 있었다.⁷

1789년(정조 13)에 관아와 각종 공공시설 및 주거지와 상점 등이 읍치 내에 조성되고, 신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화성 이주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세금 감면과 과거 시행, 인재 등용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고,⁸ 주거지와 농경지가 정비된 읍치의 모습에 기뻐하였다.⁹ 정조는 현릉원 천봉 이후 매년 1~2차의 정기적인 원행을 하였고 원행길에는 유생과 무사들의 과거를 성행하여 시취(試取)하였으며,¹⁰ 재위 기간(1789~1800)에 모두 13차례의 원행을 시행하였다.¹¹

1790년(정조 14) 2차 원행 시에는 수원부 읍치에 관사(官舍)는 틀이 잡혔으나, 주거지가 줄지어 서고 거리가 번창하지 않아 이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² 정조는 인구 유입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산업을 제도화하고 민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도시 내의 토

2 『수원부지령등록』, 기유년(1789) 7월 15일.

3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8월 1일. 제사에 대한 하교를 내리다.

4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7월 15일. 대신·도감·당상·관윤·경기감사를 불러 영유원 천장에 관해 논의하다.

5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93쪽.

6 『수원부지령등록』, 경술년(1790) 5월 초8일.

7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8월 24일. 수원부의 오래 전부터 묵힌 토지에 급대하는 일로 전교하다. 정조 15년(1791) 3월 11일. 광주와 용인 등 고을에 있는 지방 창고를 수원부 소재지로 옮겨 세우도록 명하였다(『화성성역의궤』, 상량문, 득중정 상량문).

8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10월 11일.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윤음을 유시하다.

9 『수원부지령등록』, 기유년(1789) 10월 14일.

10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1월 1일. 원행에 관한 하교를 하다.

11 최홍규, 『정조의 화성경영 연구』, 일지사, 2005, 40쪽.

12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2월 11일. 경기관찰사와 수원부사에 사민들을 위해 유시하다.

지를 용도에 따라 구획하였다.¹³ 신읍치 정착을 위하여 이주민들에게 추가로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移轉) 지역에 새로 주거지를 짓도록 하였다. 추가로 지급된 이주 보상금을 상업활동의 자본으로 활용하여 읍치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이의 이윤을 통해 와가(瓦家)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¹⁴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입적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부민으로 받아 주려 하였고,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 시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었으며, 과거에 합격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가옥을 소유하고도 거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토록 하였다.¹⁵

1790년에는 가로를 마주보며 전방(塵房)을 짓게 하고, 남·북 장시를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기와를 원가에 판매하여 가로 주변에 기와로 된 상점가(商店街)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신읍치의 인구 유입과 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부 주변 지역에 6개의 5일 시장을 조성하고 세금을 걷지 않았다.¹⁶ 수원부의 위치가 교통의 중심지이기에는 하나 생산시설이 빈약하여 팔 수 있는 물건이 적으므로 상점을 설치하기 힘든 점이 있어 부내(府內)의 유지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 물류 이동의 편의에 따른 교역과 유통 위주로 상업활동을 활발히 조성해 가고자 하였다.¹⁷ 1791년(정조 15)에는 수원부 인구 유입 방안과 상업활동 장려책 등의 다양한 대책이 이미 실효를 거두어 읍치에 민가가 많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¹⁸ 1790~1791년에 8개의 시전이 수원부 관문 주변에 설치되었다.¹⁹

신읍치 조성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들은 화성 내 건축물들의 상량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년 동안에 취락이 이루어지고, 2년 동안에 고을이 만들어졌으니”²⁰라고 하여 1789년(정조 13) 신읍치로 이전한 후 1790년(정조 14)까지 이주민들의 민가가 조성되었고, 1791~1792년에 주거지와 관아, 전방 등이 조성되어 읍치의 모양을 갖추어 갔다.²¹ 또한 “2년에 읍을 이루고 3년에 도읍을 이루어서”²²라고 하여 1791~1792년에 읍을 이루고, 화성이 조성되는 1794~1796년에는 계획된 신도시의 읍치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13 『수원부지령등록』, 경술년(1790) 2월 12일.

14 『수원부지령등록』, 경술년(1790) 2월 12일.

15 『수원부지령등록』, 경술년(1790) 2월 12일;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1월 20일. 부수찬 김희순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의 비리 척결을 상소하다.

16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2월 19일. 좌의정 채제공이 수원 묘당에 관한 방안을 아뢰다.

17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5월 17일. 수원부사 조심태가 새 고을 시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18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16일. 조심태를 승지로, 김사목을 수원부사로 삼다.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17일. 수원부의 새 고을을 조성하는 데 따른 민폐를 걱정하다.

19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93~94쪽. 입색전, 이물전, 목포전, 염급상전, 미곡전, 유철전, 관곽전, 지혜전 등이 조성되었다.

20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동장대 상량문.

21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동장대 상량문.

22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창룡문 상량문.

이처럼 신읍치 조성 시기에는 관아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상업시설들이 조성되면서 대도회로서의 도시구조가 만들어졌고, 인구 유입과 상업활동 장려를 위한 각종 방안이 제시되면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2) 성곽도시 조성 시기

성곽도시 조성 시기는 화성 축성을 시작한 1794년(정조 18)부터로, 1789년(정조 13) 7월 수원부가 이전되고, 관아와 시전, 주거지역들이 생겨나고 인구 유입과 상업활동 장려정책 등이 이루어지며, 읍치의 규모가 커지고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도읍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내용은 『화성성역의궤』 상량문²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로부터 수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진(鎭)이나, 읍치를 이전한 곳이 성지(城池)의 방어 설치가 없고 들 가운데 위치하여, 신읍치에 성과 참호를 쌓으면 독산성(禿山城)과 서로 견제·협공의 형세를 이루어 방어하기 쉽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신읍 주민의 대부분이 유생들로 읍치를 방어하기에 역부족으로 생각되어 군사를 주둔시키기 위한 둔전을 설치하고자 하였다.²⁴ 읍치의 규모가 커지면서 읍치를 보호하는 성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²⁵ 능침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어버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을 조성하였다.²⁶

수원부의 성역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원부의 행정적 위치와 체계가 격상(格上)되는데, 능침이 위치하면서 관방(關防)이 더욱 중요해지고 행궁을 정리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에 수원부사의 직위가 낮다고 판단되어, 수원부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부(府)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라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였고, 유수부에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병방(壯勇營兵房)을 고쳐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호위대장(扈衛大將)의 관아를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기에 이르렀다.²⁷

수원부의 화성유수부 승격 이후 읍성으로서 화성 조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남북 2문(門)과 수문(水門) 2문의 조성을 화성 축성 중 가장 어려운 일로 보아 최

23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창룡문 상량문.

24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6월 10일. 부사직 강유가 수원에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를 건의하다.

25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22일. 사직 신기경이 상소하여 당면한 문제 12조항을 올리다.

26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정월 12일.

27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1월 12일.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다.

우선적으로 건설하였다. 남북의 2문을 지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성곽을 조성하고,²⁸ 수원부를 가로지르는 수원천(水原川)²⁹을 성곽 안으로 관류하도록 물길 조성에 노력을 기하여 대천 위로 2개의 수문을 조성하였다.³⁰ 남북 2문 이외에 나머지 문루들도 돌로 성을 쌓고자 계획하였다.

성곽 축성계획 초기에는 동쪽과 서쪽의 가장자리는 텃자리가 대부분 주봉(主峰)과 안산(案山)이기 때문에 토성(土城)으로 쌓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봉과 안산이 자연적인 지세이므로 흙을 파내거나 뚫거나 하여 산맥을 상하게 해서 안 되며, 토성을 쌓기 위해 멀리서 흙을 운반하여 오는 것도 돌로 쌓는 것보다 공사비용이 더 들어 모두 돌로 쌓기로 하였다.³¹

화성의 성역은 1794년(정조 18) 1월에 시작하여,³² 4개의 성 문루 및 망루를 차례대로 세우고,³³ 성역을 위한 몇 가지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축성을 시작하였다.³⁴ 화성 조성의 기본원칙은 자연 지형을 유지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축성하는 것이었다. 성 터를 계획하는 데 부내(府內)의 마을과 거리, 산과 들 등도 함께 고려하였으며,³⁵ 평지 밖에 산세와 지형을 따라 굴곡을 이루는 곳은 치(雉)를 설치하지 않았다.³⁶

축성의 주재료는 화성 인근에서 채취하였는데, 팔달산 북서쪽 3리 떨어진 공석면(空石面)에 위치한 숙지산(熟知山)과 서쪽 7리 떨어진 여기산(麗妓山)에서 채석하였다.³⁷ 숙지산에서 화성으로 이동하는 길은 평탄하여 운반로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으나,³⁸ 노고산(老高山)·여기산 등은 길이 험해 석재의 운반로를 조성해야 하였다.³⁹ 성곽 조성 시 해로(海路)를 통한 석재의 운송과 각종 재료의 운반을 위해 수원부 서쪽 호매절(好梅折) 수레길과 남양 구포(鷗浦)의 수레길 등이 조성되었는데,⁴⁰ 수레길의 조성은 강과 바다에서 나는 산물과 남쪽과 북쪽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손쉽게 수송하여 유통하기 위함이었다.⁴¹

28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3월초 10일.

29 『화성성역의궤』에서는 광교대천(光教大川) 또는 대천(大川)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수원천(水原川)으로 통일하였다.

30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 12월 초6일.

31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 12월 초6일.

32 『화성성역의궤』, 전교, 계축년(1793) 12월 초6일.

33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 12월 8일.

34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 12월 초6일.

35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12월 초8일.

36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12월 초8일.

37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12월 6일. 영중추부사 채제공, 비변사 당상 정민시·심이지 등을 소견하다.

38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12월 13일.

39 『화성성역의궤』, 감결, 계축년(1793) 12월 22일. 호매절 수레길로 추정된다.

40 『화성성역의궤』, 실입2. 수레길과 기와 굽는 가마에 들어온 논밭의 수확은 갑인년(1794)에서 병진년(1796)까지이다.

화성 성역은 1794년(정조 18) 정월 초7일에 석재 뜨는 일을 시작으로, 남북 2문과 수문 2문, 기타 성곽시설물들을 조성하였으며, 동년 3월 초1일에 도랑 치는 일을 시작으로 성곽 내 수리시설을 조성하여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낙성연을 가짐으로써 끝나게 되었다.⁴²

화성은 조성 계획 초기의 규모인 3,600보⁴³보다 큰 4,400보⁴⁴로 조성되었는데, 초기 계획보다 규모가 커진 것은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장안문(長安門)과 창룡문(蒼龍門) 사이의 인가를 보호하여 성 안으로 유입시키고 행궁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자 성곽을 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성곽이 입지한 장소성과 연계시켜 설명하기도 하였다.⁴⁶ 화성 조성 당시 화성유수부는 대략 1,000호의 민가가 조성되어 이주 초기보다 4배 이상 거주민이 확대되었다. 성역 이후 확대될 도시의 규모를 생각하여 성지(城池)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결점을 보완하고자⁴⁷ 화홍문과 창룡문 사이의 민가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794년(정조 18) 정월에 석재 뜨는 일을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9월에 화성 성역이 완공되어 10월에 낙성연이 이루어졌으며, 성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성역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⁴⁸

화성 성역의 기본원칙은 성곽을 조성하며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나,⁴⁹ 도시의 규모에 비해 경제의 유통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부족하여 읍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나타나자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⁵⁰ 이용과 후생의 방법으로 읍치를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개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 개간으로 성곽 주변에 생산시설을 조성하였다. 화성의 남쪽 토지는 읍치가 이전된 시기부터 구천(龜川)의 물을 끌어다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하고 있었다.⁵¹

성 북쪽의 토지는 토질이 소금기가 있고 모래와 자갈이 많아 논, 밭으로 사용하기 힘들어 관개시설을 조성하여 토지를 개간하였다. 관개시설은 성 북쪽의 평평하고 빈 땅을 개

41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10월 5일. 장령 정의조가 수레 제도의 강구를 아뢰다.

42 『화성성역의궤』, 시일, 추택일시(推擇日時), 각항일자(各項日子).

43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4) 12월 13일.

44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8월 19일. 수원부의 성이 완성되다.

45 『화성성역의궤』, 연설, 갑인년(1794) 정월 14일.

46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1월 15일. 화성 축조에 대해 하명하다.

47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1월 15일. 화성 축조에 대해 하명하다.

48 『화성성역의궤』, 정사년(1797) 6월 18일.

49 『화성성역의궤』, 연설, 을묘년(1795) 2월 22일.

50 『화성성역의궤』, 연설, 을묘년(1795) 윤2월 12일.

51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토지를 개간한 이후에도 이곳에 곡식과 뽕나무를 심고자 하였으며, 성곽 주변의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성읍(城邑)을 세우는 큰일로 보았다.⁵²

성곽 주변에 농업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수(用水)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저수지를 조성하였다. 화성 성역을 중지한 갑인년(1794) 겨울에, 북성 바깥의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광고산 상류 근처에 보(堡)를 파고 제방(堤防)을 열어 개간한 땅으로 도랑을 연결하여 물을 끌어왔다. 성 북서쪽의 고등말 북쪽 벌의 땅도 개간하기 위하여 성역이 잠시 중단된 기간에 진목정(眞木亭) 아래에서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아 1794년(정조 18) 만석거(萬石渠)를 조성하였다.⁵³ 1799년(정조 23)에는 팔달산 서쪽에 축만제(祝萬堤)와 축만제둔(祝萬堤屯 : 서둔)을 조성하였으며,⁵⁴ 관개시설에 의해 장안문 밖에 새로 개간된 곳을 모두 대유평(大有坪)이라고 하고 이곳에 대유둔(大有屯 : 북둔)을 설치·운영하였다.⁵⁵ 만석거 남쪽 언덕 위에는 정자를 세워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다보고 기름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정을 조성하였다.⁵⁶

관개시설의 설치로 토지를 개간하여 생산시설이 확보되자, 여기에 곡식과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목적으로 생산시설에 뽕나무를 식재⁵⁷하여 양잠사업을 실행하려 하였다. 성 북쪽의 황무지에 과중된 뽕나무가 수만 그루에 달하여 이를 행궁 근방과 성 밖 밭두둑에 옮겨 심었으며,⁵⁸ 수원부 언저리에 있는 각 집의 장정⁵⁹들과 대유평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뽕나무를 식재토록 하여⁶⁰ 불모지를 면하게 하였다.

관개시설의 조성을 통해 도랑과 연못(만석거)을 만들었으나 숲이 모자라 성 밖의 땅이 척박해 보여 도랑과 제방의 기반을 단단하게 보완하기 위해 소나무와 오얏나무 등 각종 나무와 풀들을 식재하기도 하였다. 연못 주변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식재하고 연못에는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기르고 해마다 수목을 식재토록 하였다.⁶¹ 성곽 조성 시에는 매향동, 팔달산, 전성내탁, 대천 양변, 용연, 관길야, 영화정 이북 등 7곳에 만년지(萬年枝), 소나무, 탕자, 뽕나무, 밤, 상수리, 오얏나무, 복숭아, 살구 등 각종 과일나무와 버드나무 등의 수목과 연밥, 화초 등을 식재하는 조경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⁶²

52 『화성성역의궤』, 연설, 갑인년(1794) 10월 19일.

53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54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137쪽.

55 『화성성역의궤』, 정거, 만석거.

56 『화성성역의궤』, 정거, 영화정.

57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4월 25일. 우하영이 올린 13조목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리다.

58 『화성성역의궤』, 연설, 병진년(1796) 8월 초1일.

59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60 『화성성역의궤』, 절목, 대유둔을 설치하는 절목이다.

61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화성에는 성 북쪽에 숲과 연못이 조성되었는데, 성 주변에 숲과 연못을 만드는 것은 초루(樓)를 배치하는 뜻에 어긋나고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명당(明堂)의 금기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평양(平壤)에 성(城)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조성하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숲을 설치한 전례를 예로 하여,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 등 가리지 않고 많이 심어 숲을 조성하여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였다. 부읍(府邑)과 역마을에 집집마다 나무를 식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구실을 징수하였다.⁶³

성곽도시 조성 시기에는 화성의 축성과 도읍으로의 발전을 위한 이용후생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성곽 축성 이후 도읍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상업 활성화 방안과 도읍의 체계에 맞는 화성의 행정구역 설정, 가로의 정비와 교통시설의 설치, 성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신도시 화성의 상업 활성화 방안으로, 성 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며 상점가와 주거지를 도회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자들을 이주시키는 내용이 담긴 「모삼절목(帽蓼節目)」⁶⁴을 마련하였으나, 관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의 상소⁶⁵에 의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화성이 축성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읍의 체계에 맞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읍치 초기에는 남리(南里)와 북리(北里)의 두 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다.⁶⁶ 1796년(정조 20) 화성의 축성이 끝나고 화성의 낙성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대문의 안팎에 각각 네 성의 자내(字內)를 정하였다. 당초에 두 개로 나뉜 이름을 도성의 예에 따라 네 개로 나누어 신평교 남쪽 가장자리에서 팔달문 안의 서쪽 가장자리 및 팔달문 밖의 동서로 향교에 이르기까지를 남성자내로, 신평교에서 북으로 장안문 안의 서쪽 가장자리 및 화서문 밖에 이르기까지를 서성자내로 삼았다. 십자가의 동북 모퉁이에서 장안문 안 동쪽 가장자리 및 보습곶(浦十串)의 북에서 장안문 밖까지를 북성자내로, 십자가의 동남 모퉁이에서 팔달문 안의 동쪽 가장자리 및 개울 동쪽의 아래 위를 동성자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전후로 하여 매년 식목과 성 위의 임금기 다니는 길을 닦고 청소하는 일을 각각 그 구역의 백성의 집에서 장정한 사람씩 나와서 번갈아 사역

62 『화성성역의궤』, 실입2, 식목. 갑인년(1794)부터 정사년(1797)까지 매년 봄과 가을 도합 일곱 차례 식재하였다.

63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 6월 1일.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간의 땅을 개간한 수원 관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

64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2월 22일. 비변사가 올린 화성의 부호에 대한 「모삼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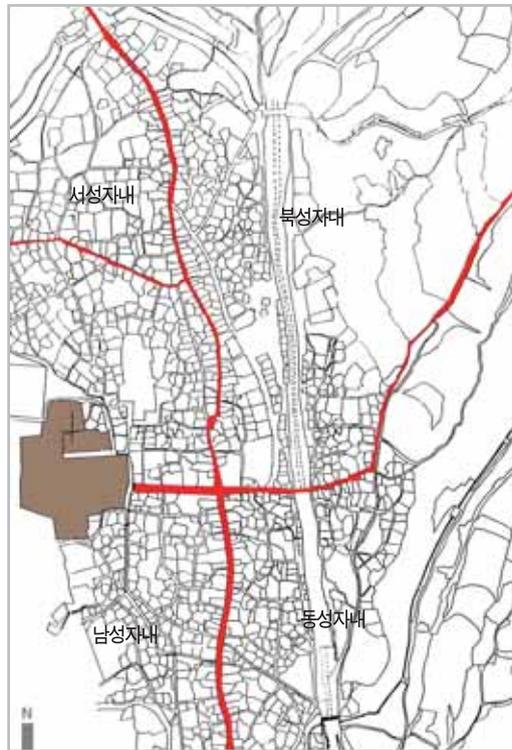
65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2월 25일. 이병모가 상차하여, 화성부 발전에 장애가 되는 6가지 절목을 아뢰다.

66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하도록 하였다.⁶⁷

신도시 화성의 가로 정비와 교통시설 설치의 경우 1795년(정조 19) 을묘원행 이전에 신작로가 조성되었고,⁶⁸ 화성의 직로(直路)⁶⁹에는 파발참이 설치되었다.⁷⁰ 화성 북쪽이 텅 비어 있어 북문 밖에 역관을 설치하였고,⁷¹ 이후 양재역(良才驛)을 영화역(迎華驛)으로 고치고 우치(郵治)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운영하였다.⁷²

화성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화성에 유수를 두고 정리사를 겸하게 하여 행궁의 수리를 위임하고 성지(城池)의 수선을 책임지게 하였다.⁷³ 화성 행궁의 보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⁷⁴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곡물 중에서 정곡(正穀) 1만 석(石)과 피곡(皮穀) 2만 석을 기준으로 하고 그곳의 토산물과 곡총(穀摠)에 따라 적당히 마련하여 ‘화성행궁정리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 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 팔로(八路)에 나누어 배치토록 비용을 마련하여,⁷⁵ 10년마다 행궁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품 가격과 수리 및 보수한 연한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였다.⁷⁶



(그림 1) 화성 시가지 가로 구성과 지역 구분(이상해, 『화성 도시 구조의 변화』,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67 『화성성역의궤』, 감결, 병진년(1796) 10월 초3일.

68 『화성성역의궤』, 실입2, 신작로(십자거리에서 동쪽으로 동장대에 이르기까지, 북으로는 장안문에 이르기까지, 장안문에서 영화정에 이르기까지).

69 장안문에서 영화정까지 이어진 신작로 주변에 파발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70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3월 29일. 화성의 직로에 파발참을 설치하다.

71 『화성성역의궤』, 연설, 병진년(1796) 8월 초1일.

72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8월 29일. 양재역을 영화역으로 고치고, 우치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다.

73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4월 15일. 비변사가 화성행궁정리수성곡의 조직 절목을 올린다.

74 『화성성역의궤』, 절목, 수성고를 설치 시행하는 절목.

75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4월 13일. 행궁을 보수하는 물력을 ‘화성행궁정리수성곡’이라 하여 마련하도록 하다.

76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4월 15일. 비변사가 화성행궁정리수성곡의 조직 절목을 올린다.

2. 가로체계의 변화

조선 후기 화성의 가로체계는 도시 조성 시기별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화성의 도로는 조성 의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첫째, 한양 이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류를 한양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도로, 둘째, 성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운반하기 위해 조성된 운반로, 셋째, 화성 경내·외의 성곽시설물과 생산시설로의 이동을 위한 도로이다.

1) 도시 입지와와의 관계성

화성은 수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요로로서,⁷⁷ 수원부의 가로(街路)는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이전하면서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789년(정조 13) 7월 팔달산 동편에 동향을 취하여 지어진 수원부 관아는 조선시대 읍성의 일반적인 형태인 북쪽에 배산을 두고⁷⁸ 관아가 읍치의 중심 후면에 위치하며 가로를 형성한 것과는 다르게, 서쪽에 배산을 두고 동향을 취하고 있다(그림 2).

이는 팔달산 동편에 공주, 나주, 전주 등지에서 수원부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오는 우로(右路)가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⁷⁹ 관도(官道 : 京來大路)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수원부 내로 관도가 지나가도록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화성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관도가 도시 내로 편입되어 유지된 이유는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은 관통형(貫通型), 접선형(接線型), 분리형(分離型)으로 구분되는데, 화성은 관통형에 해당되고 다른 지방의 읍치는 대부분이 접선형으로 나타났다(그림 3).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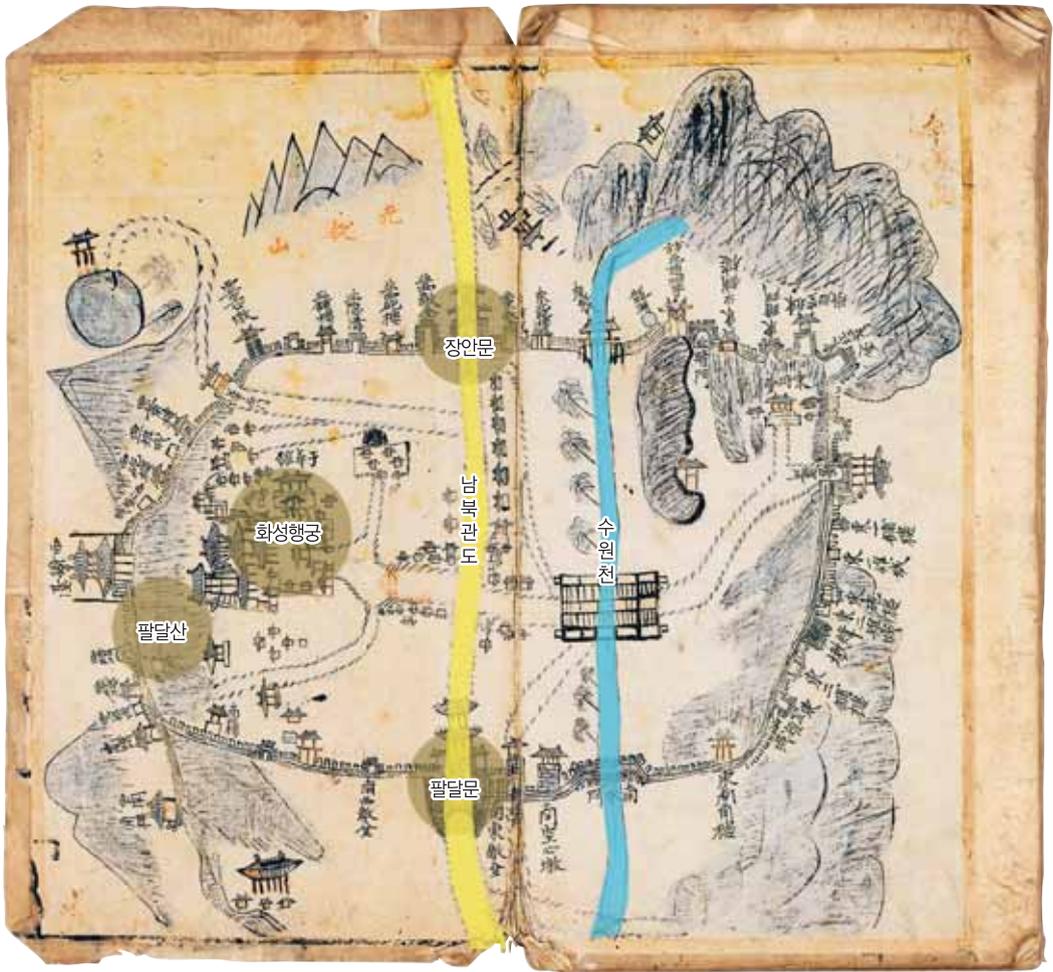
경상도 지방 읍치의 경우 관도와 읍치의 연결 유형이 대부분 접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읍치의 북쪽이 주산(主山)으로 막혀 있고, 산 밑에 조성된 관아의 향이 남향을 취하며 남쪽에 조성된 문(門)이 읍치의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어, 남문과 인접한 곳에 관도가

77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장안문 상량문;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득중정 상량문;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강무당 상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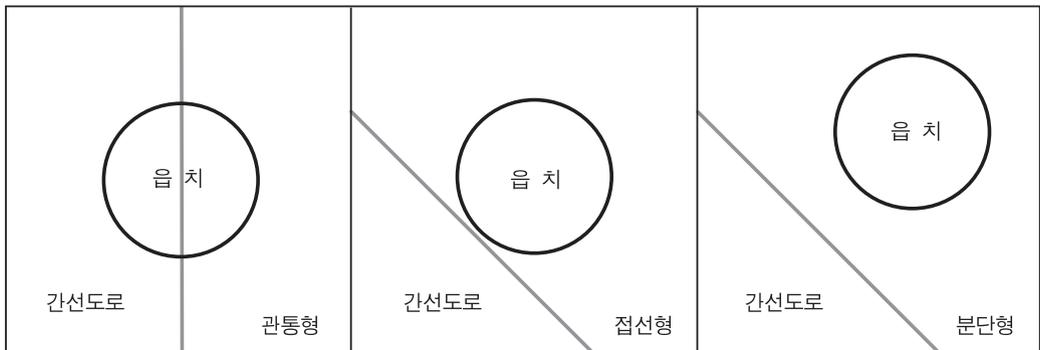
78 이상구,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94쪽. 고을(邑)의 북쪽에 진산이 위치한 것을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53%, 『여지도서』에는 49.4%가 고을의 북쪽에 진산을 두었다.

79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화양루 상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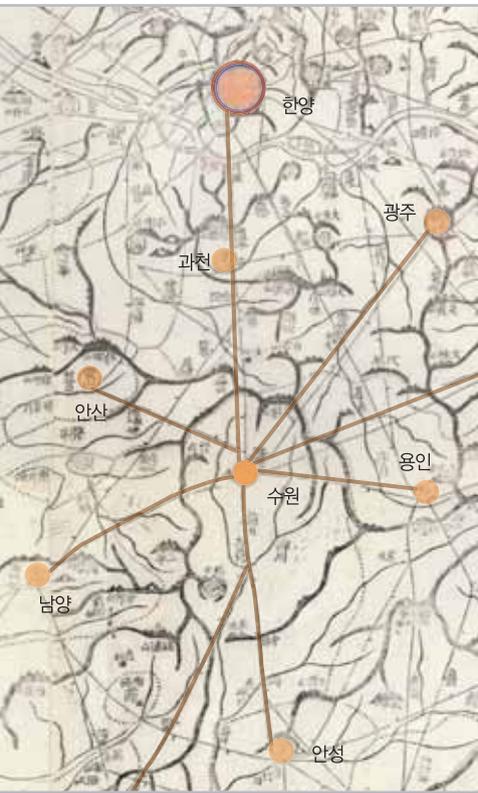
80 도도로키 히로시,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징성-경상도의 사례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3),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354~356쪽.



〈그림 2〉 「화성도」로 본 화성의 입지와 남북관도(수원박물관 소장)



〈그림 3〉 간선도로의 읍치 접근 유형(도도로키 히로시,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강성·경상도의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3), 한국지역리학회, 2005)



〈그림 4〉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주요 가로



〈그림 5〉 일제시기 지도에 나타난 주요 가로(1914년)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도에 조성된 상경대로(上京大路)의 경우 읍치가 한양에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관도의 방향이 서북 방향으로 형성되었고, 상경대로와 읍치의 주요 통행로인 남문과 연결되는 접선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⁸¹

이에 반해 화성은 풍수지리적으로 읍치의 주산이 되는 팔달산이 서편에 위치하고 관아가 동향을 취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남북 방향이 열려 있고 동서 방향이 막혀 있는 형상이다. 화성이 한양의 남쪽에 위치하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상경대로의 향도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관도가 화성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관통형으로 도시가 조성되었다(그림 4, 그림 5).

사방으로 연결된 화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십(十)자 교차로는 신읍치 조성의 중요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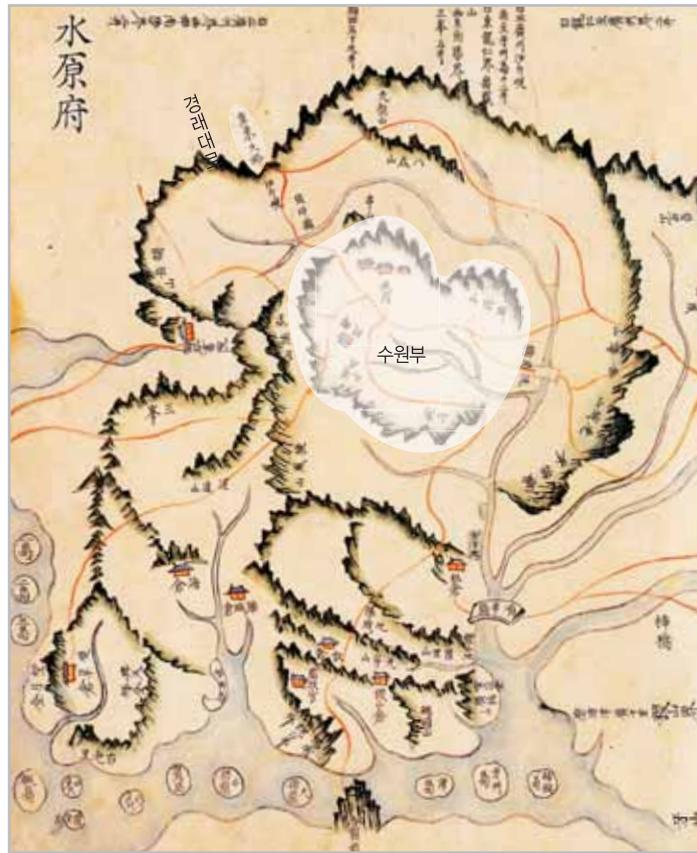
81 도도로키 히로시,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징성-경상도의 사례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3),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355쪽.

준점으로, 화성의 가로와 연결된 능행길은
 숲들과 같이 평평하고 화살과 같이 곧게
 조성되었다.⁸² 가로 주변으로 시전(市塵),
 상점가(商店街), 주거지가 조성되었고,⁸³
 1793년(정조 17) 화성 축성 계획을 수립하
 게 될 때에도 화성 축성의 중요한 기점으
 로 활용되었다.⁸⁴

팔달산 동편에 위치한 남북관도의 명칭
 은 ‘경래대로(京來大路)’로, 1700년대 제
 작된 『여지대전도』와 1735년에 제작된 『해
 동여지도』⁸⁵의 「수원부」 지도를 보면 구 수
 원부를 지나 북쪽으로 한양을 향해 조성된
 도로를 ‘경래대로’로 표기하고 있다(그림
 6).⁸⁶

1794년(정조 18) 화성이 조성되기 시작
 하면서 가장 먼저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
 작한 부대시설은 장안문, 팔달문, 화홍문
 (북수문), 남수문이다.⁸⁷ 장안문과 팔달문
 을 가장 먼저 조성한 것은 기존 읍치를 남
 북으로 관통하는 관도의 방향성을 유지하
 기 위함이다. 성곽 내부로 관도와 하천이 지나갈 수 있도록 관도와 하천 위에 문루의 위치
 를 정하여 먼저 조성하고, 관도와 하천을 성곽 조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화성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선시대 읍성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하천뿐
 만 아니라,⁸⁸ 가로가 입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 성곽 조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
 해 관도를 이용한 교통과 운송의 원활함을 추구하고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그림 6) 『해동여지도』에 나타난 경래대로와 수원부 구읍치

82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1월 26일. 수원의 경계인 사근현에서 아취움을 달래고, 노역한 백성의 세금을 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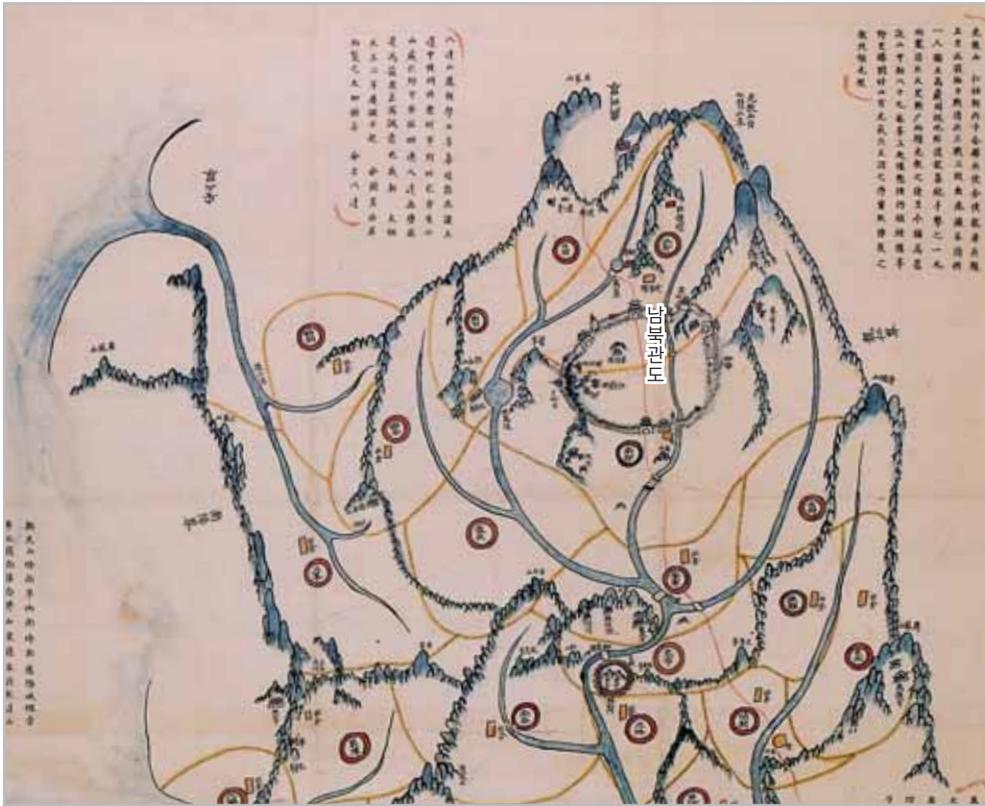
83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2월 19일. 좌의정 체제공이 수원 묘당에 관한 방안을 아뢰다.

84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3월 초10일.

8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86 이 글에서 사용된 고지도 중 수원부가 팔달산 아래로 이전된 후(1789년) 작성된 고지도에서는 ‘경래대로’의 명칭을 찾지 못
 하여, ‘남북관도’로만 표기하였다.

87 『화성성역의궤』, 시일, 가려 뽑은 날짜, 정조 18년(1794) 2월 28일.



(그림 7) 「수원부지도」에 나타난 신읍치의 남북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⁸⁹ 화성을 중심으로 서울, 광주, 용인, 안성, 남양, 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조성되었다(그림 4, 그림 5).

2) 신읍치 조성 시기의 가로 조성

화성의 신읍치 조성 시기에는 남북의 이동이 주(主)가 되는 관도가 읍치의 중심점으로,

88 조선시대 읍치와 읍성들은 주변에 산과 하천을 끼고 입지하였으며, 입지한 이후 관아가 조성되고, 관아를 기준으로 공공시설과 주거지역이 조성되면서 가로망이 형성되어(이상구,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선범, 「성곽의 도시원형적(都市原形的) 해석: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 No.2, 1999), 읍치와 읍성의 입지에서 가로의 중요성은 산과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89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5월 17일. 수원부사 조심태가 새 고을 시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정조 17년(1793) 10월 5일 장령 정의조가 수레제도의 강구를 아뢰다. 또한 화성의 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상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읍내를 지나가는 관도 주변에 기와집을 지어 도회지로서의 경관을 조성하였다. 1789~1793년에는 관도를 중심으로 행궁을 비롯한 신읍치의 관아와 공공시설, 상점가, 주거지 등이 조성되었다.

화성은 서쪽에 산을 두고 관아의 향이 동향을 취하고 있어 기존의 읍성 배치 양식⁹⁰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관아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가로와 주거배치 등의 공간 구성은 기존의 읍성 배치 양식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팔달산 아래에 수원부의 관아 건물이 이전되면서 행궁 전면에 조성된 진입로가 남북 관도와 교차하며 십(十)자 교차로를 형성하였다. ‘十’자 교차로는 화성의 가로체계 중 특징적인 형태로, 팔달산 동편에 위치한 남북관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배산임수의 풍수 지리적 입지 요건을 충족시키며 관아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와 상점가를 형성하였다.⁹¹

화성행궁 전면의 ‘十’자 교차로는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성곽의 주요 부대시설인 장안문, 팔달문, 창룡문과는 가로가 조성되어 연결되어 있지만, 화서문과는 연결되지 못하였는데, ‘十’자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진행되는 가로가 화성행궁과 팔달산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그림 8).

조선시대 읍성의 가로체계는 대부분이 삼문(三門)을 통해 이루어지는 ‘T’자형 가로의 형태로, 사대문(四大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로체계는 ‘十’자 교차로라기보다는 ‘T’자형 가로체계로 보인다.⁹² 그러나 신도시 화성에 나타난 ‘十’자 교차로는 가로의 형태적 측면으로는 십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문과 연결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T’자형 가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9).

신도시 화성에 조성된 ‘T’자형 가로⁹³에는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진입부가 포함되어 ‘十’자 교차로의 형태를 보여 주며, 양쪽에 수목이 식재되었고 수목 후면으로 주거지와 상점가가 조성되었다. 가로의 끝에 행궁이 위치하며 노단경(路端景 : terminal vista)을 형성하고, 가로의 끝에 막힌 도로(cul-de-sac)가 조성되는 등 가로에 의해 형성되는 주변 배치양식이 일반 읍성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신도시 화성의 ‘十’자 교차로에는 읍치가 이전되면서(1789), 상점가와 주거지를 교차로 주변에 조성하였다.⁹⁴ 이는 신읍치로의 인구 유입과 도회지로서의 가로 경관을 형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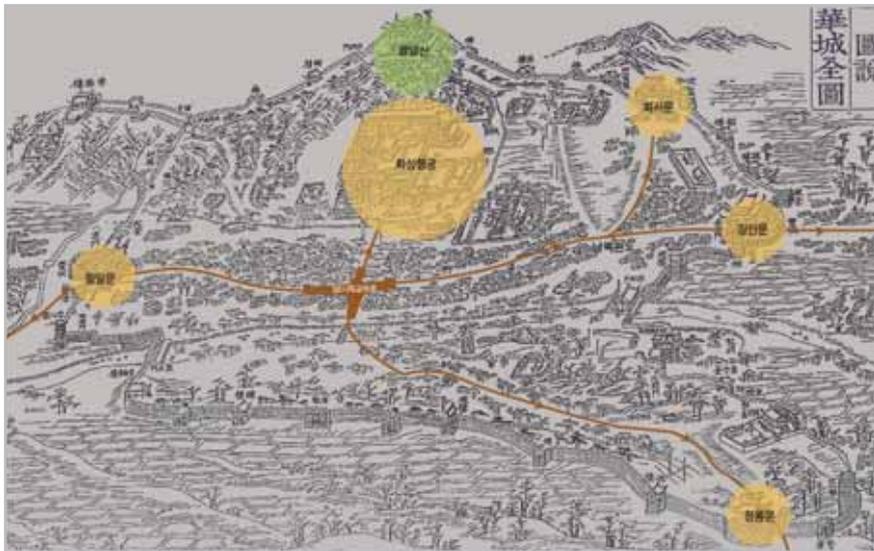
90 북쪽에 산(山)을 두고, 관아가 남향을 취하였다.

91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팔달문 상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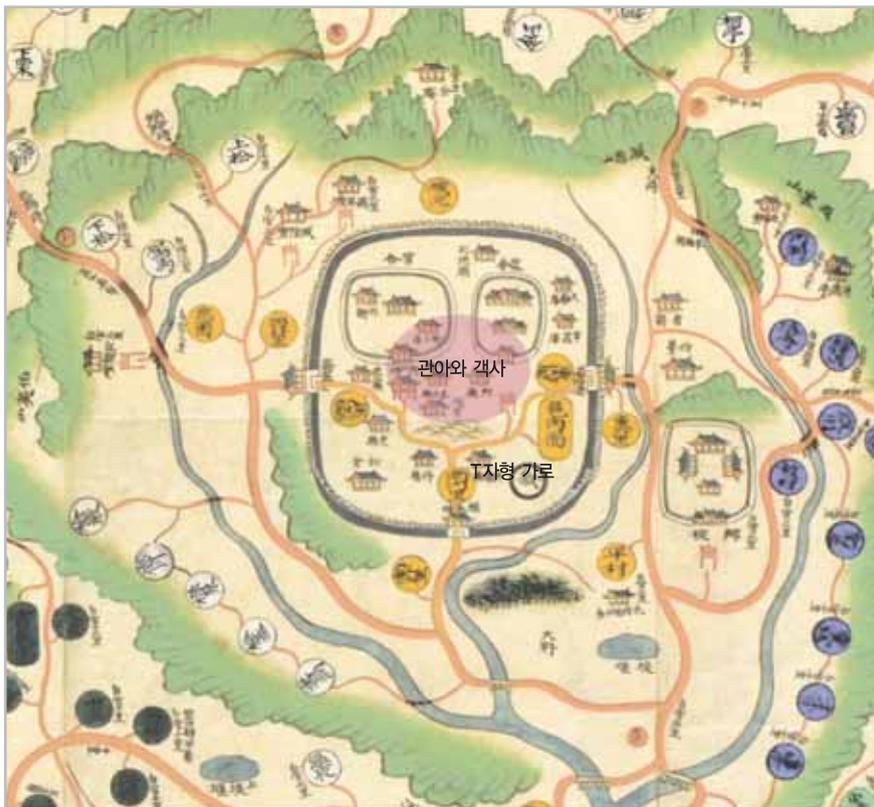
92 이상구,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29~130쪽, 남향을 하는 삼문(三門) 구조의 ‘T’자형 가로체계를 갖고 있는 읍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93 문(門)과 연결된 주요 도로만을 보면 ‘T’자형 가로로 생각된다.

94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장안문 상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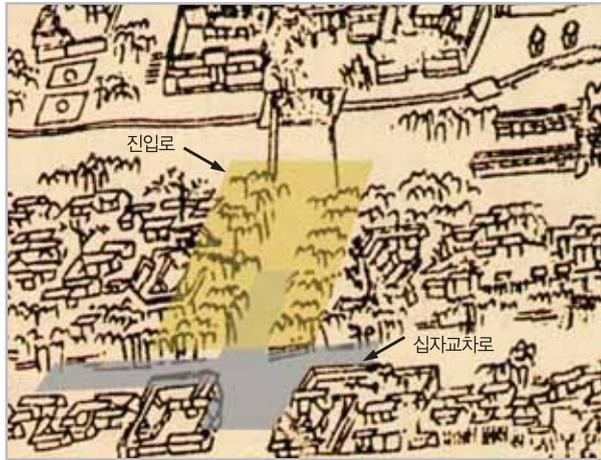
〈그림 8〉 「화성전도」에 나타난 십(十)자 교차로의 위치와 사대문



〈그림 9〉 「낙안군지도」에 나타난 T 자형 가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위하여 전방(塵房)들을 따로 짓게 하고, 조정에서 기와를 원가에 공급하여 기와집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⁹⁵

관도(大路)의 남북 쪽에 각각 기와집을 연달아 지어서 성취(成聚)의 효과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⁹⁶ 이러한 노력으로 ‘十’자 교차로 주변에 상점과 기와집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十’자 교차로 주변의 정비를 위해



〈그림 10〉 ‘十’자 교차로에서 화성행궁으로의 진입부

교차로 주변에 조성된 집들을 사들인 기록을 통해서 상점가와 기와집이 교차로 주변에 다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1, 그림 12).⁹⁷

1791년(정조 15)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원부읍지』 시전(市廛)조를 보면, 입색전, 어물전, 목포전, 상전, 미곡전, 관곽전, 지혜전, 유철전 등 여덟 종류의 상점이 신설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관도 양쪽으로 읍치가 이전된 지 1년 후부터 상점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T’자형 가로 주변에 상점가 등이 조성된 기록은 「한양도」와 「평양관부도」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한양도」에 나타난 T자형 가로 주변 상점가



〈그림 12〉 「평양관부도」에 나타난 T자형 가로 주변 상점가

95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2월 19일. 좌의정 체제궁이 수원 묘당에 관한 방안을 아뢰다.

96 『정조실록』, 정조 21년(1997) 2월 22일. 비변사가 올린 화성의 부호에 대한 모삼절목.

97 『화성성역의궤』, 실입2, 터를 사들인 집과 전담.

3) 성곽도시 조성 시기의 가로 조성

신도시 화성의 성곽도시 조성 시기에는 성곽 조성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로를 조성하였다. 정조의 정기적인 원행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가로를 조성하였으며, 가로를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하였다. 성곽 축성을 위한 재료 운반로는 1794~1796년에 성곽 조성을 위한 재료의 운반을 위해 조성하였다. 화성 축성에 필요한 석재의 운반을 위하여 채석 장소⁹⁸인 숙지산과 여기산, 권동에서 화성까지 운반로를 조성한 것이다.

화성 축성에 필요한 재료의 운반로는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부터 성이 있는 곳까지 길을 평탄하게 닦아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⁹⁹ 채석장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가깝고 길이 평탄한 곳은 운반로를 조성치 않았다.¹⁰⁰ 운반로의 중요성은 채석을 하기 전에 운반로를 먼저 닦도록 했던 점¹⁰¹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94~1796년에 성곽 조성을 위해 조성된 운반로는 ‘호매절(好梅折) 수레길’과 ‘남양 구포(鳩浦)의 수레길’이다.¹⁰² 석재 운반을 위한 호매절 수레길은 숙지산, 여기산의 돌을 채석하여 화서문을 통해 성내로 재료를 운반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도」를 보면 화서문 밖으로 통하는 가로가 서호 쪽으로 이어진 모습이 확인되고, 일제시기 제작된 지형도를 보면, 화서문 밖 숙지산과 여기산으로 이어지는 가로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길들이 호매절 수레길로 추정되며, 숙지산 남쪽으로 형성된 낮은 구릉지대는 권동으로 보인다(그림 13, 그림 14).¹⁰³

남양 구포의 수레길¹⁰⁴은 황해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성역에 필요한 목재와 철, 석회 등을 배를 통해 운반하고, 이를 구포에서 집하하여 화성의 팔달문을 통해 화성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주 왕륜와벽소(旺倫瓦壁所)의 기와 굽는 가마에서 만든 기와와 서봉산(棲鳳山)¹⁰⁵가마에서 만든 벽돌을 화성으로 운반하고, 광주 산성(남한산성)과의 통행을 위해 화성의 창룡문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운반로도 정비·수축되거나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⁶

98 『화성성역의궤』, 도설, 돌캐기.

99 『화성성역의궤』, 어제성화주략.

100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12월 13일.

101 『화성성역의궤』, 감결, 계축년(1793) 12월 22일.

102 『화성성역의궤』, 실입2, 수레길 닦음.

103 권동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화성지』에 “권동제언은 화성부 남쪽 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4 일제시기 지도를 분석한 결과, 남양으로 이어지는 길이 구포로 가는 수레길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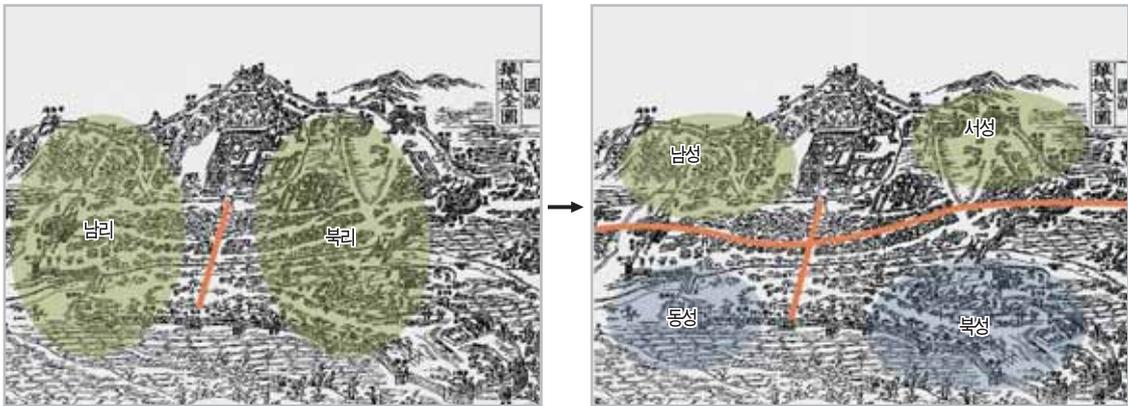
105 현재 정남면과 봉담읍에 걸쳐 있는 산으로 정조 때에는 봉수(烽燧)의 간봉(間烽)이 설치되었다.



〈그림 13〉 「화성도」에 나타난 화서문-축만제로 이어지는 가로



〈그림 14〉 화성에 조성된 석재 채취 장소와 운반로



〈그림 15〉 화성의 행정구역 변화

화성 내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데에도 남북 관도는 화성의 주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신읍치 조성 시기(1789~1795)에는 관아 전면의 길(진입부)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로 구분하였다. 성곽도시 조성 시기에는 이를 도성의 예에 따라 남부(南部)·북부(北部)로 개칭하고, 남북관도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를 각각 2개로 구분하여 4개의 자내(字內: 동성, 서성, 남성, 북성)를 조성하였다(그림 15).¹⁰⁷

신작로는 십(十)자 교차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장대까지, 북으로는 장안문까지, 장안문에서 영화정까지 조성되었다.¹⁰⁸ 1795년(정조 19)에 화성의 직로(直路)에 파발참(擺撥站)이 설치되었고,¹⁰⁹ 1796년(정조 20)에는 양재역(良才驛)을 영화역(迎華驛)으로 고치고 우치(郵治)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였다.¹¹⁰ 이는 1794년(정조 18) 4월에 시흥로의 개설이 착수되어 1795년 을묘원행(乙卯園幸) 때부터 과천로 대신 새로운 원행길로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¹¹¹ 즉 시흥로가 화성과 한양 간의 새로운 육상 교통로로 사용됨에 따라 물류의 이동과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¹¹² 영화정에서 화성행궁 전면지역 십(十)자 교차로까지의 신작로는 어가행렬이 화

106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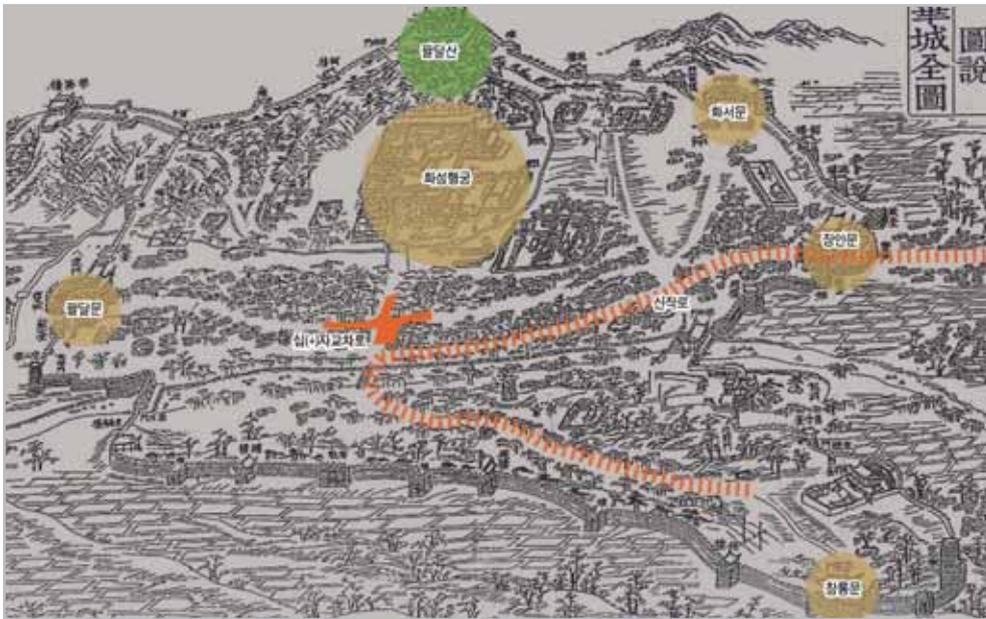
107 『화성성역의궤』, 감결, 병진년(1796) 10월 초3일.

108 『화성성역의궤』, 실입2, 신작로. 을묘원행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84쪽).

109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3월 29일, 화성의 직로에 파발참을 설치하다.

110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8월 29일, 양재역을 영화역으로 고치고, 우치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다.

111 최홍규, 『정조의 화성경영 연구』, 일지사, 2005, 55쪽. “당시 경기관찰사가 시흥로의 노정을 살펴본 결과 그 거리의 원근에서는 과천로와 비슷했으나 시흥로의 지세가 평평하고 넓어서 이 길을 개척할 것을 진언하여 왕의 계가를 받았다.”



(그림 16) 화성에 조성된 신자로

성행궁 안으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동장대에서 십(十)자 교차로까지의 신자로는 동장대에서의 군사훈련과 군사들의 이동, 광주산성(남한산성)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도의 너비는 수레 두 대 넓이로 추정되며,¹¹³ 화성 주변에 조성된 둔전에 가로가 조성되기도 하였다(그림 16).¹¹⁴

3. 녹지체계의 변화

1) 정조 대 식목관과 식목정책

정조 대 식목관(植木觀)과 식목정책, 식재방법 등을 살펴보면 화성의 녹지 조성 방향과

112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84~185쪽.

113 『화성성역의궤』, 상량문, 장안문 상량문. “아래는 십자거리를 통하게 하니, 넓어라 그 길은 두 대의 수레 지나겠구나.”라고 하여 문루 아래의 출입문의 너비가 두 대의 수레 넓이로 추정되며, 이 출입문과 연결된 관도의 넓이도 수레 두 대의 넓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4 고등빌 북쪽 지하동 입구에 쌓은 계방과 만석거 주변에 쌓은 계방, 장안문 밖 북쪽 들판(영화역 주변)에 만들어진 가로로 추정된다.

방안, 식재 수목 등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과수(果樹), 작물(作物), 화훼(花卉) 등에 관한 문헌들이 대부분으로, 산림정책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산림정책에 관한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와 형전(刑典)의 금제조(禁制條), 『속대전(續大典)』의 예전 잡령조(雜令條)와 형전 금제조, 그리고 『대전통편(大典通編)』의 형전 금제조와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목의 식재나 보호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¹¹⁵

조선시대 산림정책은 대부분 송금(松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소나무가 세곡(稅穀) 운반을 위한 수송선의 건조, 궁실의 건축 용재로서 효용이 높아 송금정책으로 국가가 소나무의 남벌(濫伐)을 금(禁)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었다.¹¹⁶ 송금제도는 소나무의 남벌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424년(세종 6) 「송목양성병선수호조례(松木養成兵船守護條例)」라는 법이 생겼고, 1441년(세종 23)에는 「송목금벌지법(松木禁伐之法)」이 시행되었으며, 1461년(세조 7)에는 금송(禁松)에 대한 상벌제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¹¹⁷

정조 대에 식목과 관련된 정책은 1782년(정조 6) 『식목실총(植木實總)』(일명 『식목절목(植木節目)』)과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1788년(정조 12)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 등에 나타난다.

〈표 1〉 정조 대에 편찬된 식목정책 문헌¹¹⁸

연도	도서명	내용
1782년 (정조 6)	『식목실총 (植木實總)』	- 장헌세자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 내외의 식목과 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궁 안팎에 식재해야 할 수목을 선정함. - 소나무, 삼나무, 단풍나무, 녹(檜)나무, 매화나무, 은행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등 각종의 나무와 꽃, 풀 등을 봄, 가을로 식재함.
1785년 (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	- 산림 제도에 관한 규정이 종합적으로 첨부되고 세부화됨. - 매년 2월과 10월 춘·동기(春·冬期)에 사산의 분담민(分擔民)으로 하여금 소나무와 잡목을 식수케 함. - 도성 내외 산에는 표목을 세워 부근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수목의 벌채와 석재의 채취를 금하게 하였으며 감역과 산직을 정하여 이를 간수케 함.

115 이선·김영모, 「조선시대 능역 공간의 식재 및 관리 사실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한국정원학회, 2004, 91쪽.

116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88쪽.

117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89~290쪽.

연도	도서명	내용
1788년 (정조 12)	『제도송금사목 (諸道松禁事目)』	- 소나무의 보호, 육성 문제를 송정(松政)의 차원에서 다룸. - 산림위법자와 식목에 공이 큰 자를 처벌, 논상하기 위한 규정임. - 1744년(영조 20) 산림 규정집인 『갑자절목(甲子節目)』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경국대전』에서 『대전통편』에 이르는 재식 규정은 대체로 울나무, 뽕나무, 과목, 닥나무, 왕골, 전죽(箭竹), 오동나무, 소나무, 잡목 등 궁궐과 민간에서 목재로 사용되는 수목의 식재를 권장하였다.¹¹⁹ 정조 대의 식목정책들은 식목을 하는 데 공이 있는 민인이나 지방관에게 합당한 상전(賞典)을 내리는 등 자발적인 식수조림(植樹稠林)을 권장하도록 작성되었다.¹²⁰

정조 대의 식목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1766년(영조 42) 유중림이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만든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 집터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 수록된 식목방법은 식재하려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식재방향과 위치별로 식목에 따른 영향과 의미를 설명하였다. 수종과 방향성, 식목

〈표 2〉 『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수목 식재방법¹²¹

수종	식재 방향	내용
대추나무(棗)	서쪽	소[牛]에 좋다.
	서남쪽	서쪽에 한 주(株) 식재하고 서남쪽 모퉁이에 한 주(株) 더 식재하면 좋다.
	남쪽	식재하면 좋다.
	오방(五方)	식재하면 주인에게 구설이 있다.
	문 앞뜰	대추나무를 두 주(株) 식재하면 길하다.
버드나무(柳)	동쪽	소[牛]와 말[馬]에 유익하다.
	묘방(卯方)	육축(六畜)이 흥한다.
	문(門)	문에 드리워지는 것을 꺼린다.
	유방(酉方)	버드나무와 느티나무 3그루가 있으면 좋은 말이 생긴다.
느릅나무(榆)	서쪽	버드나무 심는 것을 꺼린다.
	미방(未方)	식재하는 것이 좋다.
	집 뒤	귀신이 감히 넘어오지 않는다.
	서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118 표의 내용은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85~288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119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85쪽

120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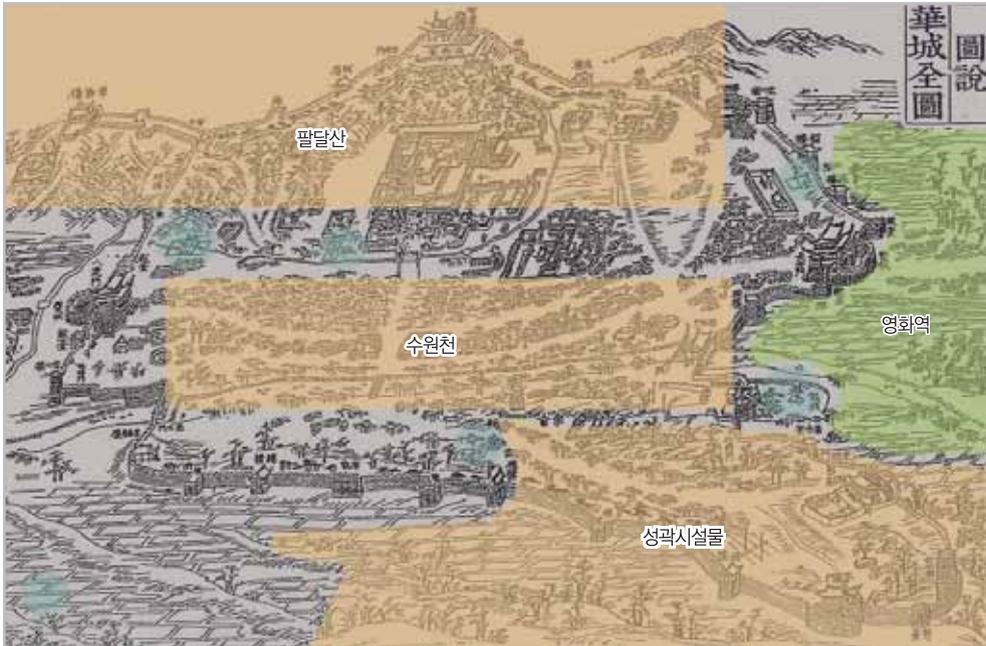
121 『증보산림경제』, 복거편, 식목(농업진흥청, 『증보산림경제』 I, 2003, 62-63쪽의 내용을 재구성).

수종	식재 방향	내용
복숭아나무[桃]	우물 옆	식재하는 것을 꺼린다.
	남쪽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12그루를 남쪽 땅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동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서쪽	심는 것을 꺼린다.
	서남쪽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심는 것을 꺼린다.
자두나무[李]	동쪽 동산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동쪽 동산을 꺼린다.
	동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서쪽, 남쪽, 북쪽	심는 것을 꺼린다.
살구나무[杏]	남쪽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12그루를 남쪽 땅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진방(辰方)	심는 것을 크게 꺼린다.
오동나무[栲]	북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술방(戌方), 해방(亥方)	3그루를 심으면 노비가 많아진다.
꽃나무[漆]	뜰 앞	심는 것을 꺼린다.
	진방(辰方)	식재하는 것이 좋다.
회화나무[槐]	중문	3대가 부귀한다.
	집 앞	크게 길하다.
	신방(申方)	도둑을 피하므로 길하다.
능금나무[槲]	북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뽕나무[桑]	진방(辰方)	식재하는 것이 좋다.
	집 안	심는 것을 꺼린다.
	도랑 사이	심는 것을 꺼린다.
꾸지뽕나무 [楮 : 산뽕나무]	서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매화나무[梅]	남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무궁화나무[斤]	집 안	심는 것을 꺼린다.
석류(石榴)	뜰 앞	식재하면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또 후손이 많아서 크게 길하다.
개암나무[榛]	북쪽	식재하는 것이 좋다.

의 의미 등이 연결된 조선시대의 식목방법은 화성에서 행해진 식목 행위와 녹지 조성 과정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¹²²

18세기 실학사상은 조선시대 농업 생산체제를 식량 공급을 위한 기존의 농업 생산체제에서 생산물 판매를 위해 경작을 하는 상공업 형태의 생산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소출(所出)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고안되고 경작 작물을 선별하였는데, 수원 화성에

122 김영모, 이선 · 진상철 · 장종수, 「화성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46~47쪽에서는 『정조실록』, 『현릉원등록』, 『화성성역의궤』, 『수원하지초록』, 『식목실총』 등 정조 연간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화성 조성 시 식재되었던 수목들을 파악하였다.



〈그림 17〉 화성에 조성된 녹지의 구분 동그라미는 수리시설이다.

〈표 3〉 정조 연간 화성에 식재된 수목

종류	수종
상록침엽수	소나무, 잣나무(삼나무), 잣나무
낙엽활엽수	참나무류(상수리나무), 단풍나무(신나무), 가래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
상록활엽수	녹나무, 회양목
과수(果樹)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귤, 석류, 구기자, 복숭아
화목(花木)	매화, 진달래, 모란
초화류(草花類)	국화, 연꽃

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 주변으로 관개시설을 조성하고 토지를 개간 하였다. 또한 양잠사업을 위해 다수의 뽕나무를 주변 농지에 정책적으로 식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업 생산체제의 변화는 당시의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화성 주변에 숲이 조성되고 도시 곳곳에 다양한 식목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은 화성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계획된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정조와 동시대인들이

지향하던 도시계획의 기본 목표¹²³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성에 조성된 녹지는 크게 성곽 내·외부로 구분되며, 성곽 내부의 녹지는 팔달산, 수원천, 성곽시설물 주변에 조성되었고 성곽 외부의 녹지는 영화역과 만석거 주변, 동문(창룡문) 주변에 조성되었다(그림 17).

2) 『화성성역의궤』 분석을 통한 녹지체계 파악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 어제 등의 시문에 나타난 농업 진흥책과 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화성에 시행된 식목활동과 녹지체계 조성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 성곽 내부 식재 수목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과 문헌에서는 화성의 주변경관을 대상으로 특정 장소에 심겨진 수목을 이야기하거나 보이는 경관의 모습을 설명하여, 화성에 식재된 수목의 종류와 수를 살펴볼 수 있다. 식재 위치에 따라 팔달산, 수원천, 성곽시설물 주변¹²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에 나타난 시문 분석을 통해 파악된 팔달산 주변의 수목 현황은 <표 4>와 같다.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 시문 분석을 통해 파악된 팔달산 주변에 식재된 수목들은 소나무[松], 뽕나무[桑], 측백나무[柏], 느릅나무[榆], 삼나무[杉], 오동나무[栲], 가래나무[楸], 버드나무[柳], 연[荷], 대나무[竹], 꽃[華], 붉은 천개의 열매[紅千顆] 등이다. 또한 수원추팔경 중 ‘한정품국(間亭品菊)’이라 하여 미로한정 주변에 국화[菊]가 식재되었고, 화성 조성 당시에 팔달산에는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에 나타난 ‘삼(杉)’은 현재 낙우송과의 삼나무(학명 : *Cryptomeria japonica* (L. fil.) D. Don, 한명 : 日本柳杉, 孔雀松)로 해석되고 있으나, 삼나무의 도입 시기는 일제시기 이후이고, 내한성이 약해 남부 지방에만 식재되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조선 후기(1800년대) 중부 지방에 위치한 화성에 삼나무가 식

123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81~282쪽.

124 성곽시설물 주변은 화성의 주요 문투와 성곽 부속시설물들을 말하며, 주요 지점으로 선정된 시설물들은 식재된 수종의 위치와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25 경기문화재단의 『화성성역의궤』 국역본(2005)에서는 ‘송백(松柏)’을 소나무와 잣나무로 국역하였으나, 이선과 김영모(『조선시대 능역 공간의 식재 및 관리 사실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한국정원학회, 2004, 91쪽)의 연구에서는 ‘백(栢)’이 측백나무인데 잣나무로 잘못 쓰이고 있다 하여, 이 글에서는 ‘송백(松柏)’의 ‘백(栢)’을 모두 측백나무로 보았다.

〈표 4〉 팔달산 주변에 식재된 수목

연도	구분	내용	수종
1794년(정조 18) 8월 15일	장안문 상량문	높은 산에 소나무·측백나무[松柏] ²⁵ 가 뽕뽕이 들어섰으니 ……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1795년(정조 19) 9월 하순	화서문 상량문	이에 공경스럽게 고향의 마을에 나아가 그대로 무성한 느릅나무[粉榆]의 토지신을 모시네, …… 산은 기산(岐山)의 오동나무[楡]와 접하여 봉황이 깃드는데, …… 높은 산의 소나무[松]와 삼나무[杉]는 길이 만세의 비와 이슬을 띠고 ……	느릅나무[粉榆] 오동나무[楡] 소나무[松] 삼나무[杉]
1796년(정조 20) 7월 24일	성신사 상량문	비가 듬뿍 내려 뽕나무[桑], 가래나무[梓] 적셔 주니 ……	뽕나무[桑] 가래나무[梓]
1796년 11월	화홍문 상량문	팔달산에서 떡갈나무[柞], 상수리나무[槭] 뽑아내니 하늘의 마음을 볼 수 있구나.	떡갈나무[柞] 상수리나무[槭]
1796년 11월	각건대 상량문	높은 산의 소나무·측백나무[松柏] 바라보니, …… 옛 사당의 느릅나무[粉榆]가 엄연하니, ……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느릅나무[粉榆]
1796년 11월	경통관 상량문	오동나무[楡]의 구름은 청묘의 모습처럼 신비롭고, ……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소나무·측백나무[松柏]는 높은 산의 푸름을 머금으니 ……	오동나무[楡]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1796년 11월	낙남헌 상량문	정원의 반을 차지한 연꽃[荷] 향기요, …… 임금님의 기운은 소나무·측백나무[松柏]를 잡아 오르니, ……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 붉은 천 개의 열매[紅千顆] 드러나니 가지 낮게 눌렀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가까이 보이는 정자각에 소나무[松] 삼나무[杉] 둘렀는데 ……	연[荷]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붉은 천개의 열매 [紅千顆]삼나무[杉]
1796년 12월	영화관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산에 가득한 소나무·측백나무[松柏]에 흰 구름이 어렸는데 ……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1796년 11월	봉수당 상량문	이중 옹마루와 겹겹 창문에는 다만 소나무[松]는 무성하고, 대나무[竹]는 우거지리 ……	소나무[松] 대나무[竹]
1796년 11월	노래당 상량문	붉은 정자의 버드나무[柳]와 푸른 못 연꽃[荷]의 좌우에는 화려한 꽃[華]들이 마음에도 없이 환하게 피었고, …… 주렴을 걷고 멀리 꽃핀 신[花嶽] 바라보니 ……	버드나무[柳] 연[荷] 꽃[華]
1796년 11월	신풍루 상량문	시골의 푸른 느릅나무[榆] 마을에 , ……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높은 누각은 들쭉날쭉한데 흰 성가귀는 가지런하니 마을 안에 궁궐터가 어느 곳에 있다더냐. 두 줄의 느릅나무[榆], 버드나무[柳]에 오색구름 깔려 있네.	느릅나무[榆] 버드나무[柳]
1796년 11월	영화정 상량문	성 가운데의 누에치는 장막은 뽕나무[桑] 그늘을 가리고 ……	뽕나무[桑]
1796년 11월	장락당 상량문	임금의 거처는 대나무[竹]처럼 뽕뽕하고 소나무[松]처럼 무성하네, …… 아른아른 어버이 모습 보이는 듯 고향의 뽕나무[桑], 가래나무[梓] 공경하네.	대나무[竹] 소나무[松] 뽕나무[桑] 가래나무[梓]

재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아, ‘삼(杉)’을 삼나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²⁶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에 나타난 수원천 주변의 식재 현황¹²⁷은 <표 5>와 같다.

<표 5> 수원천 주변에 식재된 수목

연도	구분	내용	수종
1794년(정조 18) 8월 15일	장안문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¹²⁸ …… 버드나무[柳] 넷가 일대는 봄을 그려놓은 것 같고 ……	버드나무[柳]
1794년 8월 25일	팔달문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버드[柳] 넷가 봄물은 쪽빛처럼 푸르는데 ……	버드나무[柳]
1794년 9월 16일	서장대 상량문	버드[柳] 내는 맑고 맑아 세류영의 제도를 둔 것 같구나.	버드나무[柳]
1795년(정조 19) 8월 초10일	동장대 상량문	드디어 흰 سنگ귀는 양쪽 버드[柳] 넷가에 벌려 섰고 ……	버드나무[柳]
1796년(정조 20년) 11월	화양루 상량문	버드[柳] 넷가 들빛이 끝없이 펼쳐지니, …… 맑은 내는 역력히 서울 가는 길이니 버들[楊柳]과 봄 깃발이 모두 한 색이로구나.	버드나무[柳]
1796년 11월	각간대 상량문	활짝 트이고 평평하게 펼쳐진 곳은 버드[柳] 내의 아홉 굽이 …… 봄 성은 흙사 신평의 길과 같으니 닭소리 개소리 들리는 천 집에 푸른 버들[翠柳] 깔려 있네.	버드나무[柳] 푸른 버들[翠柳]
1796년 11월	경동관 상량문	거리는 해나무[槐] 선 시장에서 버드나무[柳] 선 방죽으로 나누었구나, …… 붉은 느릅나무[榆]와 버드나무[柳]에 떠서 서로 푸르르고, …… 만안고 밑으로 샘물이 흘러가고 멀리 버드나무[柳] 넷가를 향하여 햇빛이 쏟아지네.	해나무 [槐, 회화나무] 느릅나무[榆] 버드나무[柳]
1796년 11월	노래당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한 가닥 시냇길은 뚜렷한데 온갖 버들[柳] 늘어져서 ……	버드나무[柳]
1796년 11월	강무당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 만 그루 실버들이[新柳] 길게도 늘어졌구나.	버드나무[新柳]
1796년 11월	방화 수류정 상량문	천 줄기의 수양버들[楊柳, 嫩柳] 같은 긴 시내는, …… 붉은 꽃 푸른 나무[花木]까지도 영광을 머금은 듯하구나, …… 어린 버들[嫩柳]과 작고 고운 복숭아[天桃]는 모두 신령스런 봄의 나무가 되고 ……	버드나무 [楊柳, 嫩柳] 붉은 꽃, 푸른 나무[花木] 복숭아나무[天桃]
1797년(정조 21) 정월 행차 때	어제 ¹²⁹	만 그루 버드나무 그림자 속에 화살은 꽃과 같네.	버드나무

126 이 글에서는 ‘삼(杉)’ 자가 말하는 수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 경기문화재단(2005)의 국역 내용을 준용하여, ‘삼(杉)’을 삼나무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힌다.

127 수원천 주변은 수원팔경 중 ‘남제장류(南堤長柳)’라 하여 제방 위에 버드나무 늘어선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여, 대천 양측 면에 버드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상량문, 어제 등 시문에서도 대천 주변에 버드나무가 식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8 『화성성역의궤』, 의주, 상량문.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 시문 등에 나타난 수원천 주변에 식재된 수목들은, 예로부터 수원천 주변에 자생하던 버드나무[柳, 新柳, 嫩柳, 楊柳, 翠柳]를 비롯해 느릅나무[榆], 복숭아나무[天桃], 화나무[槐 : 회화나무], 붉은 꽃 푸른 나무[花木] 등이다. 수원천 주변에 자생하던 버드나무와 매향교 다리 주변에 식재된 매화나무에 관한 내용은 화성춘광경 중 ‘남제장류(南堤長柳)와 ‘오교심화(午橋尋花)’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수원천 주변에 자생하던 ‘유(柳)와 ‘양류(楊柳) 또는 ‘양(楊)의 수목을 모두 ‘버드나무과’의 ‘버드나무(학명 : *Salix koreensis Anderss*, 한명 : 淸明柳, 朝鮮柳)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유(柳)와 ‘양(楊)자는 식물학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근대 이전의 문헌들에서는 식물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버드나무과의 수목들을 수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에 식재된 다양한 종류의 버드나무 수종을 ‘버드나무’로 표기

〈표 6〉 성곽시설물 주변에 식재된 수목

시설물	연도	구분	내용	수종
동장대	1794년(정조 18) 9월 16일	서장대 상량문	아득히 저 멀리 버들(楊) 언덕에 말 가고 소 오는 게 역력히 보이누나. 병사들이 머무는 주둔지가 푸른 나무(樾葱菑) 그늘에 있는데 ……	버드나무(楊) 푸른 나무(樾葱菑)
	1795년(정조 19) 8월 초10일	동장대 상량문	뽕나무(桑) 뿌리 캐다가 비 오는 때 대비하라고, …… 만 그루 복숭아나무(桃), 오얏나무(李) 지름길을 이룬데다 이미 대를 세우고 연못을 파며 ……	뽕나무(桑) 복숭아나무(桃) 오얏나무(李)
	1796년(정조 20) 11월	각건대 상량문	활짝 트이고 평평하게 펼쳐진 곳은 버드내의 아홉 굽이 뽕나무(桑)와 삼(麻)이로다.	뽕나무(桑) 삼(麻)
	1796년 11월	경룡관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아래의 뽕나무(桑) 삼나무(麻)는 낮에도 그들이 되어 들판에 가득하며 ……	뽕나무(桑) 삼(麻)
	1797년(정조 21) 8월 행차 때	어제 ¹²⁹⁾	들 앞의 소나무(松)는 지지대와 함께 길게 뻗으니 ……	소나무(松)
창룡문	1796년 10월	창룡문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 멀리 둘러 있는 고운 빛 영화역을 맞이하고 만발한 꽃그늘(花陰)에 푸른 말발굽 흠이지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발두독에 부드러운 뽕나무(桑) 날리니 양잠이 가깝고 ……	꽃[花] 뽕나무(桑)
	1796년 11월	노래당 상량문	동문의 가래나무(檉)가 은은하니 ……	가래나무(檉)

129 『화성성역의궤』, 어제. 성을 순시하다가 방화수류정에 이르러서 활을 쏘아 맞춰 무예를 높이는 뜻을 보였다. 나는 세 번 맞혔고 내사와 외사도 그와 같이 하였다. 세 번째 글귀는 주례의 육사 전주를 인용하여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이하는 정사년(1797) 정월의 행차 때).

하였으나,¹³⁰ 화성에서는 버드나무, 능수버들, 수양버들, 왕버들, 사시나무 등의 수목들이 식재 위치와 토양조건 등에 따라 구분되어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에 나타난 성곽시설물 주변의 식재 현황은 <표 6>과 같다.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 시문 등에 나타난 성곽시설물 주변에 식재된 수목들은 버드나무[楊], 뽕나무[桑], 복숭아나무[桃], 가래나무[梓], 소나무[松], 오얏나무[李], 삼[麻], 푸른 나무[槲葱] 등이다. 또한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물에서도 수목이 식재된 기록이 나타났는데, 성곽 내외로 조성된 수리시설인 은구(隱溝)와 지(池), 용연(龍淵) 등¹³²의 수정시설물 주변에 수목과 화초가 식재되었다.

수리시설물 주변에 식재된 수목은 2개의 남지(南池) 중 남창(南倉)의 남쪽에 있는 상지(上池)에 홍련과 백련이 식재되었고, 2개의 동지(東池) 중 매향동 어귀에 있는 상지에 기하(菱荷 : 마름)¹³³가 심어졌다. 「은구도(隱溝圖)」에 그려진 수목은 소나무와 버드나무 등으로 추정되며, 북지(北池)에는 연꽃이 식재되었는데, 이는 수원팔경 중 ‘북지상련(北池賞蓮)’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언(堤堰)인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에도 연꽃을 비롯한 각종 수생식물을 심는 등 정조는 화성의 조경에 힘을 기울였다.

(2) 성곽 외부 식재 수목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화성의 농업진흥책과 도시계획방안 등을 통해 화성에 식재된 수목들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곽 외부에 식재된 수목들 중 영화역과 만석거 주변에 시행된 식목 행위들은 자급자족하는 도시로서 화성이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들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에 나타난 영화역 주변¹³⁴ 식재 현황은 <표 7>과 같다. 상량문과 시문 등에 나타난 영화역 주변에 식재된 수목들은 뽕나무[桑], 버드나무[柳, 楊柳], 느릅나무[榆], 소나무[松], 삼[麻] 등이다. 신도시 화성 주변 토양은 매우 척박하고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나무 심는 일을 농사정책의 한 가지

130 박상진, 『궁궐의 우리나라』, 놀라, 2002, 41~42쪽, 332~333쪽. ‘유(柳)와 양류(楊柳) 또는 양(楊)에 대한 수종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는데,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양(楊)은 ‘버들 양(楊)으로 혼을 달고 모양을 양기자(楊起者)라고 하였고, 유(柳)는 ‘버들 류(柳)로 혼을 달고 하수자(下垂者)라고 구분하였으나, 일부 고문헌들에서는 버드나무, 능수버들, 수양버들, 왕버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시나무 종류까지 포함하여 양류(楊柳)라고 표기하고도 있어, ‘유(柳)와 양류(楊柳) 또는 양(楊)의 수종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131 『화성성역의궤』, 어제. 좌의정의 ‘동장대에서 한가위 달을 구경하다’의 운에 화답함.

132 『화성성역의궤』, 도설, 터뒹기.

133 마름과 연, 기하의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은인(隱人)이 입었다고 한다.

134 영화역 주변은 영화역과 관갈야, 한양과 화성 간에 조성된 남북 관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표 7〉 영화역 주변에 식재된 수목

연도	구분	내용	수종
1795년(정조 19) 8월 초10일	동장대 상량문	뽕나무[桑] 뿌리 캐다가 비 오는 때 대비하라고 시경에서 이르지 않았 던가.	뽕나무[桑]
1796년(정조 20) 11월	각건대 상량문	활짝 트이고 평평하게 펼쳐진 곳은 버드내의 아홉 굽이 뽕나무[桑]와 삼[麻]이로다, ……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낙양의 성궐에서 대궐을 바라보고 부슬부슬 가랑비에 버드나무[柳], 느릅나무[榆] 그늘지 고 ……	뽕나무[桑] 삼[麻] 버드나무[柳] 느릅나무[榆]
1796년 11월	경룡관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아래의 뽕나무[桑], 삼나무[麻]는 낮에 도 그늘이 되어 들판에 가득하며…	뽕나무[桑] 삼[麻]
1796년 11월	영화정 상량문	버드나무[楊柳] 늘어진 관도를 달리는구나.	버드나무[楊柳]
1796년 11월	방화 수류정 상량문	대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푸른 나무[綠樹] 가운데에 넓은 길이 곧고 ……	푸른 나무[綠樹]
1796년 12월	영화관 상량문	버드나무[柳] 밖에 끌어다논 준마들이 늘어서 있네, …… 어여차 대들 보를 아래로 던져라. 봄비 오는 뽕나무[桑] 그늘에 녹음이 들에 가득한 데 ……	버드나무[柳] 뽕나무[桑]
1797년(정조 21) 8월 행차 때	어저 ¹³⁵	뜰 앞의 소나무[松]는 지지대와 함께 길게 뻗으니 ……	소나무[松]
1794년(정조 18) 10월 19일	연설	백성에게 곡식을 뿌리고 뽕나무[桑]를 심을 것을 권하여 의식을 아울러 마련하게 한다면 ……	뽕나무[桑]

로 보아 누에치기를 위해 수만 그루의 뽕나무를 파종하여,¹³⁶ 행궁 근방과 성 밖 밭두둑에 옮겨 심으려 하였다. 특히 수원부 언저리에 위치한 각 집에는 장정들로 하여금 각자가 뽕나무를 심게 하여 불모지를 면하게 하였고,¹³⁷ 우하영이 올린 상소에서는 화성에 1년에 1만 그루의 뽕나무를 심고자 하였다.¹³⁸

성곽 주변에 관개시설을 조성하고 땅을 개간하면서 저수지 주변에 생겨난 도랑과 제방의 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겨울 초에 소나무와 오얏나무, 여러 가지 화초들을 식재하였다.¹³⁹ 화성을 관류하는 수원천의 성곽 밖 진입구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과

135 『화성성역의궤』, 어제. 좌의정의 「동장대에서 한가위 달을 구경하다」의 운에 화답하였다.

136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8월 초1일 연설. 영화역 주변에 뽕나무를 파종하고 대량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 연설, 병진년(1796) 8월 초1일. 수원 춘관경 중 ‘길야관상(吉野觀桑)’이라 하여 관감야에 뽕나무가 다수 식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7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병진년(1796) 봄에 뽕나무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138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4월 25일. 우하영이 올린 13조목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리다.

139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거 명사들의 큰 계획을 참고해 보면 평양(平壤)의 성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길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역시 거대한 숲을 설치하였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뽕나무·개암나무·밤나무 등 아무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처해야 할 일이다.”¹⁴⁰ 라고 하여,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 등을 계속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에 나타난 만석거 주변 식재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만석거 주변에 식재된 수목

연도	구분	내용	수종
1796년(정조 20) 11월	영화정 상량문	그 마을은 마름이나 연꽃[菱荷]이 피어 있는 장안문 북쪽으로 3리쯤 떨어진 곳이요, …… 가는 말 오는 소도 부질없이 물풀[水草]이 열리지 않음을 보는데, …… 연꽃[荷] 향기와 계수나무[桂] 열매는 이미 여러 꽃들을 향하여 옷깃을 해쳤고, …… 소나무·측백나무[松柏] 우거지고 푸른 것을 보니, ……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 달은 앞배 뒷배 비치어서 연꽃[芙蓉]이 만 송이 천 송이라.	마름·연꽃[菱荷] 물풀[水草] 연꽃[荷, 芙蓉] 계수나무[桂] 소나무·측백나무[松柏]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 시문에 나타난 만석거 주변에 식재된 수목들은 계수나무[桂], 소나무·측백나무[松柏], 마름·연꽃[菱荷], 연꽃[荷, 芙蓉], 물풀[水草] 등이며, 만석거 제방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식재하고, 연못에는 연꽃과 물고기를 길렀다.¹⁴¹

3) 화성의 녹지체계

화성이 위치한 팔달산 주변은 평지가 대부분으로 논밭 같은 생산시설의 조성이 유리한 지형적 이점이 있으나, 토양이 척박하고 용수의 공급이 수원천 주변으로 한정되어, 관개 시설의 확보와 개간의 필요성이 높았다. 신읍치 조성 시기에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교통과 운송의 이점을 살린 상업적인 도시 부흥 방안을 수립하였다면, 성곽도시 조성 시기에

140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 6월 1일.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간의 땅을 개간한 수원 관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

141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만석거는 정조 19년(1795) 5월 18일에 완성되었다.

는 자급자족 도시로서 식량을 확보하고 상업의 활성화와 부의 축적을 위해 양잠사업을 시도하고자 이를 위한 식목사업을 진행하였다.

화성에서 시행된 식목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양잠사업을 하기 위해 뽕나무[桑]와 삼[麻]을 식재하는 식목사업이다. 둘째는 평지로 이루어진 도시 주변의 경관 개선과 각종 도구 제작을 위한 재료, 토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식목사업이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와 백성에게 일용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였고, 화성과 주변에 조성된 주거지역에도 집집마다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여 식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⁴² 또한 성곽의 조성과 보수, 관리 등의 작업에 사용될 장비들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인 소나무[松], 상수리나무[橡], 생참나무[生橡]들을 화성 내외에 식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⁴³

『화성성역의궤』의 상량문과 어제 등 시문과 화성에서 이루어진 각종 농업진흥책과 도시계획 방안들을 분석한 결과 약 25종의 수목들이 화성에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느릅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소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었으며, 밭에는 삼[麻], 제언과 지당(池塘)에는 연꽃과 수생식물이 식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성 조성이 시작된 이후 7차례에 걸쳐 화성 경내·외에 식재된 9종 이상의 수목¹⁴⁴들은 상량문과 시문 등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식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단풍나무, 탕자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살구나무, 각종 과일나무 등은 제외).¹⁴⁵ 살구나무와 각종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증보산림경제』에 나타난 수목의 식재 방향으로 위치를 추정하여 보았는데, 살구나무는 북쪽에, 각종 과일나무 등은 동쪽이나 남쪽에 식재되었을 것이다.¹⁴⁶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수종들을 살펴보면, 『식목실총』에 선정된 수종과 유사하였다. 화성에 식재된 수종들의 위치를 『증보산림경제』의 수목 식재 방향과 비교하여 보면 수목 식재 방향에서 『증보산림경제』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2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 6월 1일.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간의 땅을 개간한 수원 판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

143 『화성성역의궤』 권1, 어제성화주략, 수레를 만드는 재료, 수레를 만드는 데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생참나무 등이 필요하며, 문헌분석과 도서분석, 현장조사 등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팔달산과 화성 주변에 이들 수종이 다수 식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4 『화성성역의궤』, 실입3, 식목. 1794-1797년 매년 봄과 가을에 총 7차례에 걸쳐 매향동, 팔달산, 전성내탁, 대천 양면, 용연, 관길야, 영화정 이북 등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만년지(萬年枝) 1봉(왕실에서 내려준 풍실(楓實: 단풍나무)), 솔씨 2섬(비변사에서 움), 탕자씨 1섬, 뽕나무씨 2섬 5말, 밤 2섬, 상수리 42섬 13말, 오얏나무 7,350그루, 복숭아, 살구 등 각종 과일나무 582그루를 식재하였다.

145 내용 분석에 의해 파악된 수목들의 위치와 가까운 곳에 식재되었을 것이다.

146 『증보산림경제』, 복거편, 식목(농업진흥청, 『증보산림경제』 I, 2003, 62-63쪽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9〉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된 화성에 식재된 수목¹⁴⁷

수종	학명	식재 장소						
		A	B	C	D	E	F	
교목	가래나무	<i>Juglans mandshurica</i> Max.	●		●			
	개암나무	<i>Corylus heterophylla</i> var. <i>thunbergii</i>				●		
	계수나무	<i>Cercidiphyllum japonicum</i> S. et Z.					●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Nakai	●	●		●	●	
	떡갈나무	<i>Quercus dentata</i> Thunb.	●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Thunb.						
	매화나무	<i>Prunus mume</i>		●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S. et Z.				●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Anderss.	●	●	●	●	●	●
	복숭아나무	<i>Prunus persica</i> (L.) Batsch			●			
	뽕나무[桑]	<i>Morus alba</i> L.	●		●	●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Max.						
	삼나무[杉]	<i>Cryptomeria japonica</i> (L. fil.) D. Don	●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 et Z.	●		●	●	●	●
	수양버들	<i>Salix babylonica</i>		●				
	오동나무	<i>Paulownia coreana</i> Uyeki	●					
	오얏나무[李 :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Lindl.			●	●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S. et Z.	●				●	
	탱자나무	<i>Poncirus trifoliata</i> Rafin.						
해나무[槐 : 회화나무]	<i>Sophora japonica</i> L.		●					
각종 과일나무								
관목과 초본류	국화	<i>Chrysanthemum morifolium</i> Ramat.	●					
	대나무	Bambusoideae	●					
	삼[麻]	<i>Dioscorea batatas</i> Decne.			●	●		
	마름	<i>Trapa japonica</i> Florov.			●		●	●
	물풀[水草]	물가에 서식하는 초본류들을 말함.					●	
연꽃[蓮]	<i>Nelumbo nucifera</i> Gaertner	●		●		●	●	

147 학명은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93, 990쪽 참조. A: 팔달산 주변, B: 수원천 주변, C: 성곽시설물 주변, D: 영화역 주변, E: 만석거 주변, F: 성곽시설물 중 수리시설.

〈표 10〉 공간별로 구분한 식재 수목

구분	식재 수종
팔달산 주변	소나무, 뽕나무, 측백나무, 느릅나무, 삼나무[杉], 오동나무, 가래나무, 떡갈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연[荷], 대나무, 꽃, 국화(미로한정 주변)
수원천 주변	버드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복숭아나무, 해나무(회화나무), 삼, 꽃, 버드나무(제방 주변) 매화나무(매향교 다리 주변)
성곽시설물 주변	버드나무, 뽕나무, 복숭아나무, 가래나무, 소나무, 오얏나무, 삼[麻] 화성 내 연못 : 소나무, 버드나무, 홍련, 백련, 마름[菱荷], 연, 연꽃
영화역 주변	뽕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삼 제방 기반 보완 : 소나무, 오얏나무, 여러 가지 풀들 성곽 밖 수원천 진입구 주변 :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 등
만석거 주변	계수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마름, 연꽃, 물풀[水草] 만석거 제방 : 느릅나무, 버드나무, 연못 : 연꽃과 물고기 키움.

〈표 11〉 『증보산림경제』로 본 화성의 수목 위치

수종	『증보산림경제』	화성에서의 식재 위치
버드나무	서쪽과 그늘진 곳을 싫어함.	팔달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식재됨(화성행궁 주변 도랑에서만 식재됨).
느릅나무	미방(未方), 집 뒤, 서쪽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화성의 동쪽을 제외한 서쪽과 북쪽 지역에 나타남.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동쪽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서쪽, 동쪽 언덕에 식재하지 않음.	동쪽, 북쪽에 나타남.
오동나무	진방(辰方)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북서쪽에 나타남.
회화나무	집 내외에 식재하거나 신방(申方)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수원천 주변 주거지역에 나타남.
뽕나무	집안과 도랑 사이에 식재하지 않음.	수원천과 만석거 주변에는 식재 안 함.
매화나무	남쪽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화성행궁의 동편에 식재됨.
개암나무	북쪽에 식재하는 것이 좋음.	북쪽에 나타남.

4. 수리체계의 변화

화성의 수리(水理)체계는 성곽 조성 이전에 화성 주변에 조성된 하천, 연못 등과 성곽 조성에 따라 성곽시설물의 하나로 조성된 수리시설, 생산시설의 확보를 위해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으로 조성되었다. 화성에 조성된 수리체계는 광고산에서 발원한 물을 이용하여 성곽 내·외부로 형성된 수리체계와 팔달산과 성곽 주변에 형성된 도랑에

의해 조성된 수리체계로 구분된다.

1) 성곽 내부의 수리체계

신도시 화성은 옛수원부에서 팔달산 아래에 읍치를 정하고 이전하게 되면서 읍치의 입지에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지리적 원리를 수용하여, 읍치의 관아가 팔달산을 배산으로 동향을 취하고, 수원천을 행궁과 관아의 전면에 두는 입지 양식을 취하였다. 행궁과 관아 동편에 조성된 남북관도가 팔달산과 수원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관도 주변으로 상점가와 주거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관도와 천변 사이에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수원천은 읍치의 생활용수 공급과 생활 오·폐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¹⁴⁸ 수원천과 주거지 사이에 예부터 수원에 많이 자생하던 버드나무가 식재되기도 하였다.¹⁴⁹

신읍치 조성 시기에 하천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명당수의 개념으로 읍치 입지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으며,¹⁵⁰ 팔달산 아래에 관아를 조성할 때에도 명당수의 개념으로 팔달산에서 발원하는 물(水)이 관아 주변을 감싸 안도록 도랑을 조성하였다(그림 18, 그림 19).¹⁵¹

신도시 화성의 축성 계획이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일 중의 하나가 남북 문루의 위치와 물길을 어디로 잡는가 하는 문제였다.¹⁵² 조선시대 읍성의 입지를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산과 하천으로, 하천의 경우에는 풍수지리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생활용수의 확보 차원에서 읍성의 성내·외에 하천이 없는 경우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읍성에서는 성외(城外)의 한 면에 하천이 지나갔기 때문이다.¹⁵³

148 현양에서도 생활용수와 생활 오·폐수의 처리를 위해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청계천을 이용하였으며, 홍수와 토사피해, 악취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준천작업을 통해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화성에서도 수원천을 성곽 내로 유입시키면서 현양의 청계천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149 영조 때 작성된 『준천사실(潘川事實)』을 보면, 『준천사절목(潘川司節目)』에 개천 주변에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개천에 조성한 제방이 유지되도록 하였는데, 정조는 영조의 업적 중 하나를 준천으로 꼽으면서(『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5월 16일, 차대하여 송형중·성윤김·최동약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리다.) 준천제도를 계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정조실록』, 정조 24년 정조대왕행장. “선왕께서 왕위에 계시던 50년 동안 가장 큰 시정 목표로 삼으신 것이 다섯 가지 있는데 감필(減疋)·준천(潘川)·금주(禁酒)·호혼(互婚)·거제(去鬻)이다. 이 가운데 위의 두 건은 벌써 시행되어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이 사랑으로 들락 주신 혜택도 입었고 물에 잠기는 걱정도 면할 수가 있었으나 아래 세 건은 잠시 시행하다가 금방 그만두었는데 그것이 물론 선왕의 본의는 아니었다.”).

150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원리에 따라 수원천과 팔달산 사이에 읍치를 조성하였다.

151 『화성성역의궤』, 도설, 『화성전도』를 보면, 행궁 북측에서 팔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유도하여 행궁 전면을 지나 남쪽으로 배수되도록 도랑을 설치하였다.

152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 12월 초6일. 그리고 가장 관심거리는 물길을 어느 곳으로 뚫느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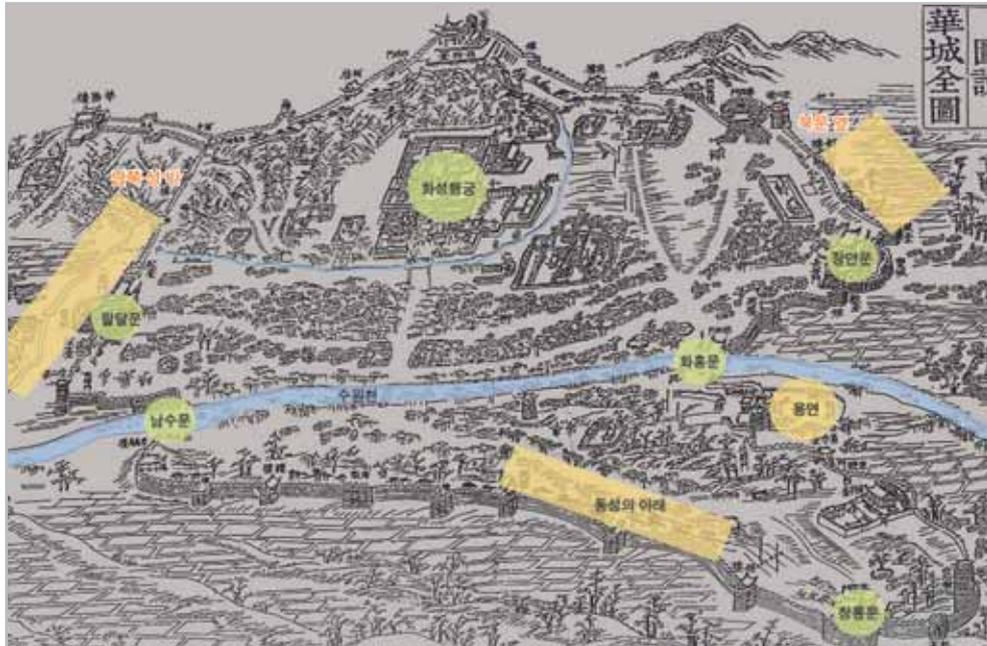
153 이상구, 「조선전기 읍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05쪽.



〈그림 18〉 화성행궁 주변에 조성된 도랑



〈그림 19〉 경복궁과 창덕궁 주변에 조성된 도랑(「수선전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20) 화성에 관류하는 수원천과 자연적인 도랑의 위치

화성에서는 생활용수의 공급과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성내로 하천의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였는데, 수원천은 여름 장마 때마다 범람하여 성을 쌓기 시작할 때 물길을 내는 일을 먼저 하였다.¹⁵⁴ 성을 쌓던 초기에 하천을 뚫고 파내었으며,¹⁵⁵ 수원천 주변에 조성된 방죽의 언덕을 높였고,¹⁵⁶ 매년 여름 장마가 걸리면 준천작업을 실시하였다.¹⁵⁷ 또한 화성을 축성할 때 중국의 성제를 많이 반영하기 위하여 성곽 주변에 해자를 파고자 하였고, 이를 『화성성역의궤』 어제성화주략에서도 이야기하여 화성 주변에 해자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형지세의 어려움과 자연적인 도랑이 화성 주변을 감싸고 있어 해자를 조성하지는 않았다.¹⁵⁸

154 『화성성역의궤』, 도설, 복수문.

155 『화성성역의궤』, 도설, 어제성화주략. 수원 화성의 터를 다지기 위해 “부내의 냇가가 모두 흰 조약돌(수마석(水磨石))인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내를 따라가며 캐어 낸다면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 냇가의 조약돌을 짚어지게 하는 데 1단을 매울 때마다 품삯 얼마씩을 주면 도랑 만드는 것은 저절로 개척이 서는 것이며”라고 하여 터다지기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냇가의 바닥도 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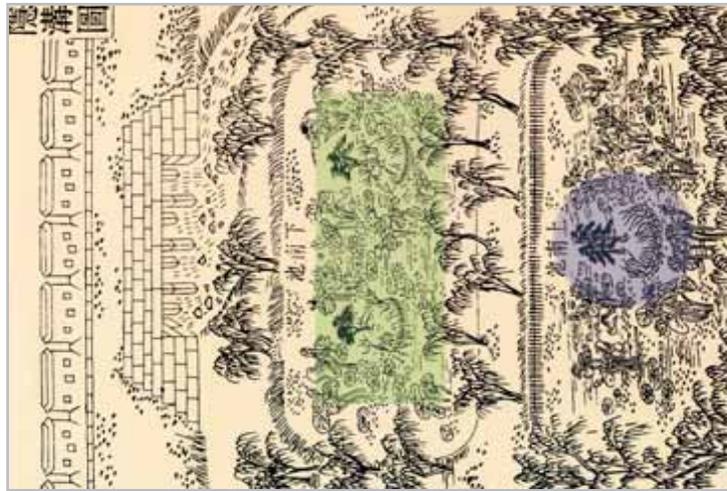
156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영조 때 작성된 『준천사절목』의 내용을 생각하면 수원천 주변에 조성한 방죽 위로 버드나무를 식재하였을 것이다.

157 『화성성역의궤』, 도설, 개울치기.

158 『화성성역의궤』, 도설, 화성의 전체 국면.



〈그림 21〉 「화성전도」에 나타난 남은구



〈그림 22〉 「은구도」에 나타난 남은구

신도시 화성 주변에 위치한 자연적인 도랑은 ‘남쪽 성밖’과 ‘북문 옆’, ‘서산의 뒤’와 ‘동성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자연적인 해자로 사용¹⁵⁹하였다. 두 개의 수문인 화홍문(북수문)과 남수문을 배산인 팔달산과 안산(案山)인 일자사(一字砂)¹⁶⁰의 가운데에 조성하여 수원천이 성 내로 유입되어 관류(북→남)¹⁶¹하도록 하였다(그림 20). 화홍문 자리는 수원천의 모래를 파헤쳐 터를 잡았고, 남수문은 화성의 수구(水口)로서 구천(龜川)¹⁶² 위에 조성하였으며, 화홍문과 마주하여 세워 물의 흐름을 유도하였다.¹⁶³

화성에 조성된 수리시설은 은구(隱溝)와 지당(池塘) 등으로, 외부의 물을 성곽 안으로 유입시켜 저수하고, 성곽 내에서 생성된 물을 외부로 배수하였다. 화성 내에는 2개의 은구(남, 북)¹⁶⁴와 2개의 남지(상·하),¹⁶⁵ 북지, 2개의 동지가 조성되었다. 은구의 위치는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에 나타난 남은구의 모습을 『화성성역의궤』의 「은구도」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는데, 방지 내에 조성된 원도(圓島)의 수와 위치로 확인하였다(그림 21, 그림 22).

159 『화성성역의궤』, 도설, 화성의 전체 국면.

160 한 일(一)자 모양으로 쭉 뻗은 모래벌이다.

161 『화성성역의궤』, 도설, 화성의 전체 국면.

162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성내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대천(수원천)이라 하고, 대천이 남수문을 지나 성내를 빠져 나가는 물길을 구천(龜川)이라 하였다.

163 『화성성역의궤』, 도설, 남수문.

164 『화성성역의궤』, 도설, 남은구·북은구. 남은구는 남서적대 주변에 조성되었으며, 북은구는 북서포루 주변에 조성되었다.

165 『화성성역의궤』, 도설, 남은구·남지 2개. 상남지는 남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지는 남은구와 연결되어 있어 남서적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에 조성된 은구와 지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남지(下南池)는 남은구와, 북지는 북은구와 연결되어 있다. 상남지(上南池)는 남창(南倉)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지는 매향동 어귀에 상지(上池)가, 구천의 북방에 하지(下池)¹⁶⁶가 조성되었다. 은구와 지(池)는 화성 조성 초기 장안문과 팔달문, 화홍문(북수문)과 남수문의 터뒹기 이후¹⁶⁷ 수원천의 개울치기가 이루어지면서¹⁶⁸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화성에 조성된 두 개의 문루와 수문의 터뒹기 이후, 1794년(정조 18) 3월 14일과 16일에 각각 상남지와 북지를 조성하였고, 4월 초7일에 하동지를 조성하였다. 그 후 1795년(정조 19) 9월 14일에 상동지를 조성하였으며, 1796년(정조 20) 7월 초7일에 하남지¹⁶⁹를 조성하였다(그림 23).

화성에 조성된 은구와 지당의 위치는 성곽 조성 이전 조성 예정 위치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자연적인 도랑¹⁷⁰과 가깝게 조성되었다. 북문 옆 도랑은 북지, 남쪽 성 밖 도랑은 남은구와 하남지, 동성의 아래 도랑은 상·하동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론은 북지가 북은구를 통해 “성 밖의 도랑의 물을 끌어 대었기 때문에 가물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¹⁷¹고 하고, 북지의 위치가 북문(장안문)과 가깝게 조성되어 있어 북문 옆에 형성된 도랑의 물이 북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도랑과 성곽 내에 조성된 수리시설의 관계를 보면 하남지의 경우 행궁 앞을 지나는 도랑과 남포루 아래의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남쪽 성 밖 도랑으로 배출하였고, 북지와 동지의 경우에는 북문 옆과 동성의 아래에 형성된 도랑의 물을 성곽 안으로 유입시키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매향동 어귀에 위치한 상동지와 구천의 북방에 위치하였다는 하동지¹⁷²는 조성된 위치가 동성(창룡문)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¹⁷³ 동성의 아래에 형성된 도랑에 의해 지당(池塘)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그림 24), 서산의 뒤에 형성된 도랑은 확인할 수 없었다. 동성의 아래에 조성된 자연적인 도랑은 성곽의 규모가 3,600보¹⁷⁴로 계획되었을 때에

166 『화성성역의궤』, 도설, 동지2.

167 『화성성역의궤』, 시일, 가려 뽑은 날짜, 정조 18년(1794) 2월 28일.

168 『화성성역의궤』, 시일, 각 항목별 날짜, 정조 18년 3월 초1일.

169 남지는 상남지, 하남지로 구분되며, 『화성성역의궤』 도설 「은구도」에 나타나는 연못 가운데에 있는 섬의 숫자와 방향이 『화성전도』의 하남지 위치에 조성된 연못 안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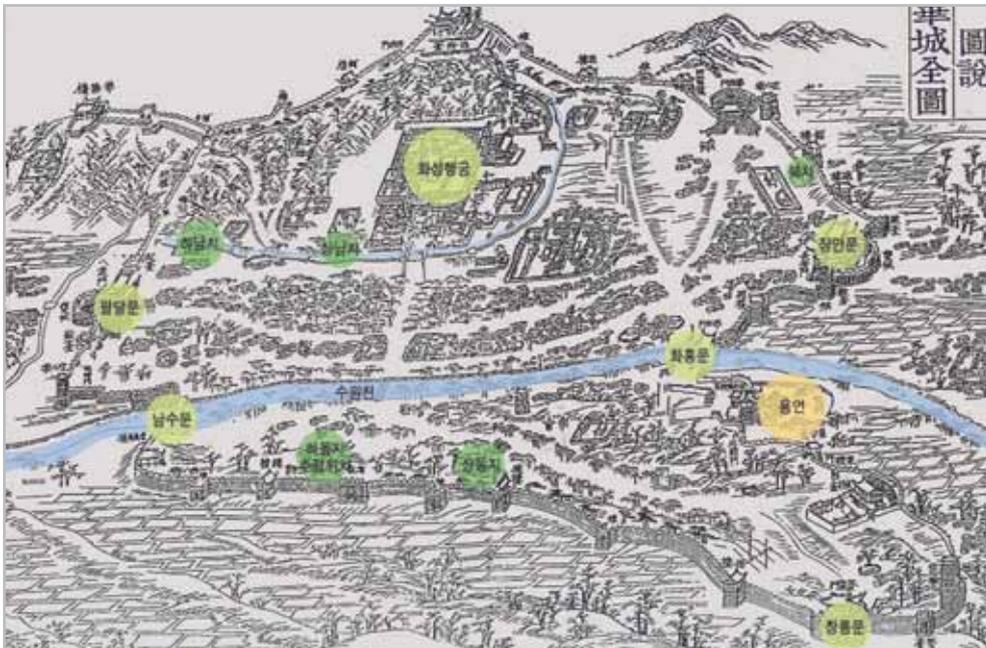
170 『화성성역의궤』, 도설, 화성의 전체 국면. 남쪽 성 밖과 북문 옆, 서산의 뒤와 동성의 아래.

171 『화성성역의궤』, 도설, 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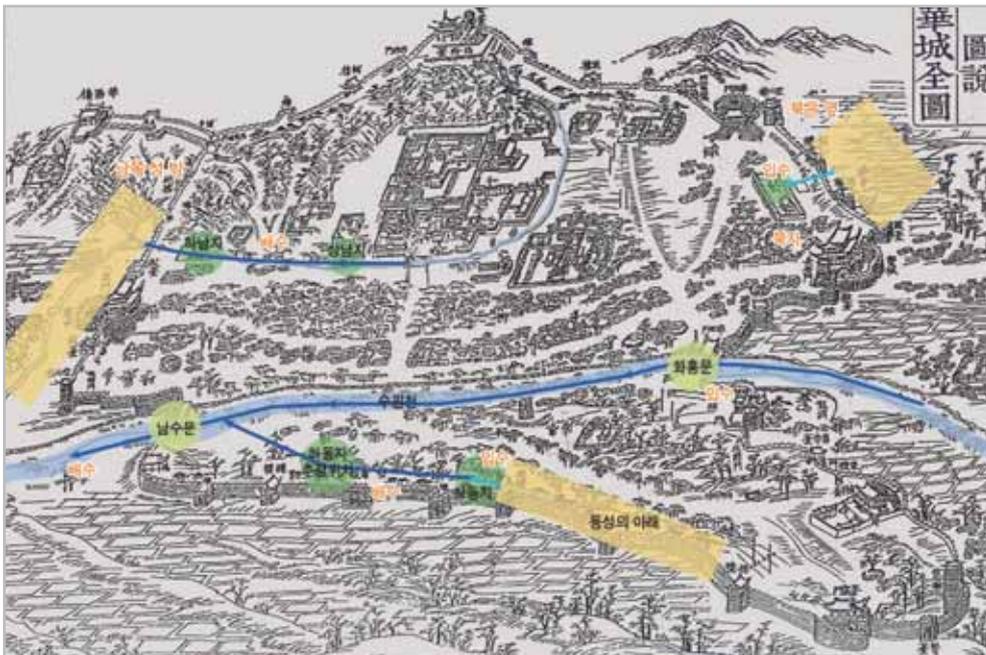
172 『화성성역의궤』, 도설, 동지 2개.

173 수원시·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화성내 미복원시설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 보고서』, 2005, 24쪽. 하동지의 위치는 구천의 북방이라 하였으니 남수문 북쪽, 수원천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위치는 용주사 수원포교당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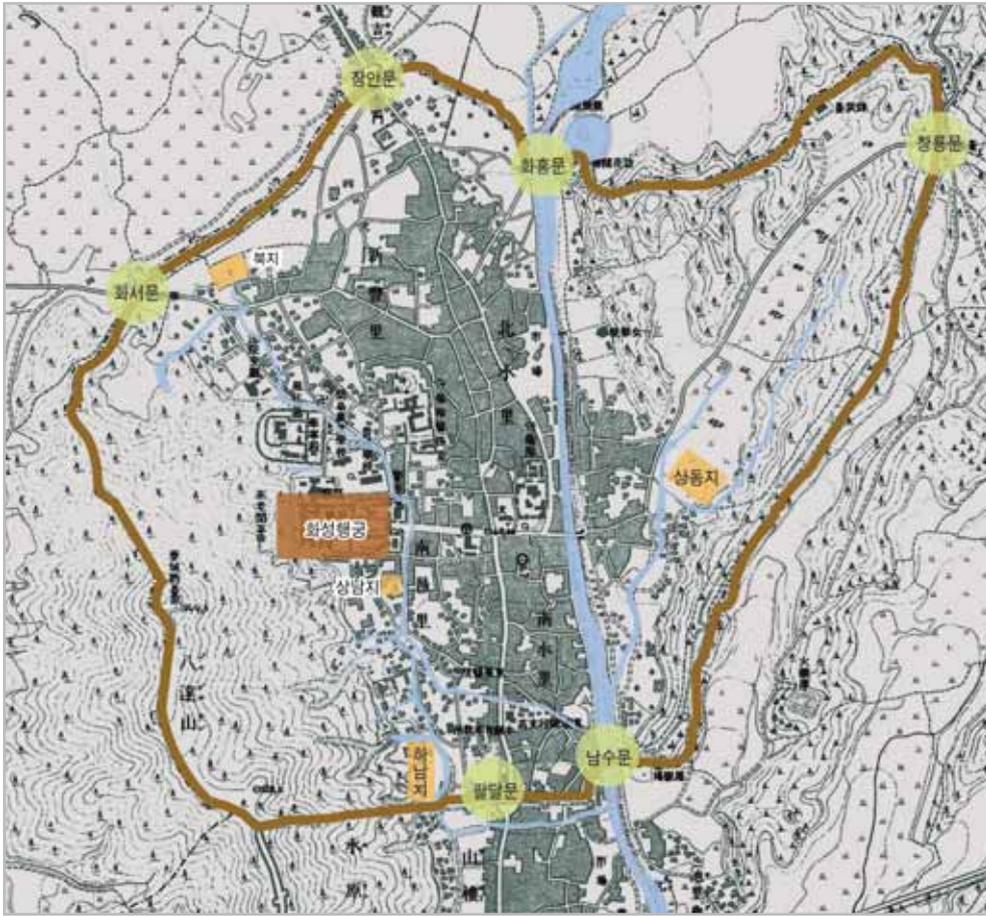
174 『화성성역의궤』, 연설, 계축년(1793) 12월 13일.



〈그림 23〉 화성에 조성된 지(池)의 위치



〈그림 24〉 화성의 자연적 도랑과 지(池)의 입·배수도



〈그림 27〉 화성의 물길과 지(池)의 위치(수원시, 『화성주변정비기본계획』, 1999)

는 계획상 성곽 밖에 도랑이 위치하게 되었으나, 1794년(정조 18) 북쪽의 민가를 성내로 유입시켜 성곽의 규모가 4,400보로 확대되면서 민가와 함께 도랑도 성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5). 원래의 계획대로 화성이 조성되었다면 동지도 북지와 마찬가지로 성 밖 도랑의 물을 성곽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성곽에 접하여 동지가 조성되었을 것이며, 동은구도 조성되었을 것이다(그림 26).

성곽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면, 동지도 상·하 두 개의 동지로 나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성곽 안으로 외부의 물이 유입되는 경우 북지와 같이 하나의 지(池)를 조성하여 물을 저수하였을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성곽 내의 물을 배수할 경우에는 남지처럼 두 개의 지(池)를 조성하였을 것이다. 동지는 동성의 아래에 형성된 도랑의 물이 수원



(그림 28) 광교산에서 발원한 수계(「수원부지도」, 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으로 배수되는 물길 위에 조성되어 상·하 두 개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의 아래에 형성된 도랑은 일제시기 지도의 수계와 「화성전도」에 나타난 동지(상동지)의 위치를 비교하여 추정하였으며, 북성 밖에 위치한 용연(龍淵)은 용연 남쪽의 용두리는 바위 때문에 낚시터로 활용되었다(그림 27).¹⁷⁵

2) 성곽 외부의 수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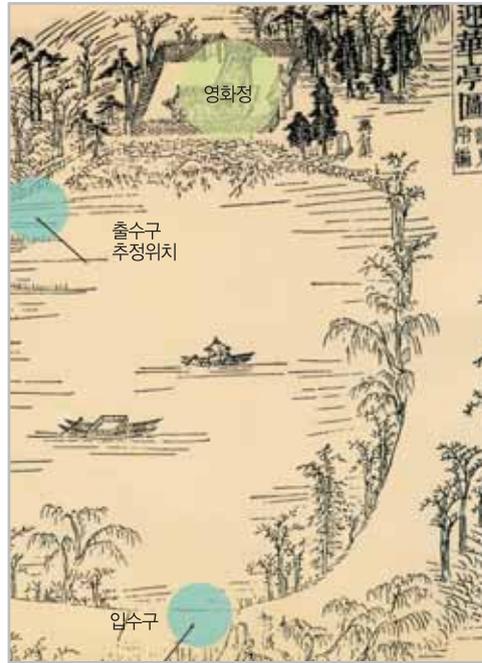
성곽 외부에 조성된 수리체계는 화성 북쪽의 척박한 토지에 생산시설(대유둔과 북둔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교산에서 발원한 물을 끌어오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광교산에서 화성으로 들어오는 물길은 2군데로, 첫 번째 물길은 광교산 상류에서 2갈래로 나뉘어¹⁷⁶ 하나는 화성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원천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성 북쪽의 빈 땅을

175 『화성성역의궤』, 도설, 용연.

176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영화역 주변으로 추정된다.



〈그림 29〉 영화역 전면의 도랑(『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30〉 만석거와 영화정(『화성성역의궤』, 「영화역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개간하기 위한 도랑으로 유입되었다.¹⁷⁷ 두 번째 물길은 광고산 발원처에서 물줄기 하나를 더 뽑아서 만든 것으로 새로 개간하는 곳에 이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전(公田)뿐만 아니라 근방의 민전(民田)에도 관개되도록 하였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어 수리를 도모하고자 만석거를 조성하였으며, 저수한 물을 이용하여 고등말 북쪽벌도 개간하였다(그림 28).¹⁷⁸

1794년(정조 18) 10월 화성의 성역을 잠시 중단하고, 성북의 평평하고 빈 땅에 물을 끌어들이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개간된 곳에 곡식과 뽕나무를 심고자 하였다(그림 28, 그림 29).¹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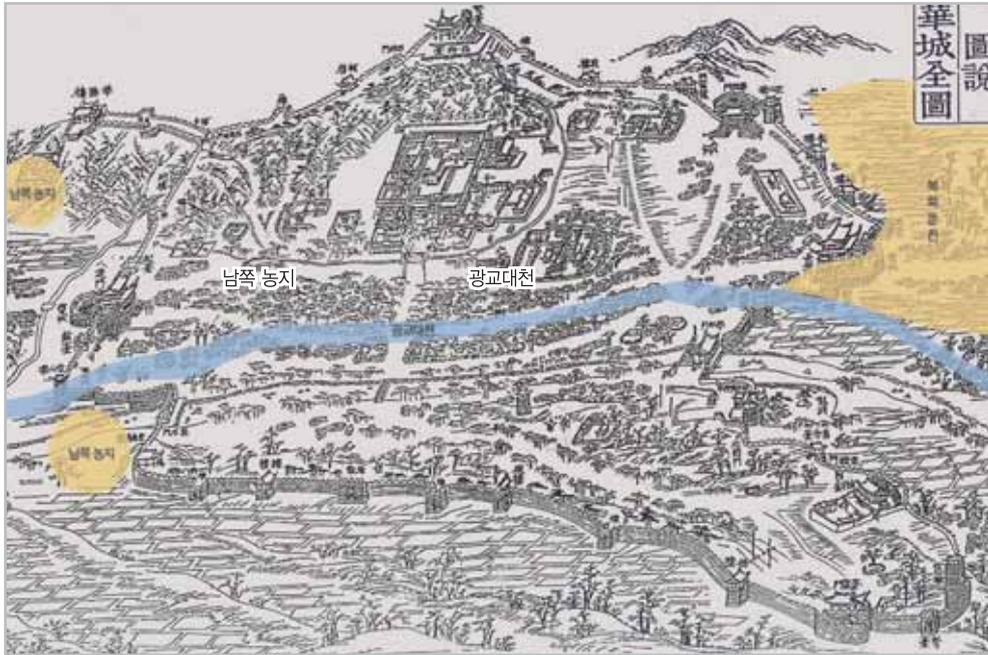
화성 밖의 빈 땅(대략 100포)을 개간하기 위하여 수원천의 물을 끌어들이 관개시설을 조성한 것은 성 북쪽의 척박한 토지에 수리사업을 일으켜 보고자 함이었는데,¹⁸⁰ 1795년

177 영화역과 관길아 주변의 빈 땅을 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78 『화성성역의궤』, 장계, 을묘년(1795) 12월 20일.

179 『화성성역의궤』, 연설, 갑인년(1794) 10월 19일.

180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2월 18일. 전 좌랑 이우형이 수차의 제도를 통용시킬 것을 아파다.



〈그림 31〉 화성 주변의 대유둔과 구천 아래의 농지

(정조 19) 3월에는 광고산 상류 근처에 보(堡)를 파고 제방을 열어서 새로이 토지를 개간하고자 하였다. 새로 개간한 토지의 서쪽 3리 거리의 고등말 북쪽벌도 개간하기 위하여 만석거를 조성하였고, 영화역 주변과 만석거 주변의 개간된 토지를 대유평이라 불렀으며, 이곳에 둔전을 조성하여 대유둔(大有屯 : 北屯)이라 하였다.¹⁸¹

화성 북쪽에 개간된 둔전(대유둔)에 관한 상량문과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화성 북쪽 둔전에 관한 기록

연도	구분	내용
1796년(정조 20) 11월	화홍문 상량문	벼 눈에 물 대니 누런 곡식 넘실대며 큰 들에 가득차서 꽃 핀 제방 잠길 듯이 푸른 물결 팔팔 흐르고 가득찬 연못 물과 함께 흘러들어오네, ……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모든 냇물 출렁이며 남쪽 들로 돌아가고 ……
1796년 11월	강무당 상량문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화홍문 밖으로 여러 시내 흘러가니 장군은 하필이면 둔전을 아뢰었나. 이로부터 좋은 밭두둑 천 이랑이 들에 가득하구나.
1800년(정조 24) 6월 1일	정조실록 ¹⁸²	일만 석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뚫고 아홉 길 높이의 보를 성 서쪽에 쌓음으로 써 관개용수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는 온 경내에 미치고 ……

화성의 북쪽에 도랑을 파고, 만석거를 조성하는 등 관개시설과 수리시설을 만들어 토지를 개간하기 전까지는¹⁸³ 화성에서 관개하는 들은 구천(龜川) 아래에 많이 있었으나 성 북쪽에 만석거가 조성되고 관개시설이 설치되면서 성 북쪽의 토지(대유둔, 북둔)가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31). 1799년(정조 23)에는 축만제가 조성되면서 생산시설이 더욱 늘어났으며(축만제둔, 서둔),¹⁸⁴ 1825년(순조 25)에는 화성 남쪽 5리쯤 되는 곳에 남제를 조성하였다.¹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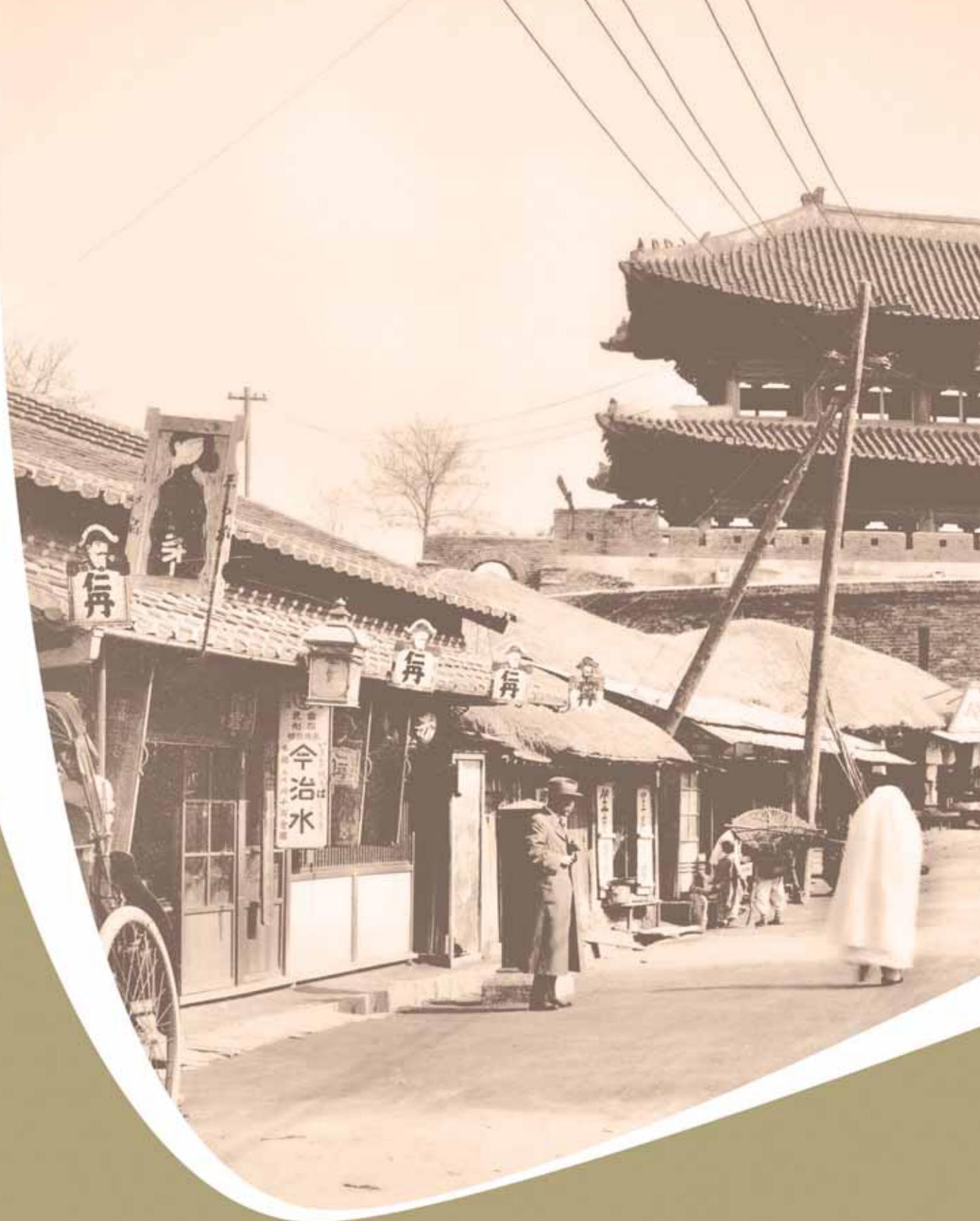
181 『화성성역의궤』, 정거, 만석거. 만석거는 정조 19년(1795) 3월 초1일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18일에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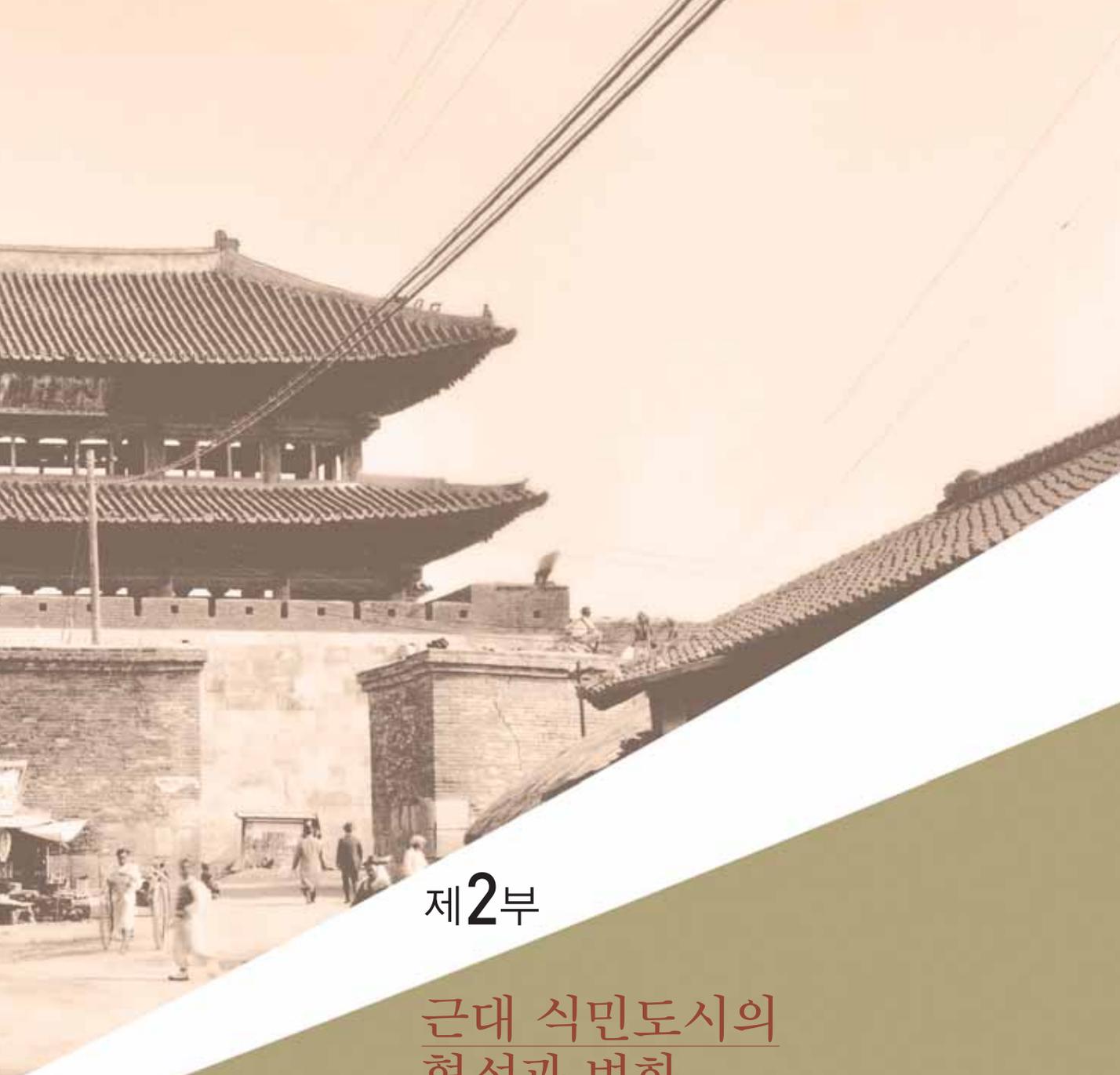
182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갈이의 땅을 개간한 수원 관관 김사회 등을 포상하다.

183 1784년(정조 18) 10월에 성 북쪽의 토지를 개간하기 이전까지 화성 남쪽에 개간된 토지가 더 많았다.

184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137쪽.

185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77쪽.





제2부

근대 식민도시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

제2장 수원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

제3장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과 시설 변화



김백영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고도(古都) 수원, 근대와 조우하다
2. 식민도시 수원의 탄생(1895~1914)
3. 식민지 농업 모범도시 수원의 발전(1914~1930)
4. 수원의 공업도시화와 전시체제하의 도시계획(1931~1945)



제1장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

1. 고도(古都) 수원, 근대와 조우하다

1) 조선의 개항과 수원의 근대화

한국사회의 근대적 변화는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다. 1877년 부산에 일본전관조계가 설치되고, 곧이어 1879년 원산, 1882년 인천이 개항장이 되어 근대문물 유입의 창구가 되었다. 개시장인 한양(한성부)에도 1882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래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근대적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내륙도시인 수원의 경우는 이들 개항장이나 개시장에 비해 다소 늦게 근대와 조우하였다. 수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근대적 관공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전후의 일이다. 수원 지역에 이주해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은 1900년에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로 알려져 있다.¹ 수원의 근대적 변화는 일본인들의 이주, 일제의 식민 지배와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므로 일제 식민권력의 지배 전략이 수원의 발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수원 성안 풍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안문에서 종로로 가는 길이다.





1930년대 팔달문 앞 상가(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개항 이후 수원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한 변수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에 인접한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 수원은 수도 서울과 개항장 인천에 근접한 읍치이자, 경부선과 수인선 부설 이후에는 철도교통의 결절점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띤다. 둘째, 농업의 적지(適地)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수원은 조선시대부터 잘 정비된 저수지 등 풍부한 수원(水源)을 비롯하여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화성(華城)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역사적 유산을 보유한 고적의 도시라는 점이다. 일제시기 일본인들은 수원을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奈良)에 비유²하는 등 역사도시 수원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시기 수원의 도시화 과정에서는 철도교통의 요지이자, 농업생산의 모범지역이며, 유서 깊은 구도시·역사도시라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복합적

1 노리마츠는 최초의 일본인 해외 기독교 선교사로 1896년 12월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00년 수원군 장안동에 정착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2 “지세로부터 보아도 경성에 대한 수원은 교토(京都)에 대한 나라(奈良)에 해당한다.” 고 표현하였다(酒井政之助, 『水源』, 1923, 3쪽).

으로 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식민도시 수원의 변화 양상을 몇 개의 대별되는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면의 인구는 개항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10년대 중반에 이르면 1만여 명에 이르러 다소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이다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일제하 수원면의 인구와 일본인 인구 변화 추이³

구분	1910	1915	1925	1930	1940	1944
수원면 인구(명)	6,971	10,714	10,374	13,182	27,547	36,146
일본인 인구(명)	1,247	719	1,265	1,583	2,431	3,091
일본인 비율(%)	18.4	6.7	12.2	12.0	8.8	8.6

이러한 인구 변동 추이를 바탕으로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95년부터 1914년까지로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행정적·제도적 설치가 일단락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 이후의 시기는 1931년 수원읍 승격을 기준으로 하여 1914~1930년과 1931~1945년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28년 수원역 신축과 1930년 수역선 일부 구간 개통, 1929년 권업모범장의 농사시험장으로의 전환, 1930년대 직물업의 발전 등을 이 두 시기를 구분해 주는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도시 수원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전통사회의 역사적 유산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수원의 지리적 환경과 전통적 유산

수원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용인시 수지읍과 기흥읍에, 서쪽은 안산시 반월동과 화성시 매송면에, 남쪽은 화성시 태안읍에, 북쪽은 의왕시에 각각 접하고 있다. 수원의 지형은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 방면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분지이다. 수원은 북·동·서 3면이 광교산맥으로 에워싸

³ 성주현,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2호, 2005, 191쪽.

인 채 남쪽만이 넓은 평야지대로 열려 있는데, 수원의 북변에 위치한 광교산맥의 주봉 광교산은 정상 높이가 해발 582m로 한강 이남 경기도 최고의 명산으로 손꼽힌다. 광교산맥은 동으로 성남시를 거쳐 과천의 청계산에 이어지고, 북으로 백운산을 연하여 광주의 고분현(古分峴)에, 동남으로 용인시 수지면 일대에, 서로 의왕시 일대에 그 지맥이 닿아 있다. 또 남으로는 광교산 바로 턱 밑에 형제봉을 두고 윗광교와 아랫광교의 두 골짜기를 이루면서 마치 양팔로 수원을 껴안은 듯한 형국을 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칠보산이 우뚝 솟아 있다. 수원의 시가지 중앙에는 해발 143m의 팔달산이 있는데 원래는 남탑산(南塔山)이었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가 사통팔달의 형세를 이룬 곳이라 하여 팔달산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수원은 주변에 높거나 험한 산이 별로 없고 남쪽에 평야가 펼쳐진 지세를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가 되어 왔다.

수원에는 큰 강은 없으나 여러 줄기의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광교산을 비롯한 광교산맥에서 발원한 것들이다. 수원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원천은 원천천·오목천과 대황교 어간에서 만나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 가며, 황구지천은 다시 안성천에 합류되어 마침내 아산호로 유입된다. 이들 물줄기는 수원시 일원에 크고 작은 여러 저수지를 생성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원은 고구려에서 매홀군(買忽郡)으로, 통일신라에서 수성군(水城郡)으로 불리었다. 고려시대에는 수주로 불리었으며 한때 수원도호부로 승격한 일도 있었다. 조선 중기까지 몇 차례의 읍호승강을 거쳤지만, 후기에는 수원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정조 즉위 이후 사도세자의 묘가 이장되고 화성이 축성되고 유수부(留守府)가 설치되면서⁴ 수원의 행정적 위상은 격상되었다.

조선시대 수원은 화성 축조 이후 팔달산 아래의 신읍치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성 안을 구획하는 도로는 십자형으로 계획되었다. 수원읍의 핵심 교통로인 십자형 도로 중 하나는 북문인 장안문에서 남문인 팔달문을 거쳐 천안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문인 화서문 부근에서 동문인 창룡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길이였다. 읍치는 십자로의 교차점인 종로네거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었으며, 시가 형성과 상업 진흥을 위해 대로변에 상가를 조성하여 장시를 개설하고 전국 20여 거상들이 모여 상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로 종로네거리와 장안문을 잇는 대로변에 상가를 형성하였고, 팔달문·장안문 밖 시장이 형성되어 상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수원

⁴ 수원유수부가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광주·강화·개성유수부와 함께 수도 한양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도를 호위하는 형국을 띠게 되었다.



화성행궁 신평루(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뒤로 보이는 산이 수원 화성의 주산인 팔달산이다.

은 행정·상업도시로서 급격히 성장했으나, 정조 사후 화성이 방치됨에 따라 쇠퇴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수원은 일찍이 많은 저수지와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요 제언(堤堰)은 <표 2>의 4개소로 모두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신축되었다. 그 밖에 당시 이미 설치되어 간간히 사용되는 제언도 17개소가 있었다.



항미정에서 바라본 서호(수원박물관 소장) 서호는 조선 정조가 화성을 건설할 때 축조한 저수지이다.

〈표 2〉 19세기 수원의 주요 제언

제언명	위치	설치연도	규모
만석거(萬石渠)	북쪽 5리 일용면	1795	길이 875척, 넓이 850척, 깊이 8척 7촌
만년제(萬年堤)	원소 남쪽 3리	1797	길이 460척, 넓이 370척, 깊이 5척
축만제(祝萬堤)	서쪽 5리 북부	1799	길이 1,246척, 넓이 720척, 깊이 7척
남 제(南 堤)	남쪽 5리 남부	1825	길이 800척, 넓이 800척, 깊이 8척

이처럼 수원은 정조 대 이래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되고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어 선진적 영농의 중심지이자 전국적 모범이 되었던 곳이었다. 1906년 일제가 식민지 농업정책기구인 권업모범장(본장)을 수원군 축만제(서호) 옆에 세운 것은 이러한 전통시대의 기반시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2. 식민도시 수원의 탄생(1895~1914)

1) 행정구역의 식민지 근대적 변화

수원의 근대는 개항 이후 행정제도의 근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유수부의 칭호를 잃고 인천부 관할하의 일개 군으로 격하되면서부터 시작된다. 1895년(고종 32)에 을미개혁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전의 전국 8도를 23부(府)로 변경하고 전국 337개 군을 23개 부 관할하에 소속시켰는데, 이때 수원유수부는 수원군으로 격하되어 인천부 관내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337개 군의 군수 봉급을 5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군 자체의 격이 5등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때 수원은 2등 군으로 분류되었다. 당시 강화·충주·공주·전주·영광·남원·순천·나주·영암·광주·진주·경주·상주·안악·평양·황주·의주 등 17개 군이 1등 군이었는데, 수원을 포함한 32개 군은 2등 군으로 정해졌다. 이를 통해 정조 대 한성부에 이어 제2의 도시로까지 승격되었던 수원의 위상이 한말에 이르러서는 크게 추락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이어 을미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구역도 개편 대상이 되어 1896년 23부제를 폐지하고 1부 13도제가 채택되었다. 다시 '도제'가 부활한 것인데, 이때 도제는 충청·전라·경상·평안·함경 등 5도를 남북도로 분할하여 13도로 만든 것으로, 한성부에는 판윤을, 13도에는 관찰사를 두고 각 도마다 수부(首府)가 지정되었다. 이때에도 수원군은 5등급 군 가운데 2등 군에 머물렀으나 경기도의 수부로 지정되어 도청 소재지가 됨으로써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수원군은 560개의 마을이 40개 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면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여 6개 마을이 1개 면을 이루는가 하면 35개 마을이 1개 면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합병한 직후인 10월 1일 일제는 종래의 13도제를 유지하는 조선총독부령 제6호를 공포했는데, 종래의 '한성부'를 '경성부'로 명칭을 바꾸어 경기도 관할에 두면서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을 경성으로 이전시켰다. 이어진 1912년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대한제국기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1914년 일제는 전국에 12개 부를 새로이 지정하였다. 그 가운데 경성, 평양, 대구를 제외한 9개 부(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는 구도시나 내륙도시가 아니라 신도시이자 항구도시였다. 이때 개성, 전주, 진주, 해주, 함흥, 수원 등 전통 읍치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일제가 청일·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장 도시에 일본인들의 거점지를 구축했고, 특히 러일전쟁기 군용철도로 속성으로 부설된 경부선과 경의선 등을 골간으로 한 철도망을 바



일제시기 수원군 관내도(수원박물관 소장)

탕으로 식민지 조선의 도시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제의 초기 식민도시화 전략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 군사적 고려와 치안 확보였다면, 장기적으로는 농업 식민화를 위한 지역 거점과 창구 확보가 주된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⁵

일제는 1914년 3월 1일부(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경기도에 소속된 부와 군은 경성부와 인천부의 2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5 김백영, 「식민지 유산과 현대 한국 도시 변동」,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5호, 2011, 14 쪽.



수원군청(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강화군, 파주군, 개성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여주군, 장단군의 20군이였다. 수원군 관할구역은 종래 수원군의 종덕면·율북면·수북면·토진면·서신리면·숙성면·오정면·포내면·현암면·안외면·승량면·가사면·광덕면 등이 진위군으로 들어가고, 영흥면과 대부면을 제외한 남양군, 광주군의 의곡면·왕륜면, 안산군의 월곡면·북방면·성곶면 등이 수원군으로 포함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14년 4월 1일(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 1914년 3월 13일 공포) 경기도 소재 면의 명칭과 구역의 통폐합을 통한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수원군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수원군은 20면(面)으로 통폐합되었으며, 각 동리의 명칭을 리(里)로 개칭하여 일원화함에 따라 군의 전체 마을은 270리가 되었다.

2) 경부선 철도 부설과 수원역 건설

식민도시 수원의 발전은 경부철도 건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띤다. 그런데 한반도의 철도는 대체로 청일·러일전쟁기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따라 속성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과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으므로 철도와 지역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1920년대 초까지 조선에서 간선철도의 여객운송은 한반도 내에서보다 남으로는 일본 본토, 북으로는 만주와의 연결선 비중이 훨씬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간선철도는 원래부터 국내 각 지역 간의 물자유통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외유통, 즉 일본-한국-만주 사이의 병참 및 상품 수송을 목적으로 부설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의 간선철도가 전체 국유철도 연장의 8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한국철도의 식민지적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민지시기를 통틀어 조선의 철도는 여객열차의 운행편수나 수송량이 매우 적었다. 이는 철도에 의한 근교 운송이 성행하여 전국적으로 열차편수가 많았던 대만의 경우나 일찍부터 철도여행의 상업화가 추진된 만주의 경우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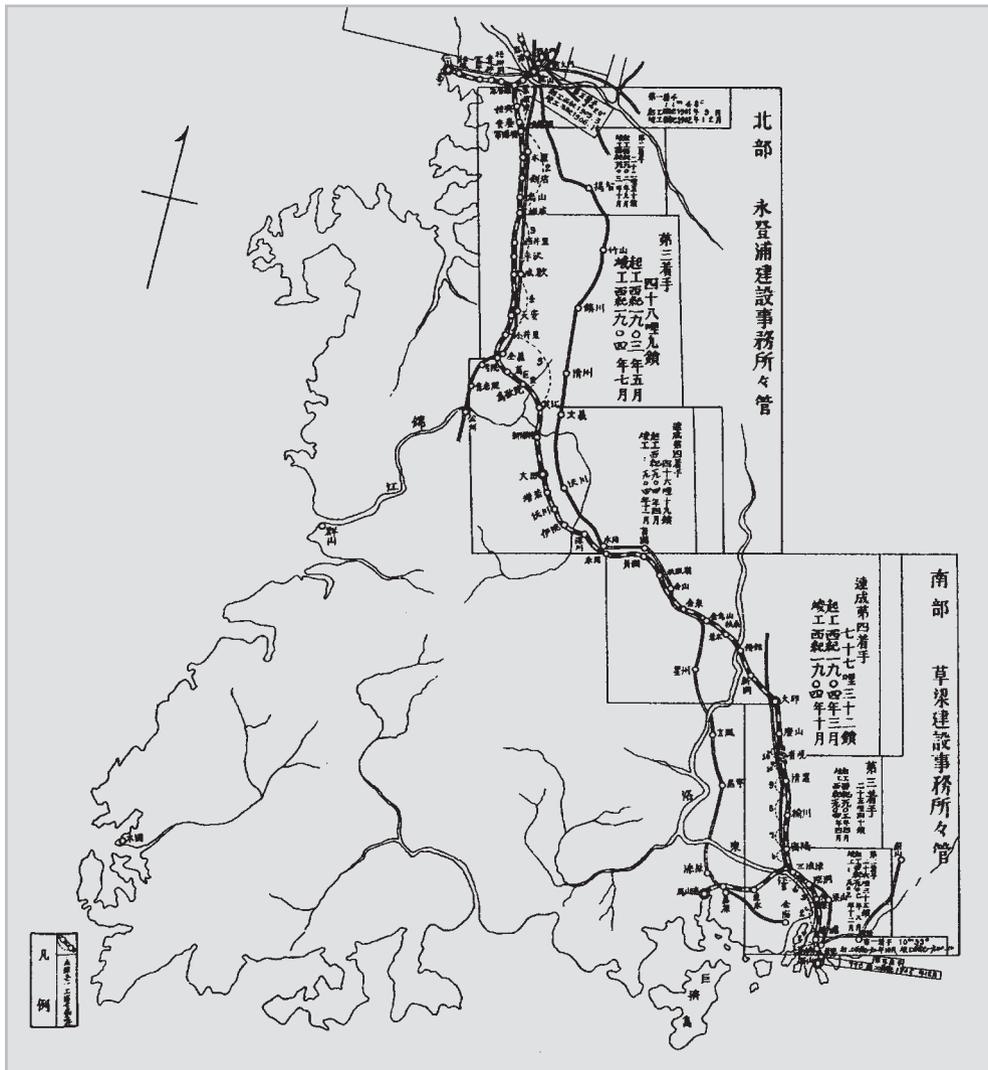
일제는 경부철도의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회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1~2차 답사 때 경부선 노선은 서울-부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려는 군사적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서울-용인-죽산-청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선정했으나, 3차 답사 때에는 상공업이 발달한 경제 선진지역을 관통하려는 목적에서 노량진-영등포-수원-공주-논산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4~5차 답사를 거치면서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의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는 수원을 통과하도록 한 것이 경제적 고려의 산물임을 보여 준다.

수원 구간은 경부철도의 안양 명학동(鳴鶴洞)-진위(振威) 간의 제2공구로 선로 거리는 22마일에 달하였다. 1902년 7월 착공하여 1년 후에 완공되었는데, 수원 구간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애초에 수원 구간의 노선은 사그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지지대(遲遲臺)고개의 서쪽 산에 터널을 뚫고 대유평(大有坪)을 거쳐 화서문 밖, 팔달산 기슭을 뚫고 상류천(上柳川), 대황교(大皇橋) 동편으로 나가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지지대 노선이 정조의 역사성이 깃든 「지지대비(遲遲臺碑)」와 화령전(華寧殿)이 있는 팔달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902년 2월 유기환(兪箕煥) 철도원 총재가 다케우치(竹内) 취체역에게 지지대 터널공사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공사 강행 의사를 밝혔으나 조선인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 전개되었다. 이후 조선 측 철도원이 군산포(軍山浦 : 현 군포시)에서 사시현(四時峴)을 넘어 대대동, 서둔동을 거쳐 상류천에 이르는 노선을 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지지대고개 터널공사를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에 일본 측에서 재고한 결과,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노선보다 1마일 정도 우회하

6 高成鳳, 『植民地の鐵道』, 일본경제평론사, 2006, 85-89쪽.

지만 터널공사가 필요 없고 공사비로 5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된다고 하여 오늘날의 경부선 수원 통과노선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18번지 서울기점 41.5km 지점에 위치한 수원역의 입지가 결정된 것도 이러한 노선 변경의 결과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수원역의 입지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정거장은 수원군청 소재지 안에 있고, 부근이 황량하지만 기름진 들판이 있어 농산물이 풍부하고, 시장이 2개 있어 물산의 집산지



「경부철도건설공구약도」(철도청, 『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 1999)



수원역(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로서 상업 또한 성하다. 정거장의 북쪽 20여 정 거리에 돌산이 있고 양호한 석재의 산지가 있으며, 부근에 동척(東拓), 히가시야마(東山 : 이하 동산), 구니타케(國武 : 이하 국무) 세 농장이 있고, 시가지는 정거장의 동쪽 15정 거리에 있으며, 성내에는 두루두루 20여 척의 높은 성벽과 사대문이 있어 울창한 팔달산이

남쪽에 솟아 있고 동북쪽에는 광교산 등이 산맥을 형성해 뻗어 있다. 서남쪽은 거주자가 거의 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어 사통팔달한 요충지이다.”⁷

수원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수원역 주변에는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성내 조선인들의 구시가지와는 사뭇 다른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3) 권업모범장의 설치와 일본인 인구 증가

수원의 일본인 인구는 1903~1904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노하라(猪原)를 비롯하여 기타자와(北澤), 오노(小野),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호소카와(細川), 야마자키(山崎), 이마무라 우타로(今村卯太郎) 등이 수원에 정착하면서 일본인촌이 형성되고 일본 인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수원에 일본인사회가 확고히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1906년 설치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항 이래 개항장에는 조선의 미곡을 반출하기 위해 많은 미곡상인들이 거주하였다. 1896년 인천미두취인소를 설립하여 미곡 반출을 본격화한 결과 조선의 총수출액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6년에는 53.1%, 1897년에는 6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미의 생산량과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제는 1903년 일본 농상무성에서 제일급의 농업기술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조선 전국에 대한 ‘토지농산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의 농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⁷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94쪽.



권업모범장 전경(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권업모범장 잠업시험장(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한국정부에서도 1904년 농·상·공의 실업에 관한 학술 및 기능을 가르칠 목적으로 농상공학교를 서울에 설립하고, 1905년 뚝섬(蘆島)에 농사시험장을 설립했으며, 1906년 초에 농상공부 주관으로 농사모범장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906년 일제가 수원에 설립한 권업모범장은 이러한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모범장 설치계획을 러일전쟁 이후 강권으로 좌절시킨 결과물이다.⁸

수원의 권업모범장은 1906년 통감부 주도로 설치되었다.⁹ 일제는 조선의 식량기지화를 위한 농업 발달과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고, 군산, 평양, 대구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대표적 기관으로 농사개량사업을 추진했으며, 경종법(耕種法)의 개선과 품종개량을 통한 수도(水稻) 우량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업기술의 체계가 정비되는 것과 비례하여 수원 권업모범장도 점차 확충되어, 수원본장의 용지 면적은 종래 73.7정보에서 1908년 말에 121.8정보, 1909년 말에는 149.8정보로 증가하였다.¹⁰ 권업모범장의 주요 사업은 “산업의 발달 개량에 기여한 조사 및 시험,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및 감정, 종자·종묘·잠종(蠶種)·종금(種擒) 및 종축(種畜)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강습 및 통신”¹¹ 등이었다. 핵심 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과 품종개량을 통한 일본농법의 이식이었으므로 수도 우량품종의 보급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권업모범장은 일제하 전국 농업기관의 요람이자, 식민지 농정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근대적 농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출장소와 종묘장, 농업시험소 등을 확충하였다. 권업모범장은 단순한 농업 장려와 농업기술 보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양잠 등 농업과 연관된 산업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1910년과 1914년 여자잠업강습소와 원잠종(元蠶種)제조소가 수원에 설립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¹²

1905년 러일전쟁의 승전을 즈음하여 수원 지역의 일본인 인구는 100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1906년 권업모범장과 1907년 농림학교가 수원에 설치되면서 일본인의 이주는 더욱

8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140~146쪽.

9 초대 장장(場長)인 혼다 고노스케(本田幸介)는 축산학을 전공한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교수로서 1903년 일본 농상무성 조사단의 일원으로 황해도·평안도·강원도의 농업자원을 조사하고 1905년 함경·평안·황해 3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담당한 인물로서, 당시 조선 농업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다(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156~157쪽).

10 조선총독부, 『명치42년 시정연보』, 1911, 178~180쪽;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152쪽에서 재인용.

11 酒井政之助, 『水原』, 1923, 36~37쪽.

12 여자잠업강습소는 원래 경성에 설립했던 것을 수원 서둔동으로 이전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산하기관으로 잠업시험소를 두었는데, 이는 최초의 근대적 잠업연구기관으로 1930년에 농사시험장 잠업부로 개칭되어 잠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담당하였다.



국무합명회사(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동산농사주식회사(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증가하여 191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수원군의 일본인은 1,237명으로 수원군 전체 인구 7만 6,274명 가운데 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주한 일본인들은 주로 건축토목업·양잠업·제지업·정미업 등에 주력했는데, 특히 권업모범장 주변에는 일본인 지주회사들의 농장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 12월에 국무(國武)합명회사에서 운영하는 국무농장이, 1907년에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산농장이, 그리고 1910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에서 운영하는 동척농장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1911년 수원군에 이주한 일본인은 667호, 2,408명으로 수원군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사가현(佐賀縣)과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이 가장 많았다.

권업모범장은 전통적인 성곽도시 수원을 근대도시로 성장시킨 추동력이었다. 수원에 이주해 온 일본인 대부분은 경부선 수원역 방면에 거주했으므로 수원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13년경 수원역 주변에는 2,657호, 1만 1,39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인이 381호, 1,303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하였다.¹³

일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에는 새로운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 조성되었다. 일본인회는 학교조합으로 개편되어 1906년 9월 수원거류민립소학교를 설치하고

13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94쪽; 성주현,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2호, 2005, 196쪽에서 재인용.



수원역전 거리 풍경(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수원에 이주해 온 일본인 대부분은 수원역 주변에 거주했으므로 수원역 일대는 근대적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0월 8일에 7명의 학생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수원거류민립소학교는 1907년 학생수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 1908년 1월 수원역과 가까운 팔달산 남쪽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는데, 1910년 5월 수원학교조합립 '수원심상(尋常)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4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변경되었다.

수원에 처음 포교된 일본 종교는 1905년 12월 들어온 정토종(淨土宗)으로, 그 뒤를 이어 1909년 5월에 진언종(眞言宗) 고야산파(高野山派), 7월에 진종(眞宗) 대곡파(大谷派)가 각각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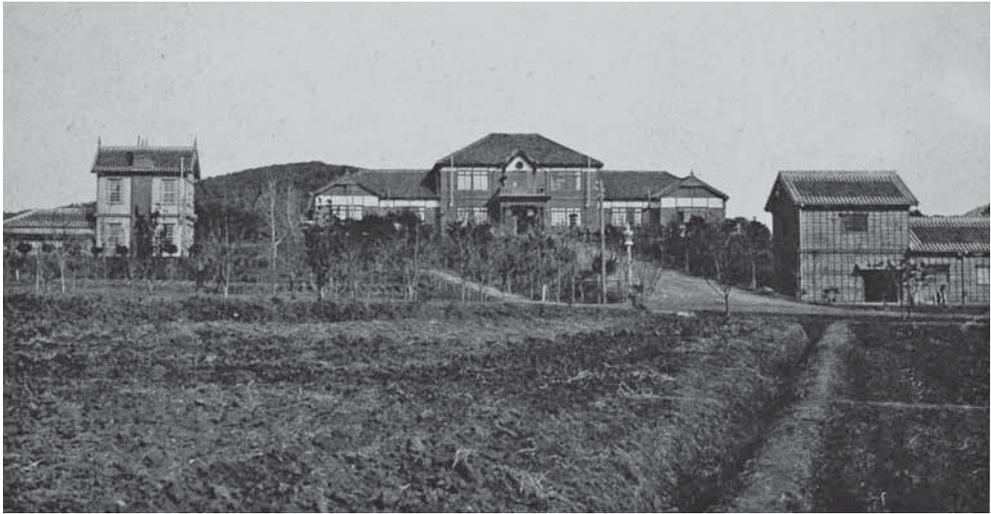
수원거류민립소학교(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일본인 학교조합이 수원 거류민 자녀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학생수가 급증하자 1908년에 팔달산 남쪽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1910년에 수원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

3. 식민지 농업 모범도시 수원의 발전(1914~1930)

1) 권업모범장의 변화와 일본인 상권의 확대

권업모범장과 종묘시험장에서 만들어진 종자는 각 지역 출장소와 종묘시험장, 면사무소와 종묘주식회사를 통해 일반 농민에게 공급되었는데, 수원에서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수원전기기술회사, 부국원(富國園),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부국원은 농학자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가 설립한 종묘회사로 조선의 풍토에 맞는 종묘 또는 묘목을 개발하여 수십 정보의 채종원(採種圃)에서 직접 실습, 배양하였다. 1910년대에는 종자와 묘목 판매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잠종잠구, 농구비료, 농산물 매매, 묘포식립 경영 등으로 확대하였다. 부국원은 수원역 앞 산루리(현 교동)에 본사를, 일형면에 잠업부를 두었으며, 일본 나가노현(長野縣)에 출장소를 두고, 수원군 북부면에 기타자와(北澤)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권업모범장의 잠업기술 연구와 종자 배급은 수원의 직물업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했다.

1910년대 후반~1920년대에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이 크게 변화하였다. 1918년 일본 본국에서 일어난 쌀폭동은 조선에 새로운 농업정책 수립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1920년대 ‘조선산미증식계획’ 실시를 계기로 권업모범장의 관제가 개정되어 <표 3>과 같이 황해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도, 평안남도 등지에 권업모범장 지장 및 출장소를 증설하게 된다.

〈표 3〉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주요 사업¹⁴

명칭	위치	설립 연도	분장 업무
본장	경기도 수원	1906. 4.	보통농사, 토지개량, 축산, 농예화학
목포면작지장	전남 목포	1906. 7.	면작
독도원예지장	경기도 독섬	1906. 8.	원예
잠업시험소	경기도 수원	1909.	잠업
여자잠업강습소	경기도 수원	1910. 2.	여자잠업강습
덕원원예지장	함남 덕원	1912. 3.	원예
세포목양지장	강원도 세포	1914. 3.	목양
난곡목마지장	강원도 난곡	1917. 6.	목마
서선지장	황해도 황주	1920. 3.	발작물 일반
용강면작출장소	평남 용강	1920. 3.	재래 면작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본인의 농업이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1920년 대에 이르면 수원 지역 일본인 이주 농민의 호수가 184호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인 지주

14 조선총독부 식산국, 『朝鮮의農業』, 1922, 96쪽 이하;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171쪽에서 재구성.

들은 1920년대 초부터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관개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 1920년대 수룡수리조합(水龍水利組合)은 동산농장, 동척농장, 국무농장 등의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며 1928년에는 여천(麗川)과 신대(新垓)의 양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원 거주 일본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농장을 경영했으나 부업으로 상업에 종사하면서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인 상인들은 수원역-남문 앞에 이르는 신시가지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였다.

반면 조선인 상권은 약화일로에 놓여 있었다. 수원 지역의 조선인 상업활동으로는 수원 곡물협회를 비롯하여 9개의 곡물도매상회, 안영순(安永舜) 외 5개의 해륙물산객주업, 차남순(車南舜)의 포목도매상인 수원상회, 이경의(李敬儀) 등 수십 개의 주단(綢緞) 포목점, 박선태(朴善泰)의 상신상회와 김병호(金炳浩)의 한영상회 등의 잡화상, 박일룡(朴一龍)이 경영하는 인쇄소 1개, 그리고 중앙자동차상회와 합자회사 시내자동차상회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표 4〉는 성내 팔달문 부근에 위치한 한성은행과 역전통에 위치한 식산은행의 거래고 차이를 보여 준다. 수원에 가장 먼저 설립된 은행이자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잘 알려진 한성은행 수원지점(1903년)과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1918년)의 1920년대 거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당시 수원의 조선인 상권과 일본인 상권의 경제력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 1923년 현재 한성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의 금융거래 현황¹⁵

(단위 : 원)

은행명	정기예금	당좌예금	특별당좌예금	제예금	총계
한성은행 수원지점	171,294	123,729	192,621	1,179	488,823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29,467	2,423,005	217,991	487,182	3,157,645

이와 같이 조선인의 상권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원 상인은 수고적(守古的)이며 진보도 변통성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도 개인주의에 치우치며 단결력은 아주 박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다 …… 경성이 너무 가깝고 따라서 교통이 지나치게 편리한 연고(緣故)”¹⁶

15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사』, 1986; 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3~45쪽에서 재인용.

16 『동아일보』, 1926년 1월 16일.

이다.

1920년대에 이르면 수원의 상업계는 점포수가 500여 개로 증가하면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실업협회가 조직되어 회두(會頭)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常議員) 5명, 평의원(評議員) 20명과 상담법률 및 고문 등을 둘 정도로 발전하여 수원의 상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수원의 상업이 이처럼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한 반면, 1920년대까지 공업 부문의 발전은 조선제지류와 도자기류, 기와류 정도에 그쳐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¹⁷

2) 수원의 일본인 상가 형성과 도시경관의 변화

식민도시화 과정에서 경성, 대구, 평양, 전주, 진주 등 전국의 주요한 전통도시들은 성곽이 철거됨으로써 기존 도시의 틀에 결정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수원의 경우는 화성(華城)이 온전히 보존되어 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시형태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수원의 공공시설물들이 화성을 벗어나는 시기는 경부선 개통 이후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등 주요 시설이 수원역 앞에 건립되면서부터다. 성내가 중심이었던 당시 수원시의 도심이 점차 성문 밖까지 확대되었다. 먼저 확장된 곳은 남문 밖 교동 일대와 현 중동사거리이며, 이곳에서 역전까지 황량하던 벌판에 일본인들이 길 양쪽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역전 일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수원의 읍치를 위한 주요 행정기구들은 모두 성내에 잔존했으며, 수원역 부근에는 초기에는 농업시설들만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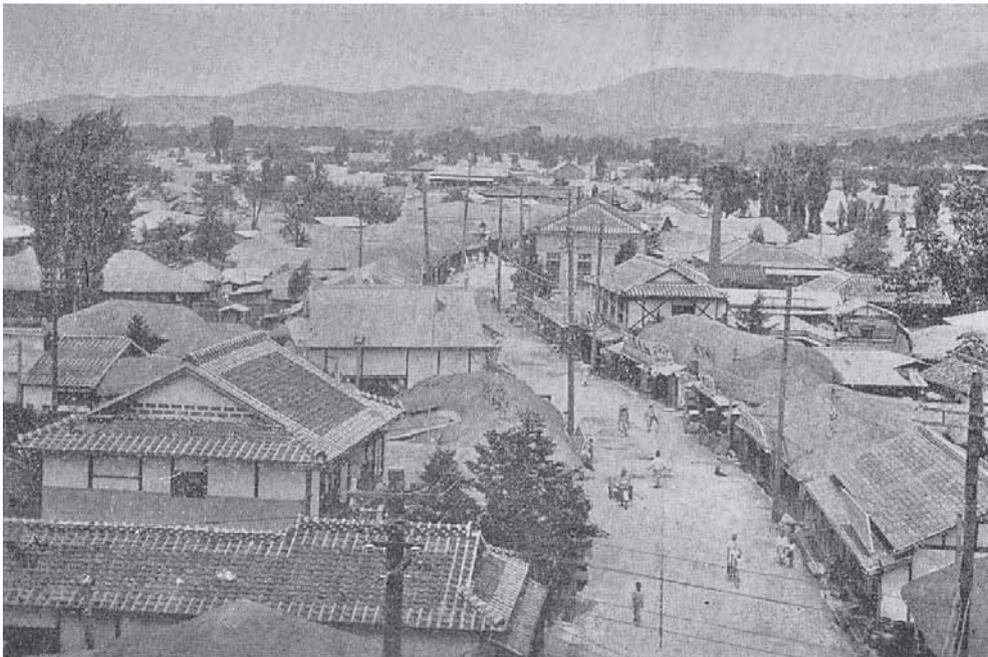
일본인 이주가 본격화된 1910년대 이후 수원군에는 800여 호 3,000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오늘날의 매산로)에 분포되어 있었고, 일부는 성내에 거주하기도 했다. 1920년대 수원 지역 일본인 주요 상점 현황을 나타낸 <표 5>를 보면 수원역 부근뿐만이 아니라 남대문 부근과 성내 지역까지도 일본인 상점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수원의 각 면별 호수조사에 따르면 수원군 인구는 2만 6,797호에 약 13만 4,000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그 가운데 약 25%가 수원면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원면 관내 거

17 『동아일보』, 1926년 1월 16일(성주현,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2호, 2005, 195쪽에서 재인용). 참고로 1923년 수원 지역의 공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수 12개소, 공장건물 평수 983평, 자본금 60만 8,386원, 종사자 151명, 생산액 97만 5,102명. 공산물 중별은 요업제품 1만 1,840원, 금속제품 2만 168원, 기타 잡물 94만 3,094원으로 계 97만 5,102원으로 집계하고 있다(『수원 공업 상황』,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



팔달문 밖 거리(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근대식 건축의 상점들과 자전거, 전봇대 등 근대문물이 등장하였다.



근대적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 수원 성 안 상점가(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주 인구는 1912년 2,347호, 1만여 명이던 것이 1925년에는 6,670호, 3만 3,000명 정도로 불과 10여 년 사이에 3배가량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920년대 수원 지역 일본인 주요 상점 현황¹⁸

상호	업종	상호	업종
이소자키(磯崎)상점	잡화	사기테(坂手)상회	석탄 등 연료 일체
히라다(原田)신문점	신문 보급	수원물산상회	내외 잡화·해산물
파상회(巴商會)	양복	수원연초원매조합	관제 연초
도이(土肥)자동차부	승합자동차	이다(飯田)상점	면류 제조 판매
오자키(尾崎)상점	신탄·연탄·과수	백양사(白洋舎)	우유
오카모토(岡本)시계점	시계	박다옥(博多屋)	고급요리점
오노(大野)상점	재목상·건축청부	토월(吐月)	고급음식점
화화성관(花華城館)	여관	가모(加茂)약점	매약·화장품
무라카미구미(村上組)	토목건축 청부	다니구치(谷口)소간물점(小間物店)	소모품
야마모토(山本)여관	여관	요리오카 류조(頼岡龍藏)	건축 청부
마루미즈(丸水)운송조(運送組)	운송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	토목건축 청부
부국원	종묘·비료·농잡구·농산물 매매	야마자키(山崎)오복점(吳服店)	양복
데라사오(寺澤)상회	미곡·잡곡·무역	야나다(梁田)상회	각국 자동차
아오키(青木)상회	미곡·무역·정미	곤도(近藤)상점인쇄소	종이·인쇄·활판
화성관(華城館)	숙박업	아오키(青木)여관	여관
시누키(讃岐)상회	정미	청광당(淸光堂)서점	서적·잡지·문방구
취향원(翠香園)	고급음식점	산요(山陽)여관	여관
수월당(水月堂)	과자	수원사진관	사진
수원상사(水原商事)주식회사	운송·창고업	와키다(脇田)상점	잡화·화장품·식료품
내국통운(內國通運)주식회사 취인점(取引店)	운수	간자키(神崎)상점	양복
가야마(香山)상점	종묘·과수	이로하(いろは)	고급음식점
기쿠 노야(喜久野屋)상점	잡화	기타무라(喜多村)양복점	양복 및 부속품
수원인쇄회사	각종 활판 인쇄	히후미(一二三)	고급음식점
미야자키(宮崎)재목점	재목·연료	히라다(平田)상점	잡화·종계·종돈
이마무라(今村)상점	모자·메리아스·초자·잡화	수에히로(末廣)	고급음식점
다케시타(竹下)상점	쌀·잡곡·무역	부사정(富士亭)	고급음식점
다카기(高木)상점	농잡구·과수·양계	원세포소(原洗布所)	세탁
무사시노(武藏野)	고급음식점	소에지마(副島)상점	도자기
노나카(野中)상점	총포·화약	수원양조합자회사	양조
구쓰나(忽那)상회	소 매매	세나다(セナダ)자전거상회	자전거 판매
마쓰나기(松永)약국	각종 약 조제	수원전기주식회사	전등·전기구 보급

18 성주현, 「근대 식민지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제2호, 2005, 193쪽.



일본인이 운영하던 철물점 (수원박물관 소장)

일본인 소학교가 들어선 팔달산 중턱에는 1917년 수원신사가 건립됨으로써, 일본인 소학교와 수원신사는 수원의 일본인사회를 지탱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팔달산은 1789년 수원 읍치를 화산(花山)에서 팔달산 아래로 옮겨 오면서 수원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읍치 이전과 더불어 팔달산에 향교와 사직단이 건립되면서 수원 읍치의 주산(主山)이 되었고, 1796년 화성 축성과 더불어 팔달산에는 화성장대(華城將臺)가 들어섰으며, 화성의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인 성신사(城神祠)와 정조를 기리는 사당인 화령전(華寧殿)이 들어서



수원 읍내 상점가의 일본인들(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팔달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원신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면서 수원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식민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권업모범장과 동쪽의 팔달산을 아우르는 공간은 일본인들의 거점지가 되었다. 수원 시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팔달산 중턱에 1917년 수원신사가 건립되었다.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등 수원 거주 일본인 유력자 48명이 청원하여 1915년 12월 20일 수원신사의 창립이 허가되었는데 그 위치는 수원향교 위로서 이미 1907년 그 부근에 영국 성공회교회가 들어선 곳이었다. 이제 팔달산을 기준으로 동쪽은 조선인 구시가지로, 서쪽은 일본인 신시가지로도 시공간은 양분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팔달산의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1927년 1월 14일 수원면협회의회의 회의 안건으로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¹⁹ 당시 팔달산공원 조성은 일본 쇼와(昭和)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는 이른바 '다이텐(大典)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국유림인 팔달산의 보호와 수원 민민의 위생 향상을 위한 것이자, 당시 변변한 공원조차 없었던 수원면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²⁰ 이에 당시 수원면장인 곤도(近藤)는 '수원면국유림야보호조합'을 급조하여 조합장을 맡아 848원을 기부함으로써 공원화 운동에 유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수원의 경관을 크게 변화시킨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는 근대적 관공서 건물들을 들 수 있다. 수원에 근대 관공서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로서, 행정 및 경찰기구는 조선인이 밀집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관아가 있던 화성 안에 위치하였다. 특히 팔달산 아래 화성행궁을 허물고 근대적 기구들(자혜의원, 토목관구, 경찰서 등)이 들어섰다. 수원군청은 화성행궁 건물 중 가장 뒤쪽에 있었던 낙남헌(落南軒)을 개조하여 1938년 7월까지 사용하였다.²¹ 수원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인 자혜의원도 초기에는 화성행궁의 봉수당(奉壽堂)을 개조해서 사용하였다. 이후 자혜의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1923년에 수원군 신평리의 옛터를 확장하여 3,751평의 대지에 총공사비 7만 8,000원을 들여 2층 연와조 본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그 밖에 당시 수원에 새롭게 들어선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는 한성은행 수원지점, 식산은행 수원지점, 수원금융조합과 화성금융조합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19 당시 회의 안건은 '국유림야대부 및 수원 서공원(西公園) 설치에 관한 건'이었다. 서공원이라는 명칭은 중포산에 위치한 동공원을 고려한 것이었다.

20 인천의 경우 동공원(八坂공원)과 서공원(만국공원), 월미도 공설운동장 등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수원의 일본인들은 이를 크게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21 수원군은 1938년 10월 9일 기공식을 거행하였다(「수원군청사 기공식 성대」, 『매일신보』, 1938년 10월 11일).



수원금융조합(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한성은행 수원지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일제시기 수원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수원고등농림학교는 통감부시기인 1906년 대한제국정부가 수원군 일행면 서둔리에 민유지를 매입하여 교사(校舍) 건설에 착수하여, 1907년에 완공·개교한 농림학교가 그 효시이다.²² 1908년 1월에는 당연직 교장이 농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에는 관제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되었다. 1910년에는 서울에 있던 관립여자잠업강습소가 수원에 이전·설치되었는데, 이 학교는 매우 엄격한 학제와 뛰어난 시설을 갖춘 전국 유일의 교육기관으로 잠업·잠사 기술을 교육하여 1925년까지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을 배출하였다. 수원농림학교는 1918년 3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관제」 개정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어 일본인의 입학이 허가되면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공포된 「조선총독부 제학교관제」에 의해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진 많은 농업교육기관들에 대해 선도적인 지위를 점했으며, 1936년 수원공립농업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농업교육 중심지로서

²² 통감부시기의 농업교육기관으로는 수원의 농림학교(1907년)를 비롯하여 1908년에 세워진 평양의 농업학교에 이어 1910년에는 광주, 진주, 춘천, 전주, 대구, 정읍, 함흥, 북청, 예산 등지에 공립농업학교가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사리원, 의주, 청주, 안주, 영변에 다시 5개교가 설립되었다.



서둔동 일대와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농업실습을 하고 있는 수원고농 학생들(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실습 중인 수원고농 학생들(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수원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오늘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에는 선별된 일본인 학생들 조선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교수와 관리들은 거의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조선인 학생들은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1920년대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8년 이른바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사건’으로 이어졌다. 수원고농 학생들은 농민 계몽과 농촌 부흥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농민봉기를 일으킬 계획으로 비밀조직을 결성하여 야학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8년 검거되었다. 하지만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학교 비밀결사이자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1930년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

3) 역사도시 수원의 관광도시화

이 시기 수원은 화성을 비롯한 고적을 보유한 관광 명소로 부각되었다. 조선시대 고적인 화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일찍이 조선총독부의 후원 아래 일본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등이 펴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 화성에 대한 내용은 총 15책 가운데 제11책 『조선시대(城郭, 學校, 文廟, 客舍, 史庫, 書院等 建造物)』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시대 성곽은 한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개성, 평양성, 영변성, 안주성, 의주성, 수원성, 진주성 등 10개에 불과한데, 그중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경성(한양성)으로 29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고, 수원성(화성)은 그다음으로 많은 23장의 사진을, 이어서 평양성은 17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성곽들의 사진은 모두 10장 미만이다.²³

당시 수원의 명소를 담은 다양한 사진엽서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이들 엽서에는 한편으로는 수원의 대표적인 역사유적 및 전통문화유산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새롭게 건설된 수원의 랜드마크들이 소개되었다. 전자의 예로는 화성행궁, 화령전, 화성의 4대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및 서호와 향미정, 용주사, 읍릉, 「지지대비」 등 화성과 관련된 유적들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수원신사, 권업모범장, 고등농림학교, 수원역 등이 대표적이다.

²³ 한동민, 「사진, 화성을 만나다」, 『사진으로 보는 화성 백년의 여정』, 수원화성박물관, 2010, 172-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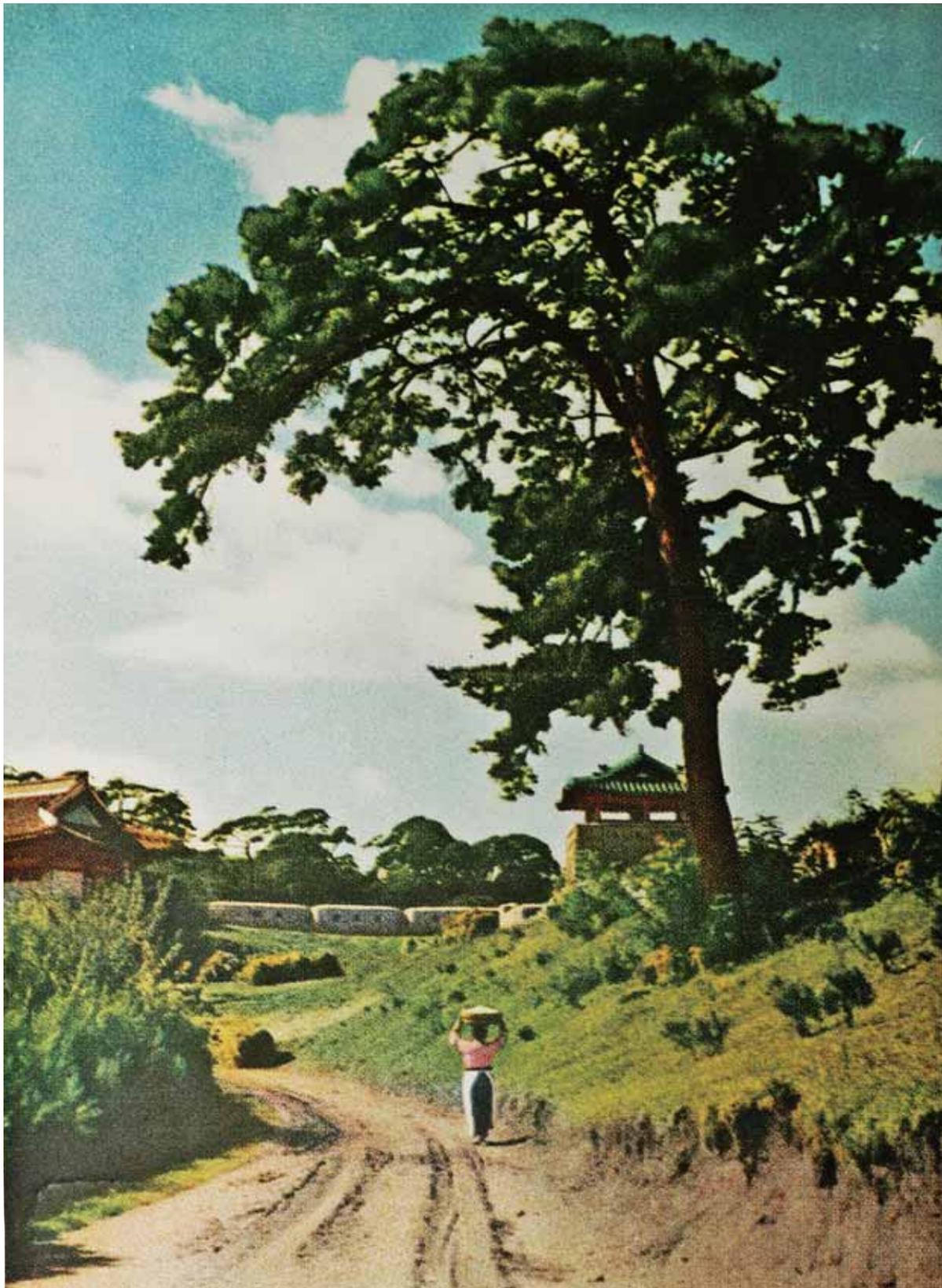
화령전(수원박물관 소장)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수원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부근(수원박물관 소장)

1920년대 후반 수원의 관광도시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1928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최초로 전통한옥구조로 건축된 수원역사이다. 수원역은 초창기에는 경부선의 4등급 정거장에 불과했는데,²⁴ 여객보다는 쌀·보리·콩 등 곡식과 선어(鮮魚)·염간어(鹽干魚) 등의 해산물과 금속기류·가구류 등의 화물 운송이 많았고,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이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다. 1920년대 후반 개통 20주년을 넘어서면서 수원역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수원역사 신축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광도시 수원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한 수원역사 신축은 1925년 4월 1일 그동안 조선철도를 위탁경영해 온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부터 조선총독부가 운영권을 회수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²⁵ 당시 총독부 철도국장으로 부임한 오무라 다쿠이치(大村卓一)는 조선철도의 총독부 직영체제 확립과 더불어 한반도 철도망의 비약적 확산과 경제적 자립구조 확립에 매진하였다.²⁶ 1925년에서 1933년 사이에 철도노선의 연장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철도역사의 수도 2배로 증가하였다.²⁷

그러나 1920년대 후반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조선철도의 건설사업은 커다란 경제적 난국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철도가 여객수입보다 화물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이러한 난국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여객운송 수입의 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였다. 1926년 철도국에서 전 조선에 걸쳐 명승고적과 고사찰 등 42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²⁸ 철도국의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역사는 1927년 6월 13일 설계하여 1928년 9월 1일 준공식을 가졌는데, “나무의 도시, 물의 도시라 하여 경부선에서뿐만 아니라 전선(全鮮)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명승의 수원”에 걸맞은 관문으로서 ‘순조선식’을 채택했음을 강조하였다.²⁹ 신축된 수원역사는 총건평 177평에 공사비 2만 8,000여 원이 소요되었으며, 역사는 벽돌 단층에 한식 기와집

24 경기도 내에 있는 철도역사 중에는 인천이 유일하게 2등급이고, 평택이 5등급, 나머지는 모두 6등급이었다(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1쪽, 각주 5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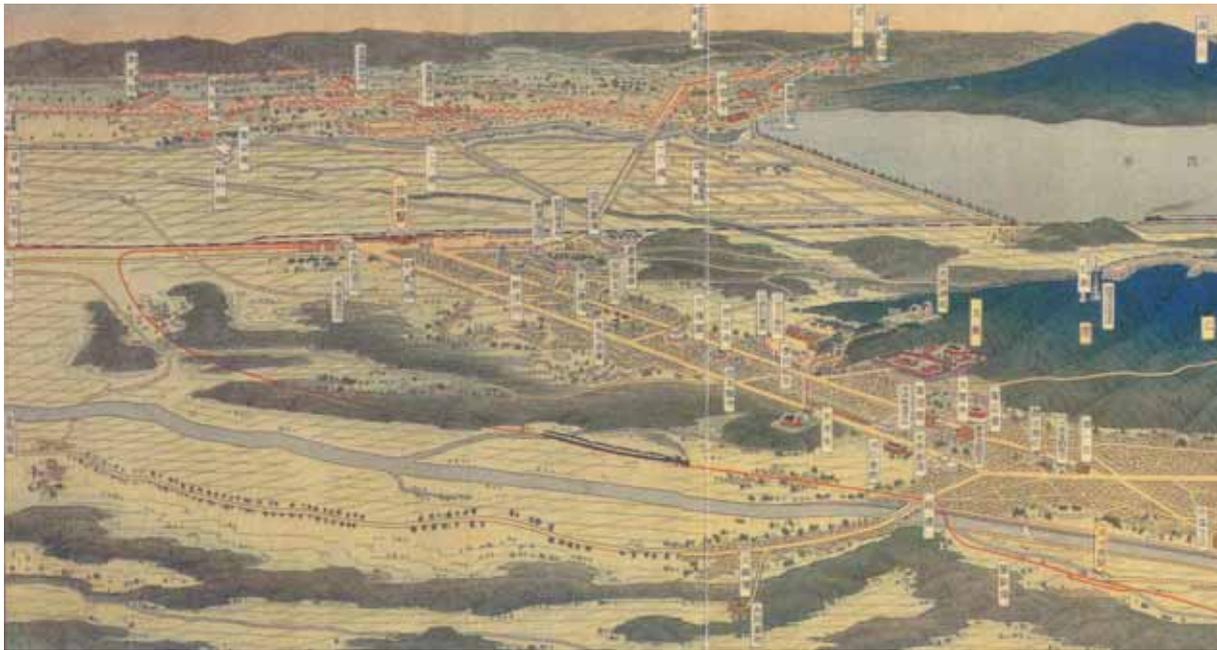
25 식민지 조선의 철도 건설 및 운영은 시기적으로 임시군용철도감부 운영 시기(1906-1917), 만철 위탁경영 시기(1917-1925), 조선총독부 직할경영 시기(1925-1945)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26 오무라는 1925년 5월 26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장으로 부임하여 1932년 9월 만주 관동군 책임자로 전근하기까지 7년 6개월간 「조선철도 12개년 계획」을 기획하여 조선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다.

27 국유철도역의 수는 1917년 199개, 1925년 270개, 1933년 520개, 1940년 636개로 증가하였다.

28 『매일신보』, 1926년 5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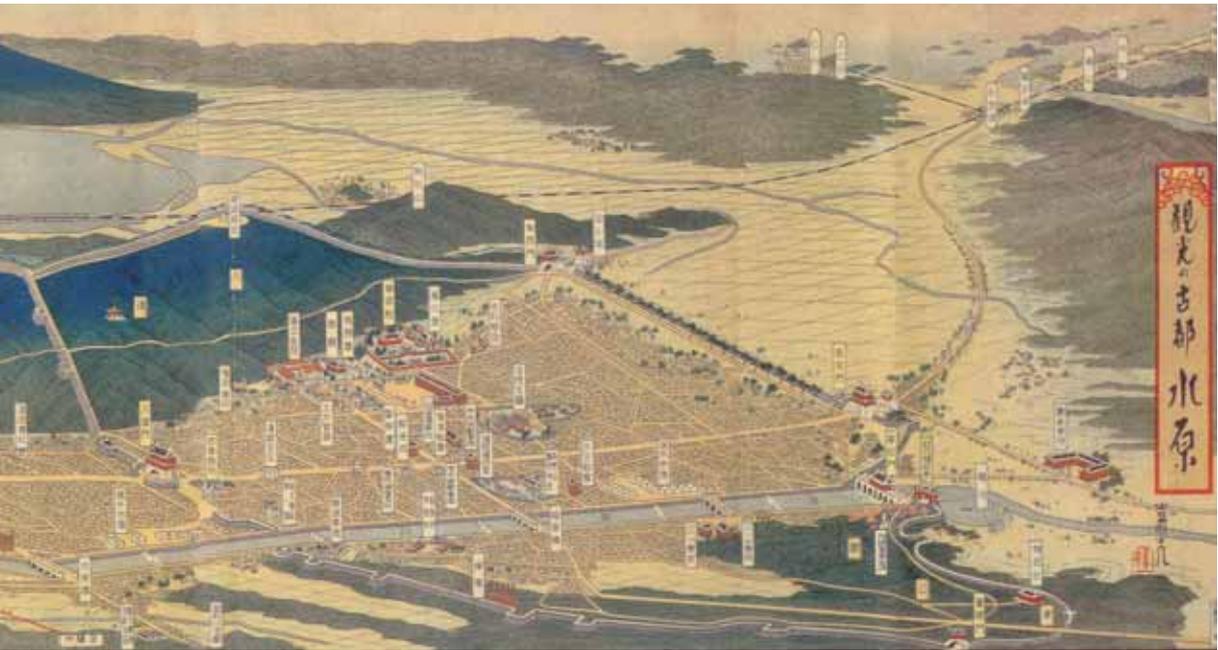
29 「純古式으로 수원역을 신축. 수원역을 조선식으로 조선에 처음 보는 일」, 『매일신보』, 1928년 4월 4일; 「수원역 낙성식」, 『동아일보』, 1928년 9월 2일.



수원관광지도(수원박물관 소장) 1936년 제작된 수원 관광안내 채색지도이다. 명승고적, 관청, 종교시설과 경부선·수여선 등의 철도, 각 등급의 도로 등을 소개하였다.



조선식으로 신축된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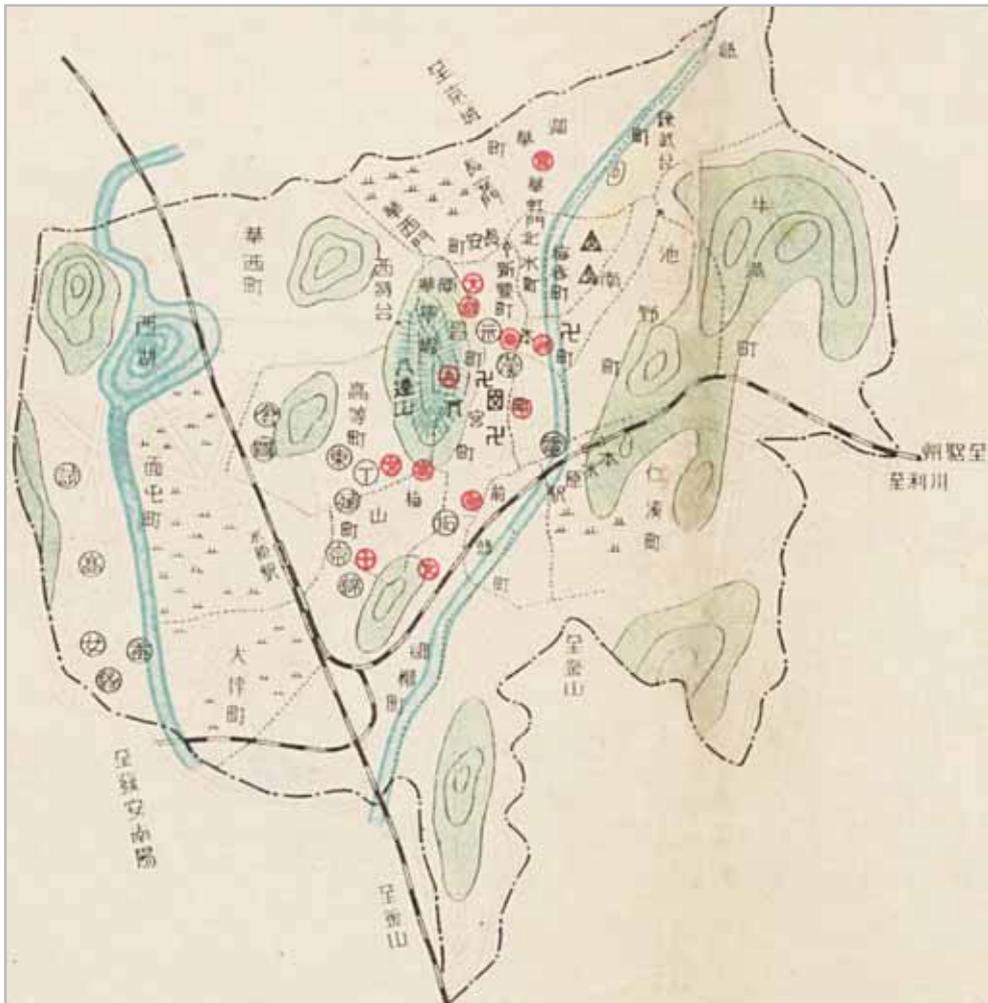


으로, 단층구조에 지붕은 한식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이었다. 이러한 전통한옥 건축형태는 경주역, 전주역, 남원역 등에 적용된 것으로, 당시 조선철도국에서 고적이 많은 지방의 철도역사를 '조선양식'으로 건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4. 수원의 공업도시화와 전시체제하의 도시계획(1931~1945)

1930년대 수원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수여선(水麗線)과 수인선(水仁線) 철도 개통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이 크게 신장된다. 수원과 여주를 잇는 협궤열차인 수여선은 1931년 12월 1일에, 수원과 인천을 잇는 협궤열차인 수인선은 1937년 8월 6일에 각각 개통되었다. 1930년에는 수원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승합자동차가 개통되고, 1931년에는 경성과 수원 사이에 대형 가솔린 기동차(汽動車)가 하루 두 차례 운행되고 버스노선이 개통되는 등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망이 발전한다.³⁰

30 「水原 仁川間 乘合自動車 十月一日 開通」, 『동아일보』, 1930년 9월 15일; 「京城 水原間 汽動車 運轉」, 『동아일보』, 1931년 2월 19일; 「水原 京城間 버스도 開通」, 『동아일보』, 1931년 3월 18일.



1936년 개편된 수원읍 행정구역(수원박물관 소장)

1931년 4월 1일에는 총독부령에 따라 전국 41개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다.³¹ 이에 따라 수원군은 수원읍, 매송면, 정남면, 안릉면, 장안면, 양감면, 태장면, 향남면, 반월면, 일왕면, 동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봉담면, 마도면, 비봉면, 성호면, 우정면, 음덕면의 1읍 19면으로 편성되었다. 1936년 10월 1일에는 수원읍의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확대되었다. 수원읍 각 리(里)의 명칭은 마치

31 조선총독부령 103호, 1930년 12월 29일 공포.

(町), 초메(丁目)와 같이 일본식으로 개편되어 본정(本町 : 1·2·3·4정목), 매산정(梅山町 : 1·2·3정목), 남수정(南水町), 구천정(龜川町), 영정(榮町), 매향정(梅香町), 북수정(北水町), 신평정(新豊町), 궁정(宮町), 장안정(長安町), 남창정(南昌町), 남부정(南部町)으로 개편되었다.³² 또한 수원군의 일형면 고등리·영화리·지소리·동리·서둔리, 수원군 태장면 지리·인계리·권선리 일부, 수원군 안룡면 세리·평리 일부 등이 수원읍으로 편입되어 정 체제로 변경되었다.³³ 이에 따라 수원읍의 면적은 8배 이상 확장되고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나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³⁴ 이러한 변화는 단지 도시 규모나 인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산업구조나 도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1)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의 전환

1930년대 수원 지역의 공업화를 주도한 것은 직물업이었는데, 그 발단이 된 것은 권업모범장의 존재였다. 일제는 1929년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여 농업 연구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권업모범장 시절(1906~1929)에는 일본 품종의 이식에 주력했다면 농사시험장 설립 이후(1929~1944)에는 신품종을 직접 육성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음을 의미한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업기술 전략을 ‘단순이식’ 전략에서 ‘육종 연구’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메이지시기 성장을 주도했던 신품종의 잠재성이 1920년대 들어와 고갈되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권업모범장 체제를 육종 연구에 적합한 농사시험장 체제로 개편하고, 새롭게 육종 연구를 전담할 남산지장(南鮮支場)을 설립하였다. 이들 품종들은 해방 이후 남한의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아 1970년대 통일벼가 보급되기 전까지 남한의 미곡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³⁵

권업모범장의 잠업기술 연구와 종자 배급은 수원의 직물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09년 보시동(普施洞) 목기계염직공장을 시작으로 남수동에 수원염직조합직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염직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원의 직물업체는 13개로 증가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인이 경영하였다. 1930년대 수원의 직물업 성장은 권업모범장의 잠업 연구와 기술 배양 및 인력 양성, 철도 부설에 따른 운송수단

32 이 가운데 본정은 지금의 팔달로 지역, 영정은 영동, 궁정은 교동, 남부정은 매교동 지역이다.

33 조선총독부령 제94호, 1936년 9월 26일 공포.

34 「약진하는 수원읍, 행정구역 확장」, 『동아일보』, 1936년 7월 29일.

35 우대형, 「일제하 조선에서의 미곡기술정책의 전개 : 利植에서 育種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8집, 2006 참조.



동흥직물공장(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방직사사』, 1997)

구비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제시기 수원 지역 직물공장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일제시기 수원 지역 직물공장 및 회사 현황

설립 시기		회사 명칭	회사 위치
~1910년	1909	목기계염직(木機械染織)공장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
	1911	염직공장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1912	수원염직조합직물공장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1920년대	1925	수원직물공장	수원읍 영동 60
1930년대	1936	조선총독부 제사(製絲)공장	수원읍 서둔동
	1936	남부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	
	1936	수원직포(水原織布)주식회사	
	1938	소화직물공장	수원읍 본정 3정목
	1939	동아직물공장	수원읍 매향정 146
	1939	창화(昌和)직물공장	수원읍 신평정 160
1940년대	1942	소화직물공장 제2공장	수원읍 남수정
	1943	소화직물공장 제3공장	수원읍 구천정
	1943	동흥(同興)직물 수원공장	수원읍 세류정 236
	1943	선경(鮮京)직물 수원공장	수원읍 대평정
연대 미상		대성(大成)직물공장	
		성진(成田)직물공장	

이처럼 1930년대 후반 수원은 금융·토지자본이 공장자본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직물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수원이 ‘농촌도시’에서 비약하여 ‘공장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는 진단이 속출하였다.³⁶ 이러한 변화는 수원 시내의 상권 형성과 지가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상업·유흥문화도 유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팔달문 밖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대로 주변은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가 하면, 여름철에는 사거리에서 수원극장에 이르는 노변에 약 70~80개의 노점을 설치하여 야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수천 명의 구경꾼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³⁷ 또한 30여 명 내외에 머물던 기생의 숫자가 60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화류계가 번창하고 유흥비가 급증하는가 하면, 절도·사기·상해·횡령 등의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급작스런 도시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⁸

2) 수여선과 수인선의 개통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철도사업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수여선과 수인선 철도는 1930년대 수원의 급격한 도시화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수원은 수인선과 수여선의 시종착점이 됨으로써 1930~1940년대 수원은 경기 남부 지역 철도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들 철도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 조선철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철도사업³⁹

노선 명칭	개통 연도	부설 회사	연결 도시	비고
경부선	1905.	경부철도	서울-부산	
수여선	1931. 12. 7.	경동철도	수원-여주	73.4km 부설
수인선	1937. 8. 6.	경동철도	수원-인천	52km 부설

조선총독부는 1926년 ‘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했는데, 이는 군사·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둔 전국적 철도망 확충 계획이었다. 이를

36 「금융 토지자본이 공장자본으로 전향 자본주의 발전의 추이 수원 계계의 동태」, 『동아일보』, 1936년 2월 27일; 「逐日 발전하는 수원 직물계」, 『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日紡공장기지, 매수를 완료, 영등포, 수원에」,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8일; 「발전되는 수원에 각종 공장이 진출 공업도시로 되어 가」,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 「농업의 수원읍, 躍進 工都化 각종 공장이 대진출」, 『동아일보』, 1937년 12월 12일.

37 「수원에 야시」, 『동아일보』, 1934년 8월 15일.

38 「一年間 犯罪 二千件 突破(水原)」, 『동아일보』, 1936년 2월 5일; 「水原 遊興費 一年十六萬圓」, 『동아일보』, 1936년 3월 8일.

39 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9쪽.



『조선철도약도』에 나타난 수여선·수인선 노선(1938년, 수원박물관 소장)

위해 국철 자체의 신노선 건설과 함께 기존 사설철도의 매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27년부터 1931년까지 3개 회사 5개 노선 총연장 209.8마일이 국철선에 편입되었는데, 이 중 3개 노선은 762mm의 협궤를 1,435mm의 표준궤로 개축하였다.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따라 철도국유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사설철도의 신설은 거의 지역철도에 한정되었다. 당시 사설철도로서 일반 궤도가 아닌 협궤열차는 신흥철도주식회사가 건설 운영한 장진선(長津線), 송흥선(松興線), 흥남선 그리고 수여선·수인선으로 불리는 경동철도가 있었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자본금 300만 엔에서 출발하여 수인선 개통 당시에도 자본금이 500만 엔에 불과하여 재정이 여유롭지 못했으므로 조선총독부 사철보조금과 사채,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결국 경동철도는 경영 악화로 적자를 면하지 못한 채 1942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흡수되었다.

남한강 유역에는 일반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3개의 노선이 건설되는데, 이들 노선의 건



일제시기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건물(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 40년 약사』, 1937)

설 목적은 남한강 유역의 곡창지대 교통 개발과 강원도 연서 남부 지방의 오지 개발에 있었다. 조선철도의 충북선(조치원-충주), 조선경남철도의 경기선(천안-장호원) 그리고 조선경동철도의 수여선(수원-여주)이 그것이었다.

수여선은 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30년 12월 4일 수원-이천 간 53.1km에 14개 정차장이 세워져 운행이 시작된 이래, 1931년 12월 7일 이천-여주 간 20.3km에 4개 정차장이 추가 건설되어 완전 개통되었으며, 1972년 3월 31일 운행을 끝으로 42년 만에 폐지된 시설 협궤철도이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원에서 여주까지 73.4km 구간의 면허를 얻어 1930년 수원-이천 구간을, 1년 후에는 이천-여주 구간을 개통하였다. 당초 자본금은 300만 엔, 차입금은 130만 엔으로 일본인 자본가 다가와 쓰네히치로(田川常一郎)⁴⁰에 의해 투자되었는데, 조선경동철도는 다른 시설철도에 비해 재정기반이 취약해 표준궤 규격으로 면허를 받고도 자금 부족으로 협궤로 건설되었다.

수여선의 주된 부설 목적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곡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수여선을 통

40 조선평안철도(진남포-용강온천)와 경성의 철도차량공장인 용산공작(龍山工作)주식회사를 경영한 인물이다.



수원역 앞을 운행하는 버스(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한 운송은 화물보다 여객의 비중이 더 컸다.⁴¹ 수여선의 경영 사정은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객과 물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할인 시책을 펴거나 인천의 송도유원지, 원천유원지, 이천온천 등 관광시설을 선전하여 집객(集客)·집화(集貨)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여선의 종점을 여주로 삼은 것은 기존의 남한강 수운과의 연결을 고려한 것으로 수여선이 완전 개통된 이듬해인 1932년 여주 하항(河港)에서 원주 부론면 흥호리(興湖里)까지 선박 3척으로 하루 4회 왕복하는 영업을 개시하였다. 흥호리는 조선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흥원창(興原倉)이 있던 곳으로 일제시기에다 여전히 영서 지방의 물자 집산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원주 지역의 물동량이 현저히 줄면서 1937년에는 경동철도의 수운사업은 포기하고 1935년에 철도 연장 면허를 받았음에도 공사 실시를 포기하고 말았다.⁴²

41 수여선이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던 1938년 당시 수여선의 운행 횟수는 왕복 4편으로 수원역에서 9시 50분, 13시, 15시 39분, 17시 8분에 출발했으며, 편도 2시간 23분이 소요되었다.

42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35년 7월 5일 여주에서 흥호리 대안(對岸)인 점동면(占東面)까지 노선 연장 면허를 얻었지만 수인선이 부설되기까지 착공을 미루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무산되고 말았다. 1942년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46년 국유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 버스와 트럭에 운송시장을 빼앗겨 적자운행이 계속되다가 결국 1972년 폐선되기에 이른다.

수여선 개통 이후 기존의 운송체계가 수여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동차와 우마차 중심의 기존 운송체계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1932년을 전후해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수원, 여주, 죽산, 관주 등 내륙 각지의 자동차 운송망을 인수하면서 화물과 여객이 증가해 상당한 영업 이익을 누렸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여주에서 신작로를 따라 화물자동차 노선을 개설하고, 이후 양평, 장호원, 충주 등지로 화물노선을 확장했으며 나아가 이천, 신갈에서 서울로 직행하는 트럭 노선도 개설하였다. 여객 수송에서도 철도 연변의 버스회사를 직영화·계열화함으로써 철도선 주변의 교통을 장악해 나갔다. 1941년 4월에는 수원군 지역에서 서울과 수원 간을 운행하는 경수자동차주식회사를 매수하여 자동차 영업을 개시했으나, 나중에는 이 자동차 영업망이 철도 수요를 잠식하여 오히려 수여선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제시기에는 철도가 자동차에 비해 운임이 저렴했지만 나중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던 것이다.



수원-여주 간 자동차 도로(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자동차는 철도에 비해 운임이 비쌌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다.

수인선도 협궤열차로서 1937년 8월부터 수원-인천항 구간의 운행을 개시하였다. 수인선 부설문제는 1926년 인천상업회의소에서 제출한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 ‘요망서’는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강원도 내륙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부선과 경인선의 수송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안 등 서해안 내륙의 관염(官鹽)을 내륙 깊숙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수인선 부설문제는 수여선이 완전 개통되고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자동차 운수업체 인수가 마무리되는 1932년경에야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인천 지역 상공인들의 협력을 얻어 1935년 9월 23일 총독부로부터 수원-인천 간 철도 부설 허가를 얻었다. 1936년 5월 16일 인천 화정(花町)매립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 2개월 만인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을 개시하였다. 수인선은 총연장 52km의 협궤열차로 10개의 정식 정차장과 7개의 임시 정류장을 두었으며,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 정도에 주파하였다.

수인선의 부설 목적은 당시 여주·이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던 양질의 쌀과 강원도 벽

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고 군자·소래·남동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산간 오지로 수송하는 데 있었다. 또 조만간 개장될 인천 송도유원지를 향하는 위락인 구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있었다. 수인선 개통 이후 수원-인천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해 창고시설과 인입선을 확충하고 역사(驛舍)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⁴³ 특히 내륙의 곡류와 해안의 소금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과 수원 지역의 경기는 호황을 누렸으며 화물과 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1940년대 초에는 광궤화 및 노선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실현되지 못하였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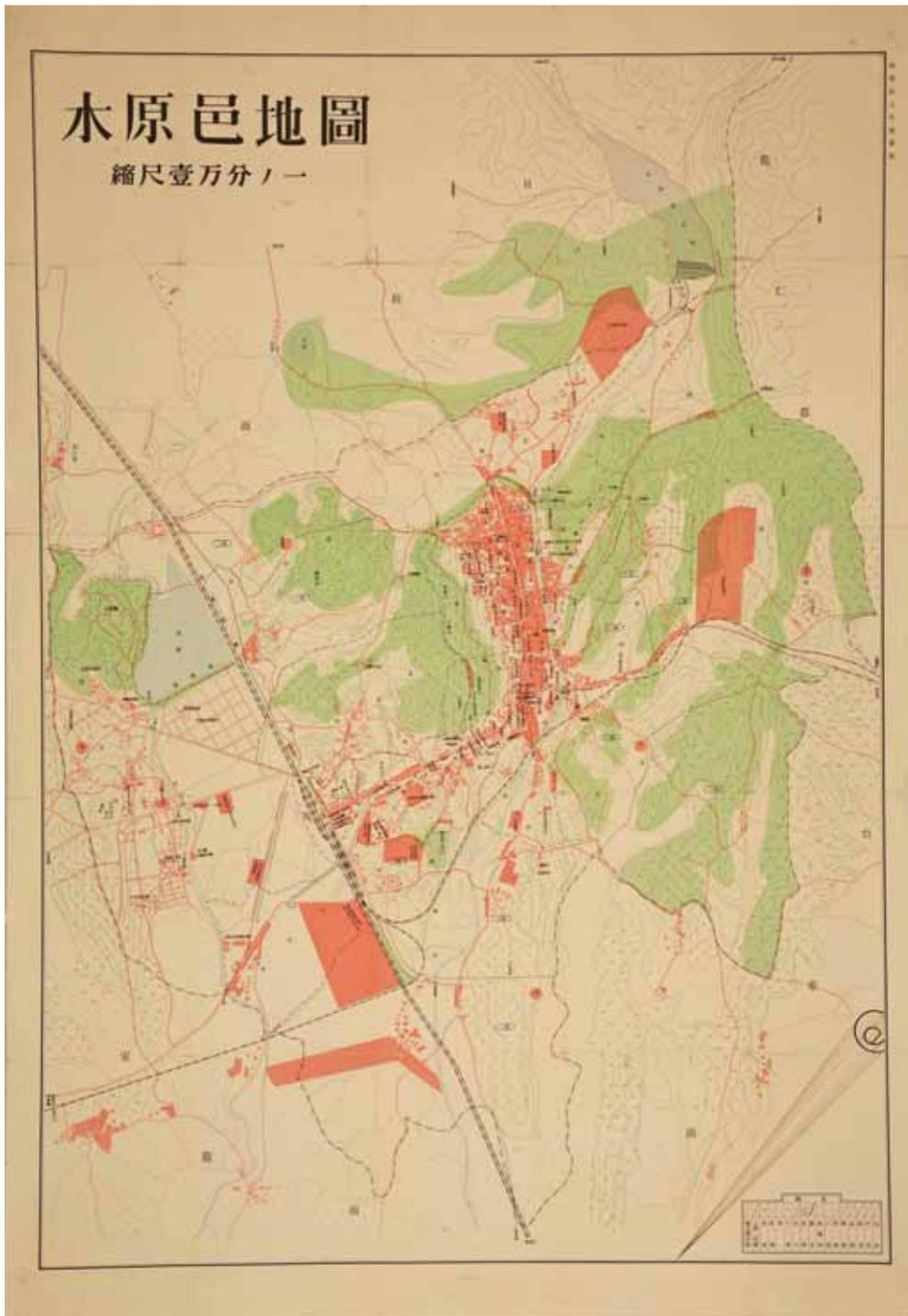
이처럼 수원 지역의 철도는 경기 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원역은 한국 간선철도의 핵심 경부철도와 경기 남부 지역의 동서 간 여객 및 물자 운송을 책임진 수여선과 수인선의 중심역으로 기능하였다.

3) 전시체제와 도시계획의 도입

식민지 조선에 근대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된 이후의 일이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한반도에 근대도시계획을 도입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국 일본의 영토적 팽창에 따른 한반도 도시개발의 필요성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일본·조선·만주를 각각 정(精)공업지대, 조(粗)공업지대, 농업·원료지대로 묶는 ‘일선만블록’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조선공업화 정책은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대륙침략정책의 거점으로 한반도에 공업도시를 개발할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 도시계획을 둘러싼 일본 내의 환경 변화다. 1920년대 일본 내 대도시의 발전과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도쿄(東京)에서 시행된 제도(帝都)부흥계획 등으로 일본사회 전반에 도시계획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화 과정에서 지방계획과 국토계획 등 ‘국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계획’의 도입이 모색되었다. 특히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로부터 유입된 총력전이론의 영향으로 국토계획과 지방도시 분산계획이 입안되어 대도시에 대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방공(防空)도시계획과 소개공지

43 수여선과 수인선이 개통됨에 따라 수원역에 1일 승강객수가 3,000여 명 이상 되고 화물이 증가하여 적체를 빚게 되자 1940년 4월 확장공사가 이루어진다(「수원역 확장」, 『동아일보』, 1940년 3월 28일).

44 결국 수인선 철도는 해방 이후 1946년 5월 10일 사철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국유철도가 되었다가 1995년 12월 31일 완전 폐선되었다.



1943년 「수원읍지도」(수원박물관 소장)

대(疏開空地帶)가 도입되는 등 도시사회 전체가 전시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대도시 우선주의와 도시 편중주의적 정책이 소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과 국토균형개발계획으로 전환한 것도 중일전쟁 이후 전시 총력전체제의 논리가 정책적으로 전면화됨으로써 이루어진 변화로 볼 수 있다. 1944년 수립된 수원시가지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수원시가지계획은 1944년 8월 10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1053호로 공포되어 식민지 조선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계획안의 준비 및 공포가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 계획은 계획목표 연도를 30년 후인 1974년으로 설정하여 구역면적 29.39km²에 계획인구 1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1940년 말 당시 수원 인구는 3만 222명이었는데, 향후 30년간의 인구 증가를 약 3.3 배로 계획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관리와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공습 및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에 치중한 점이 특징적이다.

〈표 8〉 1944년 공포된 수원시가지계획안⁴⁵

구분	구역	면적(km ²)	비고
시가지계획구역	수원군 수원읍 전역, 일왕면 일부	29.390	최초 계획 26.840km ²
시가지계획 도로	54개 노선		7개 광장 포함
토지구획정리지구	수원읍 일부	8,358	
녹지지역	수원읍과 일왕면 각 일부	17,785	
풍치지구	수원읍과 일왕면 각 일부	7,588	
공원		1,813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시가지계획안은 시가지 계획구역,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지구, 녹지지역, 풍치지구, 공원으로 구성되었다. 가로망은 기존의 도로, 즉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경성-목포선과 동쪽 외곽을 연결하는 수원-원주선, 서쪽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수원-인천선을 주요 간선으로 하여 정해졌다. 가로의 규격은 광로 1개 노선, 대로 3류 2개 노선, 중로 51개 노선 등 총 54개 노선을 결정했는데, 광로는 폭 50m 이상, 대로 3류는 24m 이상, 중로 1류는 20m 이상, 2류는 15m 이상, 3류는 12m 이상으로 하여 적용되었다. 각 도로의 주요 교차점에 7개소의 광장을 계획했는데, 여기에는 수원역 광

45 조선총독부 고시 제1053호, 「수원시가지계획」, 1944년 8월 10일(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재인용).

장, 팔달문 광장, 장안문 광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구역은 당초 입안할 당시의 면적 26.84km²를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원읍 전체와 일왕면 일부를 포함하는 29.39km²로 결정되었다. 그 가운데 9.793km²를 주거면적으로 계획하고 주거면적 중 기존 시가지의 가옥 밀집지역을 제외하여 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하였다. 녹지지역은 계획구역 내 외곽지역에 주거면적과 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며, 유사시에는 대피 및 작물 생산 기능을, 평시에는 시민의 보건위생을 목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산림보호 및 경관보호 지역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에는 주거·상업·공업의 3개 지역과 풍치·미관·방화·풍기의 4개 지구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수원의 경우에는 녹지지역과 풍치지구가 도입되었다. 팔달산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5개소의 공원을 계획했는데, 북공원, 동공원, 팔달산공원이 각각 0.673km², 0.611km², 0.482km²로 대표적이고, 이 밖에 세류공원 0.037km²와 동산공원 0.009km²를 포함하여 총 1.813km²의 면적으로 계획되었다.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도시계획안이 마련된 식민지 조선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수원시가지계획안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해방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1967년 새로운 수원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 활용되었다.



김재국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1. 전통공간의 근대도시화
2. 근대 공공기관의 건축
3. 근대 농업기관의 건축
4. 근대 교육기관의 건축
5. 근대 종교시설물의 건축
6. 근대도시 수원의 자리매김



제2장

수원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

역사적 신도시 수원의 근대성은 이미 화성(華城)이 축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성 축조에 사용된 체계적이고 정교한 기술과 도구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건축재료인 벽돌(博)의 다양한 활용법만으로도 그 대답은 충분한 것이다.¹ 그러나 이번 글에서 언급하는 ‘근대 건축’이라 함은 시기적으로는 1876년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한반도에 도입된 양풍건축(洋風建築)을 의미한다. 양풍건축이란 쉽게 말해 ‘서양양식의 건축물’²을 의미한다.

수원의 ‘근대 건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수원의 전통성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³ 문제는 일제가 진행한 도시의 근대화 과정이 수원의 도시 전통성을 철저히 부정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근대적 사

1 민족건축미학연구회, 『18C 신도시 & 20C 신도시』, 발언, 1996, 27쪽. ‘역사적 신도시와 오늘날의 신도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요약한 이 연구서를 종합하면 수원은 전근대적인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현대의 신도시 정책입안과 추진에도 교훈을 주는 놀라운 성과의 결과물이다.

2 김정동, 『한국근대 건축 서설과 플러스』, 『한국의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1988.

3 손정복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2002, 196쪽에서 일제강점기 「도시계획령」이 적용되었거나 준용도시로서 지정된 43개 도시 가운데, 수원을 “전통적 시가지로서 지방민에 대한 회유책이 필요한 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고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수원의 전통성과 자부심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 과정에서 근대화에 눈을 뜨고 도시의 내적인 성장을 이끌어 낸 수원 주민의 움직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역사성을 강탈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수원의 근대화를 이끌어 간 주도적인 세력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건축활동과 특화된 수원만의 도시계획은 주변 지역을 압도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기능을 가진 근대 건축물은 수원의 도시 확장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농업과 교육 기능을 바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농업시설은 수원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도시적인 장점을 살린 것이며, 농업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연구시설과 교육시설들이 수원에 설치되었는데, 관이 주도한 농업과 서양의 선교활동으로 세워진 교육시설이 지역사회의 근대도시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1. 전통공간의 근대도시화

‘병자수호조약’, 일명 강화도조약으로 세 항구의 개항이 이루어진 1876년(고종 13) 한 반도에는 외국 문물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항과 동시에 근대적인 도시경관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개항 이후 수원을 비롯한 각 지방도시에 근대적인 도시공간이 성립된 것은 우선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근대적인 관공서들이 들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전통성도 파괴되었다.⁴

수원에 근대적 건축물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전후로, 이 시기에 지방제도의 개편,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⁵ 경부철도 개통, 권업모범장 설립 등 수원에 근대화를 이끌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원의 도시 성격이 근대 농업도시로 규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계획도시로서, 과거로부터 농업 수리시설과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던 수원이 근대 농업도시로서 근대성을 지니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수원

4 수원 화성의 성벽이 철거되고 행궁이 헐려 나가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12쪽;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12쪽. 1900년 노리마츠를 시작으로 1902년 노나가 스에요시(野中末吉), 1903년 이노하라(猪原), 오노(小野), 곤도(近藤), 호소카와(細川), 야마자키(山崎), 이마무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이 수원으로 이주하여 일본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제언(堤堰)을 가진 그야말로 첨단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정부가 개항 초기 일본인 농학자를 수원에 정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수원이 근대 농업도시로 성장할 만한 지리적·지역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한편 관이 주도하는 근대 건축활동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 근대화 과정은 사립학교와 종교시설물로 대표되는 근대 시설물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들 시설물이 서양풍의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평초등학교(1896년)'의 경우도 우화관 건물을 사용하다가 1920년대에 이르러 서구식 목조건물을 지었다. 민간이 주도한 종교시설물, 예를 들면 교동에 있던 영국성공회 수원교회(1909년)의 시설물과 프랑스 신부가 활동했던 수원 천주교회, 감리교회 등도 전통한옥(또는 개량한옥)을 오랜 기간 사용했으며, 1920년이 넘어서야 한옥을 벗어나 서양식으로 서서히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수원만의 현상은 아니었으며, 가장 변화한 경성을 비롯한 전국적인 도시풍경이었음은 분명하다. 수치상으로도 조선총독부가 1920년 10월 실시한 '임시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선의 인구수 1,726만 4,119명 가운데 도시민은 4.86%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1920년대 이전 수원 성내(城內)의 풍경은 비교적 경성(현 서울의 일제강점기 명칭)의 성내 변두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팔달문과 장안문 주변으로 성곽 일부분과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한옥 상가들이 중심 시가지를 이루고, 도심지는 초가지붕이 대다수를 이루고 간간히 기와집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수원의 변화상을 기록한 문헌들 가운데, 『수원오십년사(水原五十年史)』(학지사, 1978)의 저자인 김운성(金雲成)은 성내구역에는 민가 가운데 초가가 대부분이었지만,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팔달문 바깥쪽인 중동과 매교동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술회한다.

성내가 중심이던 당시 수원시의 도심이 점차 성문 밖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확장된 곳은 남문 밖 교동 일대와 현 중동사거리 일대이며, 이곳에서 역전까지 황량하던 벌판에 일본인들이 길 양쪽을 시작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역전 일대를 저희들 독자적으로 개발했다.⁶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1910년대까지도 교동 일대에는 아직 뚜렷한 건축활동이

6 김운성, 『수원오십년사』, 학지사, 1978, 40쪽.



〈그림 1〉 수원향교에서 본 역전 방향 경관(190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 수원향교에서 본 역전 방향 경관(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미 활발한 건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수원 중심가의 경우에도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김운성은 1930년 초기 당시 수원에 존재하던 건축물

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다.

- ① 수원 읍치가 형성될 당시부터 성내에 형성된 전통 건축물이다.
- ②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진 일본양식의 가옥과 점포이다.
- ③ 교동과 팔달로1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옥을 개조한 상가와 가옥이다.
- ④ 인계동과 지동을 중심으로 성 밖에 형성된 전통 가옥이다.

①과 ④항목을 이해하는 데 『정조실록』 정조 14년 2월 14일 채제공의 발언내용이 큰 도움이 된다. 읍치 형성 초기에 수원 지역에는 매우 영세했던 초가집이 다수 존재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채제공은 서울에 살던 비교적 부유한 집들을 수원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 건의하고 있는데, 정조는 그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여 이주하는 백성들에게 무이자로 1,000냥의 이주지원금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②항목의 건축물은 저자의 말대로 주로 일본인이 밀집한 수원역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30년대에 이르면 수원 성 안에서도 일식 가옥이 다수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식 가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③항목인데, 1930년대 전후에 이미 한옥의 개조가 민간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것은 개념상으로 본다면 전통시설인 행궁을 개조하여 현대적인 실용성을 가미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화성행궁에 대한 개조와 변형은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합리화되었지만, 일반인들의 한옥 개조는 실용적인 이유, 예를 들면 공간의 확장과 냉난방 효율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의 근대 건축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수원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부철도가 부설⁷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철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원에 유입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는데, 1930년대 일제가 추진한 ‘관광고도수원(觀光古都水原)’이라는 도시 홍보문구도 철도의 활성화와 함께 비롯된 것이다.

1906년에는 수원의 대표적인 근대 농업시설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1906년 4월)이 설치된 해인데, 설치 주체는 통감부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도시경관 가운데 서양풍으로 두드러지는 소수의 근대 건축물은 전통적인 도시풍경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동시에, 수원 주민에게 주는 시각적·심리적 영향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7 1901년(광무 5) 8월 20일 북부기공식을 서울 영동포에서 실시하고, 9월 21일 남부기공식을 부산 초량에서 가졌으며, 3년 뒤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다. 1905년 1월 1일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 근대 공공기관의 건축

19세기 후반 수원의 근대 초기 도시풍경을 만들어 낸 것은 관에서 주도한 관공서 건물이었다. 이 시기에 설치된 수원의 공공행정시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통 건축물을 차용한 건축물이다. 공공행정시설 가운데 수원군청, 경기재판소 등은 화성행궁의 전통 건축물을 차용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공공시설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미 수원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행궁 건물을 사용했으므로 외형적인 변화가 일부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친근한 형태를 가진 것이었다. 두 번째, 근대적인 공법의 건축물이다. 도립병원의 전신이었던 자혜의원은 벽돌조의 화려한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는 당시 수원 도시풍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전통 한옥과는 재료의 사용과 건축공법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원 주민들에게는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9세기 말 당시 수원에 설치된 공공시설 가운데 다수가 화성행궁의 권역 안에 설치됨으로써 화성행궁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행정, 의료, 법, 공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시설물이 화성행궁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국권(國權)의 손상이다. 화성행궁은 조선의 왕이 행차했을 때 사용하던 시설로 수원 주민들에게 왕은 곧 국가라는 절대적인 의식을 환기시켜 주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왕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낙남헌과 같은 위엄 있는 시설을 수원 지역의 행정을 위한 관청 시설로서 격하시킨 것은 국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전통성의 부정이다. 수원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전통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근대적인 행정관청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화성행궁 권역이 가지고 있던 사회질서의 성격을 부정했으며, 전통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근대적인 형태와 용도로 변형을 가하였다.

셋째, 도시계획적 의도이다. 수원시까지는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화성권역을 넘어서서 역전지역으로 확장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에 화성 외곽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근대도시로서의 근엄함과 지역적인 유리함을 취하기 위해 도심의 중심에 있던 화성행궁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대한제국정부의 재정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전국 각지에 새로운 근대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를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안타깝고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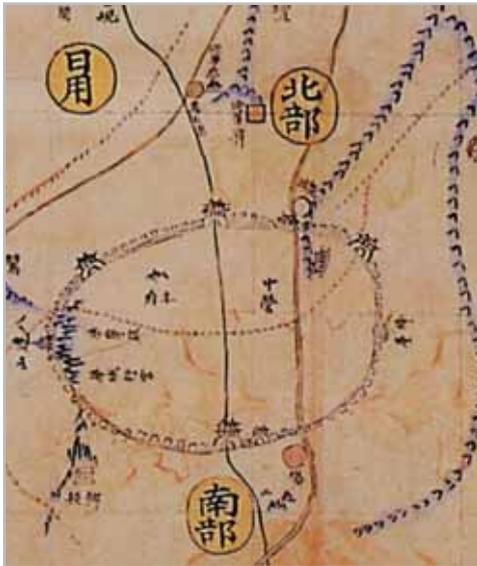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원면사무소(水原面事務所)

수원면사무소의 위치는 팔달문에서 영동시장(구 성외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진만으로 건축구조를 정확하게 판독하긴 어렵지만, 외견상으로 수원우체국 건물의 구조와 유사하여 ‘독일식비늘붙임’ 방식으로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수원은 ‘유수부’의 지위를 상실하고 수원군으로 인천부에 분속되었으나, 1896년 도제를 실시하면서 수원군에 경기도관찰부⁸가 설치되었다. 이 때문에 수원에는 새로운 경찰서와 법원 등 핵심 공공기관들이 입지하면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⁹ 그 후 일제강점기 동안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세 번의 행정구역 개편(1914년, 1931년, 1936년)이 있었다.

1872년 「수원부지도」(그림 3-1)를 살펴보면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성 안¹⁰을 남과 북으



〈그림 3-1〉 「수원부지도」에 나타난 남부면과 북부면(1872, 수원박물관 소장)



〈그림 3-2〉 1910년대 수원면사무소 위치 남수리에 수원면사무소 위치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8 경기도관찰부는 1910년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 갔으며, 1967년 경기도청은 수원으로 돌아왔다.
9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113쪽.



〈그림 4〉 1920년대 팔달문 옆에 위치한 수원면사무소(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로 나누어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14년 남부와 북부의 각각 일부를 통합하여 수원면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면장 겸 일형면장인 박세양(남수리 거주)의 가옥 한 동을 수원면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그림 3-2〉, 문패를 달아 개인의 주거공간과는 완전히 구별하였고 사무실은 방 3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17년 수원면이 지정면이 되어 일본인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가 면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도 박세양의 가옥을 수원면사무소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22년 8월에는 남수리 273번지 차기형·윤태정 소유의 대지 237평을 수용하였고,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1923년 7월 1일 낙성식을 개최하였다〈그림 4〉.¹¹

10 『수원(水原)』(1923)의 저자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원성내지역'을 구시가(舊市街)로 지칭하고, 역전에 조성된 도심을 신시가(新市街)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 이 두 시가지가 수년 내에 서로 연결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구시가지의 확장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11 조선총독부, 『(朝鮮各道ニ於ケル)優良面調査』, 1911, 1-3쪽. 「수원면소 신축지 내정」,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 「수원면 사무소 낙성」, 『동아일보』, 1923년 6월 29일.



〈그림 5〉 낙남헌을 개조하여 사용한 수원군청(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2) 수원군청(水原郡廳)

수원군청은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화성유수부가 수원군이 되면서 설립되었으며, 1938년까지 화성행궁에 위치하였다. 수원군청은 화성행궁의 낙남헌(洛南軒)¹²을 차용하여 설치되었으며, 전통시설의 차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원래 행궁이었지만 관공서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는 전통과 근대 어느 쪽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건물이 되어 버렸다. 마치 전통 건축물이 현대적인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듯한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군청은 정면 5칸 측면 4칸 앞뒤로 뒷간이 붙어 있는 낙남헌에 설치되었는데, 낙남헌의 후면 뒷간을 사이에 두고, 그 뒤로는 일제강점기에 세무서로 사용된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노래당이 ‘ㄱ’자 형태로 붙어 있다. 처음부터 행정업무를 위해 지어진 전통한옥이 아니었기에 수원군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한 몇 가지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 공간의 확장이다. 낙남헌이 원래 대규모 관청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

12 낙남헌은 왕의 집무실이며, 정조는 화성행궁 행차 시 이곳에서 각종 행사와 별시를 치르기도 하였다.

간의 확장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외부의 틈간 쪽을 비늘붙임방식으로 모두 막아서 내부공간을 좀 더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용성 확보이다. 우선은 평면을 돌려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출입구(정북 방향)가 바뀌면서 평면에서 단면 쪽(정동 방향)에 포치가 세워졌다. 또한 유리창문을 설치하여 실내 환기와 조명을 유리하게 한 점 등도 눈에 띈다. 행궁 건물을 군청으로서 활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팔각지붕의 형태와 겹처마 지붕을 유지하고 장대석 기단을 유지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임금의 집무실로서의 기품을 엿볼 수 있지만, 왕의 집무실이 행정사무실로 격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아쉬움을 느낀다.

3) 한성우체사(漢城郵遞司) 수원지사(水原支司)



<그림 6> 일제시기 사용된 우체통 (수원박물관 소장)

한성우체사 수원지사는 수원우체국의 전신(前身)이다. 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우편업무가 시작된 것은 1895년 8월 10일이었고,¹³ 설립 이듬해인 1896년 8월 5일 수원우체사(水原郵遞司)로 승격되었다. 1905년 6월 12일 경성우편국 수원출장소로 변경되었으며, 1906년 7월 1일 수원우편국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7월 4일 우편국 청사를 신축했고, 1923년에는 다시 전화교환실과 기타 건물의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¹⁴

1920년대 촬영된 <그림 7>의 수원우편국 사옥을 살펴보면 원통형 영국식 우체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이 영국식 우체통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우편국 사옥은 '독일식비늘붙임' 방식의 외벽을 세우고 지붕엔 기와를 사용한 서양식 목조건축물인데, 권업모범장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에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흔히 사용한 건축수법이었으며, 서울 대학로에 소재한 구(舊)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건물과 동일한 건축수법이였다.

<그림 7> 수원우편국 사옥 사진은 1920년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비늘붙임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에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 건물은 1971년

13 이는 농상공부령 제5호, 「한성우체사 수원지사 설치공고」, 1895년 8월 1일에 따른 것이다.

14 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7~8쪽.



<그림 7> 수원우편국(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그림 8> 구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청사(네이버두산백과 제공)

팔달로1가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4)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경기재판소는 1897년 11월 한성부 중서에 설치되었다가 1898년 1월 관제가 개정되어, 경기관찰부에 경기재판소가 설치되고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였다. 이후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1908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재판소 수원구재판소가 개청하였는데, 1909년 수원구재판소에서는 수원군과 시흥·과천·광주·용인·진위·남양·안산군의 관할 재판사무를 담당하였다.¹⁵ 수원구재판소는 1912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개칭되었다.

〈표 1〉 한말 경기재판소와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재판소의 변천

명칭	시기	내용	관련 법령
경기재판소	1897. 11. 1.	한성에 설치	칙령 제37호(1897.9.12.)
	1898. 1.	경기관찰부에 경기재판소 설치 (수원으로 이전)	칙령 제6호(1898.1.27.)
경성지방법재판소 수원구재판소	1908. 10. 30.	수원구재판소 개청	법무령 제17호(1908.10.31.)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912. 4. 1.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개칭	제령 제4호(1912.3.18.) 총독부령 제26호(1912.3.19.)

‘경기재판소’는 화성행궁 건물인 ‘이아(貳衙)’를 차용하였는데, 〈그림 9〉 옆서 하단에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수원지청’이라는 명칭이 있어, 경기재판소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변경된 1910년대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만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군청과는 달리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고 창을 낸 것은 확실한데, 비늘붙임 방식으로 개보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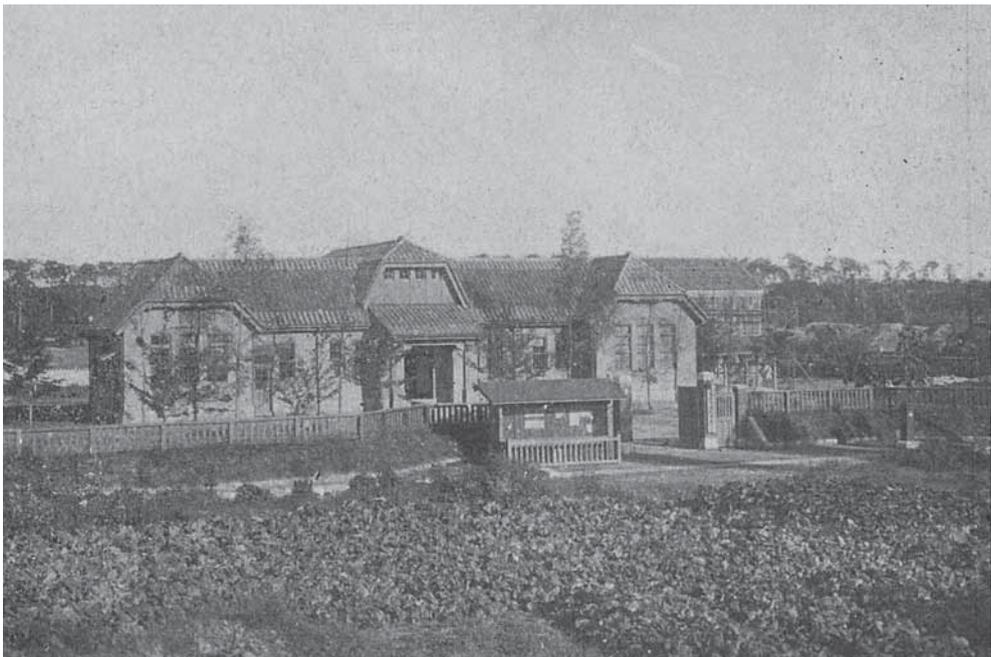
〈그림 9〉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림 11〉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을 내기 위해서 회벽을 사용했으며, 벽면이 하부와 상부가 나누어져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하부에 사용된 재료는 목재가 유력하다. 군청의 경우와 같이 지붕과 기둥 등은 따로 손대지 않고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20년 신축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건물은 한국전쟁 중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¹⁵ 통감부령 제28호, 『통감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급 관할구역표』,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법령자료집』 하.



〈그림 9〉 1910년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개인 소장)



〈그림 10〉 1920년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그림 11〉 경성재판소 수원지청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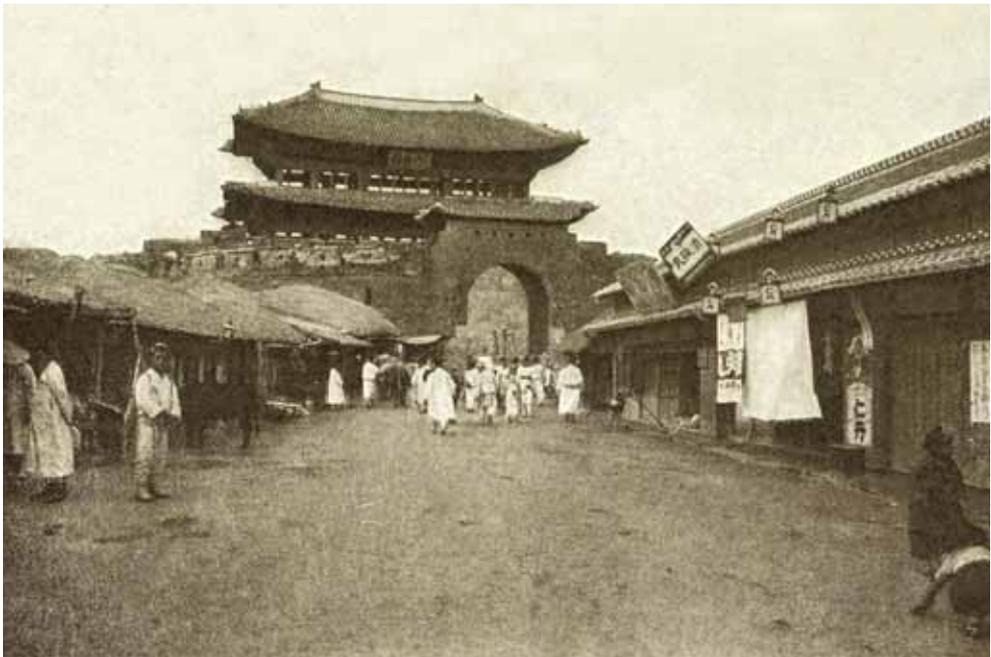
5)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

수원전기주식회사는 1913년 3월에 설립허가를 받아 7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1914년 1월 자본금 6만 원으로 개국하였다. 당시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표는 일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사업체였다.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 : 1913년)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수원 전역에 전기가 공급된 것은 아니다. 1929년 전력량의 증가로 변전소를 추가로 설립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당시를 전후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 서민들의 전기수요가 증가한 것인지, 직물공장 등 산업시설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수원전기주식회사의 최초 설립 시기가 1913년으로 알려져 있다고는 해도, 수원우체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의 경우 독자적인 자가 발전을 운용했을 수 있으므로 수원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1913년이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림 12〉와 〈그림 13〉을 보면 가장 변화가인 팔달문 주변 상가를 볼 수 있는데, 〈그림 13〉의 경우 중심가에 전깃줄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뒤쪽에 있는 팔달문 옹성에서



〈그림 12〉 팔달문 바깥쪽 시가지(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 1915)



〈그림 13〉 팔달문 바깥쪽 시가지의 전기시설(1930년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4〉 1940년대 수원전기회사의 위치(수원상공회의소, 『수원읍지도』, 1943)

여장이 파손되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이는 1935년¹⁶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여 년의 차이로 거리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가 가설되는 수원 도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진이다.

전기가 일본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1927년 수원군의 전등사용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27년 수원군의 전등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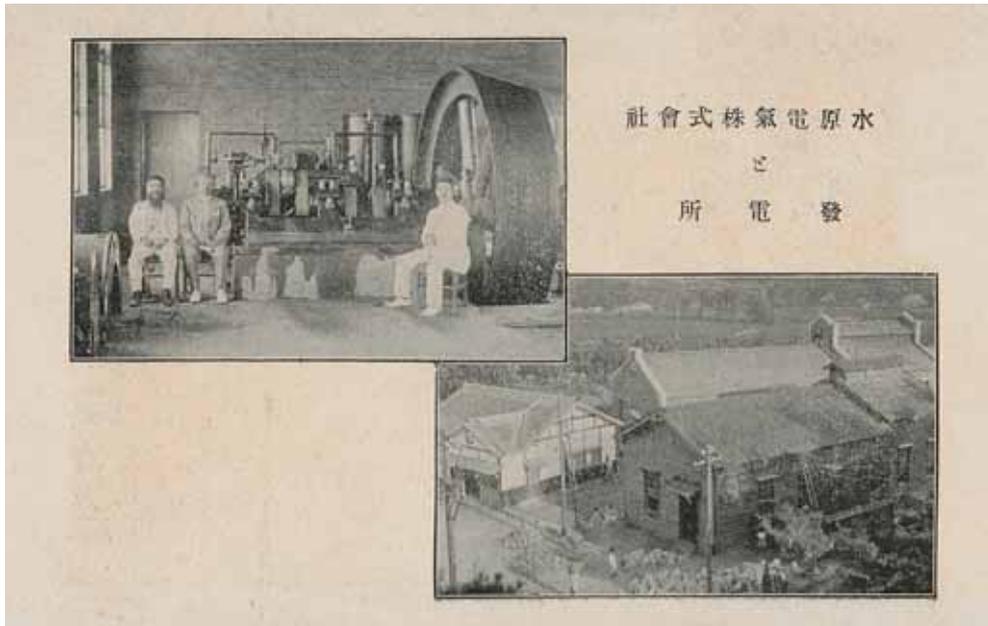
구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총계
가구수(호)	745	478	26	1,249
전등수(개)	1,802	3,159	132	5,093
사용전력(w)	15,596	44,986	1,516	62,098

흥미로운 것은 1920년 3월 말 전국의 전기보급률이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다.¹⁷ 따라서 당시 수원의 인구대비 비율로 봐도 한국인보다 소수였던 일본인의 전등 사용개수가 두 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전기의 사용이 1920년대까지도 일본인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전기주식회사의 건물은 마치 공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실제로 수원에 있던 다른 제재소 등의 건물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행정시설과는 달리 발전소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행정사무용 건물과 발전기가 설치된 기계 시설용 건물로 나누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6 「중수 재건한 고분과 명승 수원성」, 『동아일보』, 1935년 1월 1일.

17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백년사』상, 1989, 194쪽.



〈그림 15〉 수원전기주식회사와 발전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6) 수원자혜의원(水原慈惠醫院)

1910년 9월 5일 수원의 화령전에 자혜의원이 개설되었다. 수원자혜의원은 화령전 정전의 전사청(典祀廳)과 그 부속건물, 좌측의 풍화당(風化堂) 등 3동을 병원 건물로 활용하였다. 이에 풍화당은 제1병실,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로 사용하고, 부속건물은 제2병실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10년 10월 화성행궁의 경기도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어 가자, 화성행궁의 가장 중요한 정궁 역할을 하는 봉수당(奉壽堂)을 개축하여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1911년 5월 28일 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좌익문 남쪽의 비장청과 회랑은 시료부(施療部)·진찰소, 외정리소는 간호부 기숙사와 시료실(施療室), 유여택 북쪽 회랑은 약품창고, 유여택 남쪽 회랑은 전염병실로 개조되었다. 좌익문과 중앙문을 잇는 북쪽 회랑은 창고, 중앙문과 봉수당을 잇는 북쪽 회랑은 내과병실이었다. 봉수당 옆의 경룡관과 유여택의 일부는 남병실(南病室)이었고, 장락당에는 진찰실 및 수술실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으로 활용된 봉수당은 서무과·진료과·약제과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봉수당에서 득중정으로 이어지는 회랑은 북병실(北病室)로 활용되었고,



〈그림 16〉 화성행궁 봉수당에 설립된 수원자혜의원(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그림 17〉 1920년대 신축된 경기도립수원의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봉수당 뒤쪽 득중정과 이어지는 서회랑은 병리시험실로 사용되었다.

또한 수원자혜의원은 1923년 5월부터 1924년까지 화성행궁 봉수당을 헐어 3,751평의 대지에 총공사비 7만 8,000원을 들여 2층 벽돌 건물로 본관을 높다랗게 지으면서 주변의 행궁 건물들을 회철하고 763평의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 신축한 다음 해인 1925년 4월 1일 자혜의원은 '경기도립수원의원(京畿道立水原醫院)'으로 개칭되었다. 기존의 국가 관리에서 지방의 도(道)로 관리를 이전한 것이었다. 이후 1928년과 1935년 지속적으로 신축과 증축을 하면서 낙남헌을 제외한 화성행궁의 건물들이 모두 헐리었다. 즉 1928년 남병동(南病棟) 49평(목조)과 1935년 서병동(西病棟) 25평(연와조)을 증축함으로써, 화성행궁 정당인 봉수당을 비롯한 장락당·유여택·복내당 등을 헐어 내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1936년 3월부터 도비를 들여 병원 확장공사에 들어가 7월에 준공하였는데, 환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인 1실의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¹⁸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자혜의원이 설치되는 1910년 이전에 수원에는 이미 사립의원들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북문 안쪽에 있던 최진협의원(崔眞協醫院)과 동화의원(東華醫院)이었는데, 동화의원의 원장은 서울의전을 졸업한 권태동(權泰東)으로 한국에서 개업한 의료인으로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¹⁹

3. 근대 농업기관의 건축

수원과 농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앞선 농업기술을 가늠케 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근대화된 농업시설이 설치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수원에 설치된 농업 관련 시설들은 도시 발달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실제적인 수원권역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첫째로 도시 발달적인 면에서 수원의 도시권역이 성을 벗어나 수원역 앞으로 활발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역량은 사실상 다양한 농업시설들을 수원역 외곽에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시기능이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둘째로 양적인 도시 발달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농업을 배우기 위해 연간 수만 명이 넘는 인원이 수원의 농업시설들을 방문했기 때문이다.²⁰

18 한동민,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012.

19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40쪽.

이처럼 많은 인재들이 수원을 방문하여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했던 것은 수원에 설치된 농업시설물들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연구·행정·교육 기능을 골고루 발휘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파급효과는 수원 지역의 인재 양성과 경제적인 성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30년대 이후부터 수원 지역에서 방적·방직 사업이 부흥을 이루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1)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수원에 세워진 다양한 근대 농업시설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식민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10년 당시 한국의 인구 1,312만 명 가운데 80%가량인 1,042만 명 정도가 농업인구였으며, 당시 농업은 국가의 기반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의 근대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대한제국은 1895년 농상공부(農商工部)를 설치하며 농업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일본 주도로 1906년 4월 권업모범장과 목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서둔동 지역에 세워진 권업모범장은 지금의 '농촌진흥청(RDA : 1962년 농촌진흥청 직제 각령 제615호)'의 전신으로, 1928년에 개통한 수원버스의 종점²⁰이기도 하였다. 권업모범장은 통감부에 의해서 1906년에 설립되자마자 1907년 한국정부에 이관되었다가 1910년에 조선총독부에 이관되는 과정을 거쳤다. 1910년 총독부에 이관될 당시 수원에 이전되어 있던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를 권업모범장 산하기관으로 통합하였으며, 권업모범장의 장이 수원농림학교의 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권업모범장 설립 당시의 직제는 장장(場長), 기사(技師), 서기(書記)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설립된 건물은 사진과 도면을 통해 2층의 목조양식(木造洋式)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외형적인 특징은 사진들을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시공은 농림학교를 지은 일본인 '오쿠라'가 담당했으며, <그림 18>에서 보면 경사지붕의 2층 목조구조로서 목재를 빗대어 외벽을 처리한 비늘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정면에서 보면 좌우대칭인데, 이것은

20 이들은 내외의 관광단, 각 도의 유지들, 농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었으며, 당연히 그들이 찾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었다(사카이 마사노스케 저, 이창식 역, 『수원』, 수원박물관, 2012, 73쪽).

21 「수원버스 개통」, 『동아일보』, 1928년 12월 6일.



〈그림 18〉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매우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이 외에도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전국에서 농업기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위치에 있었으며, 식민지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기관이었다. 따라서 본장이 설립된 이후 목포출장소(1906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산하기관²²이 설치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권업모범장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의 발달 개량에 이바지할 모범조사 및 시험
- 둘째, 물산의 조사 및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및 감정
- 셋째, 종자(種字), 종묘(種苗), 감종(蠶種), 종금(種摺), 종축(種畜)의 배부
- 넷째, 산업상의 지도, 강습 및 통신 등을 이용한 산업발전을 위한 시험, 조사, 분석 및 지도 사업 등의 실행

²² 1906년 이후 설치된 출장소 및 시설은 목포출장소(1906년), 군산출장소(1907년), 평양출장소(1908년), 대구출장소(1908년), 뚝섬지장(支場, 1910년), 용산지장(1910년), 여자잠업강습소(1910년), 원잠종계조소(1914년), 덕원출장소(1912년), 세포출장소(1913년), 난곡문마지장(1916년), 서선지장(1920년), 용강면직(龍岡綿作)출장소(1920년), 남양지장(1930년), 금제천적출장소(1930년), 차련관잠업출장소(1930년), 복선지장(1931년)이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지방에 위치한 일개 행정기구의 성격을 뛰어넘는 전국적인 규모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성과도 뚜렷하여 1910년에 비해 1941년 단위 농지당 쌀 생산량은 2배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의 임무에서 산업의 지도와 강습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1910년과 1914년에 여자 잠업강습소와 원잠종제조소를 설치했으며, 1929년에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면서부터 권업모범장 조직에서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를 업무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여자잠업강습소에서는 농촌 여성들에 대한 누에치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권업모범장의 활동은 단순히 행정적인 한계에 멈춰 있지 않았으며, 수원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양성과 섬유산업으로 대표되는 근대도시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의 수원 설치의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권업모범장은 근대적인 농업정책을 위해서, 농림학교는 근대 농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었다.

농림학교는 처음부터 수원에 설치된 것이 아니며, 서울에 소재하던 상공학교(商工學校: 1899년)에 농과를 증설하고 농상공학교라 칭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빈약하고 농사의 핵심인 실습농장이 교사로부터 8km나 떨어진 뚝섬에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고종의 칙령(1906년 8월 제39호)에 따라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독립시켜 농림학교(農林學校)라 칭하고, 그 소속도 학부(學府)에서 농상공부로 이관하기에 이르렀다.

수원농림학교의 공사설계는 탁지부 건축소에서 맡았고, 공사는 초대 통감과 각별한 관계였던 일본인 '오쿠라'가 담당하였는데, 그는 권업모범장도 시공하였다. 교사, 기숙사, 관사 등 총 560평 규모로 조성된 공사부지 12정(町) 5반보(半步)를 750원에 매입하였으며, 목재로 일본 현지에서 삼(杉)나무를 수입하는 등 공사비용이 막대하였다.

1907년 1월에 개교했으며, 한국 학생만을 받아 33명이 입학하였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은 관비(官費) 5원을 지급받아 기숙사비와 용돈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복까지 지급받았으며, 생활은 여유로웠다고 전해진다.²³ 비록 이들의 생활이 평화로웠다

23 192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생활상태조사-수원군』에 따르면, 조선인 대목수의 하루 임금은 2원이었다. 과거 국무총리 장면(張勉: 1899-1966)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가 발행하는 『상록지(常綠誌)』에 기고한 글에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때 전교생에게 관비 5원씩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당시의 물가는 상상도 못하게 싸서, 기숙비 3원 50전을 제외하고 남은 돈 1원 50전만 가지고서도 용돈을 아껴 쓰면 건넬 만하였다.”

고는 하지만, 일본인 학생이 입학할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다. ‘제1차 고농사건(1928년)’ 과 ‘제2차 고농사건(1935년)’, ‘제3차 고농사건(1941년)’ 은 한국 학생들의 독립정신과 일제에 대한 반감에서 촉발되었다. 이들 고농사건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주모자들은 체포되어 법정에 섰지만, 역사적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족의식이 살아있는 ‘농림학교’ 학생들의 패기와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갈망한 그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농림학교는 1918년에 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는데, 개교식에 조선총독 하세가와(長谷川)와 이완용(李完用)이 축사를 하였으니 당시 ‘수원농림전문학교(1918년)’ 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농림학교가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학제도 3년 과정에 각 학년마다 40명의 정원을 수용했는데, 이에 맞추어 많은 학교시설들이 확충되었다.²⁴ 이때부터는 일본인의 입학이 허용되고 일본인을 위한 기숙사도 신설되었다. 경상비도 급증하여 1918년 경상비는 3만 5,000원에 이르렀다. 농림학교는 이처럼 1918년에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전문학교로서의 종합계획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전국의 어느 전문학교보다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31년 당시 모든 부속시설들을 합한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건축면적은 2,845.70평이었으며, 직원수도 89명에 달하였다.

3) 수원공립농업학교(水原公立農業學校)

수원농림학교와 함께 수원의 농업교육시설로서 핵심적인 인재 양성기관인 수원공립농업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1936년 7월 1일 수원군 수원읍 영화정 55번지에 부지 4만 평과 학교림 8,000평의 부지에 설립되었다. 본관 교사는 공사비 10만 3,000원으로 1936년 7월 18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20일에 준공을 보았으며, 1937년 4월 23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²⁵

농림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재는 일본에서 삼나무를 수입하였고, 1층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 당시 공사를 감독한 삼부토건(三扶土建) 회장 조정구(趙鼎九)의 회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1918년 확충된 시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교사,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 양잠실 등이 있다.

25 수원농업과학고등학교, 『수농오십년사』, 1986, 38쪽.

경성공업을 졸업하고 경기도청 건축기사로 배속된 나는 1936년 무더운 여름 수원공립농업학교 신축공사의 감독관이라는 명을 받았다. 총공사비는 당시 액면으로 10만 3,000원이었다. 공사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사키 건축회사'가 맡았다. 목공을 쓰는데, 한국인은 1원인데, 일본인에게는 2원 50전을 주는 등 차별이 심했으나,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기술도 월등하였다. 목재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였고, 단층 목조건물이라 10개월 정도로 준공할 수 있었다.²⁶

또 다른 회고에 따르면, 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일본인 건축회사는 공사부지에서 다량으로 나온 자갈을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내려 했으며, 이를 눈치 채 조정구 회장이 타협안을 제안하여 원래 예산에 없던 온실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표 3〉 1936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시설²⁷

건물명칭	실의 명칭
행정관리실	교장실, 교실, 회의실, 농장관리실
부속건물	강당, 숙직실, 소화(消火)차고, 기숙사, 무기고, 화장실, 화학실, 제도실
농장실습교육건물	농구실, 작업실, 수납실, 정비실, 농장관리실, 목공실, 탈의실, 물품창고, 우사, 돈사, 양사, 계사, 사일로 5기, 온실, 관사 등

공교육기관인 수원농림학교(1907년)와 수원공립농업학교(1936년)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수원의 근대화와 도시 발달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 관립학교도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으나, 사립학교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설을 통해 양질의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었다.

4)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

근대 농업행정과 학술적인 면모에서 수원에 설치된 근대 농업시설은 타 지역에 비할 바 없는 모범이 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술과 인재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선보이고 보급하는 일이다.

권업모범장과 종묘시험장에서 만들어진 종자는 각 도의 출장소와 종묘시험장 그리고 면사무소 등을 통해 일반 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각종 농사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종묘주식

26 수원농업과학고등학교, 『수농오십년사』, 1986, 40쪽.

27 수원농업과학고등학교, 『수농오십년사』, 1986.

회사(種苗株式會社)를 통해 공급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씨앗 등 품종의 판매 및 유통은 큰 이권이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니었다.

수원에서 이러한 업무²⁸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회사로는 수원종묘주식회사(水原種苗株式會社), 주식회사 후코쿠엔(富國園 : 1916년 4월, 이하 부국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부국원의 본사가 수원이었다.

부국원에 대한 사업권은 일본인 노미조 텐이치로(野溝傳一郎)에게 있었는데, 1926년 현재 주식회사 부국원의 순수익은 수원전기주식회사의 1만 318원보다도 앞서는 1만 2,720원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수원 전역에서 1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는 수원전기주식회사, 부국원,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조선지점 3개뿐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당시의 씨앗업종이 얼마나 큰 이권을 가진 사업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수원 산루리(현재 교동) 역전통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국원은 3층 높이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콘크리트 건물로서 2012년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한 채 제자리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근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다. 정면 페디먼트에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고 2층 정면 중앙 베이를 삼등분하여 아치가 틀어진 창을 세 개로 나누어 틈 점이 인상적이며, 건물의 전반적인 느낌은 매우 육중하여 로마네스크의 중후함이 느껴지면서도 비교적 소탈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좌향은 길을 따라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현관 위쪽에 설치된 우아한 느낌의 포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형태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변형이 엿보인다. 지붕의 재질과



(그림 19) 역전통의 부국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28 1920년대 초 부국원의 주요 영업과목은 다음과 같다. 산림종묘, 농산종자, 원예과수, 감종잡구, 농구비료, 농산물매매, 묘포식림경영 등이다(사카이 마사노스케 저, 이창식 역, 『수원』, 수원박물관, 2012).

일부 창문의 형태가 그렇다.

앞에서 살펴본 농업시설 외에도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겨 온 관립 여자잠업강습소(1910년)가 있는데 여자만이 입학이 가능했으며, 입학하려면 도지사의 추천서가 필요한 전국 유일의 누에치기 전문가 양성기관이었다. 주로 잠사와 누에치기 기술을 가르쳐 누에치기 전문가를 양성한 이 학교는 1925년까지 300명이 넘는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이처럼 수원에 설치된 근대 농업교육기관들은 전국의 농업인재들을 수원으로 집중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들 농업시설의 수원 설치가 갖는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여자잠업강습소는 수원의 중심가를 벗어난 외곽에 설립되었으며, 각각 역전통과 장안문 일대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둘째,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여자잠업강습소의 학제와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일하였으며,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었다. 셋째, 수원농림학교는 1910년 권업모범장 산하기관으로 부속되었으며, 이는 근대 산학협동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근대 교육기관의 건축

수원의 근대 교육시설을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기관과 공교육기관, 사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수원 지역의 발달을 이끌어 낸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이다.²⁹ 그러나 농업교육시설을 제외한 교육시설들은 모두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이 열악한 시설을 개량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설립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895년(고종 32) 7월 19일 「소학교령」(「소학교교칙대강」)을 공포하면서부터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정부가 근대적인 교육제를 수립하고 수원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공립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이미 기독교에서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설립한 25개 사립학교 때문이었다.³⁰

시설의 입지적인 면을 보았을 때, 농업교육시설들은 필수적으로 실습을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수원 외곽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기타 근대 교육시설들은 대다

29 이 세 가지를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면 이해가 빠르다. 「소학교교칙대강」(1895년 7월 19일)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재정의 공급에 있어서 관립은 국고에서, 공립은 부 혹은 군에서, 사립은 개인의 부담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30 신평초등학교, 『신평 100년사(1896~1996)』, 1996,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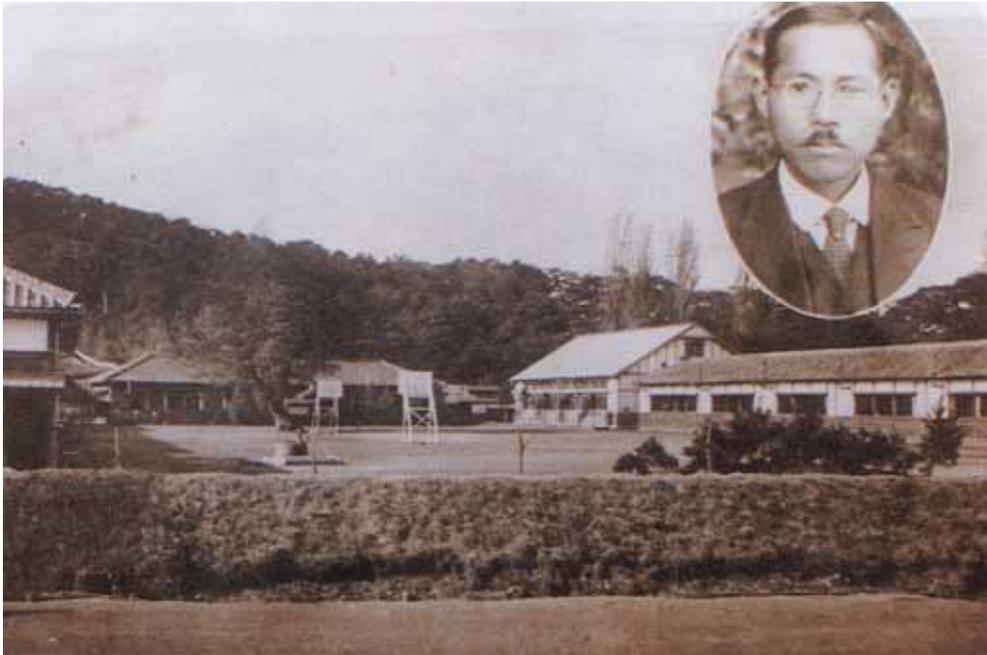
〈그림 20〉 1920년대 수원공립보통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수 수원의 중심가 또는 그 근교에 지어졌다는 점이 관립 농업학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원군공립소학교(水原郡公立小學校)

신평초등학교의 전신인 수원군공립소학교는 1896년 수원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관립학교로서, 설립 초기 직원은 1명³¹⁾이었고, 개교 당시 수원향교 부근에 자리하였다. 그 후 1902년 12월 남궁영으로 이전하였다가 1906년경에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의 객사(客舍)였던 우화관(于華館)을 교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화관을 차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 예산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895년 당시 학부 총 예산이 12만 6,752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군부의 예산에 비하면 50분의 1에 불과한 액수였

31 「인사발령」, 『관보』 241호, 1896년 2월 6일.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 최초의 교원은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1회 졸업생인 이필구로, 당시 관입관 6등 관리였다.



〈그림 21〉 1930년대 수원공립보통학교(신흥초등학교 소장)

으며, 당시 개인 1인당 일본 유학비용이 5,000원 정도였으므로 사실상 정부의 지방교육 보조란 실속 없는 제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³² 다음으로 1905년 일본의 수원헌병분대가 남군영에 주둔함에 따라 학교 건물을 내주고 이전하게 되었다.

1906년에는 기존의 학교 명칭을 개칭하여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가 되었다. 넘치는 학생을 위해 교사를 신축하고 기존의 우화관을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신축된 교사는 기존의 자리에 세워졌으며, 건축 양식은 수원공립농업학교 신축교사와 매우 유사하였다.

개량된 우화관은 사진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면부의 창문과 입구의 개량이 눈에 띈다. 신축교사를 짓기 이전의 시설은 우화관을 개량한 교사를 포함한 교사 3동과 체육관 겸 강당이 1동 있었다. 1933년에 지어진 교사는 1986년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그 후 그 자리에 벽돌로 지은 신축교사가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³² 신흥초등학교, 『신흥 100년사(1896~1996)』, 1996, 79쪽.

2) 삼일학교(三一學校)

삼일학교는 수원종로교회에서 1902년 운영하기 시작한 매일학교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03년 지역 유지들의 지원에 힘입어 설립된 사학(私學)이다. 설립 당시 초등교육을 수행하였으나, 수원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으로 규모가 커지자 1906년 중등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수원의 젊은 유지들이 수원종로교회를 중심으로 설립축성회를 구성하였다.

삼일학교는 개교 이후 한동안 부실한 학사 운영과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은 1908년 경영권 일체를 북감리교회(수원교회 또는 종로감리교회) 선교부에 위임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1회 졸업생이 배출된 것은 1909년에 정식으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뒤였다.³³

당시 수원교회의 건물은 보시동에 초가집 두 채가 전부였는데, 그 사이에 마당이 있었다. 한 채는 이명숙의 주거공간이었으며, 나머지 한 채가 매일학교와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8칸짜리 장방형의 초가집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림 22〉 이담스기념관

33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270쪽.

삼일학당은 1923년 신축교사를 짓고 이전할 때까지 수원종로교회 예배당을 사용하였다. 당시 수원교구 감리사였던 노블(W. A. Noble)은 삼일학당의 열악한 학업환경을 자신의 모교인 미국 아담스교회(Adams Church)에 보고하여 2만 엔의 후원금을 받아, 이 기금으로 1923년 11월 아담스기념관(Adams Hall : 1923, 경기도기념물 제175호)을 현재의 팔달구 매향동 110번지에 건립할 수 있었다. 건물은 건평 141평에 2층 붉은 벽돌구조이며, 외관이 매우 수려하다.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王永德)이 담당했으며, 당시 건물이 너무나 수려하여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에 사치스럽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한다.

3)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

수원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는 ‘수원상업강습소’는 수원상업회의소(水原商業會議所 : 1908~1916)가 1909년 2월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재정과 교육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특히 1916년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산된 뒤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홍사훈을 비롯한 몇몇 뜻있는 선각자들의 도움으로 민족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27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다.

그 기관이 변변치 못하고,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경영해 나가는 오직 하나뿐인 교육기관이다. 융희(隆熙) 4년(1910) 4월에 당시 상업회의소의 경영으로 창립되어 간이한 상업을 교수하던 야학기관이던바 대정(大正) 4년(1915)에 공포된 「상업회의소령」에 따라 수원상업회의소가 폐지(1916년)하게 됨에 동교는 폐교의 비운에 빠졌었다. 당시 선생이던 윤용희(尹龍熙) 씨 외 몇 분이 보수 없이 교편을 잡는 등 열성 탓으로 다시 상업강습소를 주학으로 증설하였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작년(1926년) 5월에 ‘화성학원’이란 교명으로 당국의 인가를 얻었다. 현재의 학생수는 야학생이 240명, 주학생이 190여 명에 달한다. 재정문제는 수원청년회장인 홍사훈(洪思勳) 씨가 일부를 부담하여 그러저럭 유지해 나간다.³⁴

화성학원의 어려움은 당시 수원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전해졌고,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어 화성학원의 명맥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여기에 홍사훈이 주도한 ‘화성학원유지회(1930년)’의 활동이 주요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34 「정차장(停車場)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 대쾌(大快)를 요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5. 근대 종교시설물의 건축

근대 서양 종교의 도래가 단순히 종교적 열망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대표되는 서양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화를 통째로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서양의 건축방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틀로만 살아왔던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다. 비록 그것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고통이었지만, 서양 종교의 활동이 한국 근대사의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교육에 못지않게 서양 종교계가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물론 이들이 행한 사회활동과 교육활동의 목적에는 각자의 포교목적은 달성하기 위함도 있었으나, 그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정부는 근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수원 지역에도 다양한 사학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수원 천주교의 성장

외국인 선교사 없이 한국인 신자들에 의해 창설된 천주교가 수원에 들어온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866년 병인박해기에 수원부의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하였다. 현재의 수원교구에 해당하는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본당은 1888년 7월 설립된 왕림본당이었고, 현 수원 관내에서는 1897년 북수리³⁵에 기와집을 매입하여 공소를 세웠다.

그러나 서양 종교에 대한 수원 주민들의 배척으로, 북수리공소가 수원본당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수원은 유동인구가 많았고, 경부선이 지나는 길목에 있으므로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한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1923년 11월 수원본당으로 승격되고 나서야 천주교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알릭스(Joseph Alix : 야고보) 신부가 부임하여 수원의 교유 유지들과 개설한 '화양학교(華陽學校)'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일이다. 화양학교도 초기에는 2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사설 강습소였으나, 학생이 감소하고 토지분쟁이 우려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전해진다.³⁶

35 북수리 또는 팔부자거리, 관거리, 쇠전거리 등의 명칭이 혼용되었다.

36 천주교 수원교구 북수동성당, 『북수동성당칠십년사』, 유림문화사, 1994, 73쪽.



〈그림 23〉 1930년대 복수동성당의 정면(복수동성당, 『복수동성당 70년사』, 1994)

수원에 땅을 매입하고 공소를 열었지만 1932년까지 한옥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당시 수원에서의 천주교 포교가 활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32년에 수원 최초로 건축된 고딕양식 성당은 큰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고딕성당을 건축한 폴리(Polly : 데시데라도) 신부는 대전에서 전교하고 1931년 5월 인사발령을 받고 수원본당 주임으로 왔는데, 18년 동안(1931년 5월~1948년 8월) 수원에서 재임하였다. 1932년 11월 폴리 신부가 세운 수원 복수동성당은 5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 네이브(nave)와 아일(aisles)로 구성된 고딕양식이며, 경사 지붕에 목재 트러스로 지붕틀을 짰다. 실내의 특징으로는 네이브와 아일 부분의 천장고가 다르고, 경계 부분에는 벽돌기둥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분하였으

며, 본당의 벽 부분은 흰색으로 도장 마감하였다고 전해진다.

경기도 수원읍에는 금년 봄부터 성당 역사를 시작하여 초가을에 화려한 성당이 준공되었는데,本月 12일에 원 부주교 각하께서 당지에 전왕하사 그 익일 주일에 대례로 새 성당을 강복하시고 미사성체를 드리셨는데, 참례한 신부는 10위시오. 수원 지방 교우는 근 1,000명이 성당에 가득 모여 감사롭고 즐거운 정성으로 영성체한 자 500여 인이었다.³⁷

『경향잡지』의 기사는 복수동성당의 건축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도시민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고딕본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건물(사제관, 소화강습회)³⁸은 한옥³⁹을 그대로 쓰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근대식 건물로 건축할 수 있었다.

37 『경향잡지』 제745호, 1932년 11월 15일.



〈그림 24〉 1978년 철거 직전의 북수동성당(북수동성당, 『북수동성당 70년사』, 1994)

2) 수원 개신교의 성장

수원에 개신교를 포교한 교단은 ‘미국감리교회(북감리회 :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였다. 수원은 경부선이 통과하는 지역이므로 경부선이 개통된 이후로는 선교사들이 기차를 이용해서 하루에도 2~3번씩 수원에 들어서 모임과 교회를 돌봤다고 전해진다. 수원 지역 개신교의 최초 포교시기는 1893년경이며, 장지리교회(1893년)가 세워지고 난 뒤 1901년부터 수원 지역에서도 기독교 모임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에는 수원과 공주 지역이 한 교구로 묶여 있었으므로, 『조선감리회연회록(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는 1893년에 ‘파송예정’으

38 소화강습회는 현 소화(小化)초등학교의 전신으로, 1946년에 정규 6년제 초등학교로 인가되었다. 소화초등학교는 전란으로 파괴되었다가 1952년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39 이 한옥을 비롯해 북수동성당은 팔부갓집 한옥을 사들였는데, 성당용으로 세 채, 소화학교용으로 네 채, 수녀원으로 두 채 등을 구입하였다. 1952년 파괴된 한옥사제관을 철거하면서 마지막 팔부갓집이 철거되었다.

로 등장하고, 1895년부터 이 두 지역(1901년에 수원구역으로 분리됨)에 대한 집중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 주민이 의세에 대한 배척의식이 매우 강해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초기에 예배 장소를 위한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901년에 있었던 김동현(金東鉉) 체포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1901년 10월 수원 지역의 교회지도자로 있던 인물이다. 당시 수원교구 담당 선교사였던 서원보(徐元輔 : W. C. Swearer, ?~1916)의 지시를 받고 수원 내에 예배당 겸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관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계약을 맺자마자 체포되어 구금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세자의 어영을 모신 화령전 부근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왕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수원의 교회처소를 위한 신도들의 노력은 1902년 곧 결실을 맺어 서원보 선교사의 가족이 수원으로 모두 이사 왔으며, 적극적인 기독교의 포교가 이루어지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 모두 한옥을 개량한 것이며, 근대적인 건축물은 아니었다.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뒷집에 살고 있던 이규성(李奎成)의 증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열일곱 살 때에 삼일학당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교회는 한 해 앞서 설립되었으며, 때는 나뭇잎들이 퍼렇게 무성한 5월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넷째 삼촌 되는 이하영(李夏榮) 씨가 한문 선생님이었죠. …… 나는 공부하러 가지는 않았으나 삼촌이 하는 학교니까 드나들며 구경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학교였지요. 지금처럼 책상 걸상이 무업니까. 땅바닥에서 공부했어요. 학생은 열 명을 넘었습니다.⁴⁰

다만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해 그 성장속도가 좀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140명의 성도가, 1906년 200명의 성도가 출입했으며, 공간이 비좁아 1906년 2월에 500여 평 규모의 토지를 구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종로교회' 자리이다.

1913년에는 목조구조(木造平家 : 비늘불임마감+회벽마감)에 함석으로 경사지붕을 얹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고, 실내에는 남녀의 구분을 위해 중앙에 큰 휘장을 설치했다고 전해진다. 교회본당은 예배당인 동시에 삼일학당 교실로 활용되었는데,⁴¹ 1919년 졸업사진

40 김세한, 『삼일학원관심년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양정사, 1983, 71쪽.

41 삼일학당은 1903년부터 1923년 11월(매교동 110번지에 아담스기념관이 신축되는 시기)까지 종로교회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림 25〉 삼일학당 교실로 함께 사용된 수원종로교회(1919년, 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을 살펴보면 지금은 헐려서 존재하지 않는 당시 목조 교사의 일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비록 목조로 번듯하게 지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훗날 수원 지방 감리사 노블(W. A. Noble)의 지방보고에 언급되었듯, “일본식도, 한국식도 또한 미국식도 아니어서 볼품도 없고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것”⁴²이었다.

종로교회가 벽돌 건물로 신축되는 시기는 1932년 6월인데, 공교롭게도 천주교 복수동성당이 신축한 해(천주교 복수동성당은 11월)와 같다. 두 건물의 양식은 네이브와 아일로 구분되는 평면에 경사지붕 등 매우 유사하여 마치 하나인 것으로 보이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신축 종로교회의 경우 지붕에 네 개의 굴뚝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굴뚝은 건물에 난방설비인 패치카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1923년에 설립된 수원자혜의원(1923년) 신축본관에서도 동일한 설계를 볼 수 있다.

42 「감리사 노블 보고」, 『조선감리회연회록』, 1926.

6. 근대도시 수원의 자리매김

1) 근대 건축과 사고방식의 전환

수원은 성곽도시로서 행정적인 공공시설들이 집중되면서 지방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성벽의 철거와 가로와 신설·확장에 따라 기존의 전통질서가 파괴되고 와해되는 피해도 겪었다.⁴³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중심이었던 화성행궁 전각 가운데 우화관(24칸) 자리에는 경기 관찰부소학교가, 봉수당(21칸)과 장락당(13칸) 자리에는 수원자혜의원이, 북군영에는 경찰서가, 남군영에는 헌병분견소와 토목관구가 들어섰으며, 낙남헌에는 수원군청이 들어섰다. 일제의 식민 지배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화성행궁은 파괴 또는 전용되었는데, 일제 초기에 이러한 전통성과 근대도시의 충돌은 당시 일제에 의한 민족정기 말살정책과도 맞아떨어지지만,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신축(新築)보다 시설 전용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시설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실용성과 전통성의 조합이다. 화성행궁이라는 전통적인 특징이 근대 행정적인 용도와는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여러 부분에서 시설의 개조가 불가피하였다. 이것은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건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난방, 채광 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개조였다.

또 다른 의미로, 화성행궁을 근대시설로 전용한 것은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원 주민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하여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천천히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원의 근대 건축과 근대도시 발달의 전반적인 양상은 매우 빠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이주민⁴⁴의 급격한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원에서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소수였지만, 활동 영역과 성격은 매우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의 핵심 상권과 은행업, 특정 이권사업을 독

43 수원시, 『조선감리회연회록』, 1997, 127쪽.

44 일본은 본래 한국에 약 200만 명의 일본인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1940년 초 경성(京城)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일본인이었다.

점하였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임금도 2배가량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생활방식과 수준도 한국인에 비해 월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수원주민의 일본인과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강하였던 것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나, 그들에 의해 도입되는 근대적인 도시 풍물이 간과할 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관립으로 지어진 소학교와 사립으로 운영된 학당에 비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근대 농업시설들과 일부 특수시설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막강한 재정 지원과 외형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뛰어난 건축물을 자랑하는 정부 시설물은 수원의 도시 발달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녔으며, 그 중심에는 권업모범장(1906년)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농업시설물이 있었다. 1928년에 개통된 수원버스의 시작과 끝이 수원면과 권업모범장이었다는 사실도 당시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원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전통건축의 개념은 근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서서히 근대적인 관점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점진적인 수원의 근대적인 도시 발달에서 근대 농업건축물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근대적 도시 발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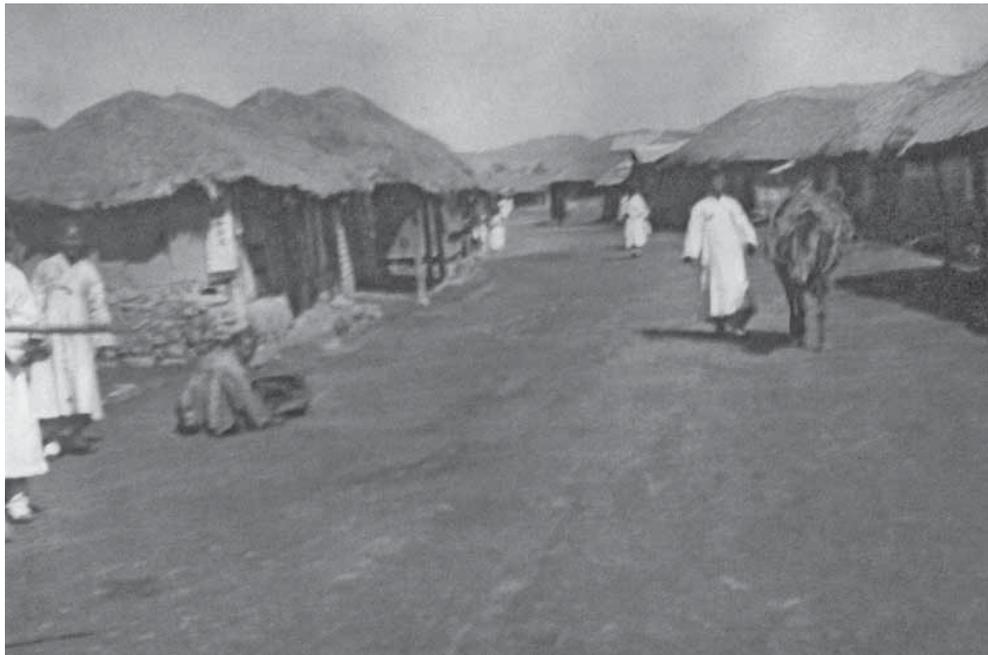
(1) 1905년 이전 도시 발달

수원의 도시 발달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1905년 이전 시기에 성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발달 과정인데, 당시 도심은 화성행궁과 종로거리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주민들의 건축활동은 주로 팔달문과 장안문을 잇는 도로에서 전개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지에는 초가집이 가득하였다. 근대적인 건축활동은 관이 주도하였으며, 행궁이 전용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이때에는 수원우체사와 수원군청 등의 행정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아직 권업모범장(1906년)은 설치되기 전 시기로, 화성 안을 벗어난 지역은 특별히 근대적인 도시 발달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울러 화성 안에서도 수원천(水原川) 주변의 주거지 확장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6> 1905년 팔달문 밖 주변(수원박물관 소장)



<그림 27> 1907년 이전 성내(城內) 민가(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1905~1920년대 도시 발달

두 번째 도시 발달 과정은 1905년에서 1920년대까지로 볼 수 있다. 이는 1905년 경부선
의 개통과 1906년 권업모범장의 개장을 기점으로 하는 역전지역의 발전과 동시에 시작되
었다. 화성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아직은 두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역
전지역은 일본인 주도로 도시가 발달하고 구획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역전에 대한 개발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성내의 유력한 상권을 일본인들에게
주길 꺼려하는 수원 주민들의 태도(털세)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성내에 진출한 일
본인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일본 상인들이 수원 성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
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림 1>에 보이는 1907년 당시 수원역 부근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
변의 모습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한 상태이다. <그림 2>는 1910년대 사진인
데, 여전히 길가에 상가와 민가는 희박하게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이때 도시는 성내와 역전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화성을 중심으로 팔달문 바깥
쪽, 중동과 교동까지의 상권이 기지개를 펴던 시기였으며, 역전지역은 이와 별개로 독자
적으로 개발되었다. 성의 안과 밖을 통틀어 수원천 바깥쪽의 개발은 여전히 더디게 이루
어져, 인계동과 지동 지역의 개량한옥 집단주거지역이 1930년대 후반이 지나면서 조성되
기 시작하였다.

(3) 1930년대 이후 도시 발달

세 번째 도시 발달 과정은 1930년대 이후, 화성 내 지역과 역전구역이 확장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이른바 역전통의 발달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황량했던 신작로에 각종
상점과 시설들이 들어차며 역전 일대와 화성 지역의 상권이 연결되어 가는 시기이다. 장
안문 북쪽 지역이 개발되고, 인계동과 지동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쯤이다.

이 시기의 독특한 특징으로 각종 직물공장이 수원에 설립되고, 장안문 밖이 개발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의 직물공장은 1910년에도 세워진 사례들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
수가 늘어난 것은 193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직물공장들은 매산동, 교동, 구천동, 남수
동 등지에 세워졌으며, 규모가 매우 큰 것들도 있었다. 이처럼 수원에 직물공장의 설립이
증가한 것은 일찍이 양잠인력을 집중 배출한 원인도 있지만, 전쟁물자(1937년 중일전쟁)
를 조달하기 위한 전쟁특수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민간에서의 근대 건축활
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앞서 살펴본 대로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건축물이 1932년 목조건

축물에서 벽돌조의 근대적인 형태로 탈바꿈했고, 민가들의 한옥 개량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안문 바깥 지역의 개발은 다른 화성 주변 지역 가운데에서도 매우 더뎠는데, 이는 이 지역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주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1936년에 수원공립농업학교가 이 지역에 설립되면서 도로가 신설되고 시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비록 화성 주변으로 도시 발달이 확장되어 나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원 상업의 중심지는 팔달문 일대였으며, 도시의 개발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해 있는 복잡한 형태였다.

직물공장들은 성 안에도 존재했는데, 공업용수 때문인지 수원천 부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서둔동에는 공장이나 상업용도의 시설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이 지역이 농업용도의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근대적 도시 발달 과정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도시로서의 수원은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력을 지닌 도시로 발달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즉 근대 농업도시라는 명확한 색깔이 존재하고, 그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은 수원의 근대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도시 발달을 이끌어 내었다. 수원의 근대도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수원에 설치된 근대 농업건축에 의한 영향
- 둘째, 수원에 설치된 근대 상업시설에 의한 영향
- 셋째, 근대 교육시설의 설치와 그 파급 효과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근대도시 수원이 지금의 발달을 이끌어 낸 것은 결집된 수원 주민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근대 초기 일본정부가 주도한 수원의 근대화는 1930년대에 이르러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증거가 1936년 설립된 ‘수원공립농업학교’이다. 이전에 설립된 농업시설들은 모두 관이 주도하였지만, 공립농업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군민들의 헌금과 수원 지역 재력가들의 설립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시설에 대한 수원 주민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말해 주는데, 1900년대

초반기에는 단지 관료 진출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었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군민들이 근대 농업도시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도시로서 수원의 입지와 발달에는 일제의 근대화정책도 일정하게 작용하였지만, 넓게는 서양과의 인적·물적인 다양한 접촉과 수원민의 근대의식의 성장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원의 근대도시 발달 과정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의 근대 건축물은 전통성과 근대성을 겸한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1906년 이후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농업시설들이 수원에 집중적으로 건립되면서, 타 지역인들과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속되었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전통의 발달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둘째, 수원에 설치된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등은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으며, 수원농림학교 동료(東寮)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근대적인 기숙사 시설로 볼 수 있다. 셋째, 근대 농업시설의 설치와 관 주도의 건축활동은 지역에 새로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인력을 유입시켜 지역의 경제 발달과 도시 발달에 이바지하였다. 넷째, 근대 농업도시로서 수원의 발달은 수원민의 자부심과 의식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수원민의 자부심은 수원에 사학을 세우고 땅이나 기부금을 출자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섯째, 수원의 중심가(성내와 역전)로부터 바깥쪽과 내부로의 도심 확장은 주로 해당지역에 관이 주도한 주요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섯째, 수원의 근대 농업시설들은 농업을 연구하고 인력을 배출하는 성격에서 더 나아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물공장의 설립을 이끌었는데, 이는 권업모범장이 누에치기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연혁
2.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설과 관련된 사료의 현황
3.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 구성 변화
4.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 주요 시설의 변화



제3장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과 시설 변화

1.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연혁

개화기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교육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나,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고종은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을 주창하여 1899년 대한제국정부는 상공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상공학교는 1904년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을 증설하여 한성부 수진동에 대한농상공학교(大韓農工商學校)로 확장되었다. 교사(校舍)는 한성부 명동에 소재하였고, 농과만 따로 훈동에 있었으나, 나중에 합하여 수송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림 1〉 대한제국기의 농상공학교 교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1906년(광무 10년) 9월에는 농과를 분리시켜 농림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농공상학교였던 농과생(農科生)과 경성학당(京城學堂) 농업속성과(農業速成科) 생도를 수용하여 개교하였다. 그러나 그 위치가 농업교육에 부적절하다 하여 1907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임업속성과 학생을 처음으로 모집하였다. 속성과 과정은 1년 과정으로 2년간 운영되고 폐지되었다. 속성과 졸업생은 주로 일제 통감부시기에 설치되었던 임업사무소에서 묘포관리 부서에 종사하였다. 임업에 관한 분리교육은 1922년 「신교육령」에 따라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농학과와 임학과 2개 과로 분과하여 모집하게 될 때까지 농과에서 과목만 이수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농림학교 본과는 2년제의 중등농업교육과정이었으며, 1909년 3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농림학교 본과의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과목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근대 농학교육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 후에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되고 입학자격은 4년제 혹은 3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로 제한하였다. 3년 과정의 농림학교 졸업생에게는 관립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 관임무관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농림학교 본과에서는 3년간 전체 85여 시간 중 입학강의에 12시간 정도를 할애하였으며 주로 1907년 일본에서 초빙된 우에카 슈칸(植木秀幹) 교수가 담당하였다. 이후에 전국 각지에 농업학교가 설립되어 임업에 관한 교육을 총괄하였다.¹ 농림학교를 전국에 개설한 것은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중견 농업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졸업생의 대부분은 농림행정, 농림금융, 농림산업회사 등에 취업하였다.

1917년 3월에는 농림학교 전문과(專門科)로 유지되다가 부족한 인적 자원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학교관제(專門學校官制)」 개정이 발표된 1918년 3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가 되었다. 이후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1922년 3월 관립(官立)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로 개편, 승격되었다.²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입학자격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및 중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농학과와 임학과로 분과하여 모집하였으며 교장은 농사시험장장이 겸하였다. 당시의 졸업생은 조선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임학과의 개설과목은 농학과에 비해서는 세분화되지 않았다. 1927년 6월에는 기존의 고등농림학교의 서쪽 부지에 농업교원양성소를 신설하였으며 다음 해 4월에는 같은 곳에 실업보습학교가 부설되었

1 1908년 평양공립농업학교를 필두로 1911년까지 전국 각지에 모두 15개의 농업학교가 개교하였다.

2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학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1939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 연혁략(沿革略)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³ 1939년 2월에는 축산과를 신설하여 20명을 모집하고 농과는 40명, 임과는 25명을 각각 모집하였다.⁴ 학교시설은 농림학교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교육과정은 기초과목을 강화하고 전문기술과목은 세분하여 명실상부한 농학 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1942년에는 지리, 박물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1943년에는 농업토목과가 증설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임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학교 교사로 진출하고 일부는 산림행정관서와 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임학과는 입학생의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한국인은 한 반에 4~5명 정도에 불과해 광복 전까지 한국인 졸업생은 100명 내외였다. 1941년부터는 전쟁수행을 위하여 졸업이 3개월 단축되고 1943년부터는 제4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이 공포되면서 6개월이 단축되어, 실제로 2년 반의 교육만 받고 졸업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4년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다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변경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후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계승되었으며, 2003년 수원캠퍼스를 떠나 서울대학교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른다.⁵

2.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설과 관련된 사료의 현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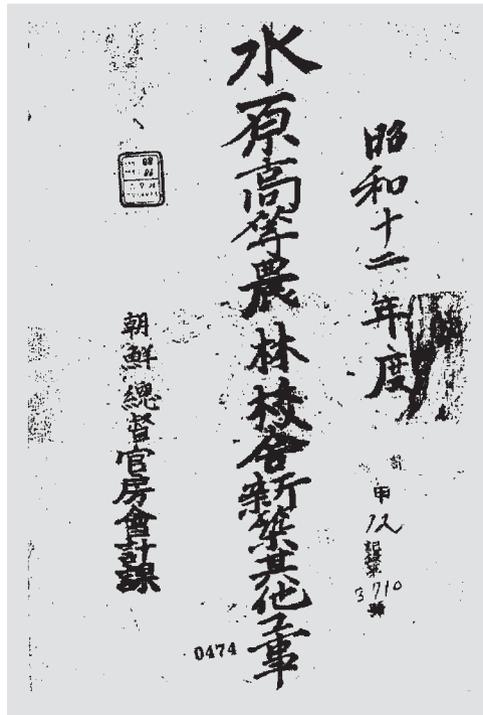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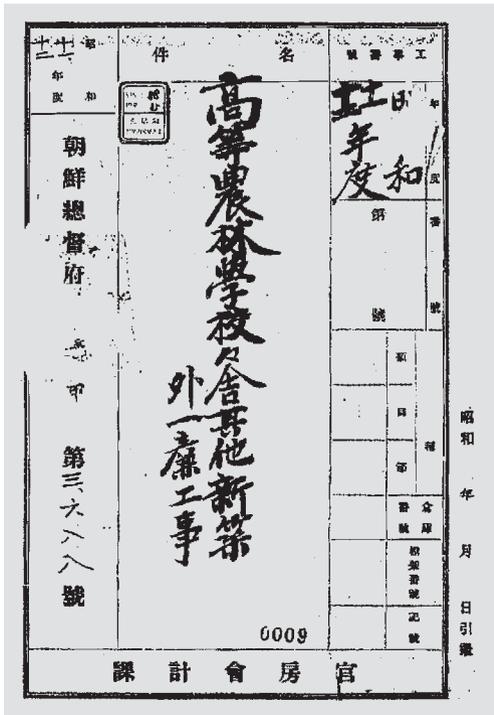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1907년 수원으로 이전한 이후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면서 이전 농림학교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육, 연구, 실습을 모두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복합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에는 1931년부터 1938년 사이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지어진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의 승인문건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문건이 첨부되거나 부속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표 1>. 그 중 하나는 『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림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라고 하는 기록물철인데, 1934~1938년에 조선총독관방 회계과에서 실시한

3 1930년대가 되면 수원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이외에도 부속 실업보습학교, 수원공립보통학교, 삼일학교, 삼일여자보통학교, 화성학원, 종로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된다.

4 『조선일보』, 1939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40년사』와 『수원농학 70년』을 참고로 서술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1937년에 수의축산과가 증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돈구·우보명, 『산림과학백년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6.

6 이 내용은 주로 국가기록원의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으로 최원규가 집필한 것이다.



(그림 2)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고등농림학교 기록물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사신축공사와 기타 공사에 관한 서류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원고등농림교사신축기타공사(水原高等農林校舎新築其他工事)』라고 하는 기록물철로 1937~1938년 조선총독부 회계과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신축과 기타 공사에 관한 서류의 편철이다. 여기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비롯한 기타 공사의 과정에서 회계과와 공사청부인, 현장감독원(現場督役員), 검사관리(檢査官吏),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서로 주고받은 각종 서류들 및 공사 관련 문건들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문건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련

(표 1)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고등농림학교 기록물철 목록

관리번호	문서번호	생산연도	생산기관	M/F번호	총면수
CJA0012830	88-85	1934~1938	총독관방회계과	88-1175	465면
CJA0012831	88-86	1937~1938	"	"	455면
CJA0012791	88-46	1932	"	"	186면
CJA0012792	88-47	1931	"	"	119면

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기록물철은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신축공사 외 일림공사 관련문건의 「공사청부계약체결」의 건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신축공사 외 일림공사의 계약체결 문건으로 8월 10일 치러진 두 차례의 「견적집행결과」, 7월 31일 수의계약체결을 인가하는 회계과장의 공문이 부속되어 있다. 급배수회계과장의 공문에는 회계과에서 작성한 「지명청부인조서」와 「예정가격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음은 건물의 위치 변경과 관련한 「건물배치변경의 건」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공사 내의 건물 위치 변경을 인가하는 문건이고 농업교원양성소 주임 관사 신축 기타공사 내의 건물 배치 변경 관련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지불과 이를 위해 청부인과 검서관리가 제출한 서류 농업교원양성소 주임관사 신축공사의 준공과 관련한 문건, 공사설계변경 관련 문건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신축공사 사양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두 번째로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지 성토 공사 관련 「공사 집행 및 지출결의서」는 공사집행과 지출 관련 문건으로 회계과의 요구사항인 승낙사항이 첨부되어 있고, 세 번째로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관련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전기설비 공사 시행의 건」에는 지명경쟁 계약에 따른 입찰요항이 기재되어 있다. 네 번째로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 교원양성소 관사 기타 전등공사 관련 문건에는 「가인수서」,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 교원양성소 관사 기타 전등공사 예정가격하조서」, 「공사집행 및 지출결의서」,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 교원양성소 관사 기타 전등공사 내역서」와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 교원양성소 관사 기타 전등공사 사양서」가 부속되어 있고 관련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수원고등농림학교 급수장치 기타 공사 관련 「공사청부 수의계약 체결의 건」은 공사 청부 계약체결문건으로 3월 25일 치러진 「견적집행결과」, 2월 26일 작성된 회계과장의 수의계약 체결 인가 공문, 총독부기사가 작성한 「수원고등농림학교 급수장치 공사에정 가격하조서」, 「수원고등농림학교 급수장치 기타 공사사양서」, 회계과에서 작성한 「예정 가격조서」가 부속되어 있다. 여기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신축 공사를 비롯한 기타 관련 공사의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 제출된 매우 방대한 것인데 주요 건축물의 배치도를 포함한 많은 관련 도면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들 자료에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와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청부인 조서에는 시설의 공사를 맡은 합자회사 다다공무점(多田工務店)과 미키합자회사(三木合資會社),⁷⁾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⁸⁾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1936년에 작성된 공사청부계약서를 보면 경성부 황금정 2정목 200번지에 있던 가토상회(加藤商會)가 전기설비의 청부

를 맡았으며,⁹ 급배수설비 관련 청부는 경성부 대화정 1정목 44번지에 있던 오오쿠라상사 주식회사(大倉商事株式會社) 경성출장소와 경성부 황금정 2정목 35번지에 있던 합자회사 하가공무소(芳賀工務所)를 비롯하여 경성부 죽침정 2정목 57번지에 있던 스기야마제작소(杉山製作所) 등이 담당했다는 것이 1937년 작성된 공사정부계약서와 청부인조서에서 확인된다.¹⁰

다음으로 『수원고등농림교사신축기타공사(水原高等農林校舍新築其他工事)』라고 하는 기록물은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신축 기타공사에 관한 것으로 공사의 계약체결문건인 「공사청부 수의계약체결의 건」은 공사비가 8만 6,600원이고 공사는 1937년 7월 20일에 기공하여 12월 24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사 증축 기타공사로서 공사비는 1만 7,130원이고 1937년 10월 2일에 기공하여 이듬해인 1938년 1월 9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관련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공사비는 1만 5,280원이고 공사는 1937년 11월 27일에 기공하여 이듬해인 1938년 3월 31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 번째 부분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 커튼 기타 설비공사로 공사 집행 및 지출 관련 문건, 준공 기한 연기 인가 문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도 앞의 서류철과 마찬가지로 공사와 관련된 업체 및 인물이 일부 파악된다. 공사 청부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시 경성부 황금정 1정목 8번지에 주소지를 둔 기시구미(岸組)가 이 시기 공사의 대부분을, 전기설비는 가토상회(加藤商會), 주식회사 영전사(營電社), 산와전기토목주식회사(三和電氣土木株式會社)가 각각 담당하였다.¹¹ 그리고 커튼 등 창호와 관련된 설비는 경성부 약초정 106번지에 있던 합자회사 니시아마상점(西山商店)에서 맡았다.¹² 이 공사와 관련된 총독부의 기사(技師)는 사사 게이이치(笹慶一), 기수(技手)로는 오가와 기요(小川亮一), 기쿠카와 세지(菊川靜治) 등이 있었다.¹³

그 밖에 서류철에 첨부된 도면과는 별도로 여러 시기의 상황이 반영된 다양한 설계도면 254매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도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고찰해 보

7 다전공무점은 미츠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 : 현 신세계백화점 본관), 삼목합자회사는 메이지좌(明治座 : 현 명동에술극장)를 사공했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청부회사들이다(『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립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27쪽).

8 이 인물은 1934년도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지 성토공사와 관련된 서류에 청부인으로도 등장하며 주소지는 경성부 창신동 443번지로 되어 있다(『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립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2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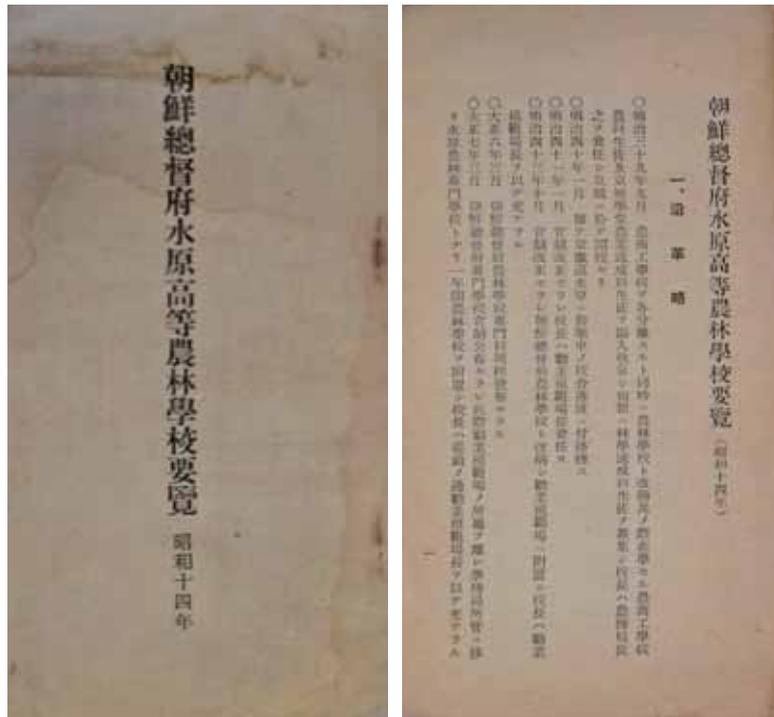
9 『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립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259쪽.

10 『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립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338·356쪽.

11 『수원고등농림교사신축기타공사(水原高等農林校舍新築其他工事)』, 35·235쪽. 이 회사의 대표는 기시(岸登吉)이다.

12 『수원고등농림교사신축기타공사(水原高等農林校舍新築其他工事)』, 292쪽.

13 『수원고등농림교사신축기타공사(水原高等農林校舍新築其他工事)』, 168·212·264쪽.



〈그림 3〉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 표지와 첫 페이지(1939, 수원박물관 소장)

고자 한다.¹⁴ 그리고 이보다 시기가 좀 늦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료로는 수원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이 있다(그림 3). 1939년 간행된 이 소책자에는 간략하지만 당시 수원농림고등학교의 각종 시설 및 실습장 면적이 소개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배치 상황을 반영한 도면¹⁵이 1장 포함되어 있다.

3.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공간 구성 변화¹⁶

1907년 한성부에서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로 이전한 수원농림학교는 초기에 교사, 기숙사, 관사 등 560여 평에 불과한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였으나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14 이 254매의 도면들은 서류철에 첨부된 도면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다. 현재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모두 디지털 파일로 올려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간략한 해제가 덧붙여져 있다.

15 축척 1/2000로 그려진 배치도의 명칭은 「수원고등농림학교 평면도」이다.

개편되면서 이후 급격하게 시설이 확충되었다. 1918년 겨울에는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1921년 5월에는 종래의 운동장 부지에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을 신축하였으며, 1921년 12월에는 양잠실, 목장, 돈사, 계사, 밧고를 추가로 신축하였다. 그 결과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편될 시점이 되면 학교 부지는 약 24만㎡에 달하였고, 교실, 이화학교실, 강당, 교장실, 사무실, 화학실험실, 표본실, 제도실, 동물실험실, 농업제도실, 농장사무실, 농구사, 비료사, 창고, 실습실, 야잠실, 기숙사, 관사 등 대략 32동의 건물이 들어섰다.¹⁷ 1911년 수원농림학교를 방문했던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이 학교의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¹⁸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설이 노후화하여 동맹휴학을 펼쳤던 1926년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로 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것이 있었다.¹⁹ 이후 1936년이 되면 건립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기존의 노후 건물들을 철거하고 본관과 기숙사의 신축을 계획하여 기존의 시설배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1939년 학교의 전체 부지는 차지(借地)를 포함해서 약 32만㎡으로 확장되었으며 본관, 부속사, 기숙사, 관사, 숙사, 연습림 사무소 등을 포함해서 모두 93동의 건물이 들어섰다.²⁰

이처럼 지속적인 학교 시설의 신축 및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모두 254매의 도면이 정리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2장은 창호에 관련된 건구표(建具表)로서 순수한 도면은 252매인데 그것은 다시 수원농림학교 도면 25매, 수원농림전문학교 도면 28매, 수원고등농림학교 도면 181매, 1928년 4월에 부설된 수원실업보습학교 도면 18매로 분류된다. 그리고 도면에 그려진 주요 대상 건물은 교사, 기숙사, 도서관, 축사 등의 교육 관련 시설과 교직원을 위한 사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기타 철책, 교문 등과 같은 부속시설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도면으로는 관사에서 사용할 응접실용 가구(家具) 설계 도면과 창문 내부의 커튼 상세도 같은 것이 있는데 당시 매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설계 도면이 작성되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도면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형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비롯한 설비 및 구조에 관한 각종 상세도가 있으며 각 시기별 건물의 증개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들도 여러 장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전체적인 건물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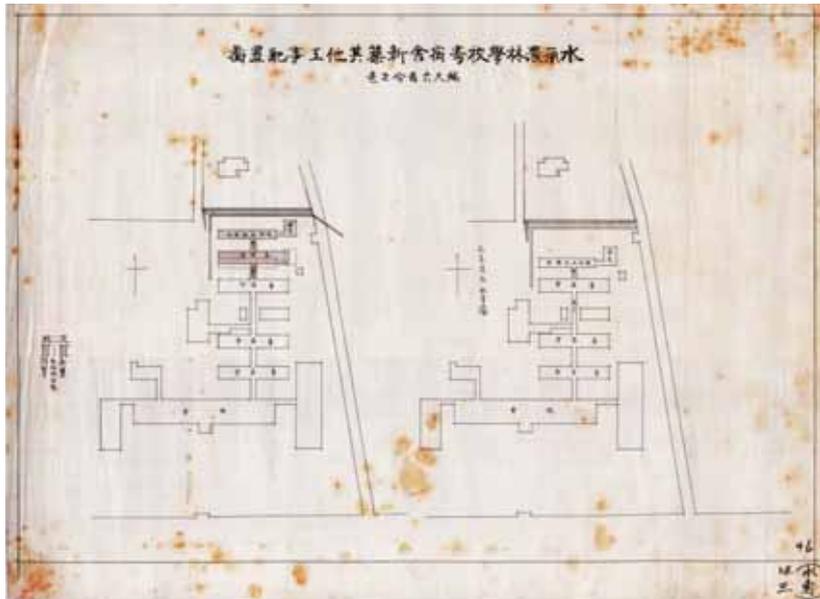
16 수원농림학교와 관련된 도면에 관해서는 『일제시기 건축도면해제 I-학교편』(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155~165쪽)에서 배치 변화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9장의 도면이 소개되어 있다.

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해제 I-학교편』, 2008, 155~156쪽.

18 노르베르트 베버, 박영일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 226~229쪽.

19 『조선일보』, 1926년 6월 25일, 석간,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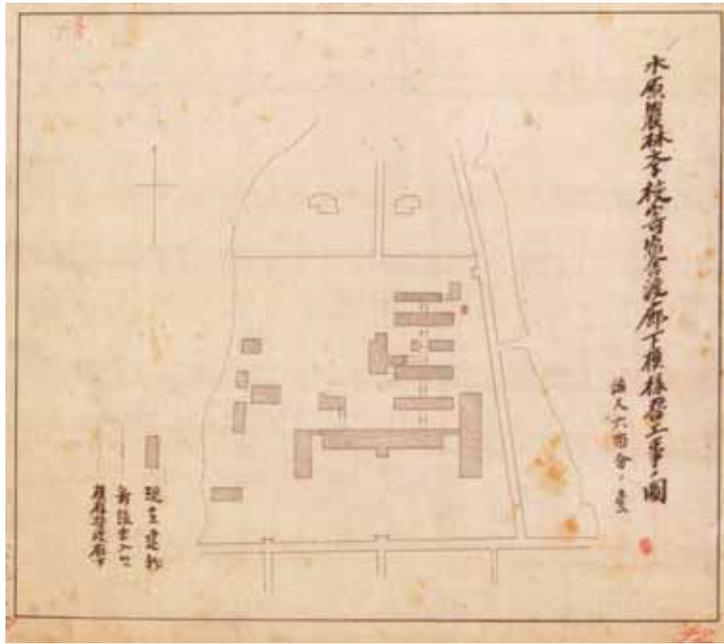
2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요람』, 1939, 40~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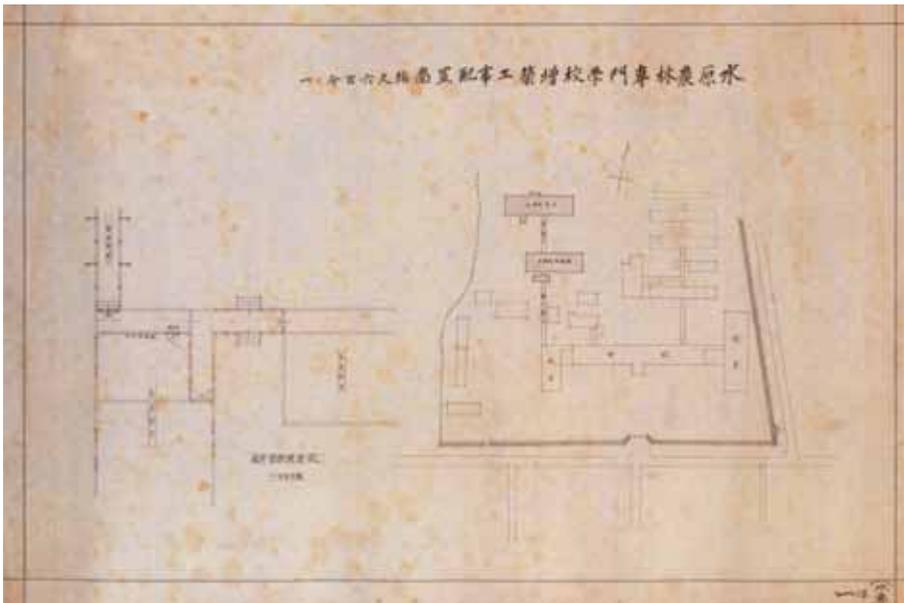
〈그림 4〉 「수원농림학교기숙사신축기타공사배치도」(1906~1907년, 국가기록원 소장) 1907년에 수원으로 이전한 수원농림학교의 배치도이다. 남쪽을 정면으로 -자형의 본관이 위치하고, 본관의 좌우로 교사가 위치하며, 뒤쪽으로는 기숙사와 식당, 교사동의 서쪽으로는 운동장이 각각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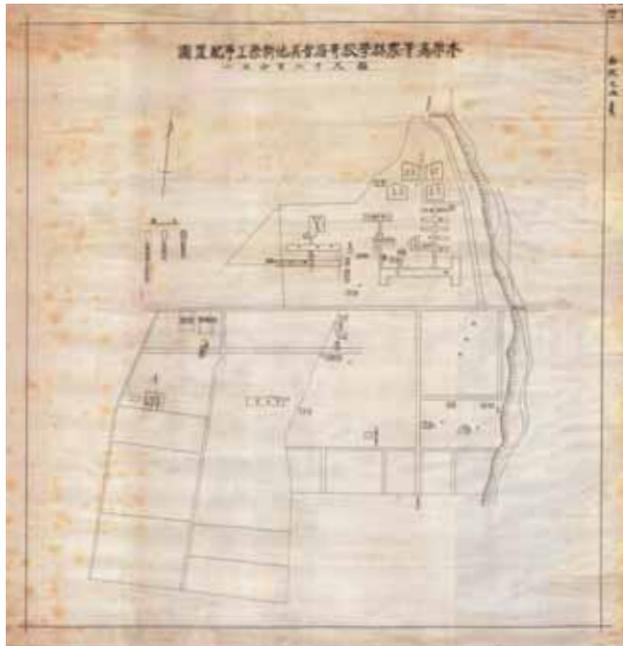
〈그림 5〉 「수원농림학교증축공사배치도」(1918년 이전, 국가기록원 소장)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이전,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략적인 위치가 표현되어 있으며 초기 내지 인 기숙사를 비롯한 교사 남쪽의 농장이 포함된 농림학교 전체의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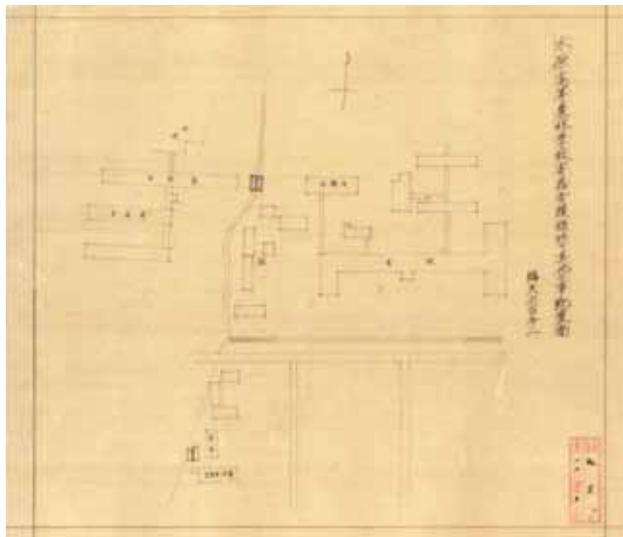
〈그림 6〉 「수원농림학교기숙사도량하모양체공사도」(1918년 이전, 국가기록원 소장)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략적인 위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그림 5〉 도면에 비하여 교사와 기숙사 서쪽 편에 다수의 건물이 있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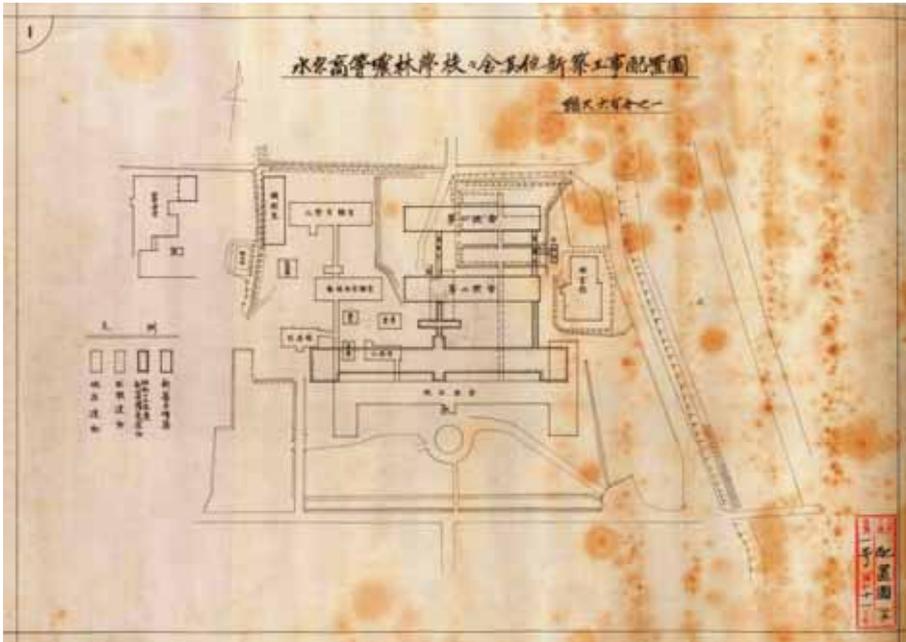
〈그림 7〉 「수원농림전문학교증축공사배치도」(1921년, 국가기록원 소장)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된 이후, 1921년에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을 신축한 시기의 배치도이다. 기존의 운동장 부지에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을 신축하였으며, 본관과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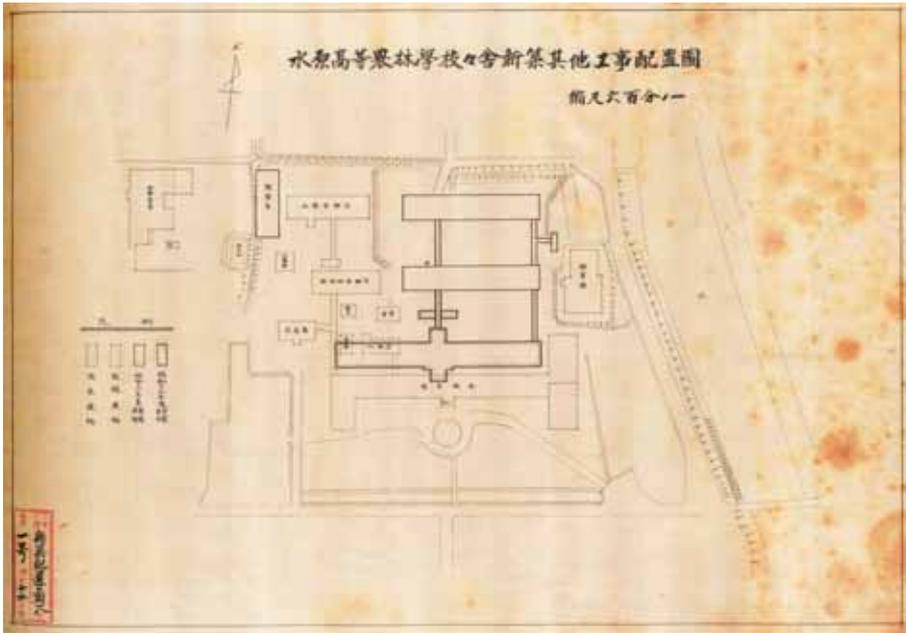
〈그림 8〉 「수원농림학교기숙사기타신축공사배치도」(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편된 이후의 배치도로, 기존의 배치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관사들이 부지의 북쪽에 보이며, 부지를 서쪽으로 확장하여, 1918년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였고 서쪽 기숙사는 1923년경 당시에는 一자형 기숙사 한 동과 부속 식당, 취사장이 있었으며, 그 앞쪽으로 절반 길이의 기숙사를 더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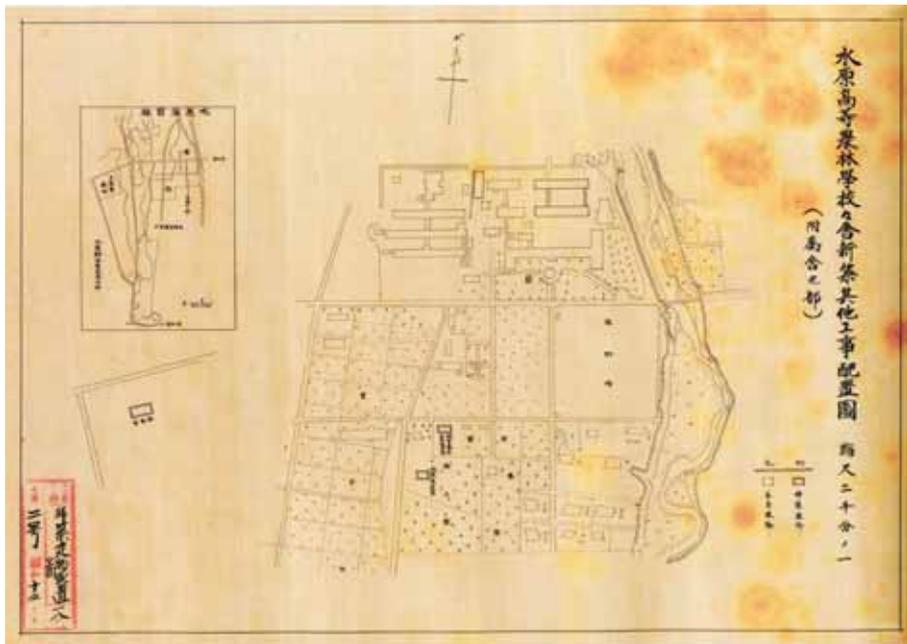
〈그림 9〉 「수원고등농림고등학교기숙사모양체기타공사배치도」(1930년, 국가기록원 소장) 기숙사 증축의 상황을 보여 주는 배치도로, 기존의 一자형 기숙사 한 동과 부속 식당, 취사장 앞쪽으로 절반 길이의 기숙사 2동을 더 신축하였다. 신축 연대를 보면, 가장 북쪽의 기숙사가 1918년, 중간 기숙사가 1923년경, 남쪽의 기숙사는 1927년에 각각 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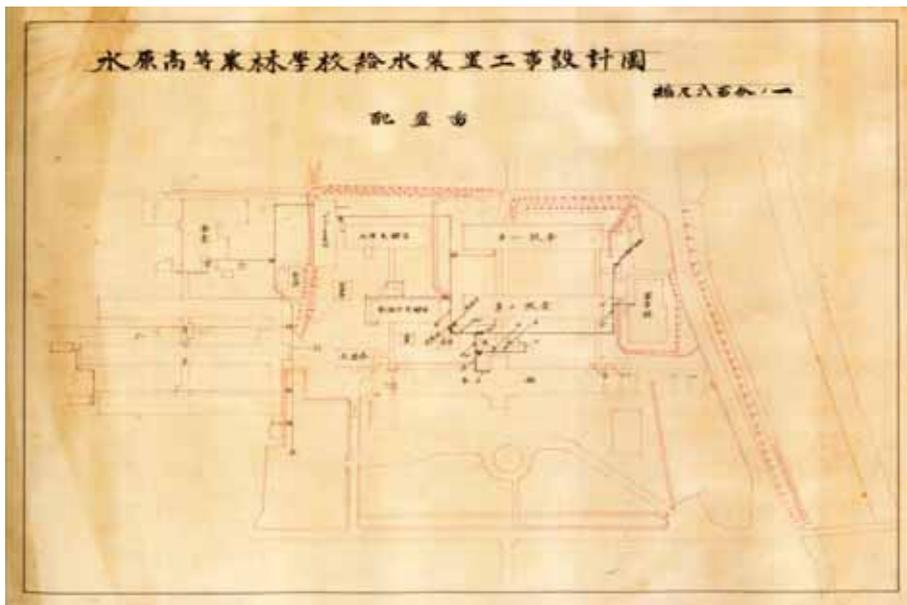
〈그림 10〉 「수원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공사배치도」(1936년, 국가기록원 소장) 1921년에 신축된 동식물실험실과 화학실험실을 제외한 본관과 교사동, 그리고 북쪽 기숙사를 모두 철거하고, 一자형의 본관과 제1교사, 제2교사 두 동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범례에 따르면 1936년에는 제1교사, 제2교사 두 동을, 본관은 1937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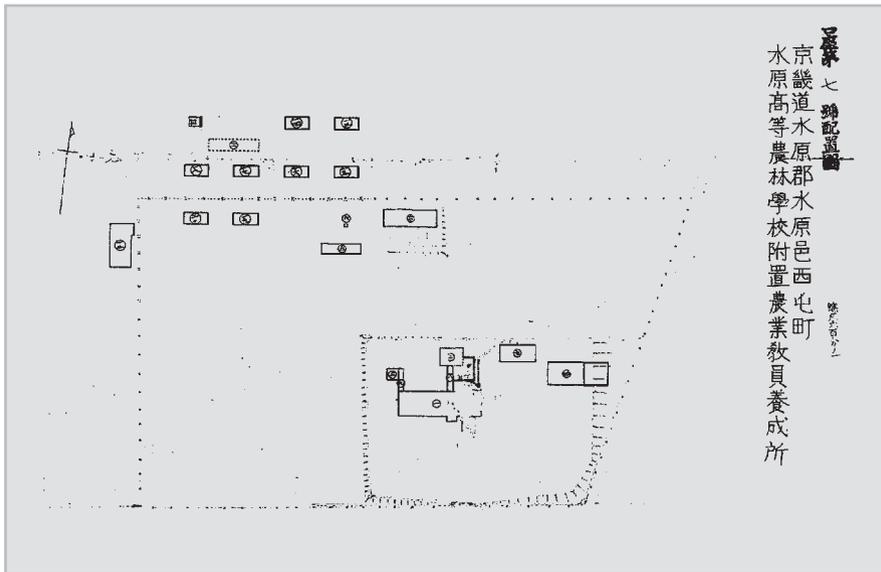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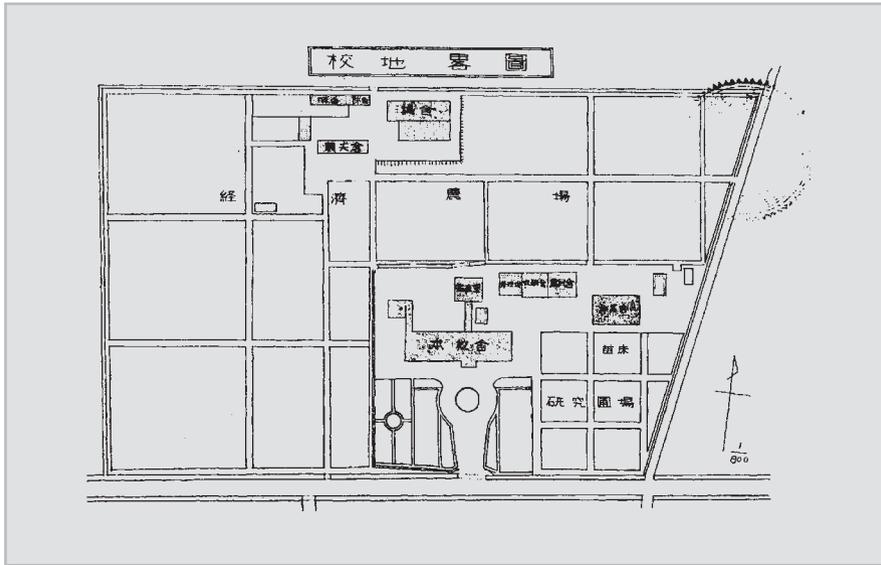
〈그림 11〉 「수원고등농림학교교사신축기타공사배치도」(1937년, 국가기록원 소장) 1937년에 작성된 배치도로, 1936년도 배치도와 달리 신축 본관의 형태가 바뀌었고, 좌우 측면에 붙은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제거되었다.



〈그림 12〉 「수원고등농림학교교사신축기타공사배치도」(1937년, 국가기록원 소장) 본관 신축 직전의 배치도로, 부지를 크게 동서로 나누어 동쪽에는 교사군(본관, 교사 2동, 실험실 2동)이 들어서게 되었고, 서쪽에는 기숙사 3동과 식당, 취사장이 위치하였다.



〈그림 13〉 「수원고등농림학교급수장치공사설계도」(1937년, 국가기록원 소장) 급배수 장치 공사 설계도로서 본관 신축이 완공된 이후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전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 부지를 크게 동서로 나누어 동쪽에는 교사군(본관, 교사 2동, 실험실 2동)이 들어서게 되었고, 서쪽에는 기숙사 3동과 식당, 취사장이 위치하였다.



〈그림 14〉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속 실업보습학교(농업교원양성소) 시설배치 약도 위의 도면은 『本校施設經營の概況』(佐藤勝行編, 水原高等農林學校附置實業補習學校, 1933년)에 수록된 것이고 아래의 것은 『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1934~1938년)에 수록된 것이다.

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도면을 정리해 보면 〈그림 4〉~〈그림 14〉와 같다.²¹

배치 관련 도면에 따르면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캠퍼스는 학교의 특성상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교사 및 기숙사, 실험실 등의 교육 관련 건축시설과 과수원, 견본원 등의 실습용 농

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1939년에 간행된 요람에 따르면 실습용 농지는 캠퍼스 전체 부지의 75%를 차지하여 교육 관련 건축시설의 3배가 될 정도로 많은 면적을 점유하였다. 이 두 개의 주요 시설 가운데 교육 관련 시설군은 캠퍼스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의 북쪽에 주로 배치하였고, 실습용 농지는 남쪽에 확보하는 한편, 관사는 필요에 따라 여러 곳에 분산시켰다.

여기서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교육 관련 건축시설의 배치를 살펴보면 1918년 이전의 초기, 1918년 이후 농림전문학교를 거쳐 고등농림학교로 개편되고 실험실의 신축과 더불어 부속시설인 실업보습학교가 들어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의 중기, 1936년 이후 노후 시설의 철거와 전면적인 신축이 이루어지는 후기의 세 단계 변화를 갖는다.

시기가 가장 이른 1918년 이전 수원농림학교 시기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도면에 따르면 남쪽을 정면으로 일자형의 본관이 위치하고 본관의 좌우로 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그 뒤편으로는 생활공간인 기숙사와 식당, 화장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은 모두 남하로 연결을 시키는 특징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중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21년과 1923년으로 추정되는 배치도와 1930년대의 배치도에서 확인된다. 이들 도면에서는 기숙사 서쪽의 운동장 부지에 신축된 동식물실험실과 화학실험실 건물이 보이며, 기숙사가 이들 실험실의 서쪽에 추가로 신축되는 한편, 본관 뒤편에 있는 초기 기숙사의 북쪽에 관사가 들어서는 등 강의동, 기숙사, 실험동, 관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 시기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육시설 가운데 또 다른 큰 변화는 1927년 6월에 신설된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와 다음 해 4월에 부설된 실업보습학교를 들 수 있다.²² 이들 시설은 1923년경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기숙사와 일정한 거리를 둔 서쪽 부지에 위치하였다(그림 15). 이로써 북쪽에 위치한 교육관련 시설군은 고등농림학교와 실업보습학교가 동서로 배치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 변화의 단계인 1936년 이후의 캠퍼스는 중기까지의 건물배치와는 달리 동식물 실험실과 화학실험실을 제외하고 본관과 교사동, 교사동 북쪽의 기숙사를 모두 철거하고 본관과 제1~제2교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동서로 긴 부지를 보다 합리적

21 해제 내용과 연도는 대부분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으며 일부는 필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보완하였다.

22 관련 시설 가운데 본 교사를 제외한 작업장, 취사장, 관사, 기숙사, 우물 등의 시설은 모두 1936년에 준공 검사가 마무리되었다(『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의일럼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124쪽).



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사동 및 실험동의 강의용 건물과 기숙사를 비롯한 서비스 시설 위주의 생활용 건물을 완벽하게 동서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당시 공사과정을 전해 주는 『고등농림학교 교사기타신축의일럼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기록물철의 1936년 9월 8일자 공문에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건축물의 위치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축되는 본관의 위치를 조절하여 제2교사의 건물을 동식물실험실 건물과 동일한 선상에 일치되도록 하라는 것이 있다.²³ 이것은 1936년, 1937년의 도면에서 각각 확인이 되며 이러한 교육 관련 시설의 배치구조는 1939년 간행된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요람』의 별책으로 첨부된 배치도에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5〉 「수원고등농림학교 평면도」(1939년, 수원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요람』에 수록되어 있는 배치도이다. 학교 부지는 남북으로 구분되어 북쪽에는 농림학교와 부설 보습학교의 교육 관련 시설이 주로 세워졌으며 남쪽은 대부분 실습장으로서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

4. 도면으로 본 수원고등농림학교 주요 시설의 변화

수원농림고등학교의 시설은 하나의 독립적인 교육공동체²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조선반도의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만 제공된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교화의 목적으로 제1표본실을 개방하여 일반 민중에게 열람하게 함으로써 농림업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고, 제2강당을 이용하여 지방 인사를 위하여 명사의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지의 지식인들을 위하여 도서관을 개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²⁵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은 식민통치자의 지식과 업적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²⁶

여기서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도면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본관 및 교사와 도서관, 기숙사, 그리고 교문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본관과 교사

본관과 교사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육시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도면에 의하면 크게 3차례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초기에 신축된 본관은 단층으로 현관을 중앙에 두고 서쪽에는 직원실, 기계도서실, 실험실, 교실을, 동쪽에는 표본실, 열품실, 교실을 배치한 대칭적인 형태의 건물이었다(그림 16-2).

이후 본관 건물은 서쪽에 교실을, 동쪽에는 강당과 특별교실이 있는 건물을 각각 증축하면서 좌우 대칭의 형태를 잃고 H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증축은 서쪽의 시설이 먼저 시행되었으며 동쪽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본관 건물은 그 뒤편의 기숙사는 물론 양옆에 증축된 건물과 모두 남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1936년 기존의 기숙사를 철거하여 두 동의 교사를 신축하고 다시 1937년 새로운 본관을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림 17). 현재 본관의 입면도가 1장 남아 있어 초기 형태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동아일보』 기사의 사진을 통해서 당시 이 건물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그림 18).

23 『고등농림학교교사기타신축외일림공사(高等農林學校校舍其他新築外一簾工事)』,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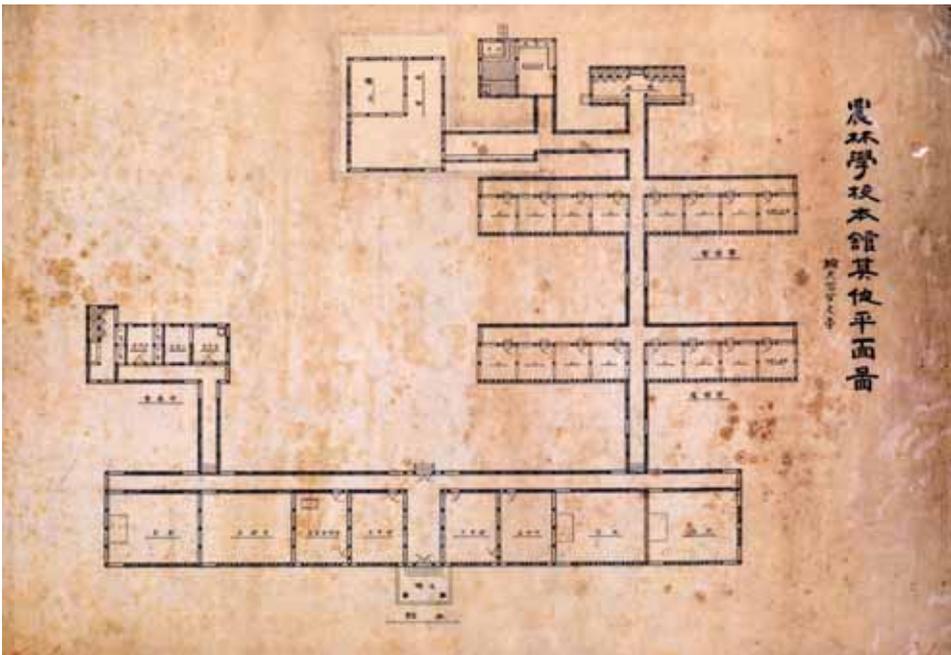
24 1911년 이곳을 방문한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자신의 책에서 이곳을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5 『조선일보』, 1921년 5월 16일, 석간,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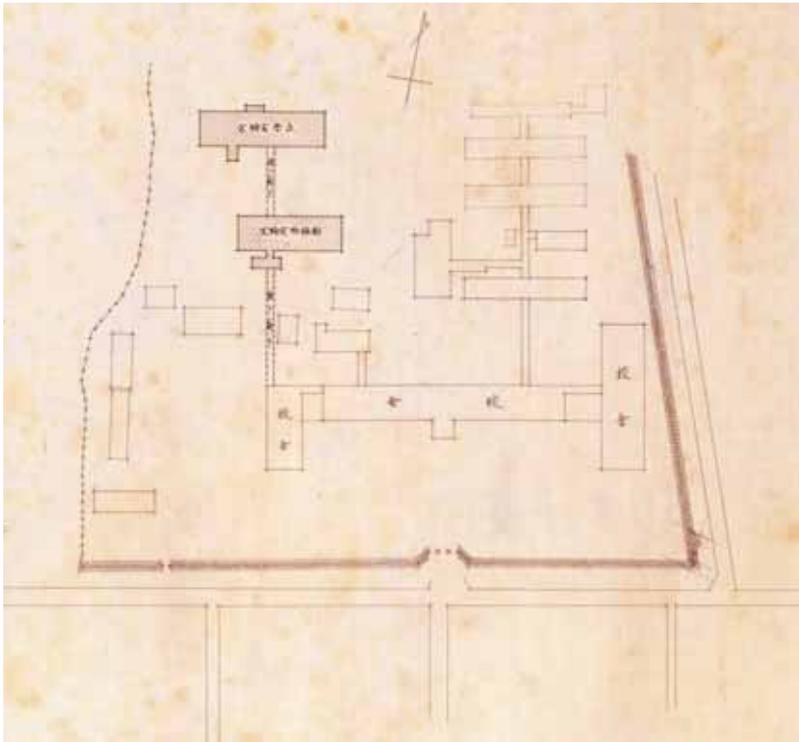
26 노르베르트 베버의 저서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 228-229쪽에서 그 내용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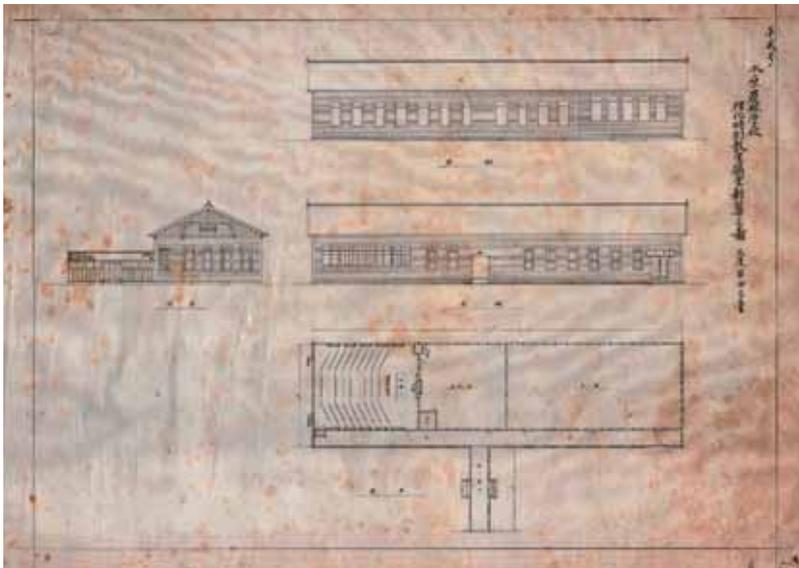
(그림 16-1) 1917년 수원농림학교 졸업생과 본관 건물(수원농림학교, 『교우회보』,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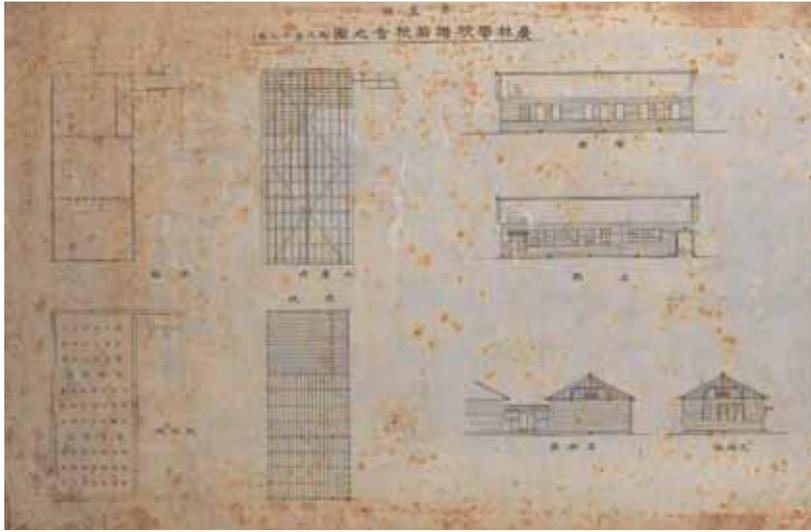
(그림 16-2) 수원농림학교 본관 기타 평면도(1907~1917년경,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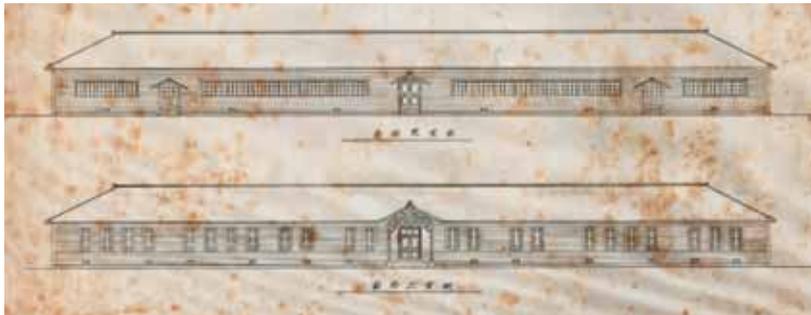
〈그림 17-1〉 증축된 본관의 배치도(『수원농림전문학교증축공사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17-2〉 본관 동쪽에 증축된 교사(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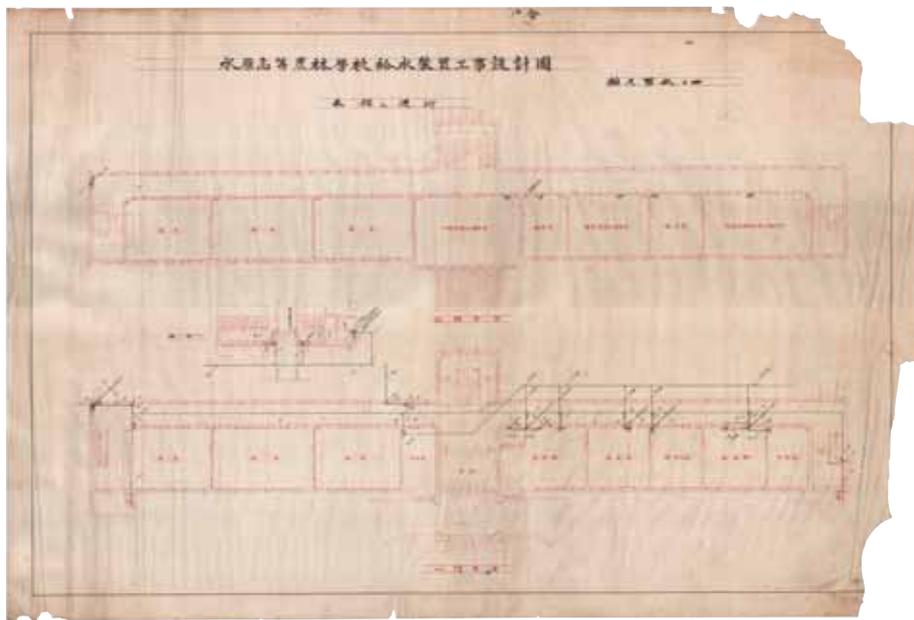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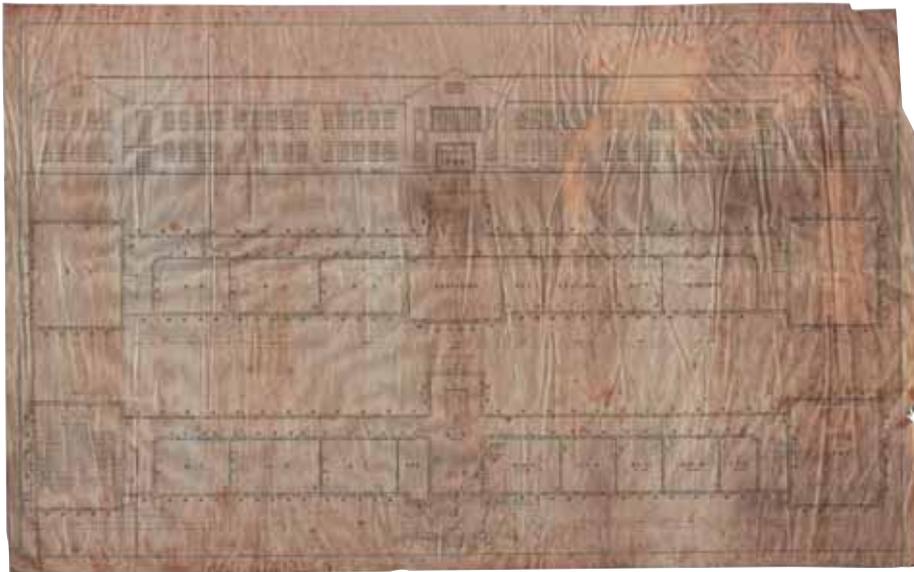
〈그림 17-3〉 본관 서쪽에 증축된 교사(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18-1〉 증축 전 초기 본관 입면과 배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18-2〉 1927년 본관 전경(『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그림 19) 수원고등농림학교 본관 계획도(1936~1937년 추정)와 실제 공사된 본관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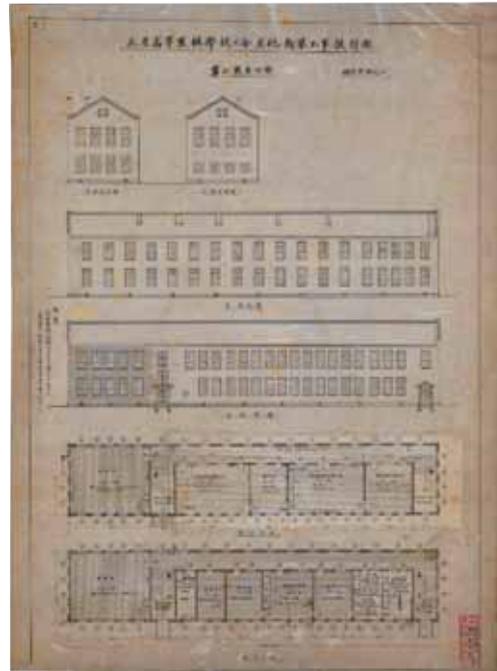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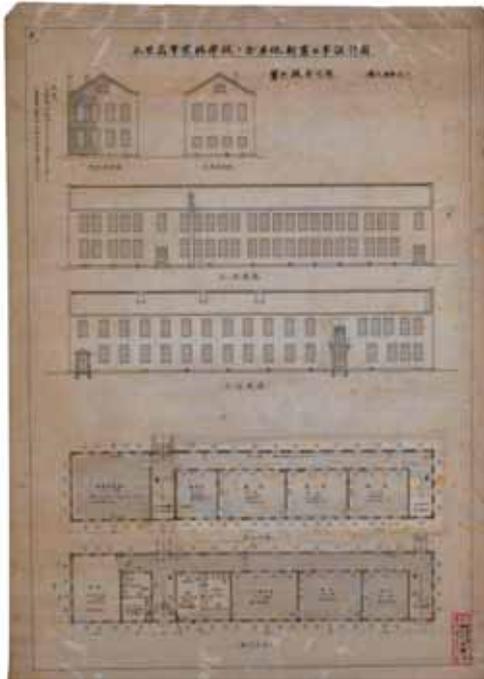
1937년이 되면 증축된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의 본관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본관이 들어서게 된다. 신축된 본관은 배치도를 통해서 한 차례 설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초기의 계획안은 건물의 좌우 끝 부분에 앞뒤로 약간 돌출된 교실이 있는 모습이었



〈그림 20〉 2012년 현재 구 수원고등농림학교 본관 전경과 입구, 중앙홀 후면의 계단실

으나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다(그림 19). 이 건물은 2층으로 중앙의 돌출부에 현관과 내부의 홀을 만들고 후면에 계단실을 설치하였다. 계단실은 중앙 이외에 건물의 양 측면에도 두었으며 전면에 주요 실을 배치하고 후면에 복도를 둔 편복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건물의 입면을 살펴보면 중앙의 돌출부에 삼각형 박공을 설치하고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띤 당시 관학교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본관은 해방 이후 3층으로 증축되면서 중앙 돌출부의 삼각형 박공이 사라지고 경사지붕은 평지붕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의 입구



〈그림 21-1〉 제1교사(좌)와 제2교사 도면(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1-2〉 리모델링 전의 제2교사 전경

부분과 중앙홀 후면의 계단실만이 어느 정도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그림 20).

본관 이외에도 1936년에는 원래의 기숙사를 철거하고 제1교사와 제2교사를 신축하였다. 이 두 교사의 건물은 모두 2층으로 경사지붕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평면과 입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두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입면과 그 반대의 입면을 각각 통일하여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구도가 되도록 하였다(그림 21). 본관과 마찬가지로 이 두 건물 역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의 외부에 나무를 붙이고 지붕의 기와를 교체함으로써 생경한 건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의 위치 등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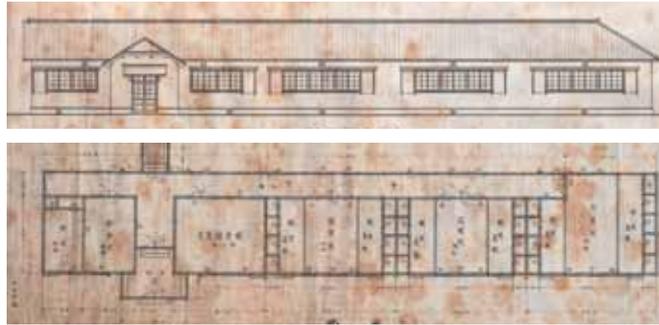
기숙사는 수원고등농림학교와 실업보습학교에 각기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후자는 도면자료가 전무하여 현재로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각 시기별로 다양한 도면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배치도와 연결 지어 보면 증개축과 과정 까지도 확인이 된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초기 기숙사는 본관의 후면에 남하로 연결시킨 2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북쪽 방향으로 추가 건물을 지어 모두 4동까지 증축되었으며, 이후 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1918년에는 부지를 실험동 서쪽에 확보한 뒤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였다. 1923년 무렵이 되면 기숙사는 본관 뒤편에 지어진 4동과 서에 지어진 2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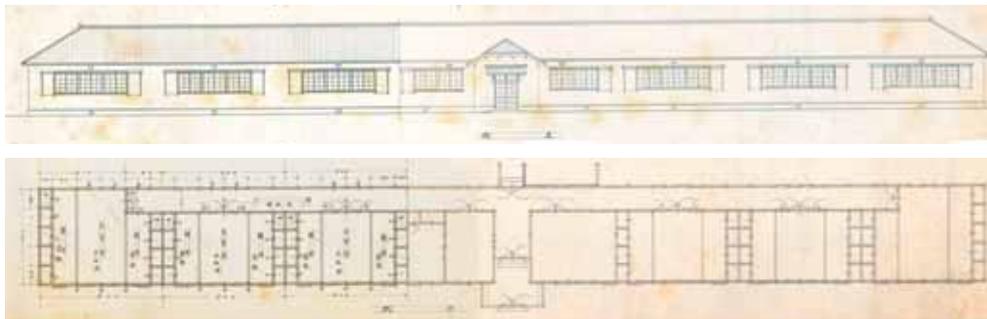
〈그림 22-1〉 초기 기숙사의 정면과 배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2-2〉 증축된 기숙사의 정면과 배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3-1〉1918년 신축 당시 기숙사의 정면과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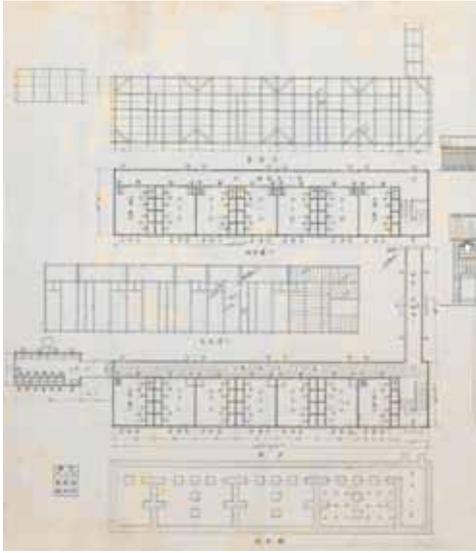
〈그림 23-2〉증축된 기숙사의 정면과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함께 사용되었으며 1927년에 1동이 더 신축되었다. 1936년에는 이르며 구 기숙사는 모두 철거되고 모두 서쪽의 기숙사 3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구역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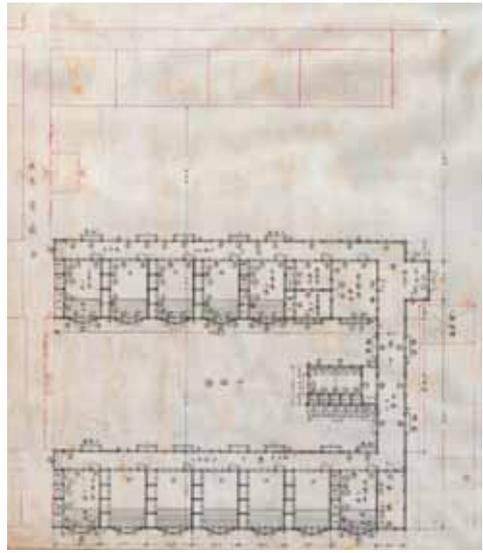
농림학교 시기의 초기 기숙사와 이후 증축된 기숙사는 모두 단층의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입면과 평면 모두 동일한 구성요소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붕의 목구조는 모두 일본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온돌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굴뚝이 설치되었다(그림 22).

다음으로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된 이후 본관 서쪽 부지에 처음 신축된 기숙사의 도면을 보면 침실과 더불어 사감실, 도서열람실, 자습실 등이 함께 들어가 있으며 이전의 기숙사와 달리 내부에서 반침을 두고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 도면보다 시기가 늦은 또 다른 도면과 비교를 해 보면 기숙사는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동쪽 부분부터 우선 지어지고 차후에 서쪽 부분이 증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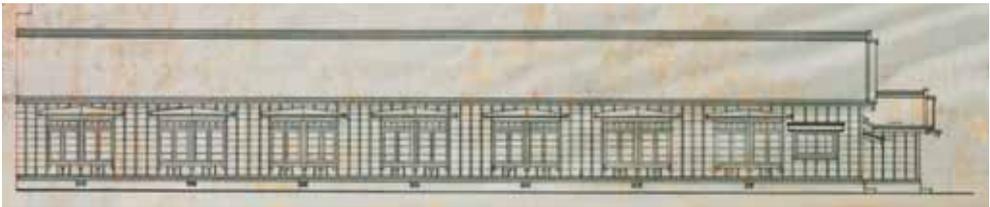
이곳의 기숙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증축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3동의 건물을 일렬로 배치하고 그 중간을 남하로 연결시켰는데 편의상 처음 지어진 것을 1호관이라고 하면 1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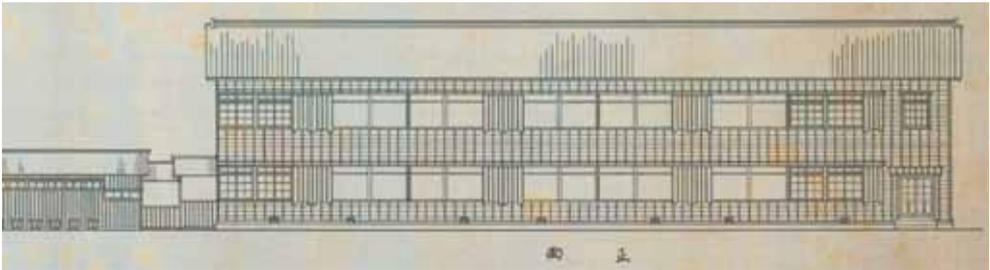
〈그림 24-1〉 2층 목조건물의 3호관 서쪽 기숙사 평면도(1927년, 국가 기록원 소장)



〈그림 24-2〉 2-3호관 동쪽에 단층으로 증축된 기숙사 평면도(1933년,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의 붉은 선은 기존 건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1〉 기숙사 2호관과 3호관 동쪽 입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5-2〉 기숙사 3호관 서쪽 입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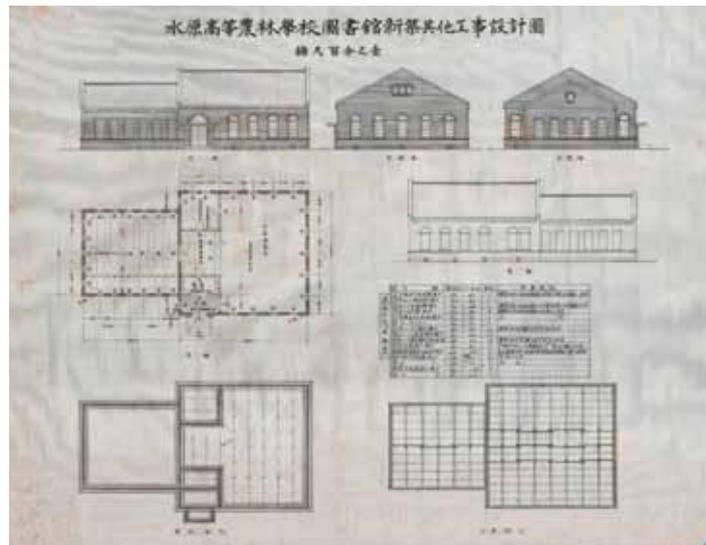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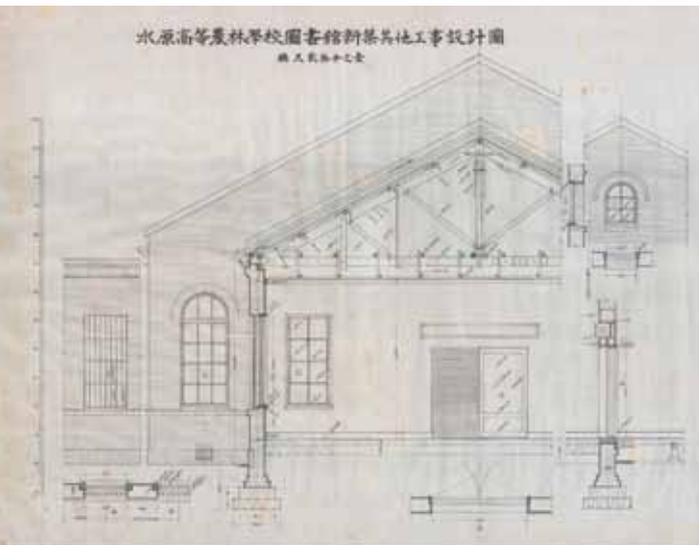
의 남쪽에 순차적으로 2호관과 3호관이 지어졌다. 하지만 1호관과 달리 두 건물 모두 남하를 중심으로 서쪽 부분이 먼저 완성되었고 1933년에 이르러 동쪽 부분이 추가로 증축되었다(그림 24).

또한 1호관 전체와 2호관과 3호관의 동쪽 부분은 모두 단층의 경사지붕 건물인 반면 2호관과 3호관의 서쪽 부분은 2층의 경사지붕 건물로 세워졌다. 이뿐만 아니라 2호관 3호관의 경우는 평면의 구조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 먼저 지어진 서쪽 편 기숙사는 1호관의 평면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증축된 동쪽 기숙사는 반침을 인접한 두 방이 마주하지 않도록 한 쪽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각 실의 창쪽으로는 3분의 1 정도 마루를 깔았다. 창호의 형식도 미단이와 여단이로 차이를 둬으로써 입면에서도 변화가 생겼다(그림 24, 그림 25).

기존의 본관 뒤편에 있는 구 기숙사와 이들 기숙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여기서는 온돌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다다미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일본 건축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숙사의 주변에는 화장실, 욕실, 식당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가되어 일체화된 생활공간을 조성한 것은 구 기숙사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다.

3) 도서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도서관 건물은 1936년 노후한 기존의 교사와 기숙사를 철거하고 학교 시설 전체를 새롭게 계획할 때 신축된 제2교사의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설계 도면을 살펴보면 이 건물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조적식 벽체 위에 목조



(그림 26)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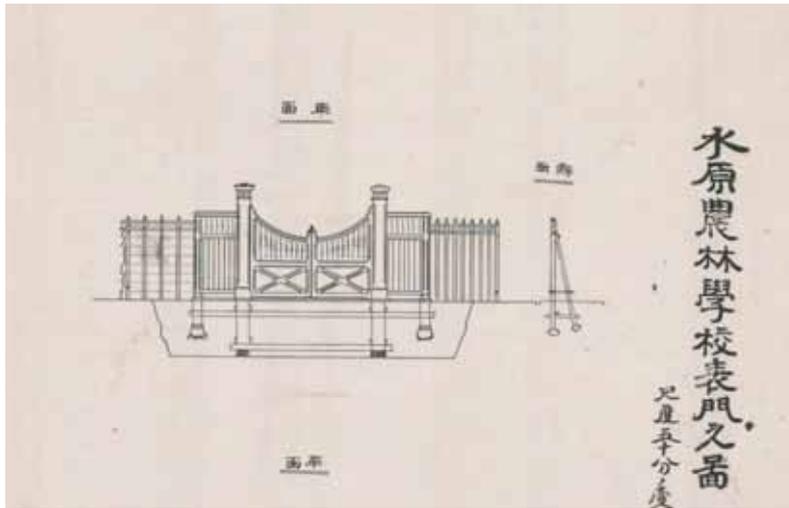
(그림 27) 2012년 현재 구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관 전경과 내부 캠퍼스가 서울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농업사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왕대공 트리스 구조의 지붕을 올렸다. 건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서쪽에 두었으며 건물 높이와 창호 형태가 서로 다른 두 건물을 남북 방향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건물로 보이도록 하였다. 북쪽 건물은 서고로서 세로로 긴 장방형의 사각창을 설치하고 지붕 높이가 낮다. 반면 남쪽 건물은 장방형 창호의 상부를 반원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붕도 높여 입면상의 차이를 두었으며 열람실과 서고 및 열람실 양쪽 모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을 두 건물이 연결되는 부분에 배치하였다(그림 26). 전체적으로 두 개의 정방형 평면이 연결된 단순한 건물이면서도 기능에 따른 입면 형식의 변화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존하는 이 건물의 상황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열람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2배로 증축되면서 출입구의 위치가 바뀌었으나 입면의 구성과 재료는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방 이후 도서관 건물이 다른 곳에 지어지면서 이 건물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농업사박물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내부시설이 철거된 채 방치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설 가운데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7).

4) 기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도면 가운데 학교 시설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으로는 교문을 들 수 있다. 현재 교문과 관련된 도면은 모두 2장이 있는데 하나는 수원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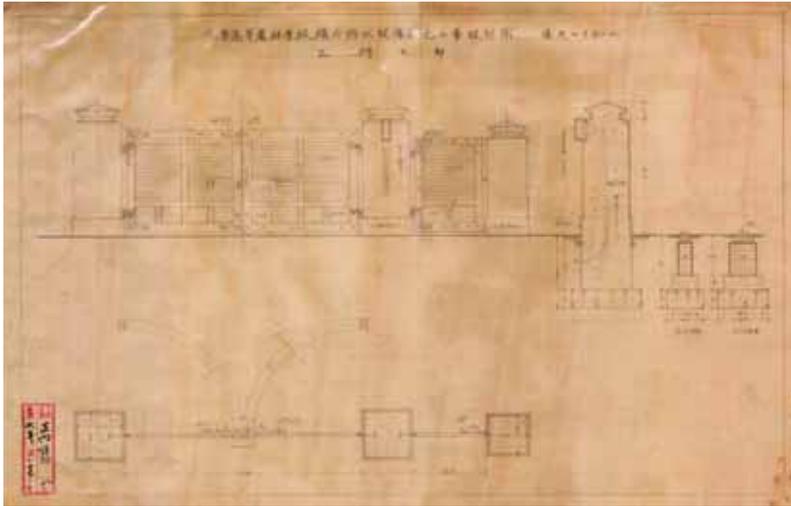


〈그림 28〉 수원농림학교 교문 도면(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9〉 수원농림학교 시기에 만들어진 교문(수원박물관 소장)

림학교 시기의 교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교체된 것이다. 교문의 위치 역시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캠퍼스로 진입하는 동남쪽 모퉁이에 본관과 45도 각도를 이루며 설치되었으나 이후 본관의 출입구와 서로 마주보는 남쪽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농림전문학교 증축공사 배치도에서 확인된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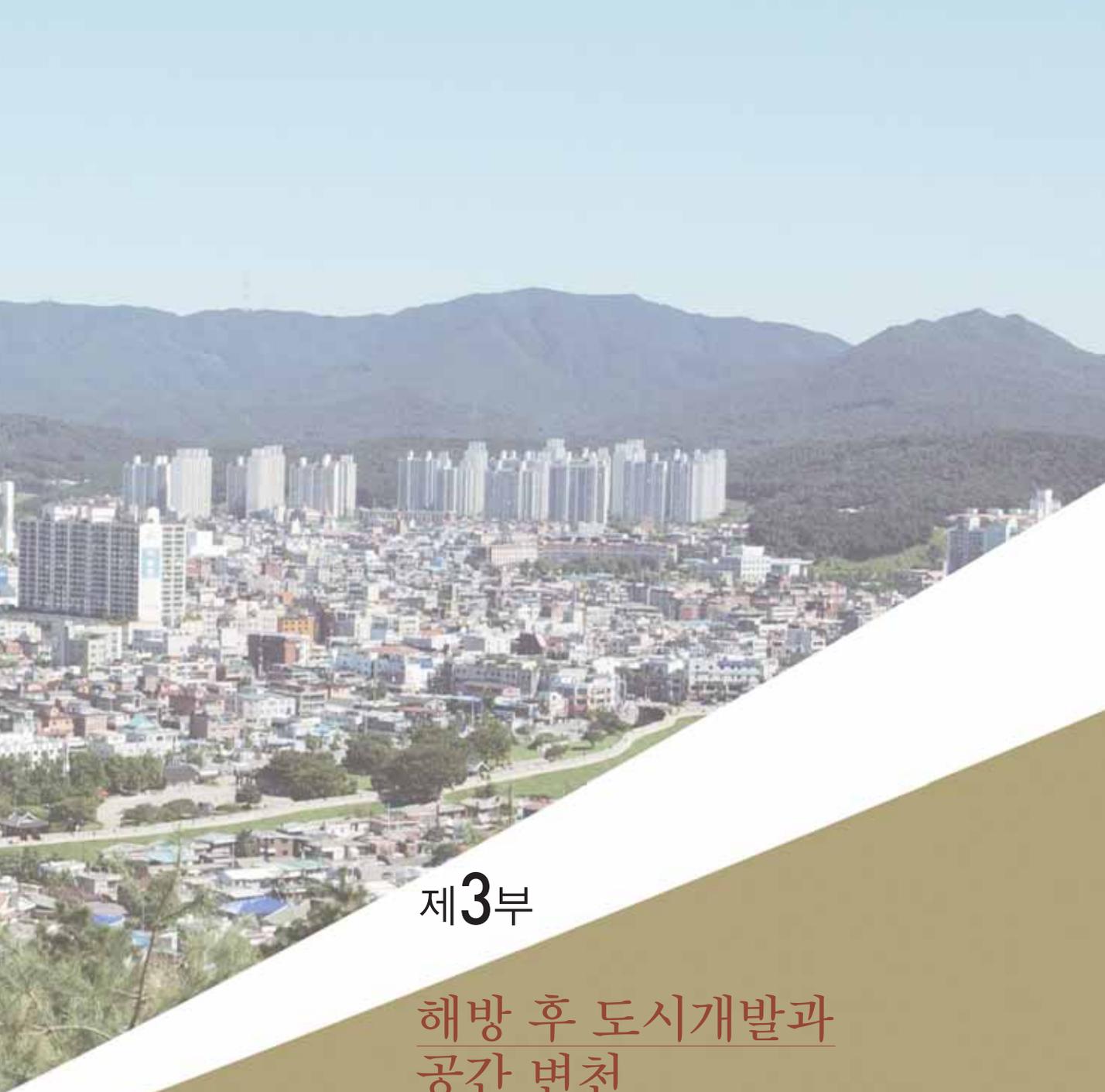
〈그림 30〉 수원고등농림학교 구내 배수설비기타공사 설계도에 보이는 교문(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31〉 수원고등농림학교 교문(수원박물관 소장)

수원농림학교 시기의 교문은 한 쌍의 문으로 이루어진 중앙의 정문과 정문의 기둥 양옆에 협문이 각각 1개씩 있는 작은 규모의 형식으로서 나무로 만들어졌다(그림 29). 이후 이 교문은 콘크리트의 구조로 바뀌고 협문은 동쪽 편에 하나만 있는 형식이 되는데 1938년도 「수원고등농림학교구내배수설비기타공사설계도」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30).





제3부

해방 후 도시개발과 공간 변천

제1장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제2장 수원시의 도시경관 변화

제3장 수원 현대 건축의 전개와 특징

제4장 화성 안의 도시화와 주거의 변화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1. 해방 후~196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2. 197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3. 198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4. 199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5.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제1장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1. 해방 후~196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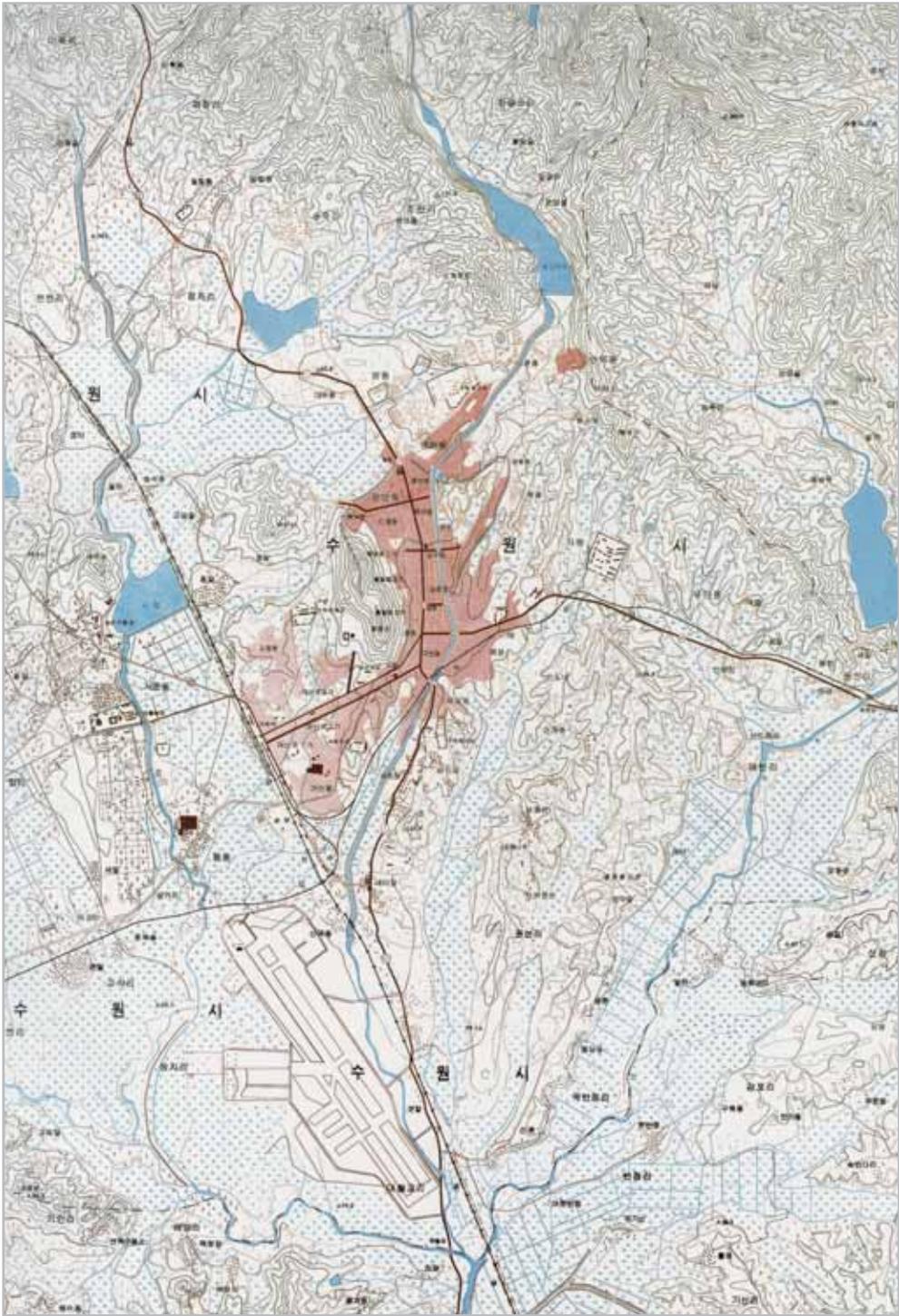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져서, 1950년대에는 새로운 도시개발보다는 전후 복구에 치중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도시의 양적 확산과 함께 도시 중심기능(中心機能)도 집적되고 고밀화되었으며, 지역 간 도로의 개통과 산업화가 가속되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수원시도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967년 7월 3일(건설부고시 제 478호) 도시계획구역이 수원시 행정구역인 83.67km²로 확장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1969년 6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6호)에는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 일원, 신갈지구, 화성군 태안면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구역이 121.663km²로 확대되었다. 그해 10월 15일(건설부고시 제609호)에는 화성군 태안면 일원을 편입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이 124.893km²으로 확장되었다.

1967년 7월 3일(건설부고시 제478호)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건설부의 승인을 얻은 최초의 수원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농업 위주 경제체제에서 자주경제 확립을



1966년 수원시 항공사진



1969년 수원시기본도

위한 농공병진시책을 도모하고,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인 도시계획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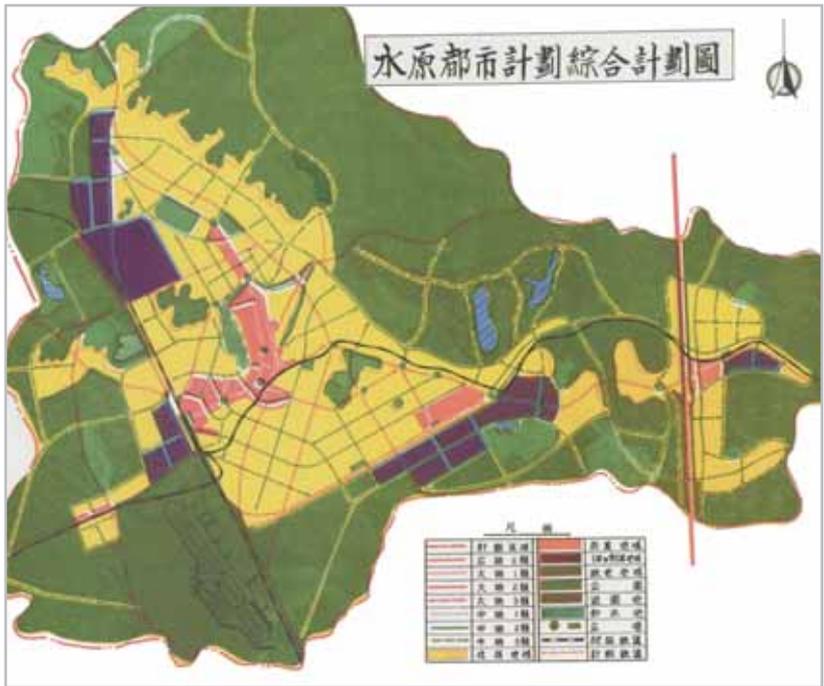
1967년 재정비 결정 당시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녹지지역은 다시 생산녹지와 산림녹지로 세분하여 결정하였는데, 상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을 합한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30.1%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건설부고시 제478호에 의하여 결정된 용도지역별 비율은 전체 면적 83,667km² 중 주거지역이 19,358km²로서 23.2%, 녹지지역이 58,386km²로서 69.7%의 비율을 차지하여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비율이 92.9%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지역은 2,773km²(3.3%), 공업지역은 3,150km²(3.8%)의 비율로 결정되었다. 공원은 이미 확정된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로 결정하였으며, 도로는 대로 21개 노선, 중로 65개 노선 등 총 191.02km로 결정하였으며, 광장도 13개소로 변경하였다.

1967년에는 도시계획구역(신갈지구) 확장과 장래의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수원시 장기발전구상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용인 신갈 지역이 편입되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83,667km²→121,663km²)되었고, 1988년(20년)에 인구 35만 명을 수용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도시 발전방향 및 미래상으로 행정·연구·학원도시로 기능을 부여하고, 수도권 근교의 내륙공업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계획을 토대로 하여 1969년 6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6호) 재정비계획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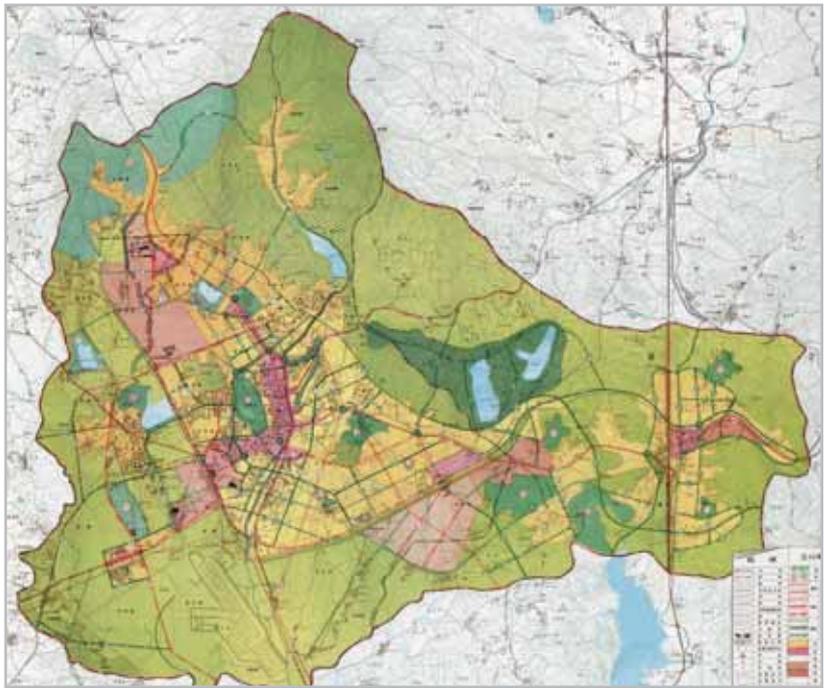
이러한 기틀은 건설부고시 제336호(1969년 6월 11일)에 의해 삼성전자, 연초제조창, 선경합섬을 유치하기 위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확보로 연결되었다. 곧이어 건설부고시(제609호, 1969. 10. 15.)로 삼성전자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화성군 대안읍 일부를 편입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1967년 도시계획 결정 이후 수원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1968년 12월 서울-신갈간 고속도로 개통), 도시 중심기능의 확산(1967년 6월 경기도청 이전), 산업의 발달(연초제조창, 선경합섬, 삼성전자 입지) 등으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과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6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6호로 재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용인군 수지면·기흥면과 화성군 대안면 일부를 편입하여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121,663km²로 확장되었다. 이 계획은 목표연도가 1988년, 계획인구가 30만 명인 20년 장기계획으로, 수원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계획이 수립·결정되었다. 이로써 수원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행정도시·연구도시·내륙공업도시 및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건설부고시 제336호(1969. 6. 11.) 결정 이후 10월 15일에는 화성군 대안면 일부를 도시



1967년 장기 발전 구상도(1967. 7. 3.)



건설부고시 제609호(1969. 10. 15.)

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계획구역 면적을 123,893km²로 확정하였다. 이는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매탄동 공업지역은 원천이 중앙부를 관류하고 있어서 공업지역 개발에 입지적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개발 가용지가 많은 화성군 태안읍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편입하여 공업지역을 확장하여 근대적인 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 197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1970년대 한국사회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수도 서울은 과밀해지고 혼잡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과밀 방지를 위해 서울에 입지한 공장들을 주변 위성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대규모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수원에서도 공업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농공병진 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지방행정 중심의 근대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선경합섬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연초제조창(KT&G), 금강(KCC), 한일합섬, 선경화학(SKC) 등의 공장이 유치되었다. 이들 대기업 공장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수원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공업화 진전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수원 화성 주변에 고화지구, 영화1·2지구, 역전1·2지구, 파송1지구 등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시가지가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수원-서울)와 1호선 전철(수원-서울)이 개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공업화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본격적인 도시화의 전개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1972년)하고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법률 제2291호(1971년 1월 19일)로 「건축법」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1960년대 「도시계획법」이 「시가지계획령」의 체제를 대체로 답습하여 도시시설계획, 지역지구제, 도시계획위원회의 3개 부분으로 된 5장 35조의 간결한 구성이었던 데에 비하여, 3차 개정은 별칙을 포함하여 전문 7장 94개의 조문으로 대폭 확대·개편되었는데, 이는 현행법의 근간이 되었다.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지 조성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게 되었다. 또한 주택지와 공업용지의 입지정책 미비로 우량농경지의 잠식이 문제되면서 1972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이 실시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1960년대 과다하게 지정되었던 주거·상업·공업 등 시가지 지역이 대폭 축소되고, 우량농경지는 생산녹지로 지정하여 보존하였다. 한편 이 도시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1971.1.29.)되고,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도시 간선도로가 크게 신설되었으며, 특히 1973년부터는 읍·면급의 소도시에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12월에는 기간산업의 효과적 육성·개발을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만 받으면 「도시계획법」, 「수도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만 의존해 왔던 시가지 조성사업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1969년 6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6호) 결정 이후 건설부고시 제574호(1970. 12. 3.)로 세류1동의 일부 녹지지역(면적 24만 1,000㎡)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는 세류동에 형성된 취락밀집지역을 바람직한 주거지로 정비·관리하고자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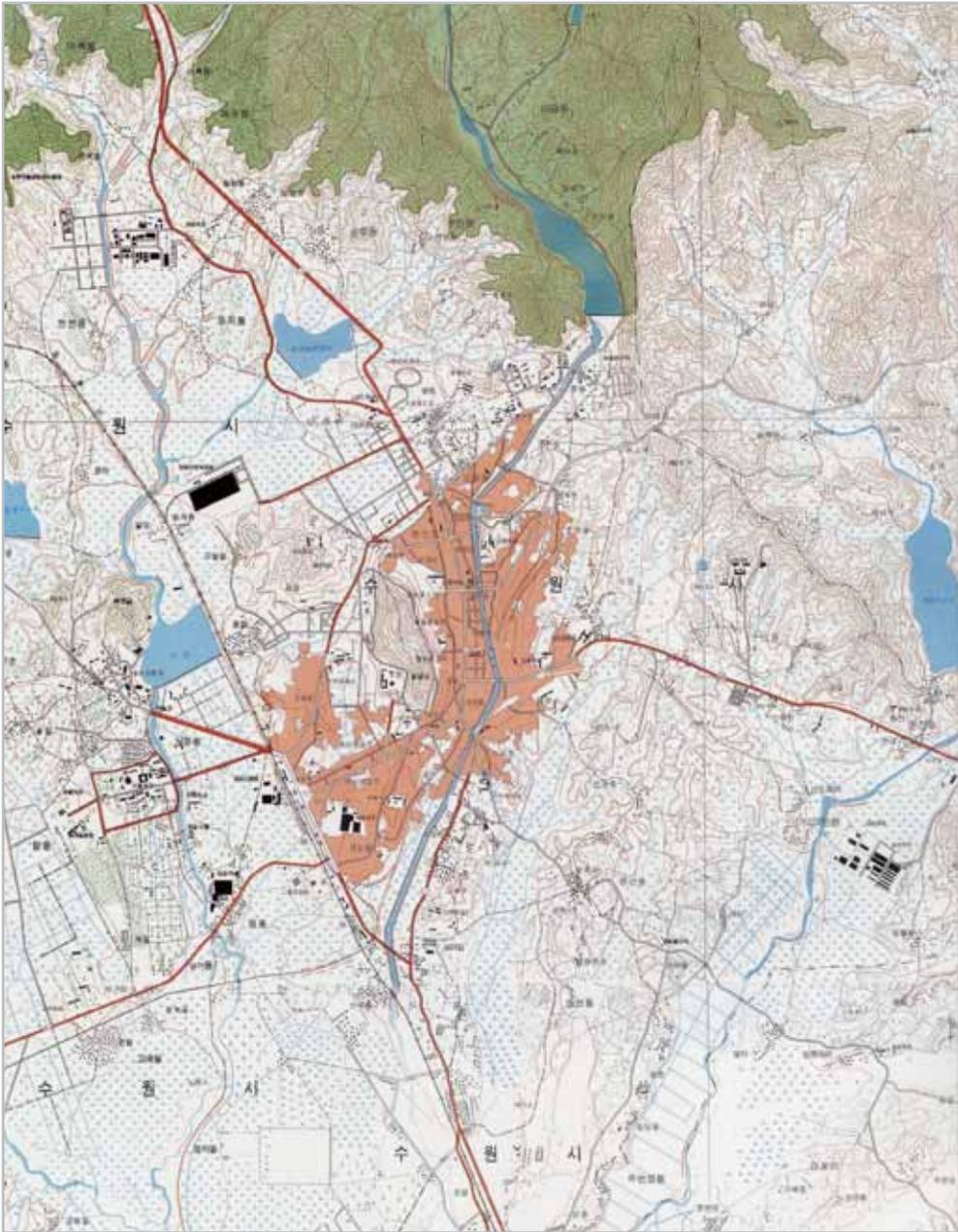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조정, 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기흥저수지와 민속촌 주변 지역을 계획성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2년 8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9호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202.854km²로 변경하였다. 확장 지역에는 용인의 수지·기흥·구성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가 포함되었다.

1972년 8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9호) 결정 이후 수원도시계획구역에서 녹지지역을 확장하여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1971년 12월 29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군 반월면과 시흥군 남면 일부(현 의왕시 삼동, 월암동 일원 0.14km²)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변경 후 면적은 202.994km²로, 역대 계획된 수원도시계획구역 면적 중 가장 넓게 지정되었다. 당초 공업지역으로 책정되었던 선경합섬, 선경직물, 금강스레트 등 공장지역이 1972년 8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9호)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따라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 공장 증축이 어렵게 되어 국가정책인 1980년대 100억 불 수출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선경합섬(정자동), 선경직물(평동), 금강스레트(평동), 태평양화학(원천동) 부지를



1970년대 중반 수원시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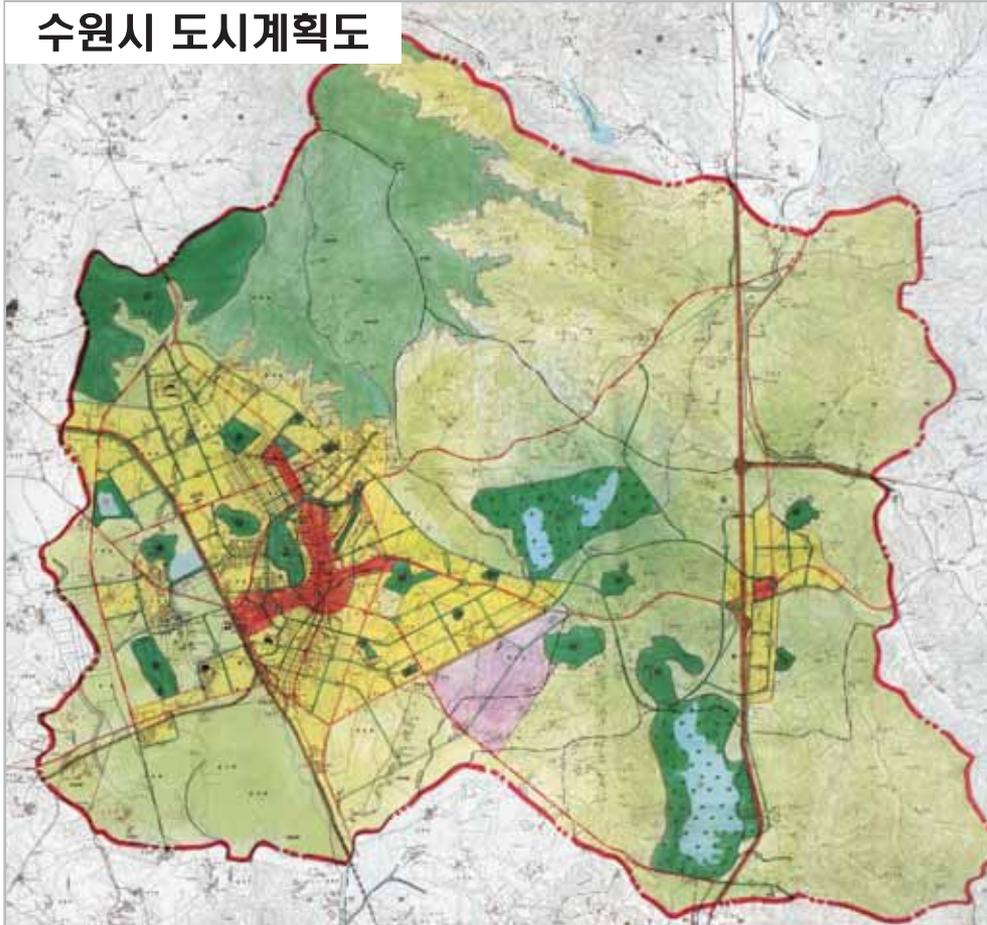
다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 공업지역에서 1,363 km²가 증가·조정되어 공업지역 전체 면적이 4,738km²로 결정되었다.



1973년 수원시기본도

수원시와 연계하여 경수산업도로 개통과 서울-수원 간 경부선 전철화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수도 서울 및 구로 공단지역과의 교통여건이 원활하게 되었다. 1980년대 100억 불

수원시 도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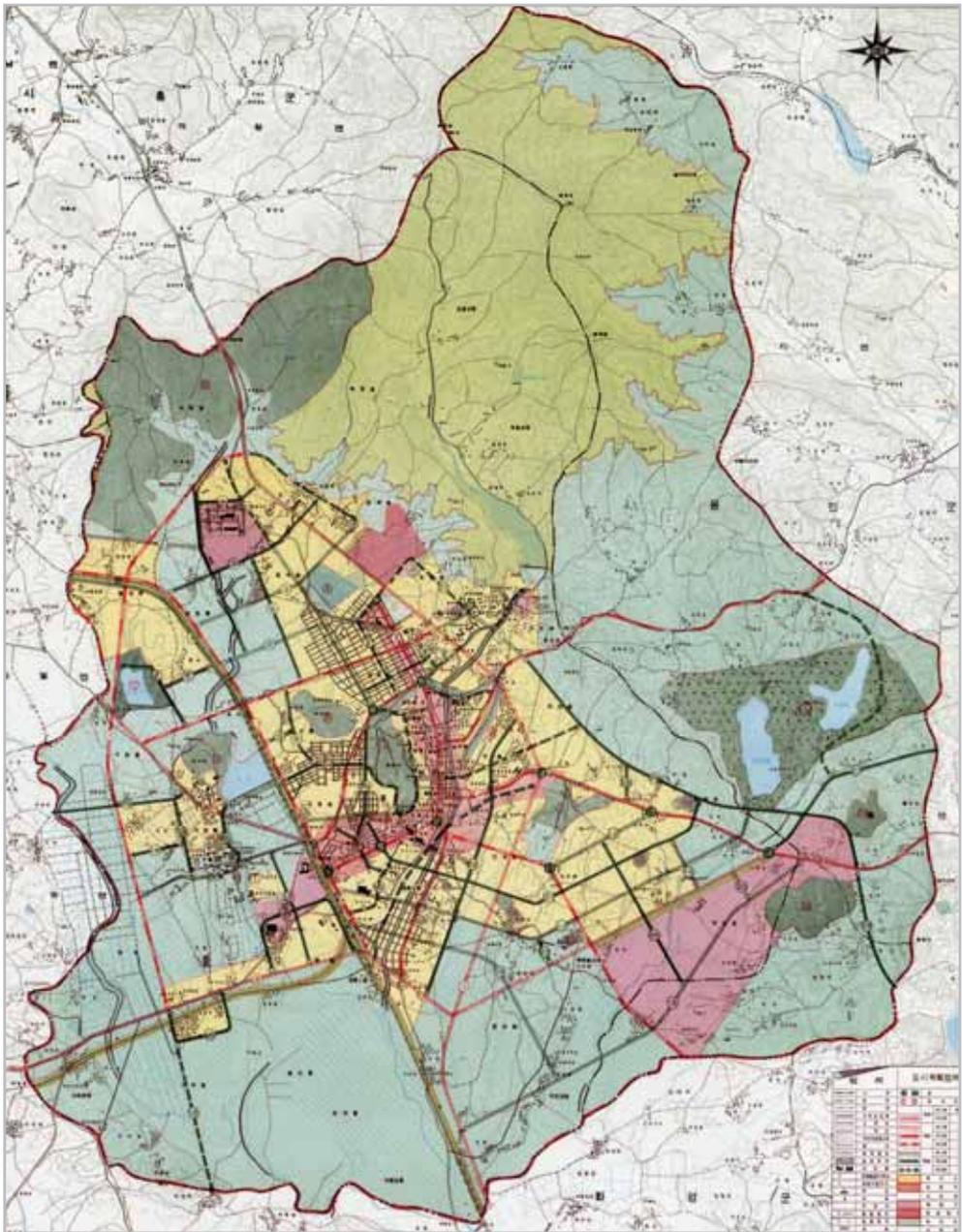


건설부고시 제339호(1972.8.11.)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수원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통 연계성이 좋은 산업도로변인 조원동 일부 지역에 한일합섬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곳을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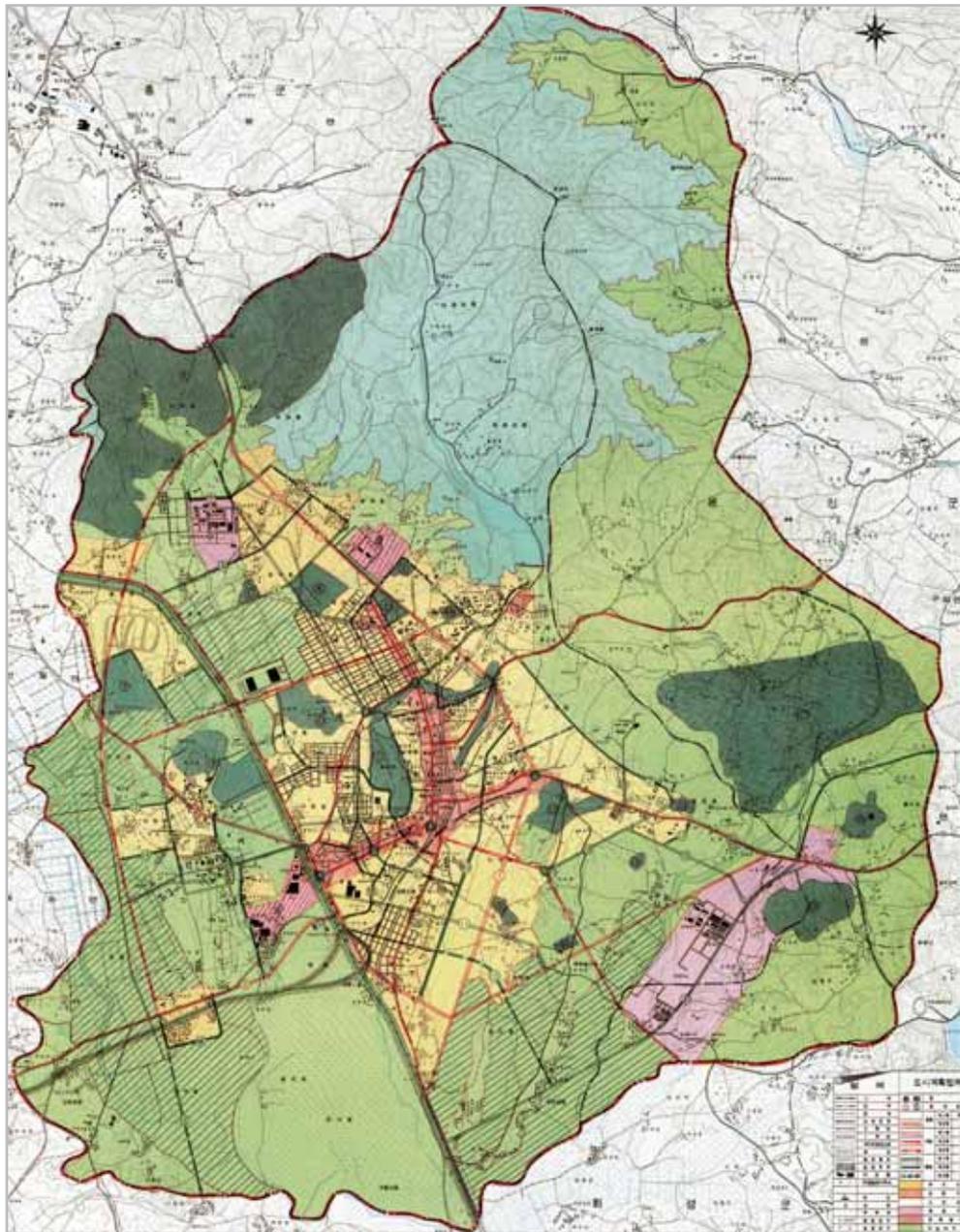
이 당시 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 농촌진흥청은 국민들의 새 생활과 의식개혁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역할은 서호 상류에 위치한 새마을연수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새마을연수원 교수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서둔동 일부 지역에 13만 8,000㎡의 면적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건설부에서는 1974년 10월 26일 서울-천안 간 도시계획구역 조정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는 서울-천안 간 국도변 도시 간 연담화로 수도권 인구 집중 벨트가 형성될 우려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서울-천안 간 국도변의 9개 도시에 대한 각 도시의 특성과 인구·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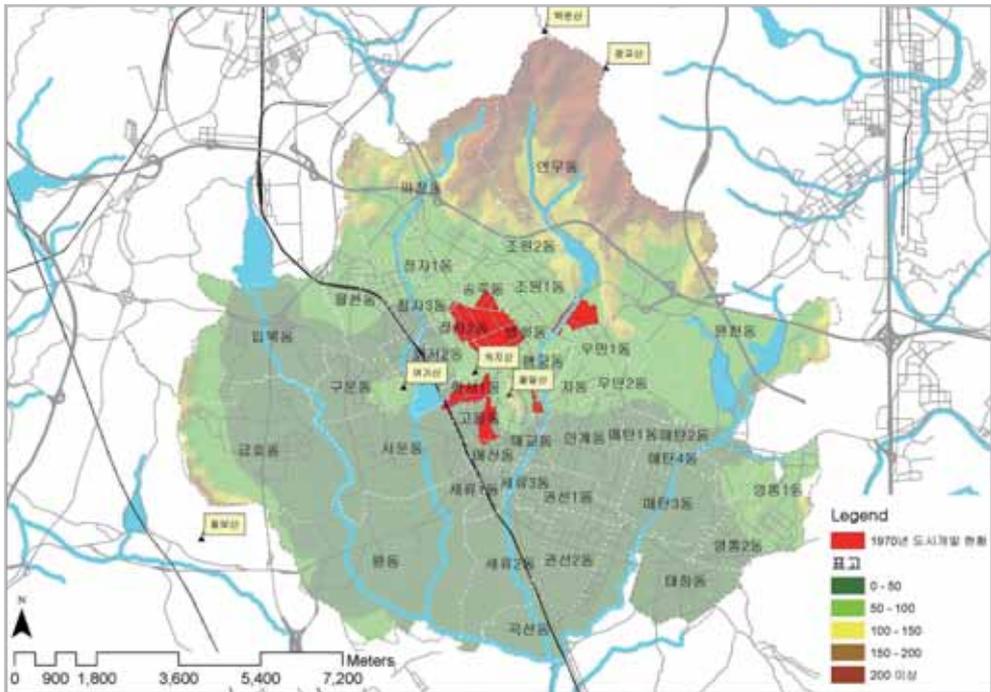
건설부고시 제2호(1975.1.13)

이용 현황, 장래 15년간(목표연도 1990년)의 인구 추이를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구역을 축소·조정하여 연담화를 방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990년에



건설부고시 제413호(1979.11.18)

인구 56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하여 1972년과 1973년에 확장(202.994km²)하였던 용인군·화성군 행정구역 중 용인군 기흥면·수지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을



1970년 도시개발 현황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 120.39km²로 도시계획구역을 축소·조정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인 자원난 시대가 도래하여, 우량농지의 보전과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1975년 7월 19일 대통령 지시로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계획내용은 시가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 중 우량농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목동·영화동·평동·인계동·매탄동·원천동 등)은 녹지지역으로 전환하고,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 보전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송죽동 한일합섬의 서북쪽 주거지역과 남쪽의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매산로1~3가, 매교동, 신평동, 영화동 일대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평동 수원역 주변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경제 개발과 더불어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1977년 6월 28일 도시정비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내용은 공업지역 축소 및 조정, 아파트지구 축소, 녹지지역 확

대, 강남(서울)업무지구 확대, 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조원동 한일합섬 주변 준공업지역 일부와 삼성전자 주변의 매탄동·망포동 일원, 용인군 영덕리 태평양화학 주변의 공업지역 일부를 자연녹지로 조정하고 정자동 선경합섬 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다.

화서동과 고등동 지역은 고화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주거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사업지역 지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시장용지(화서시장)를 포함한 주변 주거지역 7만 3,20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거지역 1만 8,000㎡를 상업지역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서둔동에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건립하고자 제8호 여기산공원의 일부(7만㎡)를 해제하였다.

수원시는 수도 서울의 인구 억제정책에 따라 교육기관(아주공대, 성균관대, 경기대, 신학대학, 기타 연수원 등)이 이전되었고, 과천시도시 개발과 반월공업도시 조성 등에 따른 관련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는 주택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대도시킴에 따라 주택난 해소 및 도시 성장에 대비한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도심 외곽에 구릉지와 불량농지로 구성된 권선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231만 6,5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3. 198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1980년대는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 서울의 교통난과 주택 부족 등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 전환에 따라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정책이 복지 향상과 환경 보전문제를 성장과 병행하여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동안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계획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1981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1년 3월 31일 6차 개정된 「도시계획법」(법률 제3410호)은 몇 가지 점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을 정립해 주는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제도이다. 둘째,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참여를 촉진하도록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넷째, 도시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 조정 구역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도시계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조례에 의거하여 둘 수 있게 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그동안의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이 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억제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추기능을 권역별로 부담·시행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불균형 성장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982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은 1986년에 완료되어 총 60개 시급 도시와 8개 읍급 도시가 건설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법정도시계획의 마련으로 1987년까지 수많은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났고, 특히 도시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모호성이 드러나고 상업지역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1988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이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으로 재편성되었다.

1980년대 또 하나의 특징으로 도시설계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도시설계제도는 1980년 1월 4일 「건축법」 제8조 2에 “도심내부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도입되었다.

1986년 12월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비롯한 다른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에 제정된 도시계획 관련법 가운데 가장 특기할 사항의 하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인데,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1981년), 인구영향평가(1984년), 교통영향평가(1985년) 3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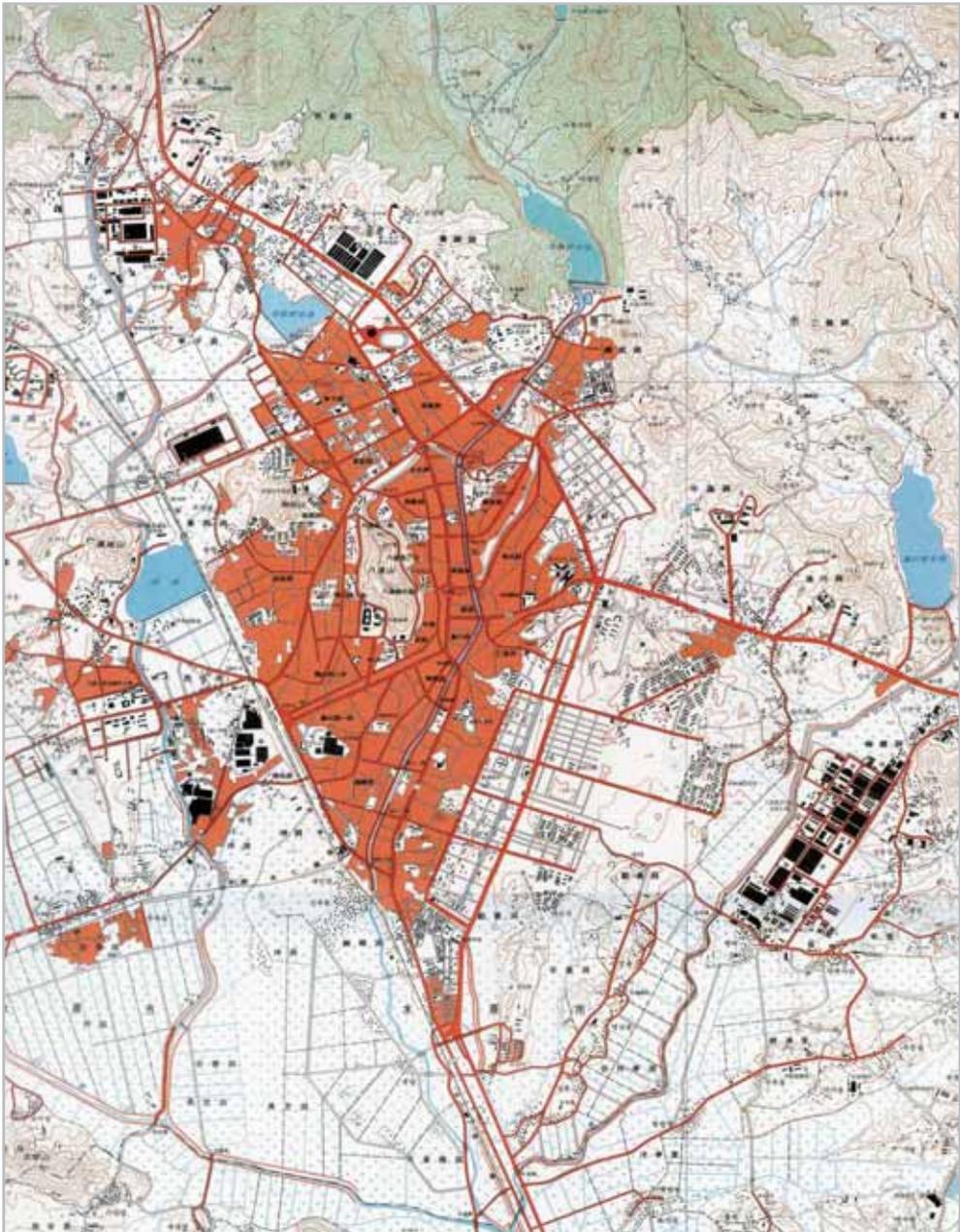
1980년대 수원에서는 건설부고시 제348호(1980.11.14.)를 통하여 매향동 창룡문 주변의 화성 성곽과 동장대, 동북공심돈, 동북노대 등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매향동(현 활터) 일부 주거지역 8,9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호 동공원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파장동에 정수장(파장정수장)을 건립하고자 제6호 지지대공원 일부 4만 3,400㎡를 해제하였다.

1980년에 이르러서 수원시는 장기 발전적 관점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종합개발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입안에 따라 이에 부응한 수원시 위상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목표연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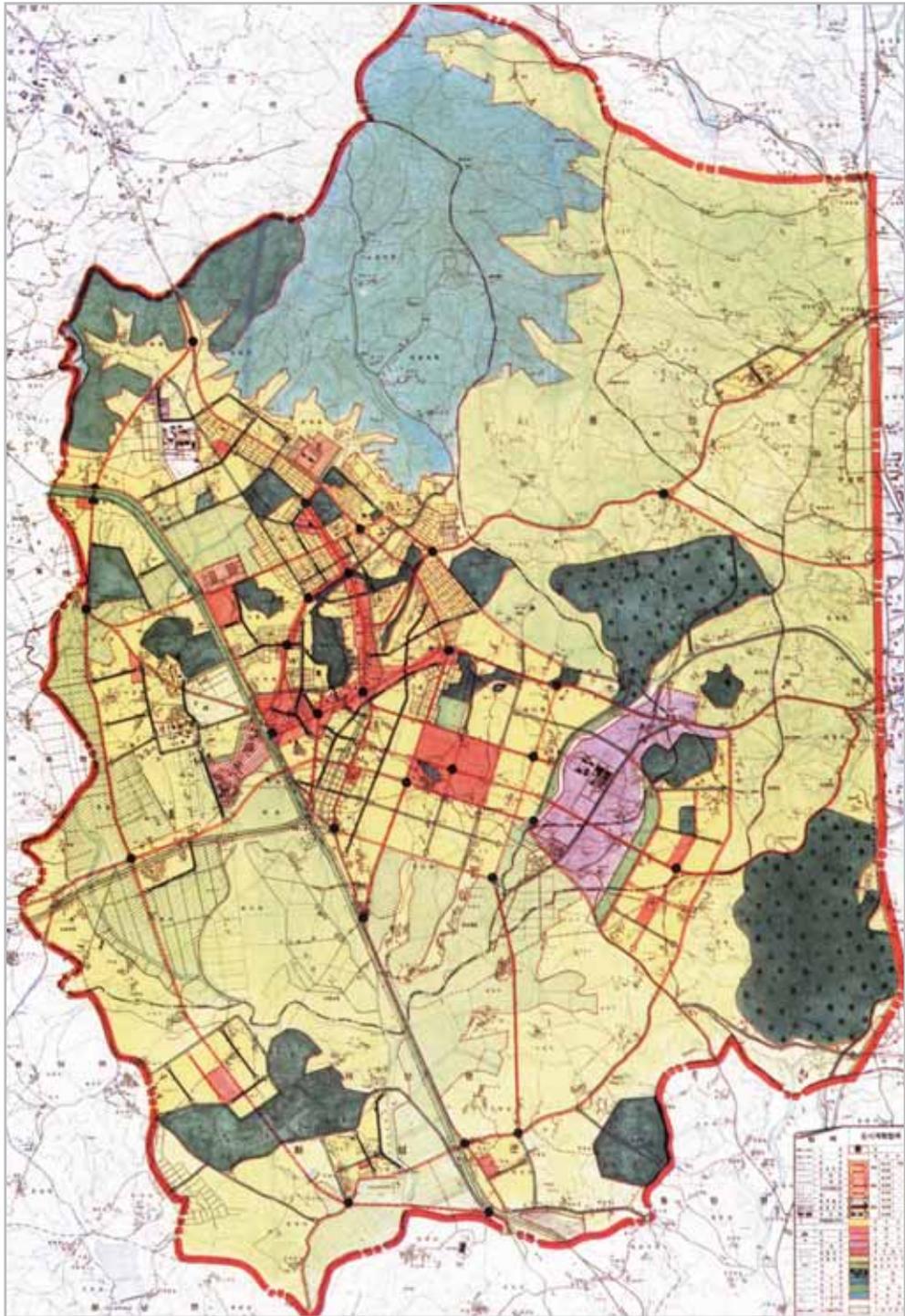
1980년대 중반 수원시 항공사진

년, 계획인구 80만 명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아니라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의 성격으로서 수원도시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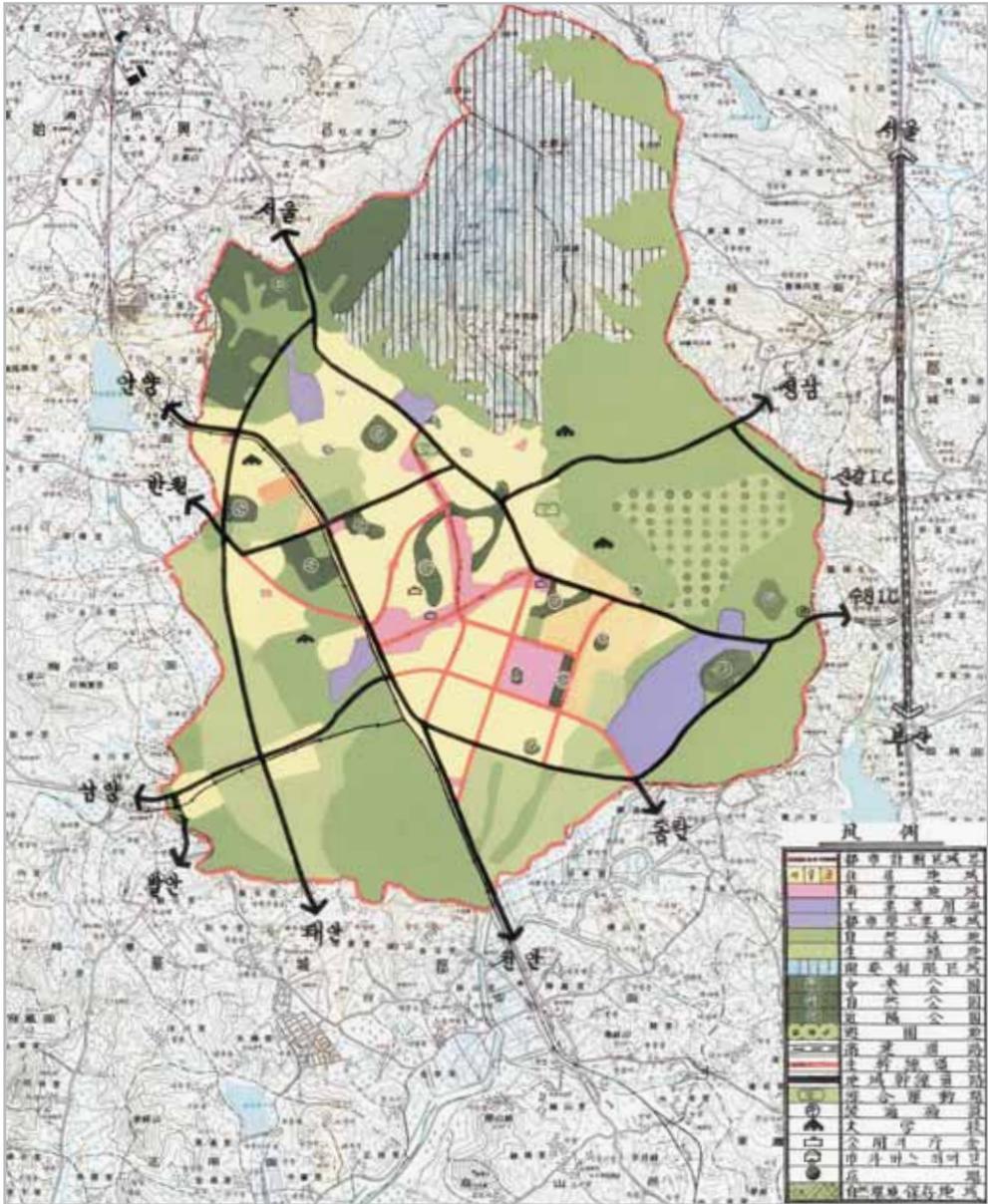


1986년 수원시기본도

계획이 수립되는 1984년까지 활용되었다. 이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1982~1986)도 수립되었다. 계획은 비록 법적 규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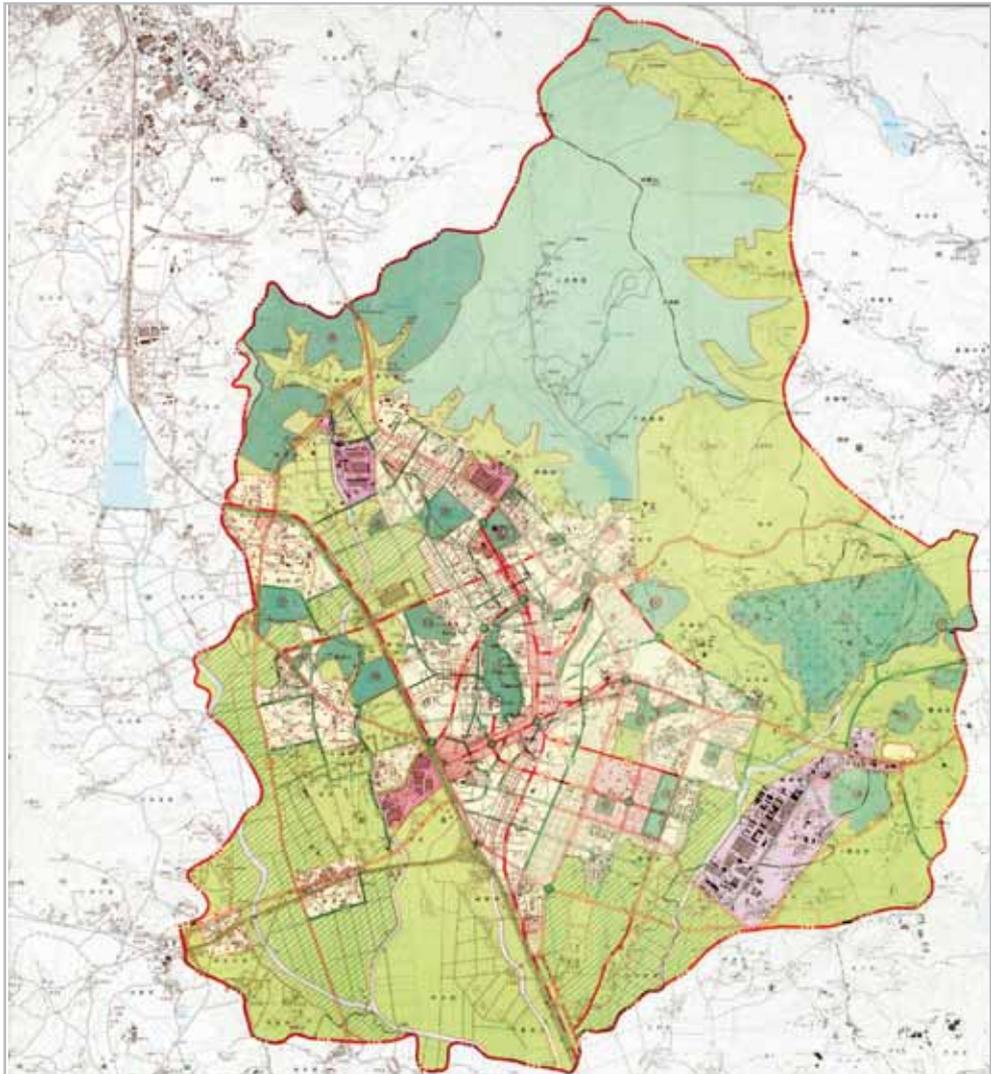
1980년 수원시 종합개발 계획도



2001년을 위한 수원 도시기본계획 구상도(1985.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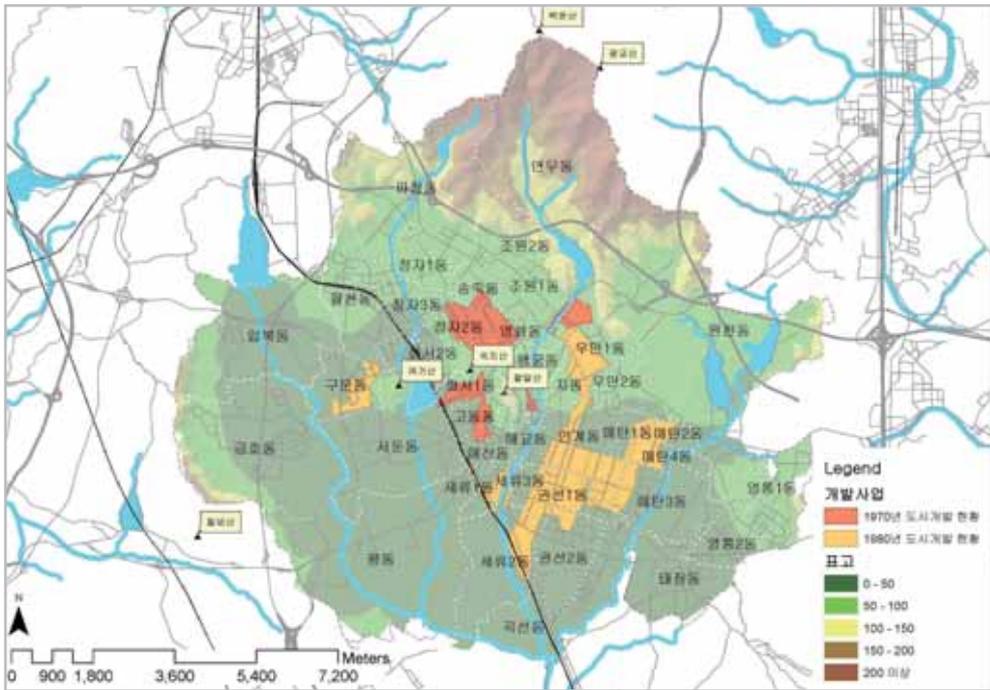
은 없었지만 수원시의 도시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도시개발 미래지표를 향후 20년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세류동 비행장 주변은 1971년 8월 11일(건설부고시 제339호)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경기도고시 제408호(1989.12.29)

되어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연금주택(70동)이 건립되었다. 그 후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 실시한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국도 1호선 (경수산업도로)이 취락밀집지역의 중앙을 직선으로 관통하여 대로 3류 8호선에 예각으로 접속토록 계획되었다. 도로 개설 시 다량의 주택이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차점이 예각을 이루고 있어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므로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 취락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역 중 경작이 가능한 답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였



1980년 도시개발 현황

다. 또한 이목동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해태유업과 대유산업 공장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하였다.

수원시 매탄동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매탄지구 택지개발사업(신매탄아파트) 시행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매탄동 일원에 약 3,4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계획인구 1만 5,6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21만 2,412㎡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고시하였고, 초등학교와 공원 각 1개소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다.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단계로 구분되었고, 수원시도 이에 따라 1984년에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승인된 수원도시기본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되었다.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면적인 120.394km²를 대상으로 하여, 기정 도시계획의 내용과 1981년에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입각하여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

고 소극적 개발을 원칙으로 도시개발지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면적을 과소하게 책정하였고, 계획인구 규모도 1991년에 46만 명(실제 도달인구 67만 명), 1996년에 52만 명(실제 도달인구 77만 명), 2001년에 57만 명(실제 도달인구 98만 명)으로 낮게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원시 인구는 그 후 불과 4년 뒤인 1988년에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가 55만 7,452명에 도달하게 되었으므로 수원시의 도시 발전 추세를 예측하고 장기계획지표를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993년에 2011년을 향한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개발전략은 도시골격의 구시가지를 서부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상업서비스기능과 유통기능을 부여하고, 현 시청이 입지하고 있는 신시가지를 동부생활권 중심으로 중심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새로이 형성하는 2개의 도시 핵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도시의 미래상은 행정중심도시, 고전문화도시, 농업연구도시, 교육연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도시기본계획 제도 도입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미래상을 단계적(1~2단계)으로 실현시키는 수원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개발지표를 수용하여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후 약 2년에 걸친 계획의 수립·협의를 거쳐서 1986년 12월 3일 결정되었다. 이 계획은 계획대상기간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여 년간을 목표로 하였으며, 계획인구는 46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인구지표를 반영해야 하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실제 인구 성장추이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계획 목표연도도 계획 결정 이후 5년간에 한정되어 수원시의 급변하는 도시 발전 추세에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으로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새롭게 정비된 「도시계획법」 체계에서 계획한 최초의 도시계획재정비로서 오늘날 수원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우만동 제2종합운동장(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옆의 우만택지개발사업(현 우만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자연녹지 10만 2,2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우만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수용인구는 1만 200명(2,550세대)이다. 당시 토지 이용계획은 총면적 10만 2,000㎡로서 주택 건설용지가 69.5%(7만 1,055㎡), 공공시설용지 30.5%(3만 1,145㎡)이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10.8%(1만 1,040㎡), 공원녹지 9.2%(9,340㎡), 그리고 도로가 10.5%(1만 765㎡)의 구성비율을 가졌다.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산지개발(시범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용도지역 변경이 실시되었다. 저렴한 주택개발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기흥과 영덕 택지개발을 1989년 12월 29일 경기도고시 제408호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원천유원지와 신갈1.C. 중간에 입지한 이 택지개발지구의 규모는 11만 7,940㎡로서 자연녹지지역 11만 7,94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당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81%(9만 5,474㎡), 공공시설용지가 30.5%(3만 1,145㎡)로 구성되었다.

4. 1990년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1990년대 들어서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되었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도시가 추진된 1990년대를 특징짓는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꼽을 수 있다. 6대 도시를 중심으로 승용차 소유의 대중화와 함께 광역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1년 12월 14일에 공포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제4427호)은 광역화·자치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개발밀도를 미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정책적 의미를 표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광역제도의 신설,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허가제 보강,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춘 제도 보완정비 등이다.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개발법(안)」을 마련하여 1998년 10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법률 제6243호)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891호)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1245호)을 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관련 법령체계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민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발생한 인구와 산업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법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도시 전체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확대, 도시개발 절차의 간소화, 도시기반의 설치 지원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촉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법」을 크게 손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환경의 위협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개방

화·세계화에 대응,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관리, 광역화·지방화에 대응, 이해집단의 갈등과 개발반대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도시계획의 근거 마련 등 변화 추세와 사회적 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개발 위주 법적용에 의한 난개발 대두에 대한 대응방안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개정법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의 5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전용,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지구의 지정은 경관지구,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최고고도,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 공동시설, 향만시설,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촉진지구, 취약지구(자연, 집단취락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아파트, 위탁지구) 등 10개의 범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구와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예전의 지구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결합한 내용으로서 지역·지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다.

1990년대의 수원도시계획구역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면적 120.394km²를 유지해 오다가 1991년 경기도고시 제37호에 의하여 120.150km²로 축소·조정된다. 경기도고시 제1994-296호(1994.10.5.)에 의하여 129.207km²로 소폭 확장되고, 경기도고시 제1996-314호(1996.11.11.)에 의하여 137.040km², 건교부고시 제58410-715(1998.7.6.)에서 139.091km²로 결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년에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01년의 계획인구가 57만 명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연도 2011년의 대상 구역면적 120.207km², 계획인구 150만 명을 수용하는 제2차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1993년 5월 14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200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국내여건이 크게 변화되므로 목표연도 2016년, 대상 구역면적 139.091km², 계획인구 150만 명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1998년 7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 제58410-715호에 의해 결정하게 되었다.

수원시는 1990년대가 고시된 횡수나 규모로 판단할 때 도시의 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대략적인 사업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1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건설부고시 제689호), 1991년 2월 4일 원천지구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37호), 1991년 3월 11일 권선(2)택지개발 계획 및 권선터미널부지 결정(경기도고시 제83호), 1993년 7월 6일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206호) 1993년 12월 14일 천천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3-440호), 1993년 12월 28일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3-478호), 1994년 9월 30일 화서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4-276호), 1994년 12월 31일 시가지내 도시형공장 외곽으로 이전(고색동, 오목천동), 1995년 11월 15일 원천2지구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5-395호), 1995년 12월 28일 한일합섬 용도변경(경기도고시 제1995-460호), 1996년 7월 15일 정자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6-187호), 1996년 9월 28일 고색동 게임산업단지개발(경기도고시 제253호), 1996년 10월 23일 정자지구택지개발(경기도고시 제1997-279호), 1996년 10월 23일 천천2지구택지개발, 정자2지구택지개발(경기도고시 제279, 제280호), 1996년 11월 18일(경기도고시 제1996-314호) 신규도시계획구역(입북, 당수동) 편입, 1996년 12월 6일 조원지구택지개발(경기도고시 제1996-339호), 1997년 3월 13일 수원역 민자개발(경기도고시 제1997-93호), 1997년 4월 18일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7-118호), 1998년 2월 19일 매탄4지구택지개발(경기도고시 제1998-73호), 1999년 6월 23일 신동·망포동 재정비사업(경기도고시 제1998-225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대량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경제적·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선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하여 별도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3만 1,901㎡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변 지역의 소음·공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원충녹지 1만 3,454㎡를 결정하였다.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과 매탄동 일원에 원천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34만 8,36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원천택지개발사업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기 위해 저렴한 택지의 대량 공급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였다.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 41만 7,270㎡에 주택건설용지 50.8%(21만 1,832㎡), 공공시설용지 49.2%(20만 5,438㎡)로 계획하였다.

수원권선(2)택지개발계획은 수원시가 시행자가 되어 권선구 권선리 일원의 32만 5,485㎡의 부지에 인구 1만 3,528명(3,671호)을 수용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 시행을 위하

여 자연녹지지역 7,155㎡와 생산녹지지역 24만 7,445㎡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계획이다.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역전터미널을 권선동으로 이전하고자 여객자동차정류장(권선터미널)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대통령령 제12007호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수원 균형개발과 도시계획구역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반월도시계획구역(현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8.757km²를 건설부고시 제152호에 의하여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결정하였다. 편입구역은 주거지역 69만 6,895㎡, 자연녹지 806만㎡로 구분되며, 자연녹지는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1990년대 들어서서 제3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한정비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수도권 일원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주택난 해소와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에도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수원의 인구는 1991년 말에 67만 명을 넘어서서, 1984년에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2001년의 계획인구가 57만 명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제2차 수원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 계획은 1991년부터 입안에 착수하여 1993년 5월 14일에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하여 대상구역면적 129.207km² 계획인구 1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도심과 부도심, 서수원지역 중심, 북수원지역 중심의 4개 다핵구조로 계획하였다. 생활권도 당초의 2개 생활권에서 4개의 생활권으로 재편하였다.

경기도고시 제206호(1993.7.6.)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택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권선구 권선동 일원에 면적 620,499㎡ 규모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생산녹지 52만 8,399㎡와 자연녹지 9만 2,1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당시 개발 규모는 5,740호의 주택에 2만 664명을 수용하는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성은 110호(396명 수용, 2%), 5,630호(2만 9,268명 수용, 98%)로 구성하였다.

경기도고시 제245호(1993.7.26.)는 수원역 주변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동수원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이다. 입지는 권선동의 권선2지구택지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규모는 생산녹지지역 5만 3,36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다.

경기도고시 제440호(1993.12.14.)는 수원천천지구(울전동과 천천동 일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21만 1,142㎡를 일반주거(20만 3,804㎡)와 준주거지역(7,338㎡)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원시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자연녹지 21만 1,142㎡를 일반주거(20만 3,804㎡)와 준주거지역(7,338㎡)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장안구 울전동·천천동·정자동 일원 25만 2,833㎡ 규모로 계획하였다. 당시 개발 규모는 2,309세대에 8,544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용지 42.7%(10만 7,883㎡)와 공공시설용지 57.3%(14만 4,950㎡)로 계획하였다.

경기도고시 제478호(1993.12.28.)는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의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을 최단시일에 해결하기 위해 공급 최우선 정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단위 택지를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주택 수용 증가와 서울시의 인구 분산정책에 대처함과 동시에 수원시의 주택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장래 수원시 발전에 대비한 신시가지 개발하여 수원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328만 4,972㎡의 면적 규모로 개발되었다. 사업 규모는 10만 명(2만 7,030세대)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37.7%(123만 6,680㎡), 상업업무용지 4.2%(13만 8,233㎡), 공공시설용지 58.1%(191만 59㎡)로 계획하였다.

화서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화서역 주변) 일원에 화서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20만 7,163㎡를 일반주거지역 18만 2,583㎡, 일반상업지역 1만 6,074㎡, 근린상업지역 8,506㎡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계획하였다.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은 부지면적 23만 3,676㎡에 인구 1만 582명(2,860세대)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47.1%(11만 195㎡)와 공공시설용지 52.9%(12만 3,481㎡)로 계획하였다.

1993년 5월 14일에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이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 재정비 입안을 시작하여, 재정비의 결정을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서 결정·고시하였으며, 그 중간인 1994년 12월에는 시장권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고시하였다. 이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중 1~2단계의 지표를 수용하여,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115만 명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이때에 도시계획구

역 면적도 의왕시 지역을 제척하고, 수원시 도시지역의 구적오차를 정정하여 129.207km²로 조정하였다.

1994년 10월 5일 1차 재정비 결정고시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하였고, 기존 취락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인 권선구 일원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주거 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지구와 주차장정비지구로 확장하였고, 미관지구는 규모를 축소하였다. 1994년 12월 3일의 2차 결정고시 때에는 권선구 및 장안구의 도시개발예정지를 위주로 주거지역을 확장하였으며, 지지대공원 등 도시공원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1995년 2월 13일의 3차 결정고시 때에는 권선구 구운동을 중심으로 개발예정지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은 폐지하였다. 1995년 4월 4일 4차 결정고시 때에는 매탄동 일원에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지정하여 공업지역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원천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였다. 입지는 팔달구 원천동과 매탄동 일원의 삼성전자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17만 2,330m²가 되고 있다. 개발 규모는 2,670호의 주택을 개발하여 9,612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55.7%(9만 6,030m²)와 공공시설용지 44.3%(76,300m²)로 계획하였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제395호에 의해서 자연녹지 15만 6,070m²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경기도고시 제395호(1995. 11. 15.)는 도심 속에 위치하여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원동(한일합섬 일대), 평동(금강, 선경직물 일대)의 준공업지역을 도심 외곽지역인 고색동과 오목천동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1994년 12월 2일 확정되었다. 이때 한일합섬 공장이 입지하고 있던 조원동 준공업지역(31만 4,000m²)이 경기도고시 제 460호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27만 9,000m²)과 준주거지역(3만 5,000m²)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이후 용도 변경된 지역에는 한일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경기도고시 제187호(1996.7.15.)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과 화서동 일원에 정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18만 8,202m²와 생산녹지 68만 6,330m²를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계획이다. 정자택지개발사업은 침체된 북수원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시의 주택 부족을 완화하고자 수원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였다. 당시의 개발 규모는 부지면적 95만 2,454m²에 인구 3만 3,228명(9,230세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 39.3%(37만 4,681m²)와 상업용지 2.2%(20,900m²), 공공시설용지 58.5%(55만 6,873m²)로 계획하였다.

수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공간 재편성(공업지역 재배치)을 목적으로 고색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서수원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조원동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던 한일합섬 공장의 해외 이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도심 외곽지역인 고색동과 오목천동의 생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환경 보전과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게 되었다. 무공해 도시형 공업과 고부가가치 공업의 집단유치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53호(1996.9.23.)로 고색동과 오목천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29만㎡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경기도고시 제279호(1996.10.23.)와 제280호(1996.10.23.)는 북수원권의 균형개발과 안정된 택지공급을 위하여 천천2택지개발사업과 정자2택지개발지구사업을 시행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천천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계획면적이 83만 102㎡로서, 화서전철역과 성균관대전철역에 이르는 동측으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율전동·정자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 규모는 2만 766명(5,933세대)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자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는 장안구 천천동·정자동과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 규모는 1만 466명(2,990세대)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였다.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던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 지역이 대통령령 제14434호(1994.12.22.)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총 783만 3,600㎡(자연녹지 733만 600㎡, 일반주거 50만 3,000㎡)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서수원권 개발과 더불어 전원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장래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목표연도 2001년에 인구 1만 9,400명을 수용하는 재정비계획을 경기도고시 제314호(1996.11.18.)로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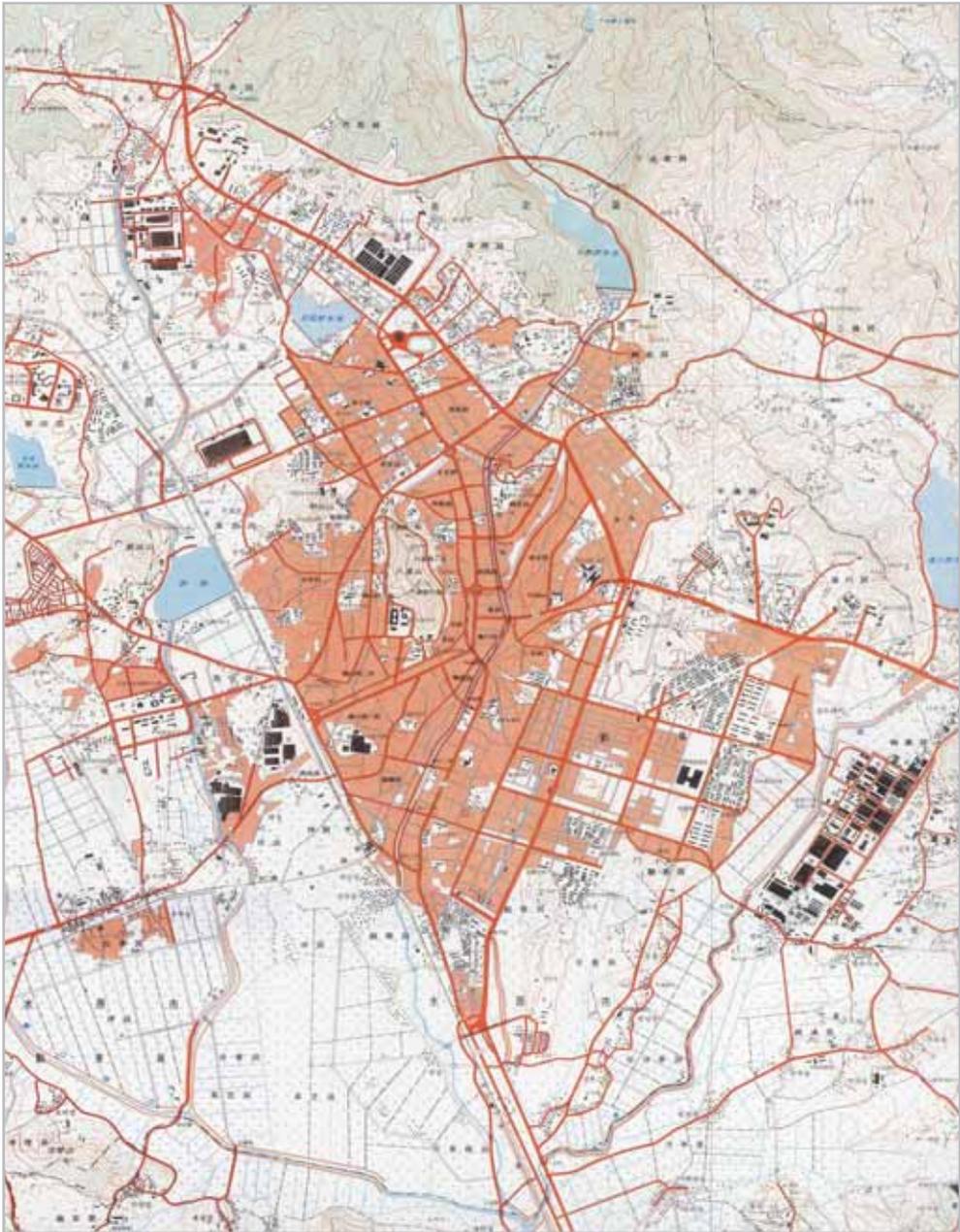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원에 조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16만 2,693㎡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조원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택지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였다. 경기도고시 제339호(1996.12.6.)에 따라 추진된 당시의 개발 규모는 부지면적 18만 8,363㎡에 인구 9,252명(2,750세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 64.1%(12만 715㎡) 공공시설용지 35.5%(6만 7,648㎡)로 계획하였다.

경기도고시 제93호에 의하여 일제시기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수원역사를 현대화된 민자역사로 건립하기 위한 용도변경계획이 추진되었다. 용도 변경내용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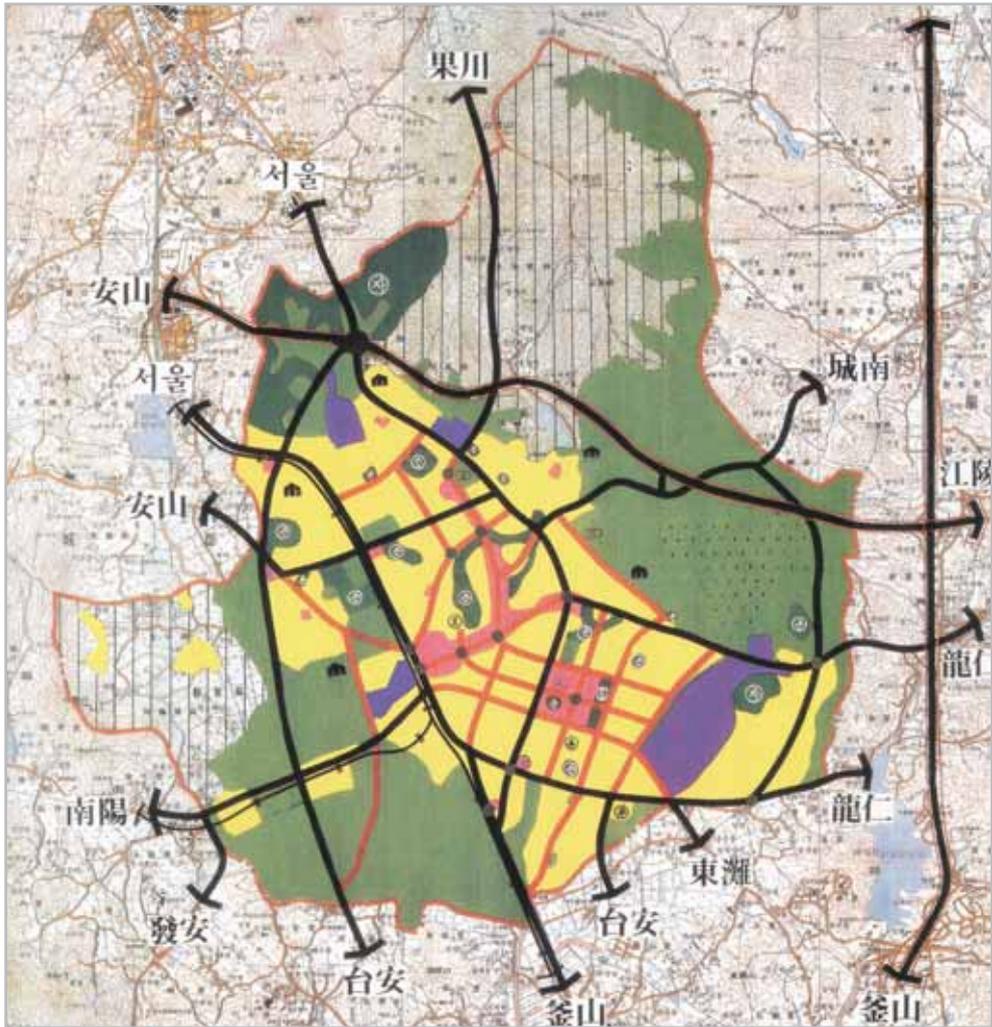
1995년 수원시 항공사진

연녹지 10만 4,51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수원민자역사개발계획은 경기도고시 제93호(1997.3.31.)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18번지 일대 부지면적 7만



1992년 수원시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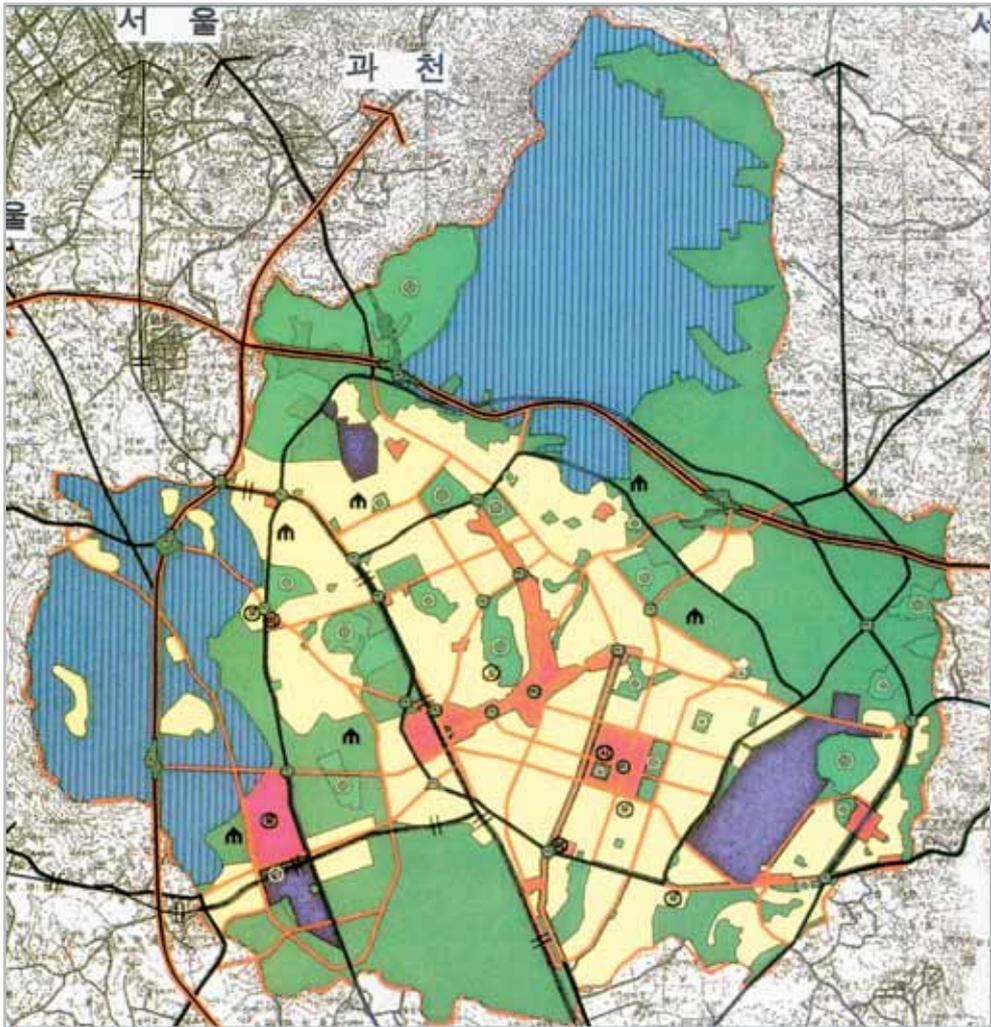
1,574m²에 연면적 13만 1,930m²(지하2층, 지상6층)로 역무시설, 백화점, 업무시설, 관람집 회시설 등의 기능을 갖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2011년을 위한 수원 도시기본계획 구상도(1993.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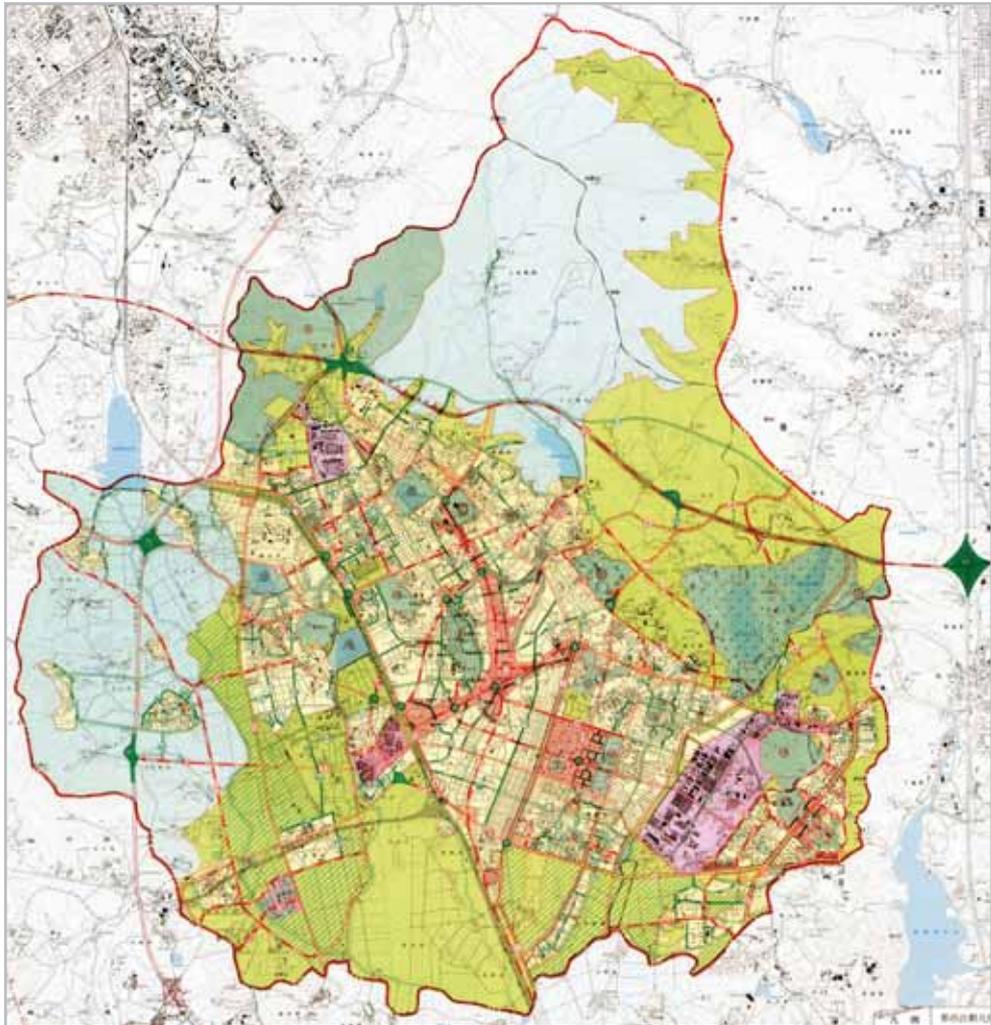
경기도고시 제118호(1997.4.8.)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과 팔달구 신동 일원에 권선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10만 6,298㎡와 생산녹지 33만 7,025㎡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계획이다. 권선3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였다. 당시의 개발 규모는 부지면적 48만 4,625㎡에 인구 1만 3,040명(3,622세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 38.5%(18만 6,711㎡), 공공시설용지 61.5%(27만 9,914㎡)로 계획하였다.

곡반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4년 12월 3일(경기도고시 제94-354호) 도시재정비



2016년을 위한 수원도시기본계획 구상도(199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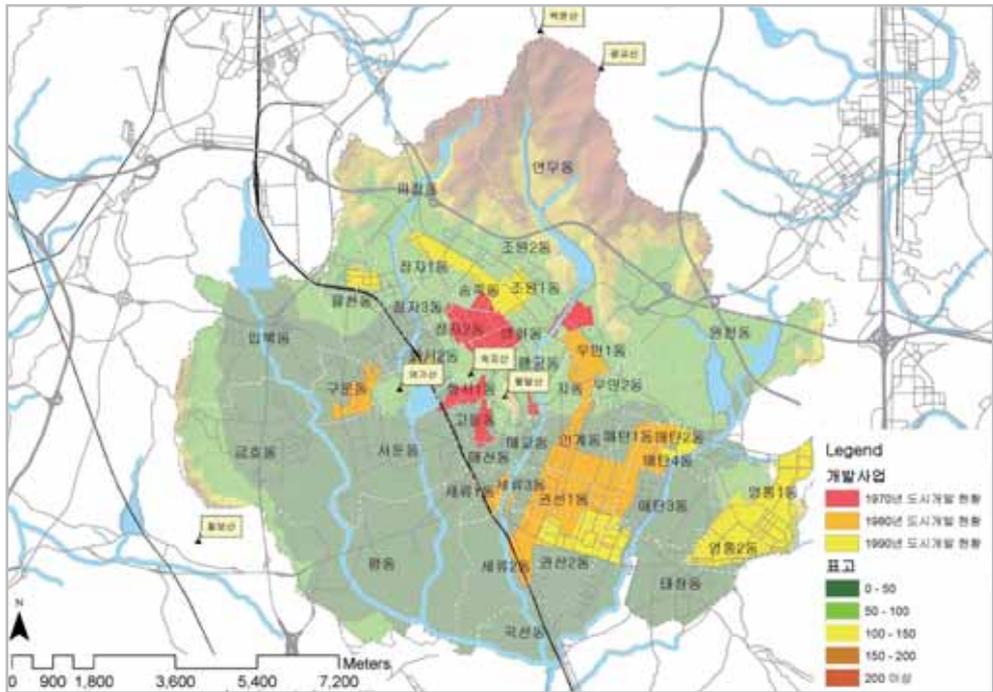
계획에 의하여 곡반정동 일원의 녹지지역에 오래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밀 집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일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1996년 7월 8일(경기도고시 제241호) 사업시행을 위하여 총면적 59만 1,000㎡에 9,950명의 인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결정하였다. 지구 중심부에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장용지 1개소(7,655㎡)를 배치하였으나 단지 규모 및 인구 수용계획에 비해 상업기능이 미흡하여 경기도고시 제241호(1997.7.8.)로 시장을 포함한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경기도고시 제225호(1999.6.23)

(3만 6,450㎡)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기능을 지원하고자 한 계획이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신동(삼성전자 서측) 일원에 매탄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13만 568㎡와 생산녹지 61만 3,133㎡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계획이다. 매탄4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고시 제73호(1998.2.19.)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였다. 당시의 개발 규모는 부지면적 65만 6,659㎡에 인구 1만 5,719명(4,491세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용지 36.3%(23만 8,566㎡), 공공시설용지 61.5%(40만



1990년 도시개발 현황

3,786m²)로 계획하였다.

1995년 4월 20일(대통령령 제14629호)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시 행정구역에서 편입된 팔달구 신동과 망포동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신동과 망포동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어 인접하고 있는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교통과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13일 상위계획인 목표 2016년의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999년 3월 13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1999년 6월 23일(경기도 고시 제225호) 신동과 망포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결정하였다. 재정비계획 내용은 2006년에 인구를 2,700명을 수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망포동과 신동 지역의 총면적 205만 362m²를 일반주거지역 106만 7,124m², 자연녹지지역 7만 3,096m², 생산녹지지역 91만 142m²으로 구분·결정하였으며, 장래 인구 증가와 개발에 대비하는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을 확충하여 정비한 계획이다.

5.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관련 제도는 그동안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여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이원적 계획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종전의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지역특성 및 주거환경을 도외시한 과도한 고층·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일반주거지역을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도시 내에서의 토지이용체계를 재편하여 개발 중심, 성장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에서 생활환경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계획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도시계획과 조화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2년 2월 4일에는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제정(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2003년 1월부터 폐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최상위법으로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규제 완화와 토지 공급 확대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 제도에 따라 도시의 교외화·광역화 현상에 따라 이른바 '난개발'의 몸살을 앓아 온 것에 대응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대책으로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이원화되었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국토

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며,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추진,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방분권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국가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가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 조성이 필요한 여건 변화, 중국의 성장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의 필요성 등 국내외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국내외의 여건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국토전략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06~2020)'이 수립되어 2005년 12월 30일 공고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이념은 '약동하는 통합국토'로서 계획의 목표는 기존의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의 4대 목표에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한 5대 계획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를 형성(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7+1)구조)토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위계획의 변경과 수도권권 발전방안(20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수립되어 2006년 7월 25일 확정·고시되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공간구조는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토록 하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은 기존의 신개발 지향적 도시개발 추진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된 주택들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운용 중이던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통합하여 제도적 뒷받침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별개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과 「도시계획법」의 개정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장기발전의 미래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정비계획을 수립, 2003년 6월 17일 결정·고시하였다. 이 재정비계획에서는 건교부고시 제 2002-202호(2002년 9월 16일)로 수원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된 용인시 행정구역 면적 17.612km²와, 2002년 12월 수원시 지적통계에 의해 면적 정정된 0.089km²를 제척하여 수원도시계획구역 면적을 121.390km²로 변경하였다. 특히, 이 재정비계획에서는 지역특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고층·고밀 개발을 지양하고, 주거환경을 도외시한 과밀개발을 지양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일괄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의 보완과 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VISION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공간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계획으로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광역행정·업무, 역사·문화 관광, 유통, 산업경제 첨단 산업 등을 선도하여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7일 건교부에서 승인받았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인구 1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을 용인시 행정구역 17.612km²를 제척하여 121.390km²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수원역과 이의동의 2개 광역상업·업무권, 북서쪽과 남동쪽에 2개 중심상업·업무권과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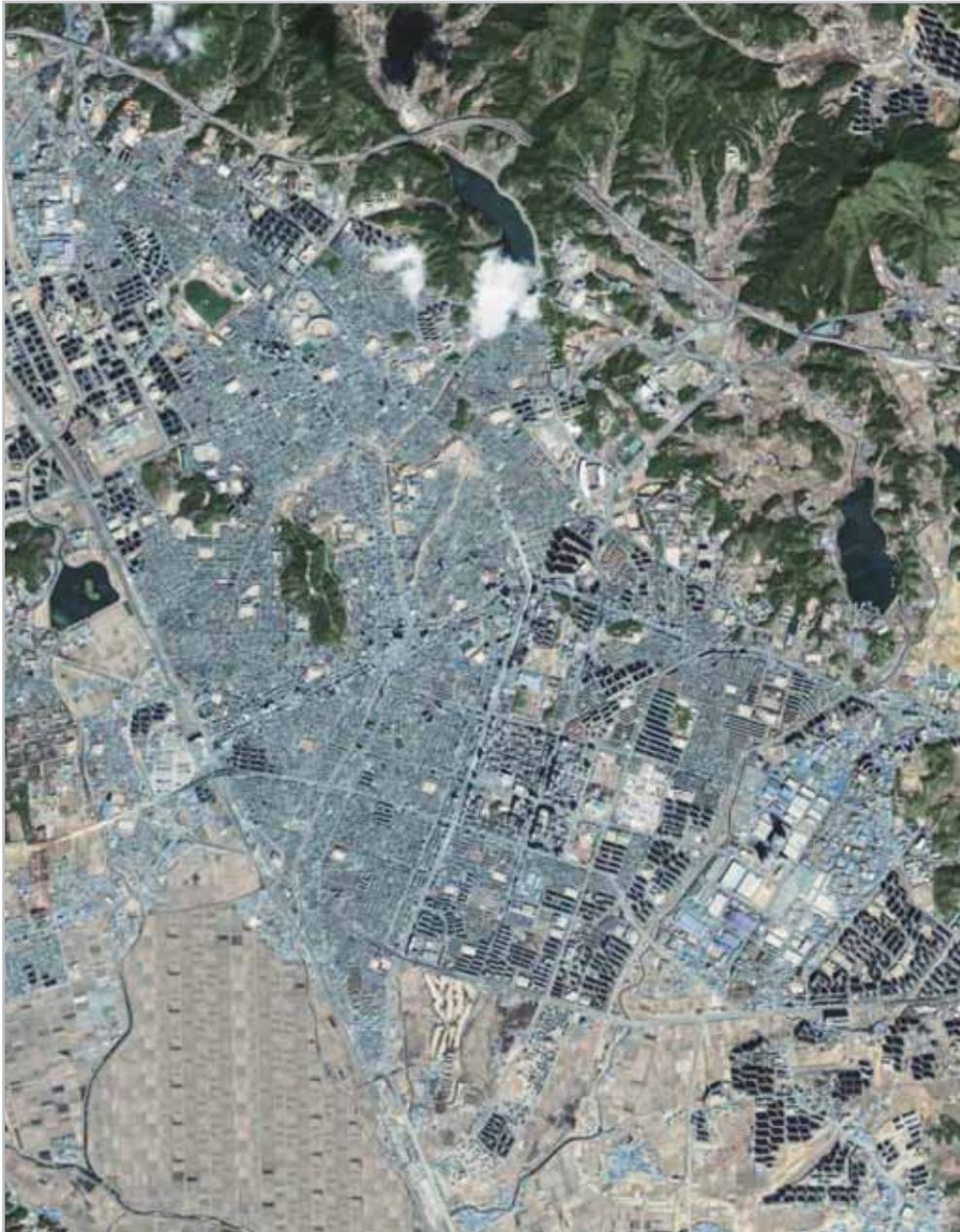
전자 및 영통지구를 지원하는 1개의 지역상업권으로 구상하고, 생활권계획으로는 경부선철도, 구 경계 및 수원시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4개의 대생활권으로 계획하였다. 용도별로는 시가화용지 46,005km², 시가화예정용지 10,633km², 보전용지 64,752km²를 구상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11월 17일에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으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였다. 이 관리계획(재정비)에서는 수도권 행정도시, 과학·연구도시, 문화·관광 도시 등 수원시의 특화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2단계 개발지침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목표연도 2010년의 계획인구 111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전략 및 각 부문별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등을 변경하였다. 이와 동시에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하천환경의 친수공간 확보, 경관특성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수원천을 제외한 3대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지정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시의 성장 및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기정 재정비계획 및 각종 도시문제와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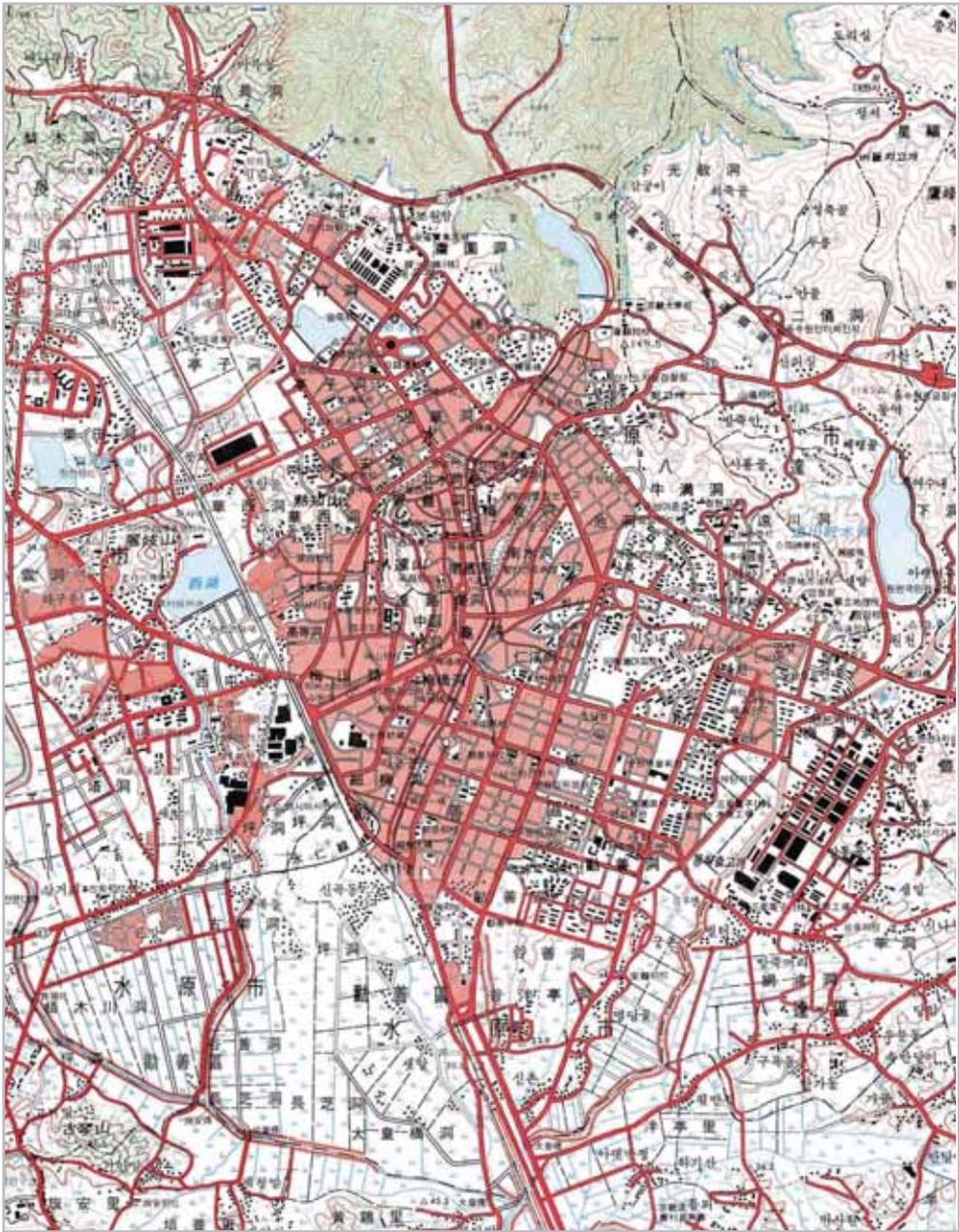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서수원권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 발전 및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강화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선구 호매실 일원에 시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녹지 231만 7,191m²를 주거지역 186만 6,616m², 상업지역 34만 3,556m², 보전녹지지역 10만 7,019m²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은 부지면적 311만 6,341m²에 인구 4만 6,516명(1만 6,040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108만 1,869m²(34.7%), 공공시설용지 203만 4,472m²(65.3%)로 계획되었다.

수원지방산업단지(2단지)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및 평동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 위치변경(신규) 심의 의결된 수원지방산업단지(2단지)의 사업시행 목적에 부합되도록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으며, 평동 일원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준공업지역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 위치변경(해제) 심의



2008년 수원시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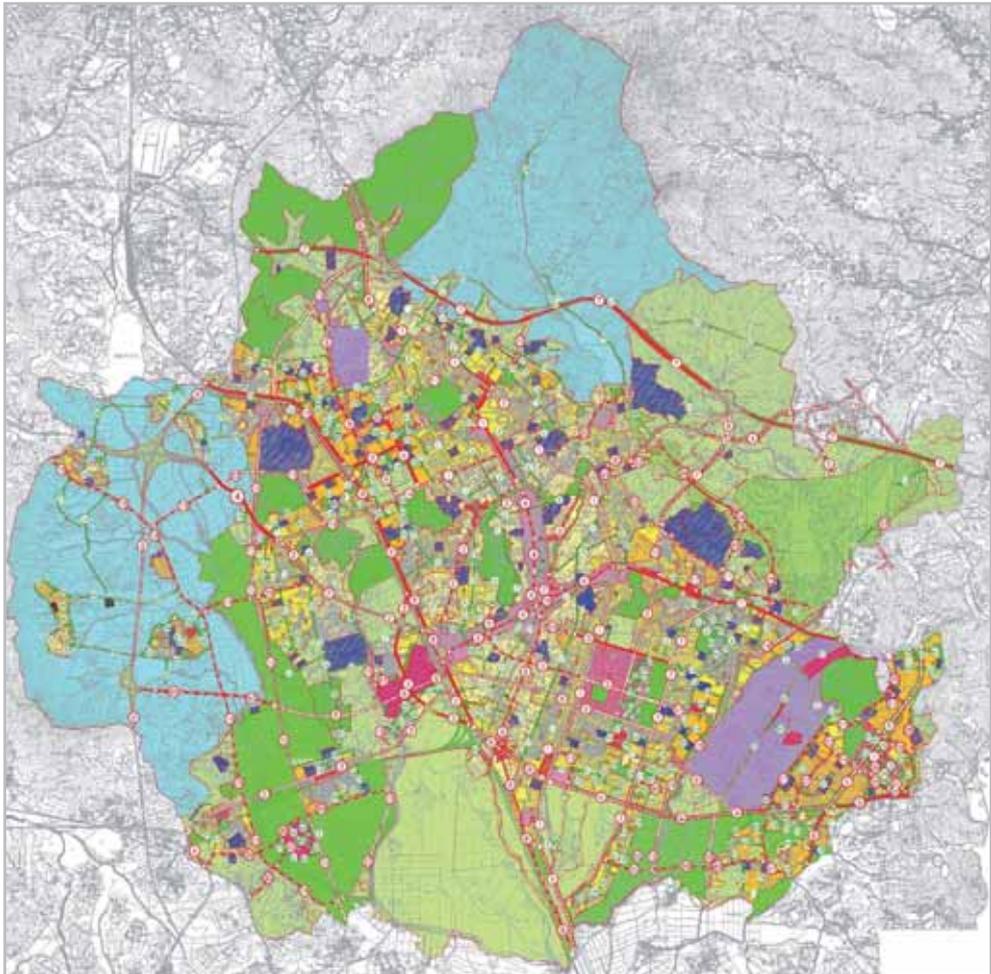
의결된 부지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업·업무·유통기능의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상위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



2000년 수원시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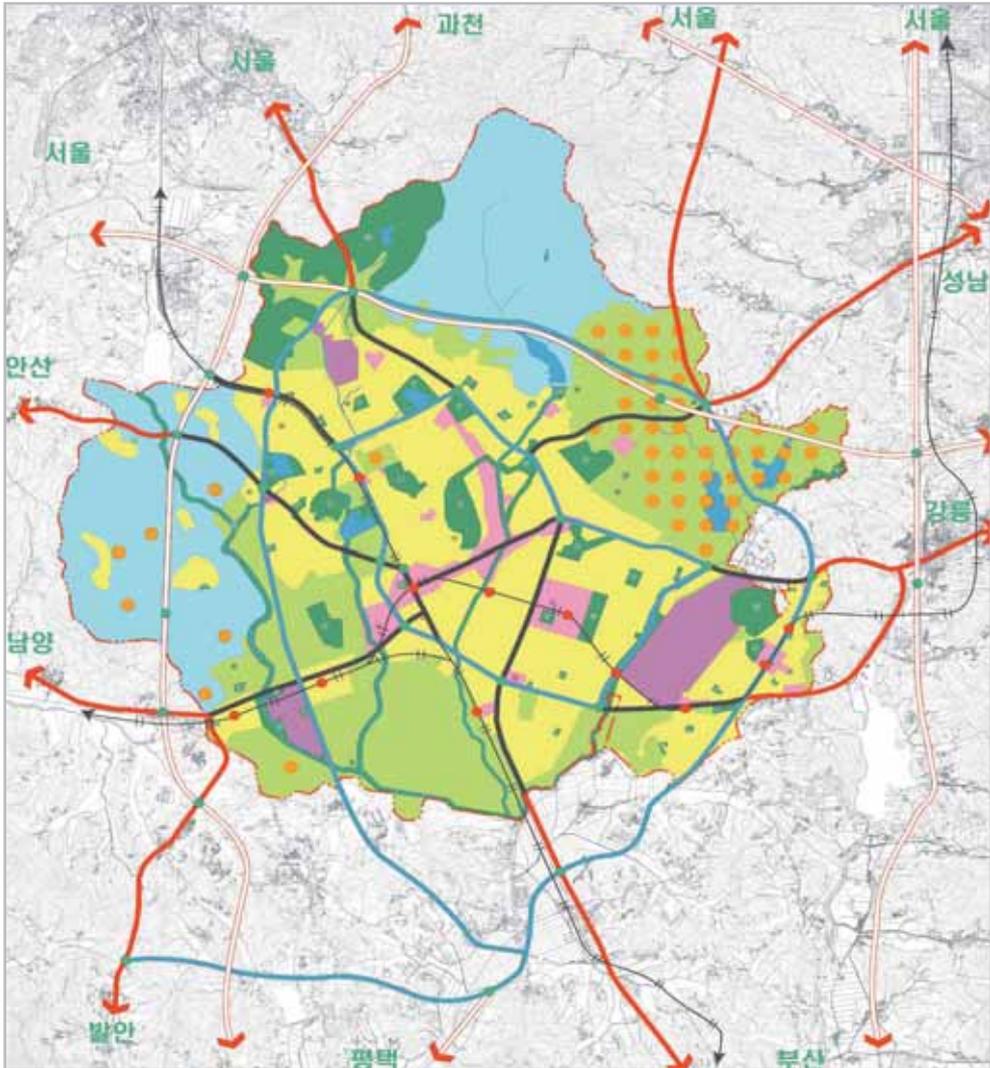
획 실현을 통한 서수원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수도권외의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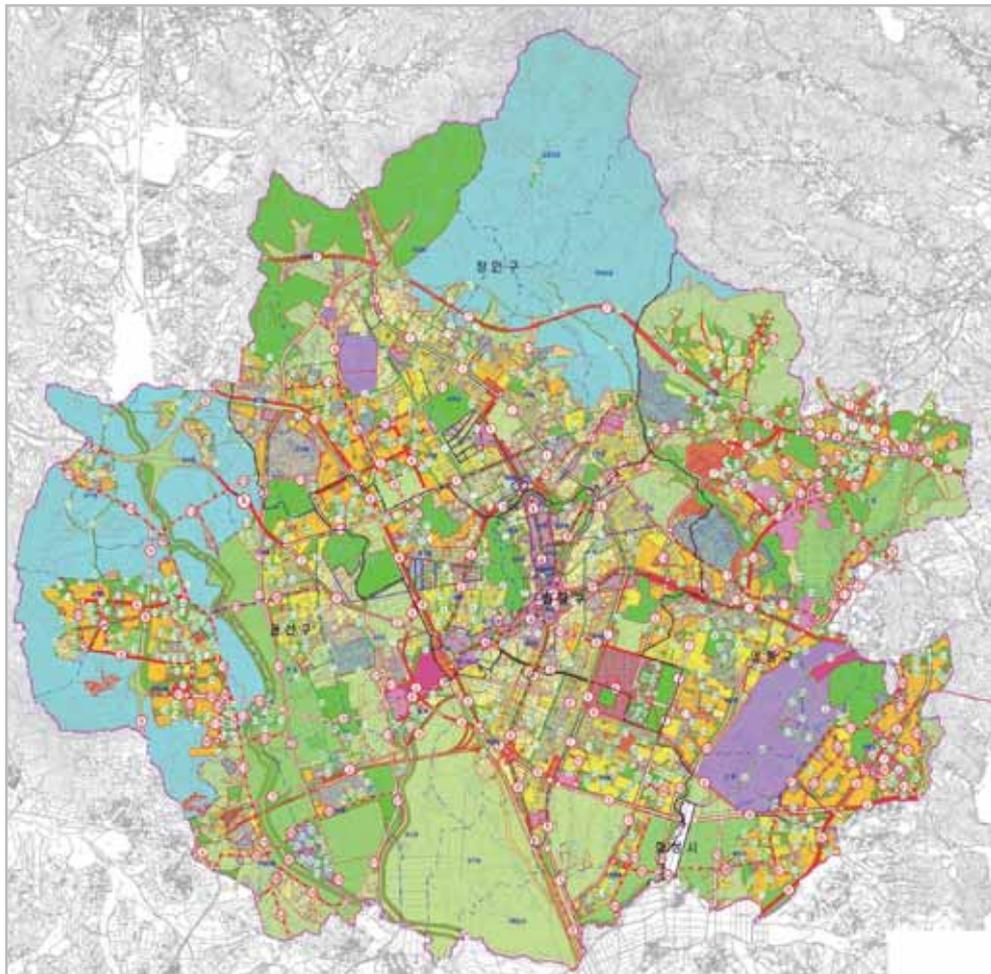
경기도고시 제2003-146호(2003.6.17.)

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광고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녹지 421만 8,610㎡를 주거지역 335만 6,219㎡, 상업지역 83만 9,631㎡, 보전녹지지역 2만 2,760㎡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은 부지면적 1,128만 2,521㎡에 인구 7만 7,500명(3만 1,000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214만 3,724㎡(19.0%), 도시지원시설용지 37만 8,835㎡(3.4%), 상업업무시설용지 62만 3,068㎡(5.5%), 공공시설용지 813만 6,894㎡(72.1%)로 계획되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2003.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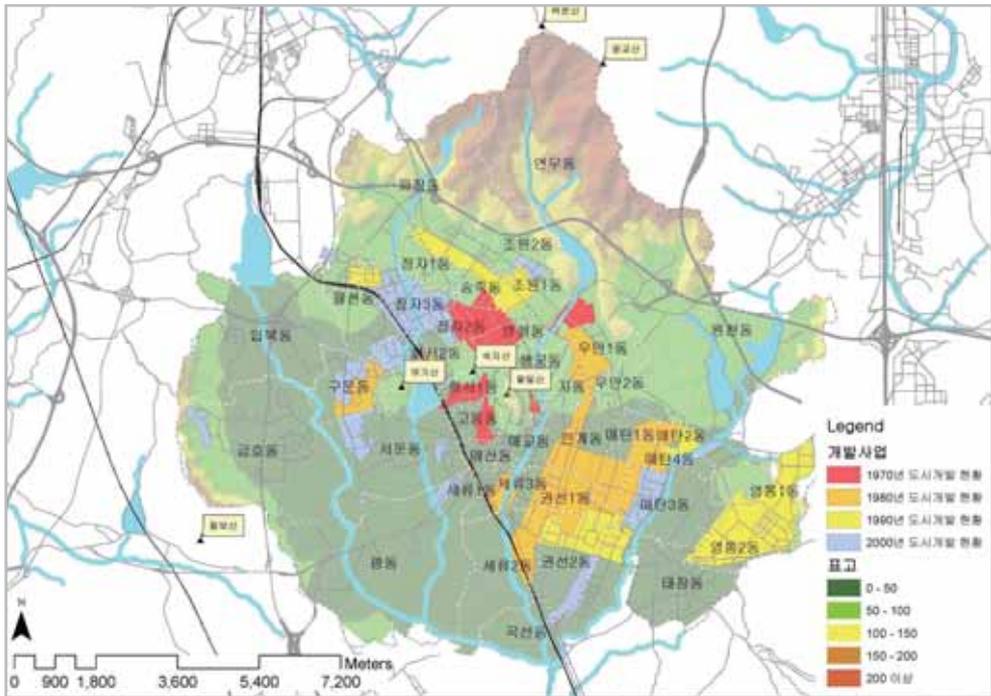
광교신도시 개발,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권선구 행정타운 건설 등에 따른 도시 현안사업의 수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도시기능 재배치를 위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21세기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도시발전의 전략을 제시하고,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 광역행정·업무, 교육, 유통,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



수원시 고시 제2008-209호(2008.9.2)

받아 2007년 9월 18일 공고하였다. ‘문화와 경제로 번영하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2020년 계획인구 129만 명을 수용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적 기능 확립과 지역 특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체계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생활권은 수원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공간구조 위계를 중심으로 하여 5개의 중생활권으로 재편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을 화성시 행정구역 0.287km²를 제척하여 121.103km²로 계획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시가화용지 48,346km², 시가화예정용지 11,887km², 보전용지 60,870km²를 구상하여 도심지역의 기능활성화, 역사적 상징(화성)성을 높이며, 도시의 효



2000년 도시개발 현황

울성 제고 등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을 기점으로 동탄, 화성, 평택 등 신흥 상권의 중심지로 급부상 중인 수원역 주변의 구 SK케미칼 평동공장과 KCC 수원공장 부지 일원의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 후되어 있던 서수원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2008년 7월 2일 결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수원권의 균형 발전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용도를 감안하여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토지 이용과 수원 역세권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정부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1. 입지 환경과 도시개발의 전개
2. 다핵 도시로서의 면모와 생활권역별 주요 경관



제2장

수원의 도시경관 변화

수원시 도시경관은 성곽도시이자 계획도시로 출발한 ‘역사적 관성’을 지속하면서 해방 이후 행정 영역의 확대와 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경관(景觀 : landscape)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이면서 과정 그 자체를 보여 준다. 또한 인간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권력 간의 순간적 균형이자 평형 상태를 대변하며,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지리적 실체이다.¹ 도시경관(urban landscape)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의 도시 풍경과 가시적 형태를 넘어서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간의 가치를 반영한다.²

역사도시 수원의 랜드마크(landmark)는 시 중앙에 위치한 화성(華城)이다. 수원의 성립은 1786년 완성된 정조의 화성 축조와 화성신도시 건설에서 비롯되었다. 화성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1970년대 이래 복원 과정을 거쳐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화성 축조와 화성신도시 건설은 수원시 도시구조

1 전중환,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논총』 10, 2006, 66쪽.

2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우리 도시의 모습, 그 변천·이론·전망』, 열화당, 2004, 123~127쪽.

의 기본 틀로 작용해 왔고 수원시 도시경관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도시 경관, 특히 수원과 같은 역사도시의 경관은 관념적 요인, 심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동인(動因)이 작용하기 마련이다.³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의 수원시 도시경관의 변화를 도시개발과 공간 변천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화의 진전 양상을 도시 입지 환경을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전반적인 생활권 역별 경관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수원시 주요 경관의 변화 양상을 지도와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입지 환경과 도시개발의 전개

1) 수원시 입지 환경과 도시화의 진전 양상

도시경관은 도시가 입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을 지속하는 가시적 산물이다. 지금의 터에 수원이 입지하게 된 배경에는 정조의 ‘화성신도시 건설’이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현 용릉, 화성시 화산동 소재)을 1789년(정조 13) 양주 배봉산(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수원 읍치의 진산인 화산(花山) 아래로 옮기고, 이곳에 있던 읍치를 모두 팔달산 아래로 옮겼다.⁴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탄생한 수원시는 화성 축조 이래 ‘역사도시’의 면모를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산 자락을 끼고 고스란히 간직해 왔다.

〈그림 1〉은 축척 1:50,000 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의 최근 모습이다.⁵ 시 중앙에 팔달산(八達山 : 143m)이 솟아 있고, 북동쪽 용인시와의 경계에 광교산(光敎山 : 582m)이, 서쪽으로는 안산시·화성시와 경계를 이루는 칠보산(七寶山 : 238.8m)이, 동쪽으로는 용인시 기흥읍과 경계를 이루는 청명산(淸明山 : 191.9m)이 위치해 있다.

수원시의 지형은 대체로 동북쪽에서 서남 방향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분지(盆地)에 자리 잡고 있다.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광교산을 배후에 두고 화강암이 차별 침식

3 이경택, 「서울 도시경관 형성과 변화에 관한 동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5 『1:50,000 지형도』, 안양, 수원, 남양, 용인 도엽(2010년 촬영, 2011년 조사·편집, 2012년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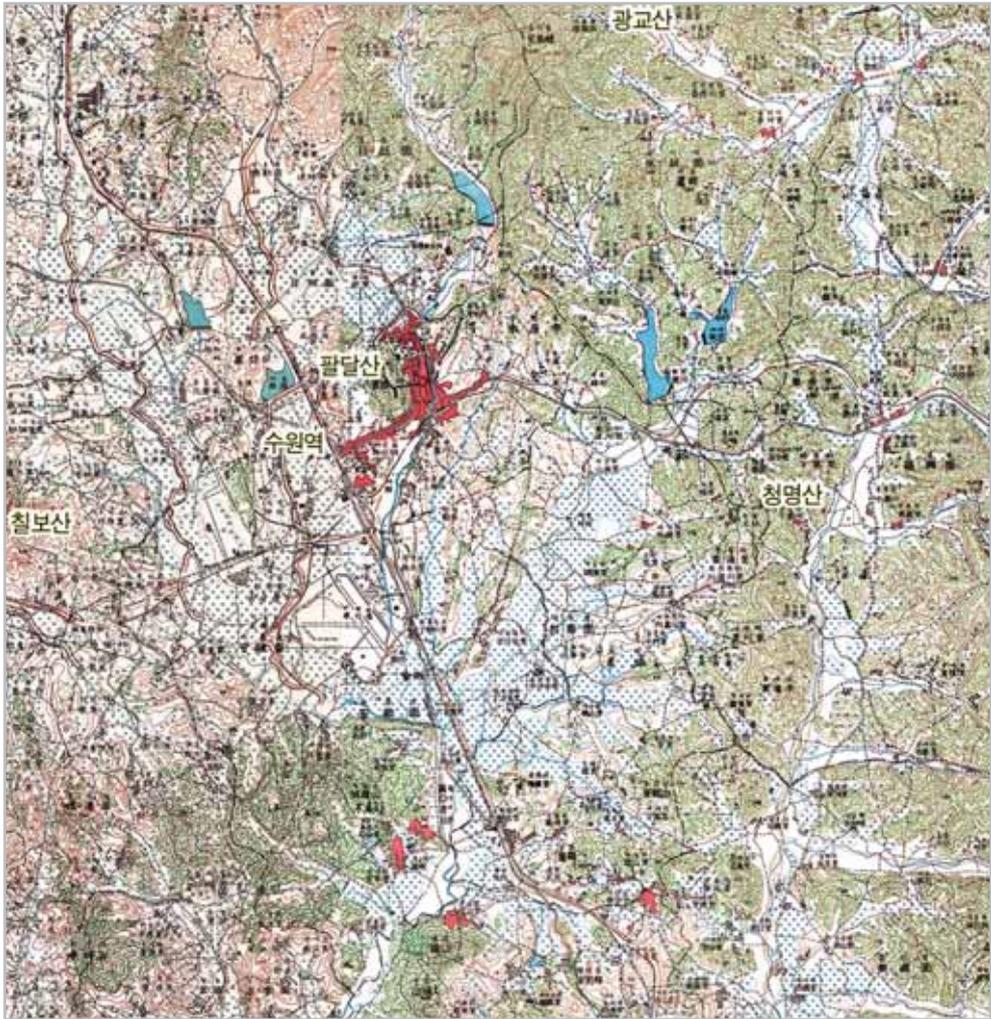


〈그림 1〉 수원시 입지 환경

된 이 분지는 남북으로 흐르는 수원천(水原川), 서호천(西湖川), 원천천(遠川川)을 끼고 발달한 낮은 평지와 이들 분수계를 이루는 팔달산, 숙지산(熟知山 : 123m, 현재 숙지공원), 여기산(麗妓山 : 105m), 칠보산 등 비교적 낮은 기복의 구릉들로 복합되어 있다. 하천들이 황구지천(黃口池川)으로 합류하는 대항교 부근에 이르면 하천변 낮은 평지가 넓은 저습지를 이루고 있다.⁶ 황구지천은 다시 안성천에 합류되고 아산만을 통해 서해에 이르게 된다.

〈그림 1〉을 통해 최근 수원시의 대체적인 도시화 진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팔달산과 서호(西湖) 사이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일반적으로 동수원과 서수원으로 불린다. 동수원의 경우, 광교산 아래 광교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가지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서수원의 경우는 황구지천 주변, 서호천과 수원천 하류 주변에서 충적지 분포가 눈에 띄며, 상대적으로 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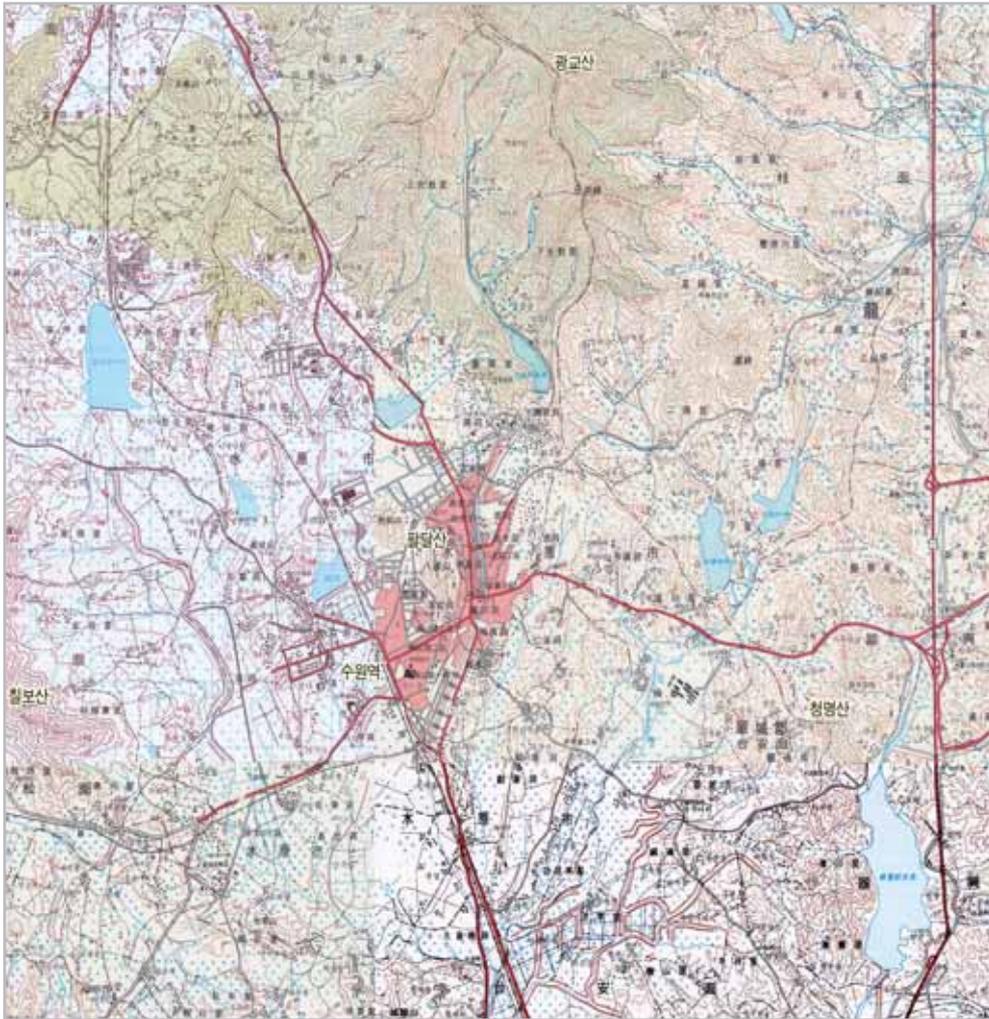
6 이상환, 「지형 환경을 통해 본 수원의 지리적 공간의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그림 2〉 1950년대 수원

화가 진전되지 않은 구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시가지화가 입지 환경을 기초로 어떠한 시계열적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는 시기 별 지형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 1950년대 수원의 시가지화는 팔달산 아래 남문(팔달문)과 북문(장안문)을 잇는 팔달로와 수원역에서 남문까지를 연결하는 매산로, 즉 수원의 전통적인 중심지 두 곳에 국한되어 있다. 팔달로 일대가 매산로 주변보다 시가지화 진전 정도가 높은 상태이다. 동수원과 서수원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넓은 층적지와 그 주변의 구릉지가 여전히 폭넓게 분포한 상태이다.



〈그림 3〉 1970년대 중반 수원

성곽도시로 출발한 수원의 초기 시가지는 남문과 북문을 잇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성 안에는 남문과 북문 사이에 직선도로와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가 만들어졌고, 이 도로들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팔달산 서쪽 서호천 사이의 저습지를 개척하여 철도가 부설되고 수원역이 설치되었다. 수원역 역세권이 남문으로 연결되는 매산로를 시가지화하였고, 여기에 팔달로의 도로 교통이 연결되면서 수원 도시화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1967년 경기도청이 다시 수원으로 이전해 오고, 청명산 오른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

부고속도로가 1969년 개통되었다. 이로써 수원시는 경기 최대 도시의 기능과 경기 남부 최대 도로 교통의 요지라는 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수도권 전철(1974)과 경수산업도로(1976)가 개통되어 서울 통근권에 포함되었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이 한층 확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뒤이어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확대가 가속화됨으로써 수원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수원시의 도시기능을 다양화하였고 경관 변화를 조성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의 도시 확산 방향은 광교산 산록대와 화성을 중심으로 발달하던 것이 점차 역세권과 연결되면서 분지로 확산되어 나타난다. 분지 내의 유휴 구릉지가 시가지로 변모한 것과 더불어 점차 저습지 지역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군기지와 절대 농지가 도시 규모의 외연적 확대를 저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다.⁷

1980년에도 여전히 팔달산 동쪽의 성내 지역에 형성되어 온 도심부는 관성을 유지하였다. ‘동수원 개발’로 전통적인 도심부 동남쪽에 주거지구가 대대적으로 개발되었다. 주거지구는 경수산업도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확장되면서 외곽에 있던 일부 대규모 공장은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⁸

수원시는 1960~1970년대에는 시역의 외연적 확산과 공업지역 지정에, 1980년대에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았다. 1990년대 중반 영통신도시가 건설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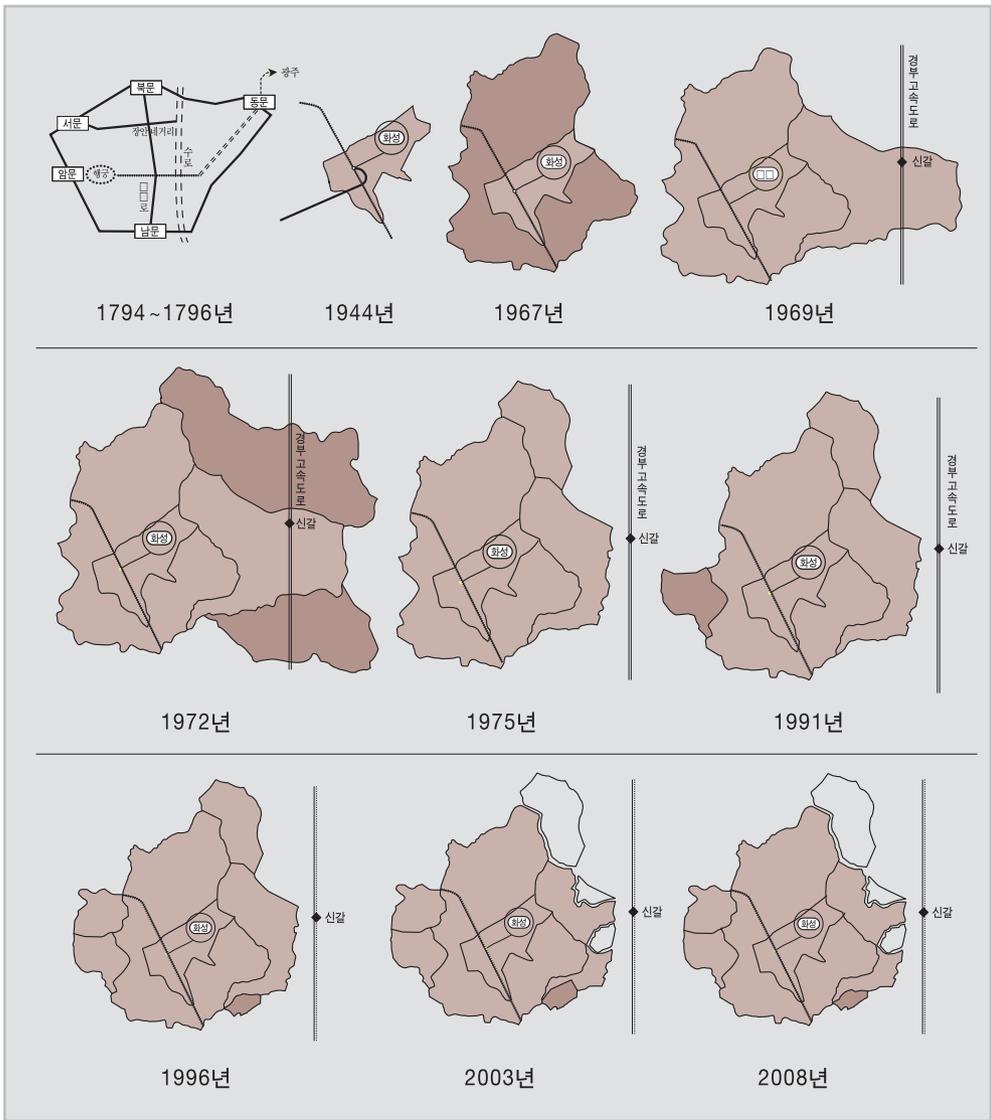
2) 행정 영역의 확대와 도시계획구역의 변동

1945년 해방 직후 수원군은 지금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1949년 8월 14일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하고, 나머지 지역은 수원군에서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8월 15일에 수원부가 수원시로 승격되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일찍 시로 승격한 수원시는 서울로 이전했던 경기도청을 1967년에 다시 유치한 이래 도시세력을

7 이상환, 「지형 환경을 통해 본 수원의 지리적 공간의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9~52쪽.

8 권혁재,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범문사, 1995, 57~59쪽.

9 「도시 재생 및 마을 만들기」, 수원시 적용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1.02.25), 8쪽.



(그림 4) 수원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변화(수원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 2011, 13쪽)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해방 후 수원은 1949년 8월 15일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 시로 승격하였다. 당시 수원시는 27개동으로 편성되었는데, 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매산로3가, 중동, 구천동, 영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장안동, 신평동, 남창동, 교동, 매교동, 세류동, 평동, 서둔동, 고등동, 화서동, 영화동, 연무동, 지동, 인계동, 우만동이다. 시



(그림 5) 수원시 행정동

로 승격된 이후 한국전쟁 등 현대사의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수원시의 행정체계는 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⁰

1967년 6월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지역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행정구역의 변화도 이어졌다. (그림 4)를 통해 수원시 행정 영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변동을 주요 시기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해인 1967년 도시계획구역은 83.67km²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해방 직전인 1944년 수원의 최초 도시계획 수립 당시 면적 29.39 km²의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1969년 6월 용인-신갈지구와 화성군 일부를 편입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124.353km²로 더욱 확장되었다.¹¹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다소 축소되었다가 1972년 202.854km²로 확장되었다. 1974년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과정의 결과로 1975년 도시계획구역은 120.394km²로 축소되었다. 1991년 반월도시계획구역의 일부를 편입하게 되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었다. 1993년에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행정구역 체계의 변화를 보면, 1988년 수원시 최초의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장안구와 권선구로 분구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되고, 2003년 영통구가 개설됨으로써 수원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의 행정구를 갖게 되었다. 2012년 말 현재 수원시 면적은 12만km², 인구 110만 명, 4개 행정구, 40개 행정동과 56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표 1). 도시지역 면적은 121.103km²로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34.9%, 상업지역 4.4%, 공업지역 3.3%, 녹지지역 57.4%를 차지하고 있다.

10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5쪽.

11 수원박물관, 「근대 수원 100년 연표」, 『근대 수원 100년』, 2010.

〈표 1〉 수원시의 행정동과 법정동¹²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파장동	파장동	세류1동	세류동	행궁동	팔달로1가	매탄1동	매탄동	
	이목동	세류3동			팔달로2가	매탄2동		
울천동	천천동	세류2동	장지동		팔달로3가	매탄3동		
	울전동		오목천동		남창동	매탄4동		
정재동	정자동	평동	평동		영동	원천동	원천동	
정지2동			고색동		구천동	이의동		
정지3동			평리동		중동	광고동	하동	
영화동	영화동		금호동		호매실동	매향동	영통1동	영통동
송죽동	송죽동		금곡동		금곡동	남수동	영통2동	
조원1동	조원동	구운동	구운동		북수동	태장동	신동	
조원2동		서둔동	서둔동	장안동	망포동			
연무동	연무동	서둔동	탑동	매교동		매교동		
	상광교동			매교동	교동			
하광교동	권선1동	권선동	매산동	매산로1가	매산로1가			
	권선2동			매산로2가		매산로2가		
	곡선동	곡반정동		고등동		고등동		
	입북동	입북동	대황교동	화서1동	화서동			
			당수동	화서2동		화서2동		
			지동	지동				
			우만1동	우만동				
			우만2동					
			인계동	인계동				

3) 도시개발의 전개 과정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은 197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주요 구획정리사업은 영화지구 택지조성공사, 고화지구 택지조성공사, 역전지구 택지조성공사, 파송지구 택지조성공사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뒤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우만동과 인계동, 권선동 등 동수원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

¹²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소개, 수원시 행정구역(2012년 12월 말 기준).

사업이 실시되었고, 일명 '동수원 개발' 로 수원시 동남쪽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 지구가 대대적으로 개발되었다.

〈표 2〉와〈그림 6〉에 나타난 수원시 인구 및 가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인구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는 10년마다 거의 2배로 늘어났다. 특히 1985~1990년과 1995~2000년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관할구역이 확대되고 택지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된 데에 따른 것이며 1990년대 들어서 영통지구 조성 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림 7〉을 보면 수원시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에서 1970년 농경지 비중이 46.0%에 달하던 것이 2012년 현재 19.6%로 급감하였고, 대지 비중이 8.7%에서 24.1%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대지의 비중이 20% 이상을 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원시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확대는 물론 도시경관 변화의 속도와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실제 2005년을 전후한 수원시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¹³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005~2012),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2006~2014),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 (2007~2013),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2006~2012) 등을 포함해 도시기능의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따른 경관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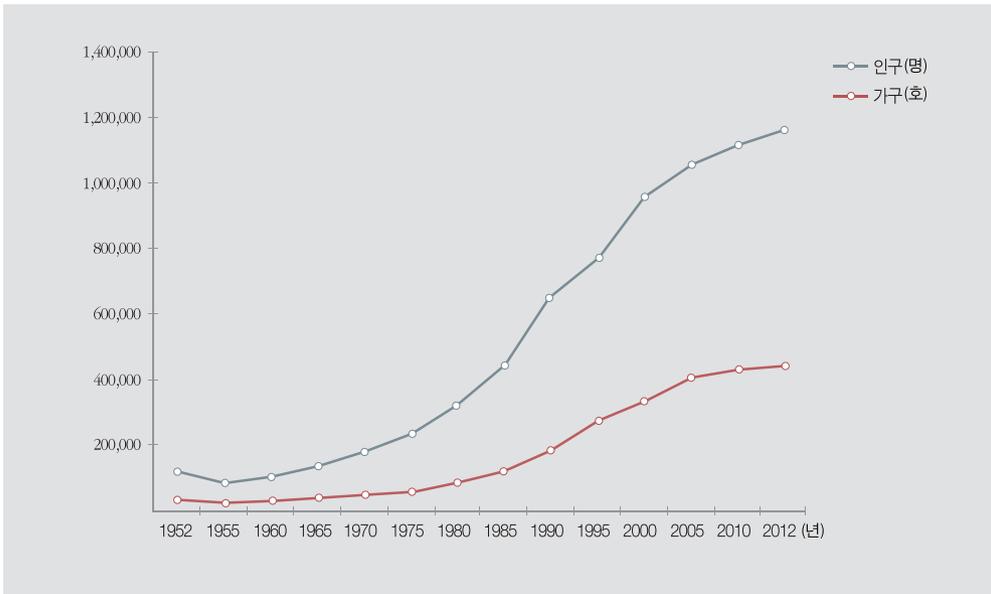
〈표 2〉 1952~2012년 수원시 인구와 가구 증감¹⁴

(단위 : 명,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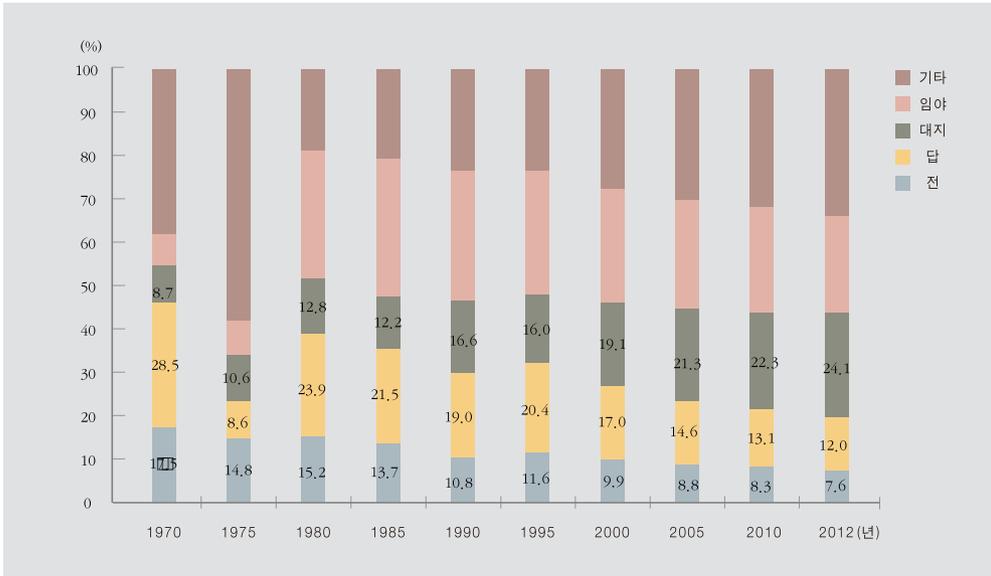
구분	인구	인구 증감	가구	가구 증감
1952	104,044		20,129	
1955	71,991		31,502	
1960	90,806		16,498	
1965	123,134	32,328	21,665	5,167
1970	170,510	47,376	33,451	11,786
1975	224,177	53,667	46,645	13,194
1980	310,757	86,580	71,154	24,509
1985	430,000	119,243	106,909	35,755
1990	645,000	215,000	171,855	64,946
1995	755,000	110,000	263,259	91,404
2000	944,000	189,000	322,621	59,362
2005	1,044,000	100,000	395,615	72,944
2010	1,104,671	60,670	416,036	20,421
2012	1,147,966	43,296	427,790	11,754

13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2012년도 시정계획,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현황.

1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 연도.



〈그림 6〉 1952-2012년 수원시 인구와 가구수 추이



〈그림 7〉 1970-2012년 수원시 지목별 토지 비중¹⁵

¹⁵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2. 다핵 도시로서의 면모와 생활권역별 주요 경관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의 분화가 완숙기에 접어드는 단계이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르면, 수원시는 방사순환형의 다핵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토대로 한 공간구조 구상계획이다. 또한 수원의 도시공간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작용해 온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한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는 구상이기도 하다.

수원시는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크게 서수원과 동수원으로 나뉘며, 주요 기능에 따라 구도심·북수원 지역, 신도심·동수원 지역 그리고 서수원 지역으로 구분된다. 수원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1개 도심, 2개 부도심, 3개 지역중심을 갖는 공간 구조 위계를 중심으로 하여, 경부선 철도, 주요 간선도로와 구(區)경계를 기준으로 5개의 중생활권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¹⁶ 1개의 도심은 수원역-수원시청-수원 화성을 잇는 구역이며, 2개 부도심은 광교신도시와 영통지구, 3개 지역중심은 정자동, 호매실지구, 산업 단지를 의미한다.

〈표 3〉 수원시 생활권역과 주요 기능¹⁷

구분	주요 기능	행정동
화성생활권	관광·문화 예술, 중심 상업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일부, 지동, 인계동, 영화동, 연무동 일부,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매탄1동, 권선1동, 권선2동
영통생활권	첨단 산업, 지역 상업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원천동 일부,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곡선동
광교생활권	광역 행정·업무, R&D, 교육	원천동 일부, 우만1동, 우만2동, 연무동 일부
북수원생활권	주거, 문화·여가	파장동, 율천동 일부,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서수원생활권	주거, 지역 상업, 농업 연구, 첨단 부품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율천동 일부, 화서2동 일부, 평동, 서둔동

16 수원시, 『2015년 수원도시계획관리(변경)』, 2011년 5월.

17 『1:50,000 지형도』, 수원, 안양, 남양, 용인 도역을 토대로 하였다.



〈그림 10〉 팔달산에서 내려다본 수원시가지

역사적 관성과 역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생활권이다. 팔달산에서 내려다보는 팔달문 주변 풍경은 수원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수원시의 시가지 중앙에 솟아 있는 주산(主山)인 팔달산(八達山 : 128m)에 올라 서장대(화성장대)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가까이 화성행궁과 종로사거리가 보이고, 멀리 광교산 자락과 고층 빌딩군이 곳곳에 스카이라인을 높이면서 시야에 들어온다(그림 10).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실시된 ‘화성복원정화사업’과 1996년부터 실시된 ‘화성행궁 복원공사’로 수원의 뿌리인 화성과 화성행궁은 거의 제 모습을 찾았다.¹⁹ 화성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 공간인 동시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품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천은 1991~1994년 일부 구간이 복개가 되는 등 위기에 처했으나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의 전개로 복개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 현재 매향교-매교 구간은 완전 복

19 수원시, 『수원도시변천사』, 2004, 167쪽.



(그림 11) 1980년대 초반 수원(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경기도편』, 1983, 308쪽)

개되어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제외한 시내 구간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 생태가 되살아나고 있다.²⁰

화성생활권은 '역사도시 수원'의 풍모를 지닌 생활권으로 구도심지역에 해당한다. 이 생활권 안에는 전통적인 중심지 팔달로와 수원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산로, 2개의 중심 거리가 있다. 1970년대까지 도심부는 팔달산 동쪽 성안과 국도 1호선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²¹

20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http://www.suwonriver.org>).

21 김종혁, 『경기도의 근·현대 지도』, 경기문화재단, 2005, 327쪽.



〈그림 13〉 영동 경관



〈그림 14〉 수원 삼성전자



〈그림 15〉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그림 16) 광고신도시 입구

3) 광고생활권

광고생활권은 영통구의 원천동 일부, 팔달구의 우만동, 장안구의 연무동 일부를 포함하는 권역이다. 광역 행정·업무, R&D,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광고산 아래 자리한 생활권으로 상대적으로 시가지화가 늦었으나, 2005년 12월 시작해 2012년 12월 완공된 광고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급격한 도시경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행정동 광고동으로 독립하였다.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에듀타운 건설도 병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이다. 신분당선 정자-광고 연장구간 건설사업이 2011년 2월 착공해 2016년 완공 및 개통될 예정이어서 다른 생활권에 비교해 볼 때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복수원생활권

복수원생활권은 영화동과 연무동, 율천동 일부를 제외한 장안구 전역을 포함하는 권역

이다. 주거와 문화·여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광교산이 위치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저수지가 위치한다.

북수원생활권에서는 정자동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원래 지금의 파장동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그 아래 정자리에는 평양 조씨가, 그 위로 파장리에는 광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살던 마을이었다.²⁵ 정자리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상공회의소, 연초제조창 일대에는 둔전(屯田) 기능을 한 ‘대유평’

이라는 넓은 들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선경합섬 공장이 정자동에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이 건축되었다.²⁶ 1960년대부터 수원시에서 공업기능을 보유한 생활권이었지만, 현재는 광교산을 중심으로 여가와 문화 기능을 특화해 가고 있다.



(그림 17) 북수원생활권(『수원일보』, 2008년 9월 9일)

5) 서수원생활권

서수원생활권은 경부선 철도 서쪽 지역을 포괄하는 권역이다. 세류동, 권선동, 곡선동과 울전동 일부를 제외한 권선구 지역이다. 주거와 지역 상업, 농업 연구, 첨단 부품 생산을 중심 기능으로 하는 생활권이다. 동수원에 비해 도시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택지개발을 비롯해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조성 등 변화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설치된 곳이며, 전통적으로 농업 연구의 역사적 산실이기도 한 서수원생활권은 수원산업단지가 위치하는 곳이다. 수원산업단지는 과거 조원동 한일합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용지 등이 주거용지로 전환되면서 대체 공업용지로 조성되는 공업단지이다.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는 2013년까지 권선구 고색동에 조성될 예정으로 IT, BT 등 핵심 첨단기술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²⁷

25 수원문화원, 『2009년 사랑방 네트워크 최종조사결과보고서』, 2009, 155쪽.

26 수원문화원, 『2009년 사랑방 네트워크 최종조사결과보고서』, 2009, 90쪽.

27 경인일보사, 『경기연감 2012』 하, 2012, 300쪽.



(그림 18) 서수원생활권(『수원일보』, 2008년 9월 23일)

곡반정동은 1993년 이후부터 권선1 지구가 개발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둔동·탑동·구운동 일대는 과거 ‘푸른지대’라는 딸기밭이 있었던 곳으로,²⁸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수원 시민들에게 추억 속의 공간이다.

이 생활권은 금호·구운동 택지개발에 이어,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2006~2013)이 추진

되었다. 호매실동이 크게 바뀐 것은 1991년 미덕빌라와 협신빌라가 지어

지기 시작하면서이다. 호매실 옆 금곡동에 1987년 공작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먼저 변화가 생겼고, 1989년 노림마을 옆에 신미주아파트가 들어왔다.²⁹

수원에서 가장 개발이 더딘 서수원생활권의 특징은 농촌과 도시의 모습이 병존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 연구의 기능을 수행해 온 농업 기능의 관성과 절대 농지 분포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순수한 농촌이던 이곳은 서수원터미널이 설치되고, 수인산업도로와 봉담-과천 간 고속국도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타지역과의 접근성이 편리해 물류 중심지로 주목을 받는 곳으로 변모하였다.³⁰

해방 후 수원시의 도시경관은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적 경관의 역동적 재구성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화성은 한국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1970년대 복원 사업을 통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수원의 랜드마크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역사적 관성을 오늘날의 가치로 재현하고 있다.

1967년 경기도청이 다시 수원으로 이전해 온 이래, 내·외부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 시설의 입지를 다져 왔다. 또한 택지개발, 행정타운 건설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을 보유한 대도시, 다양한 기능을 균형 있게 발휘하는 다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역동적인 경관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

28 수원문화원, 『2009년 사랑방 네트워크 최종조사결과보고서』, 2009, 293쪽.

29 수원문화원, 『2009년 사랑방 네트워크 최종조사결과보고서』, 2009, 341쪽.

30 수원시, 『구운·금호동지』, 2004, 37~39쪽.



〈그림 19〉 서둔동 마을 전경



〈그림 20〉 서둔동 농촌진흥청 일대



〈그림 21〉 수원산업단지 조감도



〈그림 22〉 오목동 산업단지



〈그림 23〉 탐동사거리에서 본 호매실지구



〈그림 24〉 호매실지구에서 바라본 구운동 일대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공공건축
2. 교육문화시설
3. 주거지 개발과 아파트의 건립
4. 산업시설
5. 체육시설



제3장

수원 현대 건축의 전개와 특징

해방 이후 수원은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초기 국제주의 양식의 실험무대이자 집결지로 서, 서울대 농대와 농촌진흥청 도서관·경기도청 등 김희춘이 설계한 일련의 건축물과 김중업 설계의 농촌진흥청 교육관, 김정수 설계의 농촌진흥청 본관, 나상진 설계의 원호청 등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속속 들어섰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 차원의 건축물이 활발하게 지어진 것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건축 활동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인 조건과 공군비행장이라는 군사적인 요인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특히 공군비행장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인 1954년 건설되어, 지난 59년 동안 시 전체 면적의 48%에 달하는 58.44km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이고 수원 지역 4만 9,000여 세대 13만 5,000여 명이 소음에 시달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¹ 그뿐만 아니라 공군비행장은 수원 도심의 건물 높이를 5층 이하로 묶어 놓았으며, 그 결과 1970년 이후의 경제 성장기에 건축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건축물을 남

¹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소음피해로 7,663억 원, 고도제한으로 1조 5,334억 원 등 총 2조 2,997억 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는 데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또한 산업도로·고속도로·국철 등과 같은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의 발달은 오히려 일정한 기간 수원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에 예측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을 중심으로 첨단 전자 산업시설이 수원에 집중적으로 유치·건설되면서 수원은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사대문 외곽과 동수원을 중심으로 들어선 대규모 주거단지는 수원의 도시 확장과 현대 건축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에는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이 속속 자리를 잡았고, 기존의 관공서들의 이전과 신축이 이어졌다. 그 밖에 수원의 현대 건축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 수원시장인 심재덕이 주도한 화장실 문화운동이다.² 아주 미미한 건축 유형의 하나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수원의 건축문화를 알린 것은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것에 버금가는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원의 현대 건축에 대한 조명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되지 않아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근대 건축에 관한 글이 몇 편 있는 정도이다.³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건축 유형을 중심으로 수원의 현대 건축을 간략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공공건축

수원의 현대 건축은 1960년대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 미국 대외 원조 기관)에서 한국농촌진흥부 사업의 일환으로 서호 주변에 관련 건축물이 건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농촌진흥청 본관(1961년, 김정수 설계)과 도서관(1967년, 김희춘 설계)이 세워졌으며, 수원시청(1956년, 설계자 미상), 종합원호원(현 국립보훈원, 1967년, 김희춘 설계), 경기도청(1967년, 김희춘 설계), 조흥은행 수원지점(1971년, 설계자 미상) 등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비교적 다양한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선 종합원호원은 1962년에 착공되어 1963년에 준공되었다. 순국군경과 상이군경의 원호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영화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는 아동보육소, 농사보도소, 직업보도소, 양로소 등 4개의 기

2 그 결과로 2007년 국제민간기구 세계화장실협회(WTA)가 창립되었고, 2012년에는 수원에 화장실문화공원이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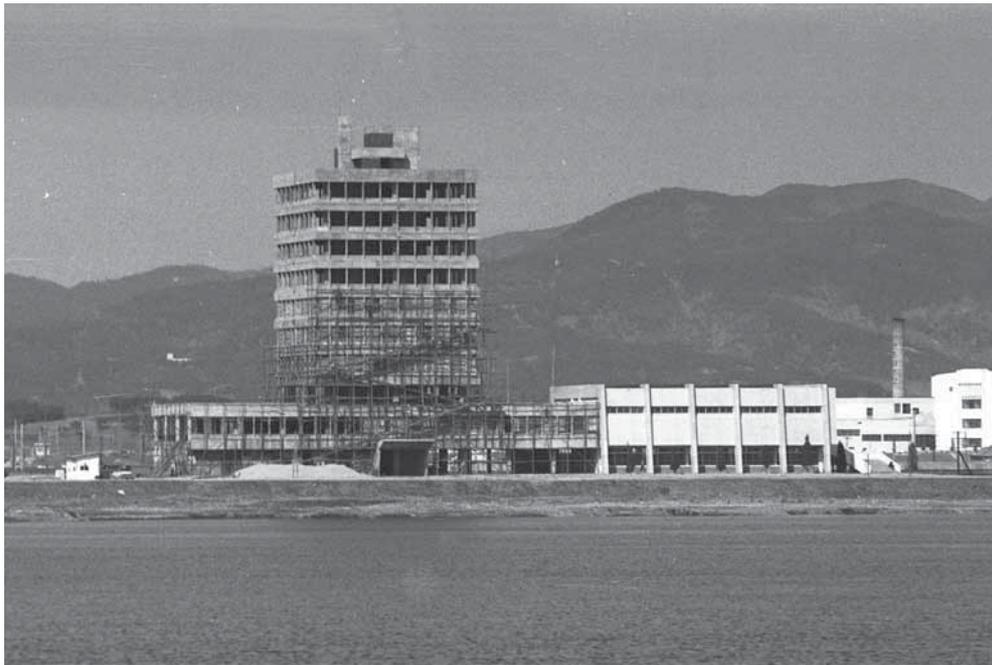
3 윤인석, 『근대기 수원의 건축 및 도시변천사』, 『근대기 도시와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51~58쪽.



1956년에 낙성한 옛 수원시청(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완공 직후의 종합원호원 전경(창훈대학교회, 『창훈대 40년사』, 2004)



건축 중인 농민회관



농민회관(<http://blog.daum.net/kiEURY/11297152>)

구를 중심으로 의무실, 오락실, 교회 등을 비롯한 36동의 건물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4만여 평의 농토가 마련되어 자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⁴ 종합원호원은 1969년 국립원호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85년에는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서 국립보훈원으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1998년 연수원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양로·양육 보호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종합원호원 이후 수원의 현대 건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건축물로는 농민회관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연수원으로 이름이 바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농민회관 건물은 높이가 10층으로 1970년대 수원에 지어진 공공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농림부에서 농민들에게 영농교육 등 농민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1971년 착공하여 1973년 준공⁵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농수산단체 간부, 경제단체 간부, 장·차관급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대학 총·학장, 대학교수,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기업인, 대학생, 사관생도, 전공의(인턴), 해외동포, 그리고 외국인 등 총 7만 7,851명이 무려 550회에 걸쳐 이곳에서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을 받았다. 서호 옆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수원 지역의 특수한 상황, 즉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5층 이상의 건물 허가가 나지 않던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건설되었다. 이 건물은 1990년대까지도 수원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자리매김을 하던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수원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시청을 비롯하여 법원 등 관내 주요 기관들이 이전·신축되었다. 시청은 청사를 새로 지어 1995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법원 청사⁶는 시청보다 앞선 1984년에 신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건축물은 역사도시 수원의 지역성과 현대 건축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지 못한 채 평범한 조형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1960년대의 실험정신에서 후퇴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

2. 교육문화시설

해방 이후 수원의 대표적인 교육시설로는 우리나라의 농업 엘리트를 길러 낸 서울대학

4 『경향신문』, 1963년 1월 18일, 7면.

5 『매일경제신문』, 1971년 1월 16일, 7면.

6 광교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신청사(회림건축사무소 설계, 2017년 준공 예정)는 글로벌 시대의 현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원의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교동에 위치한 시민회관

교 농과대학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희춘 교수가 설계한 강당, 강의동 등 일련의 시설들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기존의 시설과 조형적 연속성을 가지며 구조와 입면에서 실험정신이 엿보이는 모더니즘의 수작으로, 당시 수원을 대표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수원을 중심으로 외곽에는 적지 않은 수의 대학기관이 자리를 잡았으나 건축적으로는 별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문화시설로는 시민회관(1970년, 설계자 미상)이 지어지기 전까지 수원극장, 시민관, 중앙극장, 국제극장, 아카데미극장 등 일련의 극장시설이 1960~1970년대 수원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시설이었다. 이러한 시설은 건축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으며, 공연장·박물관·전시관이 속속 들어서기는 1990년대까지도 수원의 문화시설에 관한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90년대가 되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1991년 준공)⁷을 비롯하여 수원미술전시관(1999년 준공) 등과 같은 대형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 수원박

7 이후 2004년 재단법인이 되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화성을 모티브로 하여 건축한 수원화성박물관



인계동 예술공원 내 야외음악당



경기도문화예술회관(경기도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이 자리한 예술공원 전경

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정림건축 설계)이 각각 준공됨으로써 수원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전통건축의 맥락을 현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존의 다른 문화시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밖에 기억할 만한 문화시설로는 1995년 삼성전자에서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증한 제1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예술공원 내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막구조를 응용한 경쾌한 건축물로서 1996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 주거지 개발과 아파트의 건립

수원의 현대 건축을 주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거공간과 관련된 아파트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초기에 개발된 곳은 동수원권역이었다. 인계동, 매탄동 일대 185만 평의 이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인구 30만 명의 생활권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매탄동 일대(1985년)

을 건설한다는 청사진이 수립되어 4개 권역의 택지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시청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경찰서, 반공회관, 여성회관, 시장,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및 단독 주택 5만 7,000가구분이 지어져 수원의 주택난 해소에 일조하였다.⁸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수원의 주택지 개발은 홍수를 이루게 되는데, 조원동 한일타운, 정자2지구, 천천2지구, 영통지구, 망포지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조원동 수원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한일타운 아파트는 1999년에 5,300가구가 준공되었는데, 한일합섬이 시행하고 쌍용건설, 대림건설, 우성건설, 태영건설이 공동으로 지었다.⁹ 또한 북수원 한복판에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개발된 천천2지구 역시 같은 해 경남기업, 동부건설, 신성건설, 우방건설, 한화건설, SK건설에 의해 1,793가구가 준공, 분양되었다.¹⁰

특히, 황량한 구릉지와 논밭뿐이던 영통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고 민간

8 『경향신문』, 1987년 8월 18일, 9면.

9 『매일경제』, 1999년 5월 18일, 27면.

10 『매일경제』, 1999년 6월 14일, 48면.



조원동 한일타운(2000년)



정자 천천지구(2002년)



영통지구(2000년)



광교산 아래 자리 잡은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전경(<http://www.gwanggyonewtown.or.kr/>)

건설업체들이 대량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7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10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밀집단지로서 수원의 생활 중심을 구도심 밖으로 끌고 나가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회 문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수원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 일대의 주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친환경, 생태 개념이 도입되어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05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된 광고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은 동수원에 편중된 수원의 도시공간을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행정, 휴양, 첨단, 교육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족적인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4. 산업시설

수원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물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선경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44년에 건축된 사무동을 비롯하여, 1959년에 건립된 본관, 1960년과 1964년에 건립된 공장, 1965년에 건립된 기숙사를 비롯하여, 1970년에 축조된 공장과 기숙사, 폐수처리장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공장 건물은 적벽돌을 사용한 조적식 구조로 톱날지붕을 얹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는 전형적인 공장 건물의 형태이다. 기숙사는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선경직물의 시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사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¹¹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시설로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전매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건설된 수원연초제조창을 들 수 있다. 수원연초제조창은 1967년에 착공하여 1971년에 준공되었으며, 2003년 폐쇄될 때까지 30여 년간 고급담배를 생산·공급하였다. 이 공장은 수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공장시설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어 수원시의 체육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수원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산업시설로는 1969년 1월 황량한 들판이었던 ‘매탄벌’에 들어선 삼성 수원전자단지가 있다.¹² 이 지역은 1972년 준공된 흑백TV공장을 필두로 세계 최대의 전자복합단지로 발전되었다. 삼성의 1990년대 후반 가전 부문 시설의 부산 이전을 확정하고 화성시 태안읍 지역을 디지털 기기 및 반도체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삼음에 따라 매탄 지역은 첨단 종합연구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¹³

또한 수원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로는 한일합섬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대규모의 공장 시설을 건설하고, 1974년부터 아크릴 원단을 생산하여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공장

11 강진갑, 「산업유산 선경직물 수원공장 활용방안 연구」, 『수원학연구』 제9집,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2012, 31~36쪽.

12 『동아일보』, 1993년 5월 3일, 10면.

13 『매일경제』, 1999년 7월 29일, 36면.



연초제조창(1972년)



공장 건물의 전형인 툽날 모양 지붕의 한일합섬 공장 전경(1977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김현락 제공)

건물은 전형적인 톱날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 한일합섬은 1991년과 1993년에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현지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공장시설이 이전되었으며, 1996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지금의 한일 주거타운으로 변모되었다.¹⁴

1960~1970년대 산업시설들이 유치되면서 수원의 도시공간에 공장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념의 새로운 건축 유형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는 수원의 현대 건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5. 체육시설

수원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은 1930년대 수원청년동맹의

¹⁴ 『매일경제』, 1994년 6월 22일, 25면.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원종합운동장의 전경

소유였던 청년동맹운동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38년에 8,000여 원을 들여 화홍문 밖에 정식으로 공설운동장을 마련하였다.¹⁵ 이후 이곳에서는 수원시민대운동회를 비롯하여 야구 및 축구 대회, 자전거경기 등이 자주 열렸다. 1955년에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CAC(Crossing Area Commander : 도하지역 지휘관) 부사령관 벤스라이크 중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공설운동장 개장식을 거행하였다.¹⁶ 이후 1971년 현재의 위치에 주경기장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 그 옆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의 핸드볼 경기를 치르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이어서 1986년 9월 주경기장 증축, 1988년 10월 야구장 신축, 2000년 11월 인조잔디구장 설치, 2003년 12월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1989년 9월 26일부터 개최된 제70회 전국체전을 경기도가 유치함으로써 공설운동장과 야구장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야간경기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장안구 조원동 일대는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워밍업장, 야외농

15 『동아일보』, 1931년 1월 29일, 7면. 이 시설은 나중에 수원 화성학원(華城學院)으로 양도되었다.

16 『경향신문』, 1955년 1월 30일, 3면.



수원 월드컵 주경기장 전경

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R/C장, 보조트랙, 보조축구경기장 등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체육단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수원 최대의 체육시설은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 경기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건설된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은 삼우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으며 건설경비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하여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지원하였는데 1996년 착공되어 2001년에 준공되었다. 새가 땅에 내려앉은 모습을 본뜬 대형 지붕을 철골트러스 30개가 받치는 형태로서 전통건축의 지붕과 생명의 웅비를 표현하였다. 원래는 주변을 문화복합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내 체육관과 아이스링크, 수영장, 농구장, 유스호스텔, 경륜장의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수원 지역에 지어진 현대 건축의 개략적인 추세를 살펴 보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 경제 성장의 개발기 등과 같은 급격한 시대의 전환기 속에 수원의 현대 건축은 국내 건축계에 자신의 족적을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없었지만, 일부 건축물들은 모더니즘의 이념을 조형성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

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수원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시설들은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도 서울과 구미 각국의 건축에 대한 모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맥락과 정체성이 돋보이는 건축문화 역시 생산해 내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장 최근에 설계안이 확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향후 수원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현대 건축의 방향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수원 화성의 전통과 호흡하는 건축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석 안양시청 전문위원

1. 1950년대 이전 주거양식
2. 1950~1960년대 주거양식
3. 1970년대 주거양식
4. 성 안 주거양식의 변화



제4장

화성 안의 도시화와 주거의 변화

주거란 사람이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행위의 양식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집과 집을 중심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주거생활(住居生活)의 모든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집은 주변 환경에 따른 지형과의 배치, 공간의 짜임, 구조 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생활에서는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흔적이 하루와 월, 한 해 그리고 평생의 공존 속에 연속성과 재생산이 반복되는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수원시는 2012년 말 현재 4개 구와 40개의 행정동, 114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한 대단위 도시로 1949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67년 6월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 되면서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의 도시화는 이미 18세기 후기의 화성 조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화성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1752~1800년)가 부친 장헌세자(莊獻世子 : 1735~1762년)의 현릉원 천봉과 함께 수원에 건설한 한양의 배후도시로, 관아와 행궁·도로의 공공시설과 인구나 주택·상업의 유통 조건을 두루 갖춘 신도시였다. 더불어 수원은 국왕이 행차하는 주요 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화성유수부의 승격과 함께 삼남에서 한양으로 오르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과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수원의 도시화는 수원 화성의 도시화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원 화성 안 마을의 집과 사람들의 주거 변화를 다룬 것으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까지 6채의 건축양식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대상은 한옥 민가와 일본식 가옥, 현대식 가옥을 살펴보고, 생활양식보다는 집의 변화 과정과 공간의 쓰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1950년대 이전 주거양식

1) 화성사업소 옆 무예 24기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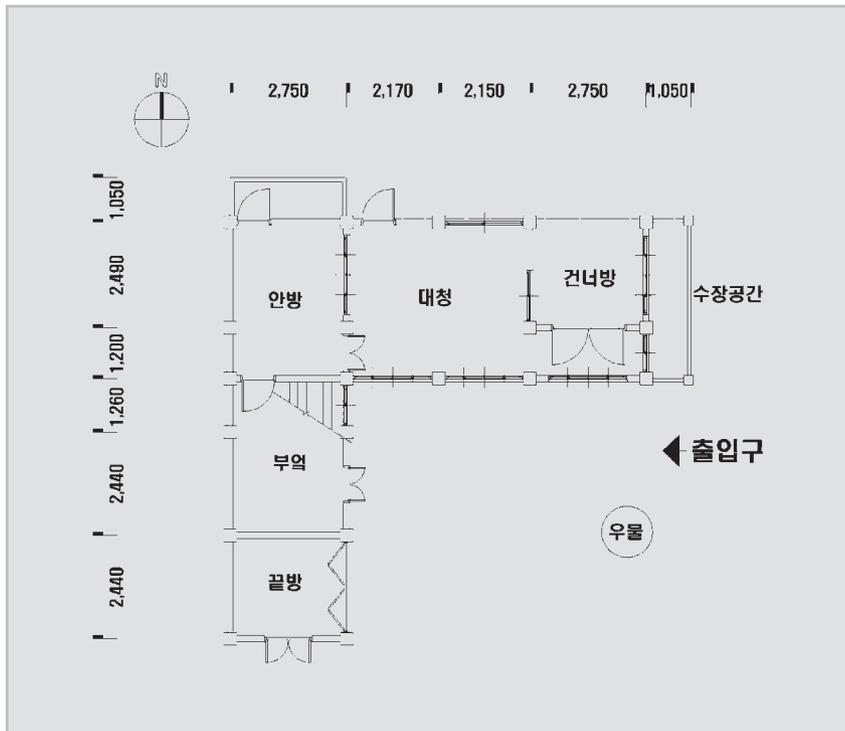
- 소 재 지: 팔달구 행궁길 187번길, 남창동 67번지
- 건축시기: 1920년(추정)
- 규모·구조: 안채 8.5칸, 'ㄱ' 자형
- 가구짜임: 소로수장, 일고주 5량
- 지붕형태: 팔작·맞배(한식기와)

화성행궁에서 무예 24기를 공연하는 단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0년에 발행한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에는 김종기 가옥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종기는 경주 김씨로 2000년에 미추왕릉 제례 때 초헌관을 지낸 지역의 유지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예전에는 주변에 많은 한옥이 있었으나 모두 헐렸으며, 수원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99칸의 양성관 가옥도 부근에 있다가 1973년 용인의 민속촌으로 이전되었다.²

집은 동남향으로 화성사업소 건물과 인접하고 있다. 원래는 가옥 동남향으로 문간채와 대문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대문은 동북향이다. 가옥은 전체적으로 역곱은자 집이며 안마당에는 우물이 있고 예전에는 화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옥의 몸통은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건넌방이 있고 오른쪽에 안방이 있으며 날개채를 따라 다락과 부엌, 끝방으로 연결된다. 우물마루의 대청은 3칸 규모이며 건넌방에 반 칸의 뒷마루가 있다. 5량의 소로수장집으로 가옥의 전면은 겹처마이며 앞추녀가 있다. 반면 후면은

1 이상해, 『화성의 전통가옥』,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139~140쪽.

2 용인민속촌에 옮겨진 양성관 가옥은 원래 일제시기 친일파 이근택의 집으로, 지난 1973년 민속촌 건립 당시 수원 남창동에서 이전·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에 24기 가옥 평면도

홀처마로, 가옥의 전면은 알추녀를 이용해 추녀를 높이고 겹처마를 함으로써 집으로 들어오는 빛의 조절을 반영하였음을 보여 준다.

가옥 칸의 길이는 보칸과 도리칸이 차이를 보이는데, 보칸의 경우 평균 8자를 유지하나 도리칸은 평균 7자를 약간 넘는다. 기둥은 각주로 도리 아래까지 높이가 2,420mm, 굵기가 130mm이며 주련이 설치되어 있다. 전면의 서까래는 굵기 110mm에 내밀기는 640mm이며, 부연은 굵기 90mm에 내밀기는 380mm이다. 도리는 납도리이며 초석은 사각의 사다리꼴에 기단은 1,270mm를 내밀고 있다. 집의 창호는 대부분 미서기문이나 끝방의 경우 안쪽으로는 미서기가, 바깥쪽으로는 미닫이문으로 실내의 보온을 고려한 창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방에서 부엌으로 연결되어 대청을 향하는 샛문 아래로 머름이 장식되어 있다. 가옥의 내부 공간 중 건넌방과 전퇴의 좌측면으로 보조 다락인 수장공간이 있는데 중방위로 설치되어 있다.

비교적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안방과 대청의 후면으로 덧댄 옥실 공간이 있다.



가옥 전경



가옥 안채



가옥 측면



안채 알추녀



안채 처마



안채 가구 짜임



기둥의 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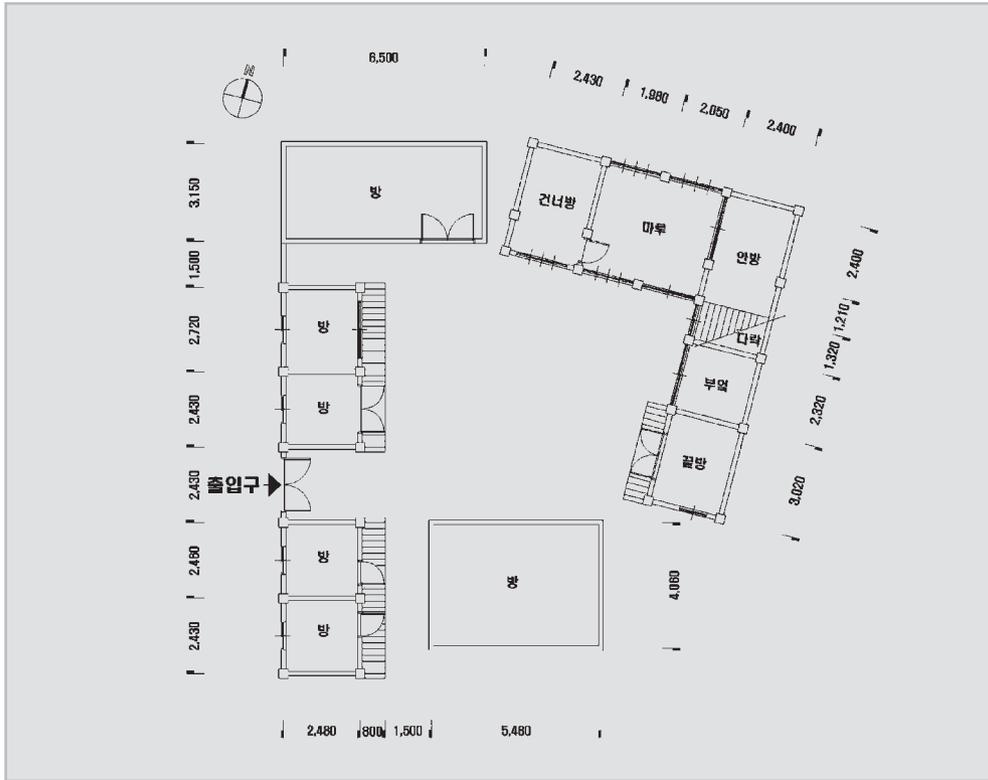


대청의 우물마루

2) 금보여인숙

- 소 재 지 :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복수동 236번지
- 건축시기 : 1920년대(추정)
- 규모 · 구조 : 안채 8.5칸, 문간채 5칸, ‘ㄱ’ 자형, 문간채 ‘ㄴ’ 자형
- 가구짜임 : 안채 일고주 5량 납도리, 문간채 3량
- 지붕형태 : 안채 팔작(시멘트기와), 문간채 맞배(시멘트기와)

금보여인숙은 현재 거주자인 이강자(59세)가 안채는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문간채는



금보여인숙 가옥 평면도

여인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강자에 따르면 1977년에 이사를 왔으며 당시 거주자는 군인 가족이었고 그때 집이 약 60년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사 올 당시에도 여인숙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햇수로 집은 100여 년이 되었고 여인숙으로 운영된 지는 35년 이상이 되었다. 가옥 구조는 안채의 경우 곱은자, 문간채는 일자이고 남향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집의 향(向)과 골목길의 지세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집의 구조와 쓰임 등으로 볼 때 처음에 안채를 지었고 문간채는 나중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곱은자로 몸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건넌방이 있고 좌측으로 안방이 있다. 안방은 다락과 이어지며 부엌과 끝방으로 연결되며 날개채를 이룬다. 대청은 전퇴가 있는 3칸이며, 날개채의 끝방은 작은 쪽마루가 연결되어 있다. 문간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에 각각 방이 두 개씩 있으며 방 앞으로 쪽마루가 놓여 있다. 이 외에 안채의 좌우로 나중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숙박공간이 있다.



가옥 전경



가옥 입구



가옥 입구



안채 전경



문간채 전경



안채 가구 짜임



문간채 가구 짜임

안채의 평균 간살은 보칸의 경우 8자를 유지하나 도리칸은 7자를 전·후로 변화가 나타난다. 안채의 기둥은 각주의 높이가 2,270mm이며 굵기가 120mm이다. 홀처마의 지붕 서까래는 내밀기가 750mm에 굵기가 90mm이며, 끝방의 쪽마루는 기단 위에서 높이가 290mm에 내밀기가 450mm이다. 3량의 우진각 지붕을 가진 문간채는 기둥의 높이가 2,250mm이며 굵기가 140mm이고, 서까래는 내밀기 640mm에 굵기가 90mm이다. 문간채 쪽마루는 기단위로 높이 320mm에 내밀기가 500mm이다.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마당에는 둥근 화단이 있고, 우물은 집 뒤에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우물을 앞마당으로 연결한 모터펌프를 설치하였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인데 1980년대 중반에 교체하였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집의 난방 연료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겨울에는 19공탄이 하루 평균 30장씩 사용되며 요즘 연탄은 화력이 약해 하루에 3번을 교체할 때도 있다고 한다. 금보여인숙은 수원에서도 잘 알려진 저렴한 여인숙으로 텔레비전에도 소개되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장기 이용자도 있다. 객실은 모두 12개로 성안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요 고객이며 1박은 1만 원이고, 장기 투숙일 경우 큰

방은 월 18만 원, 작은 방은 월 15만 원에 이용한다.

3) 윤영선 가옥

- 소재지: 팔달구 행궁로 26번길, 남창동 65번지
- 건축시기: 1900년대(추정)
- 규모·구조: 안채 24칸, ‘一’ 자형
- 가구짜임: 안채 5량 납도리
- 지붕형태: 우진각(시멘트기와)

윤영선 가옥은 화성사업소 옆 무예24기 사무실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일본식 가옥 형태를 지닌 주택으로 외관의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가옥의 내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현재 거주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신흥초등학교 교장 사택이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신흥초등학교가 189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므로 가옥은 100여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신흥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박태규가 살았다고도 한다. 건물의 구조는 겹집 구조로, 집의 동쪽으로 대문이 있고 남향을 취하고 있다. 집의 간살은 평균 1,820mm로 6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면 4칸에 정면이 6칸이다.

기둥은 각주의 높이가 도리 아래로 2,830mm이고 굵기가 110mm로 세장하며 서까래 내밀기는 420mm이다. 현재 거주자는 1980년대 중후반에 이사를 왔으며,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내부를 수리하여 변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기둥과 벽, 처마 등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애자로 전기선을 연결한 모습도 남아 있다. 대문에서 마당에 들어서며 잘 가꾸어진 넓은 마당이 있으며, 우측으로 목재를 이용한 창고가 있으나 지금은 차고로 쓰고 있으며, 문간채 역시 나중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집의 평면 구조에서 북쪽으로 돌출된 부분은 현재 화장실로 쓰고 있으나, 가옥의 조성 당시에는 집을 출입하는 현관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옥 전경



가옥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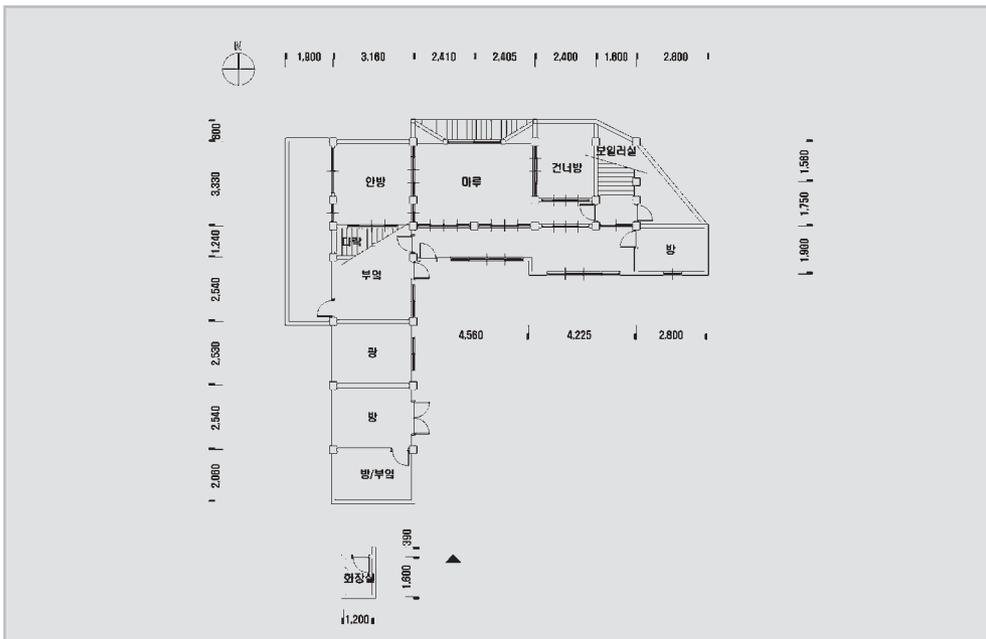
기둥과 도리, 처마

2. 1950~1960년대 주거양식

1) 이영자 가옥

- 소 재 지: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북수동 229번지
- 건축시기: 1963년(증언)
- 규모·구조: 1층 11.5칸, ‘┌’ 자형, 2층 7칸, ‘┐’ 자형
- 가구짜임: 몸채 5량, 날개채 3량
- 지붕형태: 우진각(시멘트기와)

이영자 가옥은 한식과 일식이 절충된 가옥으로 형태와 구조는 일본식 가옥이나 가구의 간잡이와 배치 간살은 한옥의 짜임을 적용한 집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한옥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시 1951년 1월 1·4후퇴를 겪으며 근처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집의 일부를 헐어 목재를 장작으로 사용하면서 집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때는 수원시 전체에 미군 폭격도 심하였고 장안문도 폭격으로 큰 훼손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새롭게 짓게 되었고 일본식 가옥을 모델로 지은 집이다.



이영자 가옥 평면도



가옥 전경



가옥 전면



가옥 배면



가옥 안채



안방의 다락 내부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이영자(82세)는 슬하에 1녀 3남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충기가 있고 귀가 밝은 분이다. 고향은 서울이었으나 오빠가 수원에서 포목상을 하였기 때문에 수원과 인연을 갖고 있던 중 1947년인 15세에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이후 수원여자중학교와 수원여고를 입학(1949년)하였고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1954년에 늦게 수원여고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원시청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나 혼례를 치렀다. 당시 남편은 시청 병사 계에 근무하였다. 이때 미국의 원조물자 중에는 미송 목재가 있었는데 집을 짓기 위한 재료도 무상으로 배급을 하였다. 목재는 굵은 것과 가는 것 두 종류가 있었으며, 이영자가 옥도 이때 무상으로 목재를 배급받아 집을 짓게 된 것이다.

집은 남향으로 2층이고, 몸체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이 있고 좌측에 건넌방과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계단으로 오르는 공간 아래 작은 창고가 있었으나 지금은 보일러실로 사용하며, 계단 왼쪽에 1980년대 이후 덧단 방이 있다. 날개채는 안방의 전면



2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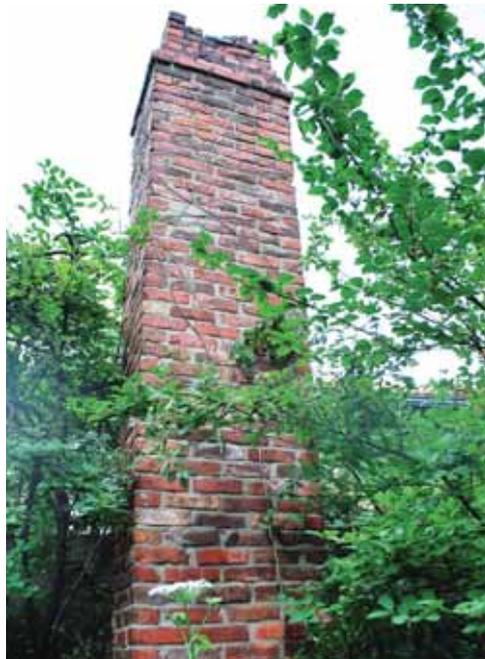
2층 가구 짜임



기둥과 보, 도리



기둥 초석과 동바리목



뒷마당 벽돌 굴뚝

으로 다락과 부엌, 방이, 끝에는 부엌이 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허드레공간으로 남아 있다. 집의 몸채 기둥은 2,280mm에 굵기는 110mm로 역시 세장한 느낌을 주며, 2층의 기둥은 높이 2,260mm에 굵기는 80~90mm로 1층에 비해 굵기가 더욱 감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밖에 몸채의 서까래는 내밀기 690mm에 굵기는 55mm이다. 간살은 보칸의 경우 8자를 기준으로 하며, 도리칸은 8자와 8자 반을 사용한다.

집은 전체적으로 예전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마당에는 돌로 쌓은 우물이 있

였으나 1973년 전후에 수도시설로 교체되었다. 또한 마당에는 1970년대 말까지도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가옥 내부의 시설은 부엌이 레일 아궁이로 부엌 바닥을 내려가야 했으나 1980년도에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취사연료로 LPG를 사용하면서 입식으로 교체하였다. 이때 집의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 전면이 증축되었고, 대청 우측의 가옥 끝으로 아이들 방도 새로 덧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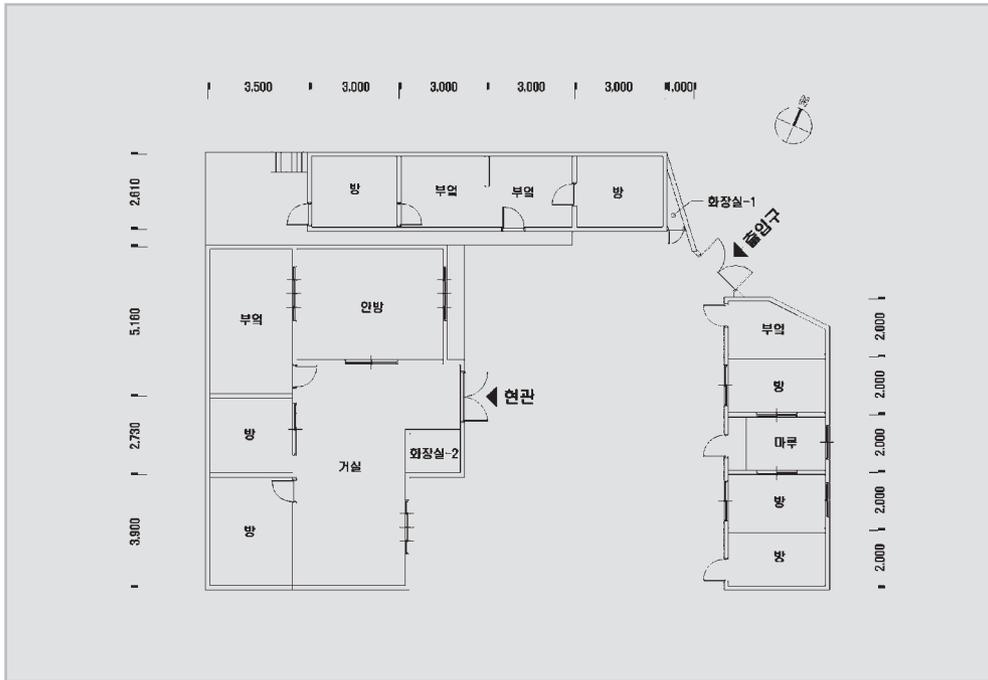
2) 김정집 가옥

- 소 재 지: 장안구 화서문로 82-6번길, 복수동 232-3번지
- 건축시기: 1967년(상량)
- 규모·구조: 제1전시실 20여 평, 2전시실 10여 평, 북마켓 및 아트숍 10여 평 각 ‘-’ 자형
- 가구짜임: 제1전시실 콘크리트벽 평보대공받침, 2전시실 목구조 평보대공받침, 북마켓 및 아트숍 콘크리트 슬래브
- 지붕형태: 제1전시실 우진각(시멘트기와), 2전시실 맞배(시멘트기와), 북마켓 및 아트숍(슬래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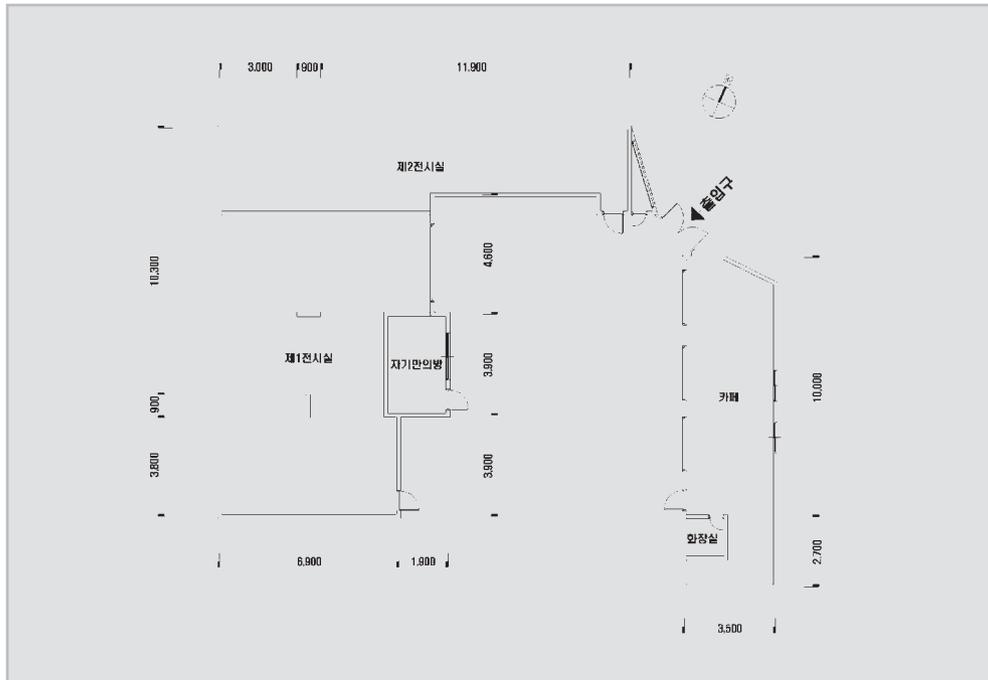
김정집 가옥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형 단독주택의 증가로 생긴 주택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며, 안채에는 “구 서기천구백육십칠년정미구월초이일임인우시기미생입주상량비인간지오복응천상지삼광 용(龜 西紀千九百六十七年丁未九月初二日壬寅牛時己未生立柱上樑備人間之五福 應千上之三光 龍)”이란 상량이 있어 1967년에 지은 집임을 알 수 있다. 집은 안채보다 문간채가 조금 일찍 만들어졌는데, 이는 안채를 완성하는 동안 문간채를 임시거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집의 구조는 안채의 경우 콘크리트 벽에 평보를 올리고 대공받침을 한 목조지붕이며, 문간채는 목구조에 벽은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은 평보에 대공을 받친 구조이다. 집의 향은 남서향으로 대지 90여 평에 1전시실과 제2전시실, 작은 윈도우 전시실과 북마켓을 겸한 아트숍 겸 카페, 소그룹 회의공간 등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30여 평의 야외마당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안채는 원래 살림집에서 개조되어, 내부에는 예전의 벽채와 지붕 구조가 남아 있고 계속된 수리로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수원 지역의 자생적 예술공간으로 유명한 ‘대안공간 눈’은 지역의 작가에게 문화와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김정집(갤러리 관장), 이운숙(대안공간 눈 대표) 부부가 40여 년 넘은 주거용 살림집을 개조하여 만든 갤러리이다. 이러한 ‘대안공간 눈’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의 순수 창작활동을 하는 젊은 실험 작가의 발굴과 전시공간 제공, 주민과 관광객을 연계한 “문화공간의 확대와 활용 콘텐츠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



예술공간으로 개조한 김정집 가옥 초기 평면도(추정)



예술공간으로 개조한 김정집 가옥 평면도



입구 골목 풍경



입구 풍경

문화 발전에 모범적 사례이며,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7월 28일 방문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다. 아트숍에서는 김정집 대표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저녁에 진행되는 작은 축제 준비 등으로 분주하였고, 작은 카페에도 관람객과 연인들이 들고나고 했다.

김정집(1956년생) 관장은 수원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입구에서 본 갤러리 미당 풍경



갤러리 제1전시실 전경



제1전시실 내부



제1전시실 천장



제1전시실 가구 짜임



제1전시실에서 바라본 아트숍



아트숍 전경



아트숍 내부

이윤숙(1960년생) 대표는 수원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조각을 전공하였다. 김정집 관장은 어렸을 때 화실에 다니던 친구 13명을 뜻하는 '13화실' 이란 이름의 화실을 운영하였다가 1988년 결혼 후 조각미술학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1999년 이후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작품활동에 몰두하였다. 이때 부부는 틈이 나는 대로 외국여행을 하며 자생적 대안공간에서의 예술 활동과 생활 속의 문화공간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래 살림집이던 곳을 '내건너 창작마을' 이라 하여 2007년부터 작가들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정집 관장에 따르면 원래 이 집은 아버지인 김철함(1919년생, 1977년 작고)이 지은 집이라 한다. 부친은 함경남도 안변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중퇴하였으며, 모친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이북에서 혼례를 치르고 월남하였다. 부친은 토목기사로 직장생활도 하였으나 수원의 중동사거리 부근에서 '수일사' 라는 수도설비 가게를 운영하였다. 당시는 건설 경기가 좋아 수도설비를 하면서 토목공사도 함께 하였는데 광고저수지를 증보할 때는 돈 대신 전표를 받아 이것을 가지고 싸전에 가져가서 쌀을 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식구들이 영화동에 살다가 복수동으로 이사하였으며, 당시 복수동 집은 현재 갤러리 바로 맞은편이었다. 이후 복수동의 초가집을 팔고 바로 그 앞의 밭, 즉 현재 갤러리가 있는 이곳을 매입하여 집을 지었다. 이때가 1967년으로 김정집 관장이 12살 무렵이다. 갤러리로 쓰고 있는 본채를 짓기 전에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임시가옥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카페, 아트숍 및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였다. 부친은 건축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광고 저수지를 증보할 때 그곳에서 일하면서 현장의 폐자재를 이용하고, 주요 자재는 구입하여 집을 지었다. 집을 지을 때 골재는 이곳 주변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는데, 수원천변이었기 때문에 주변 일대가 범람하면서 이곳에 자갈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집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99개의 문이 달려 있었다. 그때는 주변 경관도 시원하고 지금과는 환경이 달라 마당의 창문을 열면 집에 병풍이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대문을 만들 때 대문 지붕을 설계하면서 대문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정집 관장은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 이란 표현을 쓴다.

1967년 그해 9월 초이틀에 안채를 상량하고 그해인지 그다음 해인지 입주를 하였고, 지금의 카페에는 세입자가 들어왔다. 집을 짓고 나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남쪽의 끝방은 나중에 들인 것이지만 이곳에 '도둑문' 이 있었다. 1970년대에 이 문으로 도둑이 자주 들어서 가족들과 세입자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본채가 완공된 후에는 임시가옥으로 사용하던 지금의 카페와 안채 사이에 담을 쌓았고 담의 가운데에는 본채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리고 임시가옥의 남쪽에 별도의 독립적인 문을 내어서 임시가옥 세입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담은 1977년에 헐었으며 이때는 수원에 여공이라든가 세입자가 많아 안채의 우측인 연못 쪽에도 부엌 딸린 방이 있었고 좌측의 창고자리에도 방 하나 부엌 하나 달린 구조로 두 가구가 살았다.

당시 연못 쪽의 방과 창고자리 방에는 한일합섬과 삼성전자에 다니는 여공과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방을 많이 들인 것은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별이가 없는 상황에서 방을 내어 집세를 받아 생활비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많을 때는 최대 7가구가 살았고, 카페 자리는 20여 년 동안 한 가구가 계속해서 살았다. 그러나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부친이 집을 짓고 나서 생활이 넉넉해지면 담을 터서 정원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정원계획은 무산되고 세를 주어 살게 했다.

현재 갤러리 출입구의 윈도우숍 자리는 공동변소로, 세입자들은 모두 이곳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채 안마당에는 담 옆으로 화단을 배치했고 남쪽 담 옆으로 연못이 있었는데, 이때의 집들은 정원에 아주 작은 연못을 꾸몄는데, 이웃의 이영자 맥도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여러 세입자가 살았으나 집이 물가여서 그런지 물 부족은 없었으며, 갤러리 안마

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두레박에서 펌프를 사용하다 1980년대쯤인지 수도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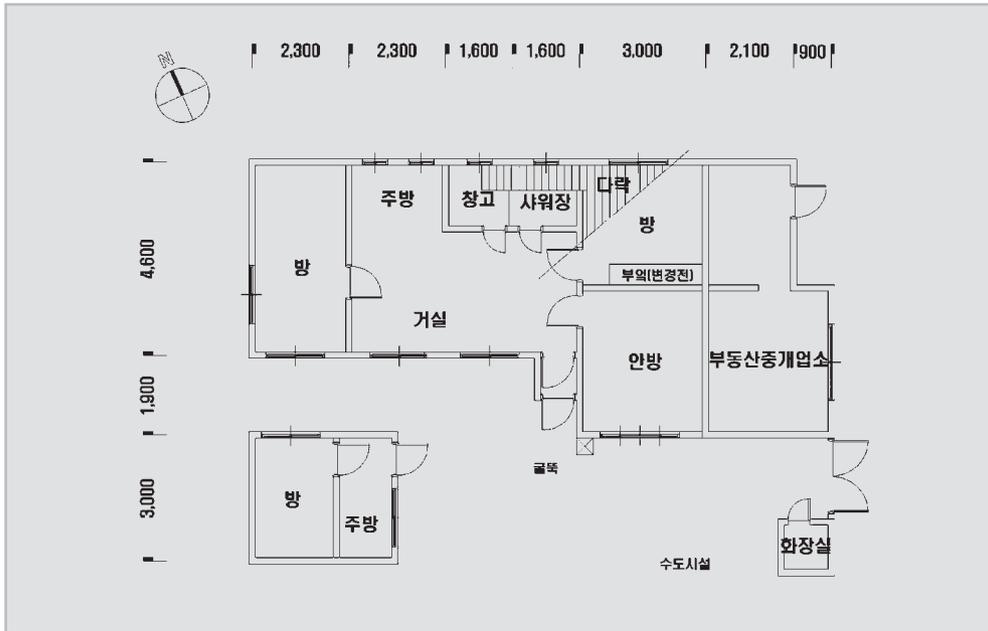
가족의 목욕은 안채의 창고 쪽으로 목욕탕을 설치하였고 시멘트로 욕탕을 만들었다. 아궁이에서 욕조로 연결되는 통로에 철판을 깔아 그 밑에 불을 가열하면 따뜻한 물이 욕조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집의 개축은 1988년 결혼 직후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져 안채 출입구에 현대식 화장실과 목욕탕을 확장 신축하였고 그 옆으로 출입문을 이동하였으며 부엌도 입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1년 큰아이가 태어난 후 안채의 부분적인 수리가 있었다.

김정집 관장은 2000년에 세를 주고 화성시 봉담 쪽에 나가 살다가 2003년에 갤러리를 하기 위해 이곳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 이때까지 모두 3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곳보다 싼 곳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년간 기다리다가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해 2005년 4월 오픈을 하였다. 갤러리를 만들 때 김동훈(주)진우건축 대표가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2005년에 ‘갤러리 아트넷’을 등록했으며, 2010년에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카페와 아트숍이 오픈되었고, 2012년부터 갤러리 안마당을 이용하여 오점균 영화감독 및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골목에서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집 관장은 작가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작가들의 공동체로 이 집을 이용하고자 했고 관의 지원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곳은 5년 전까지 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으나 비영리임의단체로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에는 4,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사업 중 운영비는 10%를 쓰고 연중 2회의 기획전을 연다. 부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크게 지출하는 것은 없으나 운영비의 경우 연간 평균 약 3,000만 원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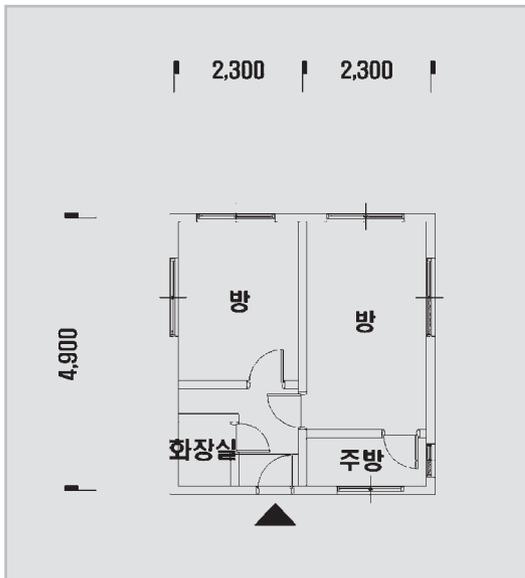
3. 1970년대 주거양식 _ 정옥선 가옥

- 소 재 지 : 장안구 매향동 창룡대로 73번길, 매향동 121-127번지
- 건축시기 : 1970년 초 건축(중언)
- 규모 · 구조 : 초기 규모 17평, 부속 공간 약 8평(2층 시설 제외)
- 구조 · 지붕 : 벽돌조 슬래브

정옥선 가옥은 1970년대(1972~1973년경) 초 건축업자가 지은 도시형 단독주택으로, 비



정옥선 가옥 평면도



셋방 평면도

슷한 시기 매향동은 주변에 소위 ‘동아 주택’이라 부르는 2층 구조의 가구가 분리되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어졌다. 붉은 벽돌조의 단층 슬래브집인 정옥선 가옥은 17평 규모로, 안채와 함께 대문 옆으로 정옥선이 운영하는 송은부동산 중계사무소가 있고 내부에는 안쪽으로 별도의 방이 하나 있다. 집은 남서향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건넌방이 있고 좌측으로 안방과 부엌, 다락이 있다.

이 집은 1977년에 정옥선이 들어와 살면서 세를 들여 안채는 두 가구로 나누어서 거주하였다. 세입자는 지금의

건넌방과 부엌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당시에는 보편적인 거주



가옥 입구 전면



가옥 전경



주택 전면 창호



마당과 옥상



대문 안



현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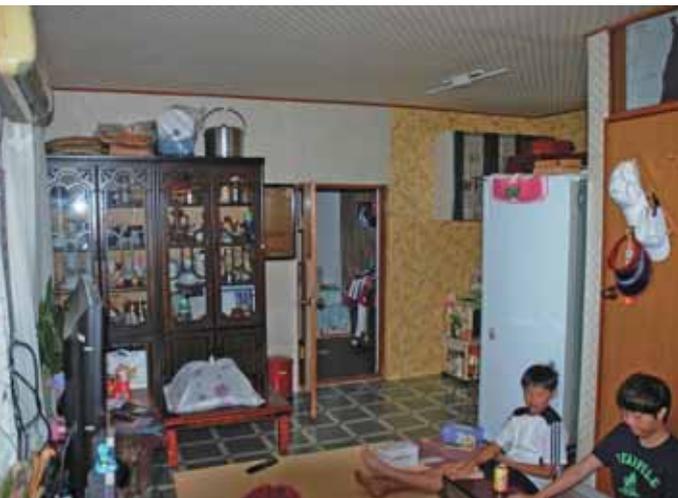
형태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세입자는 약 6.4평의 공간을 사용하였고 세입자는 방 2개와 부엌, 작은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반면 집 주인의 사용 면적은 10.6평으로 방 2개와 창고, 욕실, 부엌을 갖추었고, 낮은 부엌 위로 다락이 있었다. 이후 2000년에 세입자가 나가고 집을 하나로 합쳤다. 추가 시설은 1986년경에 2층을 올릴 때 10평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여 9평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세를 주었는데, 이때는 방 하나

라도 더 내어서 생활에 보태고자 하였다. 또한 부동산 사무실은 1985년경 집 본채 건물 벽에 덧대어 방을 들인 것으로 당시 방 하나, 부엌 하나로 만들어서 세를 주었다. 집의 연료는 석유보일러를 사용하였다. 현재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만 석유를 사용하고 취시는 LPG를 쓴다.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그때 도시가스로 할 생각이며 겨울에는 아들도 출근하고 정옥선 역시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

정옥선(1948년생)은 강화 출신으로, 화성 송산 출신인 남편 김종근(1940년생)이 경기도 청에서 중기사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강화도에 출장 시 만나 1970년 초에 결혼하게 되었으나 1988년 병환으로 사별하였다. 슬하에 1녀(1973년) 2남(1975년, 1979년)을 두고 있으며, 큰딸과 막내아들은 혼인하였고 현재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큰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검소하고 집안의 대소사에는 기꺼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성실한 만형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집을 와서 남수동 포교당 뒤편에 있는 큰아주버니 댁에 살았는데, 시댁 역시 당시 화성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큰아주버니 부부와 조카 4명,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973~1974년경 큰아주버니의 도움으로 연무대 활터 밑에 전세로 세간을 나 왔는데, 지금의 연무대 주차장 바로 밑이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신랑이 활터 위 공심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집이 있는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너무 보기 좋아 “이때가 정말 행복하였다.”고 한다. 1973~1974년에는 석유과동 때라 힘든 시기로 세간을 났으나 생활도 어려웠다. 그래도 나를 깔끔한 현대식의 집에 식구들이 무탈하여 그런 대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집주인은 매송다리 주변에서 장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안마당에서 놀던 딸이 집주인 아들과 싸움을 해 때리거나 하는 일이 종종 생겼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매우 난처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집을 구해 독립해서 살았으면 했다. 1975년 큰아들이 태어났다. 삼일학교 옆 충훈답이 있는 곳에 가서 수출품 뜨개질을 부업으로 하였으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추워지니 그것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랑이 벌어들인 돈을 아껴 쓰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1977년 현재의 집을 샀다. 이사는 정옥선이 직접 부동산을 다니며 알아보다가 현재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는 400만 원을 제안했으나 10만 원을 깎아 390만 원에 계약하고 매입하였다. 이때 신랑이 정옥선보다 더욱 기뻐해 “이렇게 집 살 돈이 되는 줄 몰랐는데 사게 되다니.”라며 무척 고마워하였다. 정옥선은 그때는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지만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아끼면서 재산을 늘리고 살았으며 “지금 생각하면 당시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나도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사 온 시기 매향동의 주변 환경을 보면 집 앞으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앞길이 지



부엌을 겸한 실내(예전 셋방 공간)



실내 모습

금의 매향교에서 창룡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1970년대까지도 이 도로는 비포장도로였으며 도로변에는 집들과 함께 쌀집 등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지대가 낮아 비가 오면 질퍽하게 발이 빠졌고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도로 화장실물이 넘쳐흘렀으나 점차 도로도 확장되고 하수관도 정비되면서 주변 환경이 안정되어 갔다.

내 집을 마련하였지만 집을 사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바로 세를 들었다. 정옥선 가족은 거실과 방에서 식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다른 공간은 세를 주었다. 이사 온 뒤라 심적으로는 편안하였고, 1979년에는 막내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고,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의 병환으로 집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수원시청에 다니던 남편 친구가 부동산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다. 당시 남편은 힘들다고 하였으나 정옥선이 설득하여 1984년 허가를 내었다. 1987년부터 현재 매향동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고 1988년 10여 년 동안 앓던 남편과 사별한 후 정옥선 이름으로 갱신하였다. 사업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꾸준하게 유지되었으며 가족들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1999년경에 한 지붕 두 가족을 유지하던 세입자가 나가고 2000년에는 집을 수선하여 아들들에게 방 하나씩을 주었으며 본인은 딸과 함께 사용하였다.

정옥선은 부동산업과 관련해 주변의 이웃에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구멍가게도 혼자서는 어렵고 식당을 다닐래도 아이들을 끼고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부동산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웃 덕분에 이 동네에서 ‘물건’ 이 나오고 하니 먹고 살았다. 이 동네가 너무

고맙다. 떠나고 싶지 않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세 아이를 모두 잘 키웠다. 아이들 공납금 낼 때가 되면 돈도 부족하고, 이럴 때면 이웃에서 빌리기도 하였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돈이야 없을 수도 있고, 빌리기도 하겠지만 인생의 오점은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결혼 전에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 2008년 이후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송은부동산’은 동네 ‘마실방’이며 이웃과의 소통의 공간이다. 손님은 없어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보러 갈 때 부탁하곤 한다. 덕분에 직접 장에 가는 일이 적은 편이다. 정옥선은 집을 이 자리에 재건축해서 짓는다면 “사랑방”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오가다 들리는 곳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뜸하다. 어쩌다 수입이 많을 때는 400만~500만 원도 하고 없으면, 몇 십만 원 정도인데 요즘이 그렇다.

정옥선은 1988년 남편과 사별 후 2~3년 뒤부터 남향동 새마을문고 건립을 위해 노력했고 새마을문고 회장도 지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으며 사무실도 없어 노인정 한켠에 자리를 만들어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아주택이 있는 남향동 마을통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행궁동 18통 통장을 맡고 있다. 마을의 시급한 문제인 매향동 개발에 대한 일괄 보상 문제에 주민의 마음은 들떠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도 감내하였는데, 한국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본인은 물론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 하였다. 그러나 세상 탓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신축해도 좋은데 이곳은 고도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높이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이곳에 살면서 남편 사별 후 “내 힘으로 아이들 학교 마치면 좋겠고, 사춘기에 아이들 바르게 크기를 바랐다.”며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였다. 앞으로의 바람은 “그냥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어느 선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란다며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녀들이 잘살아 주어 기쁘다.”라고 하였다.



부동산 공인중개소 내부

4. 성 안 주거양식의 변화

성 안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의 내부로, 1960~1970년대 정치와 경제·행정의 중심공간을 지칭하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 안에 간다.” 또는 “문 안(門)에 들어 간다.”로 사용되듯이 담 안(牆內)의 의미는 담장 밖과 구분되는 공간적 특별함을 간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화성 안의 주거양식 변화는 이러한 면에서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간적으로는 21세기이나 공간적으로는 아직도 도시화의 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이 있어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진정성도 필요하며 더불어 구도심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어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6채의 주거양식을 통해 성 안의 주거양식 변화를 읽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된 특성과 성 안의 주거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는 전통적 주거양식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궁을 중심으로 남쪽은 공간적으로 지역의 유지와 부농이 살던 곳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이 197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거주와 함께 일본식 주택도 조성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한옥과 혼재된 양상으로 남아 있음이 발견된다.

1960년대에는 재래식 한옥이 주를 이루었으나 화성 안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민의 증가로 주택의 수요가 필요하였고 이때의 주택양식은 재래식 한옥과 절충되거나 정부의 보급형 공영주택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 부족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며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은 미약한 대신 개인 주택업자에 의한 주택 보급은 활발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사례가 매향동의 정옥선 가옥이며, 주변의 동아주택으로 부르는 2층의 슬래브 주택 또한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양식의 분기점은 196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표준형 공영주택 보급과 함께 개량된 연탄 아궁이의 확대, 연탄보일러, 입식화된 부엌, 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며, 이는 화성 안의 주거 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때의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남향의 집을 선호하고 마당이 있으며 마당에는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단과 함께 간이창고 및 야외 화장실이 있다. 가옥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마루를 중심으로 하는 겹집 형태로서 남쪽으로 문간방과 마루, 안방이 있고 북쪽으로 화장실과 부엌, 부엌방이 연결되는 평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부 구조에서 특히 부엌과 화장실은 당시의 시대 변화상을 가장 잘 보여 준다.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른 시설 변화는 당시 건축 내부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엌과 관련한 시설물, 구체적으로는 상하수도의 보급과 취사와 연료 문제, 화장실의 실내화에 따른 내부 환경의 변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화성 안의 도시화와 주거양식의 변화는 화성이라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더불어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함께 조화되는 도시의 개발과 주민의 이해관계, 문화유산의 보존에 따른 규제로 파생되는 인근 지역의 쇠퇴화 등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대화와 고민을 통하여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 찾아보기 |

- 7 가로체계 62, 67
- 가모(加茂)약점 127
- 가사면 113
- 가야마(香山)상점 127
- 가토상회(加藤商會) 199
- 각건대 79, 80, 81, 83
- 간선도로망 44, 45, 46, 51
- 간자키(神崎)상점 127
- 감리교회 155
- 감은사 26
- 감은사지 3층석탑 26
- 강무당 80, 98
- 개발제한구역 235, 282
- 개신교 185, 186
- 개항 106
- 개항장 106
- 객사 54
- 건축 158, 171, 178, 183
- 「건축법」 243, 264
- 건축수법 162
- 건축연혁 29, 30
- 『경국대전』 75
- 경기관찰부소학교 188
- 경기대 242
- 경기도 314
- 경기도관찰부 159, 169
- 경기도립수원의원 171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304
- 경기도청 111, 232, 279, 280, 294, 299, 300, 317
- 경기재판소 158, 164
- 경동철도 143
- 경동철도주식회사 144, 147, 148
- 경래대로 65
- 경통관 79, 80, 81, 83, 169
- 경복궁 19, 20, 22, 23, 46
- 경부고속도로 232, 234, 279
- 경부선 106, 113, 116, 125, 137, 143, 183, 191, 277
- 경부선 전철화계획 237
- 경부선 철도 293
- 경부철도 113, 114, 143, 148, 157
- 경성우편국 수원출장소 162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64
-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 164
- 경수산업도로 237, 248, 280
- 경수자동차주식회사 147
- 경찰서 130, 188
- 경희궁 24
- 계획도시 275
- 고농사건 175
- 고등농림학교 133
- 고등동 242, 281
- 고등동 시외버스터미널 242
- 고등리 141
- 고등말 59, 97
- 고덕양식 184
- 고색공업단지 257
- 고색동 256, 257, 267, 293
- 고색동 게임산업단지개발 253
- 고전문화도시 250
- 고지피 33
- 고화지구 234
- 고화지구 택지조성공사 283
- 고화토지구획정리사업 242
- 곡물도매상회 124
- 곡반정동 261, 294
- 곡반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61
- 곡선동 290
- 근도(近藤) 130
- 근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116, 130, 160
- 근도(近藤)상점인쇄소 127
- 공공건축 300
- 공공건축물 303
- 공공체육시설 312
- 공공행정시설 158
- 공군비행장 299, 303
- 공무원 연금주택 248
- 공석면 57
- 공설운동장 312
- 공업도시 139, 141
- 공업지역 232
- 공영개발방식 235
- 공원 232
- 공작아파트 294
- 공장도시 143
- 공촌부곡 31
- 꽃산 34, 35
- 과천 41
- 과천로 72

관개시설 59, 97
 관곽전 69
 관광고수원 157
 관광도시 133, 137
 관길야 59
 관도 62
 관립여자잠업강습소 131
 관엽 147
 광고동 292
 광고산 96, 108, 276, 277, 280, 292, 293
 광고산맥 108
 광고생활권 286, 292
 광고신도시 271
 광고신도시 택지개발계획 310
 광고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84, 292
 광고저수지 277, 293
 광고택지개발사업 270
 광덕면 113
 광역도시계획 252
 광장 232
 광주군 113
 광주부 43
 광주산성 70, 73
 광주 이씨 293
 광화문 46
 교동 125, 155, 191, 281
 교사 212
 교육연구도시 250
 교통영향평가 243
 구도심지역 289
 구쓰나(忽那)상회 127
 구운동 택지개발 294
 구읍치 53
 구천 58, 91, 92, 99
 구천동 191, 281
 구천정 141
 구포 57, 70
 국가기록원 198, 223
 국도 1호선 248

국도풍수 27
 국립보훈원 303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97
 국무(國武)합명회사 120
 국무농장 120, 124
 국민주택 249
 국제극장 30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64
 「국토기본법」 264
 「국토이용관리법」 2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6
 국토종합개발계획 251
 국토종합계획 265
 궁궐 16, 17, 18, 19
 궁정 141
 권동 70
 권선구 256, 260, 282, 293
 권선구 행정타운 271
 권선동 253, 254, 260, 287
 권선리 141, 253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253
 권선3택지개발사업 260
 권선2지구택지개발구역 254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253, 254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284
 권선터미널 253, 254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42
 권업보험장 107, 110, 116, 118, 120, 122, 123, 131, 133, 141, 157, 172, 173, 174, 176, 178, 189, 191, 193
 권위 19
 권위 건축물 16, 18
 권위 공간 48
 권위적 상징경관 47, 48
 권태동 171
 귀래리 31
 근대 건축 153, 154, 188
 근대 건축물 193
 근대 건축활동 155, 157, 191

근대 공공기관 158
 근대 교육기관 178
 근대 교육시설 178
 근대 농업기관 171
 근대 농업도시 154, 193
 근대 농업시설 176, 193
 근대 농업시설물 189
 근대 농학 196
 근대도시 106, 154, 158, 188, 193
 근대 식민도시 103, 107
 근대 종교시설물 183
 금강 234, 256
 금강스레트 235
 금곡동 294
 금곡리 254
 금낭경 25
 금보여인숙 321, 324
 기독교 185
 기숙사 219
 기시구미(岸組) 200
 기쿠 노야(喜久野屋)상점 127
 기쿠가와 세지(菊川靜治) 200
 기타무라(喜多村)양복점 127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 122
 기타자와(北澤) 116, 122
 기흥면 229
 기흥읍 250, 255, 276
 기흥저수지 235
 김동현 186
 김동훈 337
 김병호 124
 김운성 155
 김정수 299, 300
 김정집 331, 333
 김정집 가옥 331
 김종근 341
 김종기 가옥 318
 김중업 299
 김철함 335
 김철 30

김희춘 299, 300, 304
꽃피 33, 34, 35, 37, 38, 39

L 나라(奈良) 106
나상진 299
낙남현 51, 79, 130, 161, 171, 188
낙성연 58, 60
남군영 180, 188
남리 60, 72
남문 124
남부 72, 160
남부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 142
남부정 141
남북관도 65, 72
남북대로 46, 51
남산 16, 39
남선지장 141
남성자네 60
남수동 141, 191, 281
남수문 65, 91
남수정 141
남양군 113
남양부 41
남은구 91, 92
남 제 99, 110
남제장류 81
남창 92
남창동 281
남창정 141
남답산 108
남한산성 43, 51
내건너 창작마을 335
내국통운(內國通運)주식회사 취
인점(取引店) 127
내륙공업 232
노고산 57
노나카(野中)상점 127
노래당 51, 79, 80, 81
노르베르트 베버 202
노리마츠 마사야스 103

노림마을 294
노미조 텐이치로(野溝傳一郎) 177
노블 182, 187
녹지지역 232
녹지체계 73, 78, 84
농립전문학교 209
농립학교 118
농사시험장 141, 174
농수산물도매시장 253, 315
농업교원양성소 196
농업교육시설 175, 178
농업시설 157
농업연구도시 250
농업이민사업 123
농업정책기구 110
농촌도시 143
농촌진흥청 172, 242, 293
농촌진흥청 교육관 299
농촌진흥청 도서관 299
농촌진흥청 본관 299, 300
니시아마상점(西山商店) 200

C 다가와 쓰네이치로(田川常一郎)
145
다니구치(谷口)소간물점(小間物
店) 127
다다공무점(多田工務店) 199
다이텐(大典)기념사업 130
다카기(高木)상점 127
다케시타(竹下)상점 127
대생활권 272
대성(大成)직물공장 142
대안공간 눈 331
대유둔 59, 96, 98, 99
대유산업 249
대유평 59, 98, 114
『대전통편』 74, 75
대천 59
대한농상공학교 195
대한주택공사 262

대황교 108, 114, 277
덕수궁 24
테라사와(寺澤)상회 127
도단련사 30
도량 88, 90, 91, 92
도로 232
도시개발 229, 234, 242, 251,
264, 283
도시경관 77, 125, 157, 275, 276
도시계획 139, 148, 229, 232,
234, 242, 251, 252, 264
도시계획구역 229, 280, 282
『도시계획법』 234, 242, 251, 264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251
『도시계획법 시행령』 25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43
도시기본계획 243, 252
도시기본계획구역 2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6
도시발전종합대책 252
도시설계제도 243
도시재개발사업 251
도시재생 26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66
도시풍경 158
도시화 318
도심 286
도이(土肥)자동차부 127
독산성 56
독성산성 32, 33, 38
독일식비늘불임 159, 162
돈의문 19
『동국여지』 39
동대문 19
동리 141
동북공심돈 243
동북노대 243
동산농사주식회사 120, 177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122
동산농장 120, 124

동서대로 51
 동성자내 60
 동수원 277, 286
 동수원 개발 280, 284
 동수원권역 306
 동수원지구 283
 동아직물공장 142
 동양척식주식회사 123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120
 동은구 95
 동장대 72, 73, 80, 81, 83, 243
 동지 92, 95
 동척농장 120, 124
 동탄면 140
 동헌 24, 39, 51, 54
 동화의원 171
 동흥(同興)직물 수원공장 142
 둔전 98
 득중정 51
 뚝섬 174

ㄹ 로마네스크 177

ㄱ 마도면 140
 마루미즈(丸水)운송조(運送組) 127
 만년제 110
 만년지 59
 만석거 59, 78, 82, 84, 97, 99, 110
 만월대 27
 망포동 242, 253, 263
 망포지구 307
 매향 288
 매향동 155, 241, 281
 매산동 191
 매산로 125, 278, 279, 290
 매산로3가 281

매산로2가 281
 매산로1가 259, 281
 매산정 141
 매송면 140, 254
 매일학교 181
 매탄동 241, 242, 249, 253, 255, 256, 262, 290, 306
 매탄동 공업지역 234
 매탄4지구택지개발 253
 매탄4택지개발사업 262
 매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49
 매향교 46, 50, 288
 매향동 59, 182, 243, 281, 338
 매향정 141
 매흘군 30, 31, 37, 108
 명당 23
 「모삼절목」 60
 목기계열직공장 141, 142
 목포전 69
 목포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267
 무라카미구미(村上組) 127
 무사시노(武藏野) 127
 문수봉 19, 20, 22
 물류 중심지 294
 미곡전 69
 미국감리교회 185
 미덕빌라 294
 미야자키(宮崎)재목점 127
 미키합자회사(三木合資會社) 199
 민속촌 235, 318
 민자역사 258
 밀레니엄길 290

ㅂ 박다옥(博多屋) 127

박선태 124
 박세양 160
 박일룡 124
 박태규 325

만월도시계획구역 254, 282
 만월면 140
 발전기 168
 발점산 39
 방화 80, 83
 방화수류정 133
 백양사(白洋舍) 127
 법원 303
 법정동 282
 범홍왕 25
 보습곳이 60
 보시동 141, 181
 복내당 171
 본관 212
 본정 141
 봉담면 140
 봉담읍 31
 봉수당 48, 50, 51, 79, 130, 169, 171, 188
 부국원 122, 127, 176, 177
 부도심 286
 부사정(富士亭) 127
 북감리교회 181
 북군영 188
 북둔 59, 96
 북리 60, 72
 북방면 113
 북부 72, 160
 북부면 122
 북성자내 60
 북수동 281
 북수동성당 184, 187
 북수리 183
 북수리공소 183
 북수원생활권 286, 292, 293
 북수원지역 256
 북수정 141
 북악산 16, 19, 20, 22
 북은구 92
 북지 92
 북지상련 82

분당선 290
 분촌향 31
 비봉면 140
 비장청 169
 비행장 247



사가현(佐賀縣) 120
 사누키(讃岐)상회 127
 사도세자 33
 사사 게이이치(笹慶一) 200
 사사기 건축회사 176
 사설철도 144
 사직단 54
 사진엽서 133, 134
 사카테(坂手)상회 127
 산루리 122, 166, 177
 『산림경제』 75
 산림녹지 232
 산송 29
 산업시설 310
 산와전기토목주식회사(三和電氣
 土木株式會社) 200
 산요(山陽)여관 127
 삼부토건 175
 삼성디지털시티 290
 삼성전자 232, 234, 242, 256,
 262, 290, 306, 314, 336
 삼우건축설계사무소 314
 삼일학교 181
 삼일학당 182, 186
 상권 191
 상남지 92
 상동지 92, 96
 상량문 56, 78, 79, 80, 81, 83, 84, 98
 상류천 114
 상신상회 124
 상업지역 232
 상전 69
 상점가 55
 상지 92

상징경관 18, 19, 20, 22, 39, 41,
 47, 48, 50, 51
 상현동 270
 새마을연수원 238
 새마을연수원 교수아파트 238
 새마을운동 238
 새 읍치 13, 40, 41, 42, 45, 46,
 47, 48, 51
 생산녹지 232
 생산녹지지역 241
 서대문 19
 서둔 59, 99
 서둔동 172, 192, 242, 257, 281,
 294
 서둔리 131, 141, 201
 서봉산(棲鳳山) 105
 서성자내 60
 서수원 269, 277, 286
 서수원권 257, 267, 273
 서수원생활권 286, 293
 서수원터미널 294
 서신리면 113
 서신면 140
 서울 28
 서울대 농대 29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303
 서원보 186
 서장대 80, 81
 서호 110, 133, 277, 303
 서호천 277, 279
 선경직물 142, 235, 256, 310
 선경합섬 232, 234, 235, 293
 선경화학 234
 성공회교회 130
 성곶면 113
 성곽도시 56, 70, 275, 279
 성곽시설물 78, 81, 82
 성균관대 242
 성균관대전철역 257
 성산 35
 성산성 37

성신사 79, 128
 성외시장 159
 성읍 59
 성전(成田)직물공장 142
 성호면 140
 세계문화유산 47
 세나다(セナタ)자전거상회 127
 세류동 235, 247, 281, 287
 세리 141
 『세종실록지리지』 31
 세키노 다다시 133
 소에지마(副島)상점 127
 소화강습회 184
 소화직물공장 142
 소화직물공장 제3공장 142
 소화직물공장 제2공장 142
 송금정책 74
 송도유원지 148
 송목금별지법 74
 송목양성병선수호조례 74
 송산면 140
 송은부동산 343
 송죽동 40, 241
 수경시설물 82
 수구 91
 수도권 전철 280
 수도권정비계획 251, 265
 「수도권정비계획법」 243
 수도권정비기본계획 243
 수도권정비위원회 267
 수레길 57
 수로 62
 수류정 80, 83
 수리시설 91, 154
 수리시설물 82
 수리체계 87, 88, 96
 수목 79, 80, 81, 83, 87
 수북면 113
 수성고등학교 293
 수성군 30, 31, 32, 33, 37, 108
 수에히로(末廣) 127

- 수여선 107, 139, 143, 144, 145, 147, 148
- 수룡수리조합 124
- 수원거류민립소학교 120, 121
- 수원고등농림학교 131,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8, 209, 212, 219, 222, 223
- 수원곡물협회 124
- 수원공립농업학교 131, 175, 176, 180, 192
- 수원공립보통학교 180
-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121
- 수원공설운동장 307, 313
- 수원구재관소 164
- 수원군 111, 120, 125, 140, 159, 161, 280
- 수원군공립소학교 179
- 수원군 관할구역 113
- 수원군청 130, 158, 161, 188, 189
- 수원권 257
- 수원권선(2)택지개발계획 253
- 수원극장 304
- 수원금융조합 130
- 수원농림전문학교 131, 175, 196, 197, 201, 220
- 수원농림학교 131, 172, 174, 176, 178, 193, 201, 202, 209, 225
- 수원도시계획 254
- 수원도시계획구역 235, 252
- 수원도시기본계획 249, 250, 254
-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245
-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실시 계획 245
- 수원도시재정비계획 250
- 수원도호부 37, 108
- 수원면 107, 125, 140, 160, 166, 189
- 수원면국유임야보호조합 130
- 수원면사무소 159, 160
- 수원면장 130, 160
- 수원면협의회 130
- 수원물산상회 127
- 수원미술전시관 304
- 수원민자역사개발계획 258
- 수원박물관 304
- 수원버스 172, 189
- 수원본당 183
- 수원부 41, 43, 55, 59, 62, 280
- 『수원부읍치』 69
- 수원사진관 127
- 수원산업단지 293
- 수원산업3단지 293
-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 284
- 수원상공회의소 293
- 수원상사(水原商事)주식회사 127
- 수원상업강습소 182
- 수원상업회의소 182
- 수원상회 124
- 수원성 133
- 수원시 108, 229, 237, 242, 243, 247, 249, 250, 253, 256, 257, 267, 270, 272, 276, 277, 280, 281, 282, 284, 286, 288, 294, 314, 317
- 수원시가지 158
- 수원시가지계획 150, 151
- 수원시 도시개발사업 284
- 수원시민대운동회 313
- 수원시 생활권역 286
- 수원시 인구 284
- 수원시 장기발전연구상계획 232
- 수원시청 300
- 수원신사 128, 130, 133
- 수원양조합자회사 127
- 수원역 107, 113, 115, 116, 120, 124, 125, 130, 133, 137, 143, 157, 171, 193, 241, 253, 254, 266, 273, 279, 290
- 수원역 광장 150
- 수원역사 137, 257
- 수원연초원매조합 127
- 수원연초제조창 310
- 수원염직조합직물공장 141, 142
- 수원 옛 읍치 39
- 수원우체국 159, 162
- 수원우체사 162, 189
- 수원우편국 162
- 수원유수부 111
- 수원읍 107, 140, 141, 280
- 수원 읍치 128, 276
- 수원 읍토성 37
- 수원인쇄회사 127
- 수원자혜의원 169, 171, 187, 188
- 수원전기기술회사 122
- 수원전기주식회사 166, 177
- 수원전자단지 310
- 수원종로교회 181, 182
- 수원종묘주식회사 177
- 수원지방산업단지 267
- 수원직물공장 142
- 수원직포(水原織布)주식회사 142
- 수원천 46, 50, 57, 78, 80, 81, 88, 90, 91, 96, 97, 108, 189, 192, 267, 277, 288
- 수원 천주교회 155
- 수원천천지구 255
- 수원청년동맹 312
- 수원향교 130, 179
- 수원헌병분대 180
- 수원 화성 45, 76, 300, 315
- 수원화성문화제 288
- 수원화성박물관 306
- 수월당(水月堂) 127
- 수인선 106, 139, 143, 144, 147, 148
- 수종 85
- 수주 30, 108
- 수지구 270
- 수지면 229
- 숙성면 113
- 숙정문 46
- 숙지공원 277
- 숙지산 57, 70, 277
- 승례문 19, 20, 46
- 스기야마제작소(杉山製作所) 200

승량면 113
 시가지화 278
 시내자동차상회 124
 시민관 304
 시민회관 304
 시외버스터미널 254
 시전 54, 55
 시흥로 72
 식목관 73
 식목방법 75
 식목사업 85
 『식목실총』 74, 85
 『식목절목』 74
 식목정책 73
 식목활동 78
 식민도시 111
 식산은행 수원지점 130
 식재방법 73
 식재 수목 78, 87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280
 신갈지구 229
 신고전주의 양식 177
 신동 253, 260, 262, 263
 신리 255
 신매탄아파트 249
 신미주아파트 294
 신읍치 53, 54, 55, 56, 64, 66, 67
 신작로 72, 73
 『신증동국여지승람』 31
 신평교 60
 신평동 241, 281
 신평루 46, 50, 51, 79
 신평정 141
 신평초등학교 155, 179, 325
 신학대학 242
 실업보습학교 196, 209, 219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 209
 실업협회 125
 삼계덕 300
 십(+)-자 교차로 64, 67, 72
 십자형 도로 108

○ 아담스교회 182
 아산만 277
 아산호 108
 아오키(靑木)상회 127
 아오키(靑木)여관 127
 아주공대 242
 아카데미극장 304
 안녕동 32, 33, 34, 37
 안릉면 140, 141
 안산 34
 안산군 113
 안산시 276
 안성천 108, 277
 안영순 124
 안외면 113
 알릭스 183
 야나다(梁田)상회 127
 야마모토(山本)여관 127
 야마자키(山崎) 116
 야마자키(山崎)오복점(吳服店)
 127
 야시장 143
 양감면 140
 양산동 32
 양성관 가옥 318
 양잠사업 59, 85
 양재역 61, 72
 양택 26, 27
 양풍건축 153
 어물전 69
 어제 78
 에듀타운 292
 여객자동차정류장 254
 여기산 57, 70, 277
 여기산공원 242
 여자잡업강습소 118, 174, 178
 여주 145, 146, 147
 역사도시 106, 289
 역사문화도시 232
 역전1·2지구 234
 역전지구 택지조성공사 283

역전지역 158, 191
 역전터미널 254
 역전동 191, 193
 연구도시 232
 연무동 281, 287, 292
 연초제조창 232, 234, 293
 염직공장 142
 영국성공회 수원교회 155
 영덕리 242, 250, 255
 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255
 영동 281
 영동고속도로 235, 280
 영동시장 159
 영우원 13
 영전사(營電社) 200
 영정 141
 영통구 270, 282, 290
 영통리 255
 영통생활권 286, 290
 영통신도시 280, 290
 영통역 290
 영통지구 284, 307
 영통택지개발사업 255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263
 영화관 79, 83
 영화동 241, 281, 287, 300
 영화리 141
 영화역 61, 72, 78, 82, 83
 영화1·2지구 234
 영화정 59, 72, 79, 83, 84, 175
 영화지구 택지조성공사 283
 옛 읍치 31, 33, 34, 37, 40, 41
 오가와 기요(小川亮一) 200
 오교심화 81
 오노(小野) 116
 오노(大野)상점 127
 오목천 108
 오목천동 256, 257
 오무라 다쿠이치(大村卓一) 137
 오산시 280
 오쿠라상사주식회사(大倉商事

株式會社) 경성출장소 200
 오자키(尾崎)상점 127
 오정면 113
 오카모토(岡本)시계점 127
 오후라 172, 174
 와키다(脇田)상점 127
 왕륜면 113
 왕륜와벽소 70
 왕립본당 183
 왕영덕 182
 외정리소 169
 요리오카 류조(頼岡龍藏) 127
 요리오카 지쓰이치(頼岡實一)
 127, 199
 용도지역 232
 용두 96
 용연 59, 96
 용인군 229, 242, 255
 용인시 270, 276
 용주사 133
 우만동 250, 281, 292, 309, 314
 우만아파트 250
 우만택지개발사업 250
 우만택지개발지구 250
 우백호 16, 34
 우에카 슈칸(植木秀幹) 196
 우정면 140
 우치 61
 우화관 51, 155, 179, 180, 188
 운금루 37
 운반로 70
 운송체계 147
 원세포소(原洗布所) 127
 원잠중제조소 118, 174
 원천2지구택지개발사업 253, 256
 원천동 235, 241, 253, 256, 290,
 292, 309
 원천저수지 277
 원천지구택지개발사업 253
 원천천 108, 277
 원천택지개발사업 253

원호청 299
 월곡면 113
 월드컵 축구경기장 250
 위성도시 232, 23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75
 유수부 56
 유여택 51, 169, 171
 유증림 75
 유철전 69
 유형원 35, 39
 육조거리 19, 22
 윤영선 가옥 325
 윤태정 160
 율북면 113
 율전동 255, 257
 융릉 133
 은구 91, 92
 은구도 82
 을묘원행 72
 음덕면 140
 음택 23, 25
 읍성 33
 읍성 배치 양식 67
 읍치 24, 28, 29
 읍토성 32, 33, 34, 35, 37
 의곡면 113
 이강자 321, 322
 이경의 124
 이규성 186
 이노하라(猪原) 116
 이다(飯田)상점 127
 이로하(いろは) 127
 이마무라(今村)상점 127
 이마무라 우타로(今村卯太郎)
 116
 이명숙 181
 이목동 241, 249
 이병모 60
 이색 37
 이소자키(磯崎)상점 127
 이아 164

이영자 329, 336
 이영자 가옥 327
 이완용 175
 이윤숙 331, 335
 이의동 270, 290, 309
 이집트 20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
 286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 255,
 282
 이하영 186
 인계동 191, 241, 281, 306
 인계리 141
 인구영향평가 243
 인왕산 16
 인천미두취인소 116
 인천부 159
 인천상업회의소 147
 일본 건축양식 222
 일본식 가옥 325
 일본인 107, 157, 188
 일본인사회 116
 일본인 상가 125
 일본인 상권 124
 일본인 소학교 128
 일본인 이주 125
 일본인 이주 농민 123
 일본인 인구 116
 일본인촌 116
 일본인회 116, 120
 일본 종교 121
 일왕면 140
 일용면 40, 41
 일형면 122, 141
 일형면장 160
 1호선 전철 234
 입색전 69

㉠ 자연녹지지역 241, 249
 : 자혜의원 130, 158

장락당 79, 169, 171, 188
 장시 54, 55
 장안구 256, 257, 282, 292
 장안동 281
 장안면 140
 장안문 40, 46, 49, 50, 54, 58, 59,
 60, 65, 67, 72, 79, 80, 108, 155,
 189, 191, 192, 327
 장안문 광장 151
 장안정 141
 장용사 56
 장용영병방 56
 장용외사 56
 장지리교회 185
 장현세자 53
 저수지 59, 109
 전기 166
 전방 55
 전사청 169
 전성내탁 59
 전시체제 148
 전쟁특수 191
 전주 도성 27
 전통건축물 18
 전통도시 23
 전통문명권 14, 15, 16, 24, 44
 전통성 158
 정남면 31, 140
 정림건축 306
 정송폐현 31
 정옥선 337, 341, 342, 343
 정옥선 가옥 338
 정자동 40, 235, 256, 257, 293
 정자2지구 307
 정자2지구택지개발 253
 정자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257
 정자2택지개발지구사업 257
 정자택지개발사업 253, 256
 정도중 121
 제도송금사목 74
 제언 109, 110

제2종합운동장 250
 제1야외음악당 306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사건 133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145
 「조선시가지계획령」 151
 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 124
 조선인 상권 124
 조선철도 137
 조선철도 12년 계획 144
 조선철도주식회사 144
 조선총독부 제사(製絲)공장 142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162
 조원동 40, 238, 242, 256, 257
 조원동 준공업지역 256
 조원지구택지개발 253
 조원택지개발사업 257
 조정구 175, 176
 조흥은행 수원지점 300
 종교건축물 191
 종덕면 113
 종로거리 189
 종로교회 186, 187
 종로사거리 50, 51, 288
 종묘 24
 종묘시험장 122, 176
 종합원호원 300, 303
 좌익문 50, 51
 좌청룡 16, 34
 주거 317
 주거지역 232
 주민주택건설사업 251
 주산 16
 (주)진우건축 337
 「주택건설촉진법」 234, 251
 주택지 개발 309
 주택지조성사업 251
 준공업지역 232, 238
 중동 155, 191, 281
 중동사거리 125
 중생활권 272, 286
 중앙극장 304

중앙자동차상회 124
 중앙문 50, 51
 지구단위계획 252
 지당 91, 92
 지대공원 243
 지동 191, 281
 지리 141
 지소리 141
 지수주사 30
 지역중심 286
 지정면 140, 160
 지지대고개 114
 지지대고개 터널공사 114
 지지대공원 256
 「지지대비」 114, 133
 지형 276
 지혜전 69
 직물공장 142, 191, 192, 193
 직물업 107, 141
 진목정 59
 진언중(眞言宗) 고야산파(高野山派)
 121
 진위군 113
 진종(眞宗) 대곡파(大谷派) 121
 『중보산림경제』 75, 85

㉞ 차기형 160
 차남순 124
 창경궁 24
 창덕궁 16, 23
 창릉문 45, 46, 49, 50, 58, 67, 78,
 81, 108, 243
 창화(昌和)직물공장 142
 채석장 70
 채종원 122
 천주교 183
 천천동 255, 257
 천천2지구 307
 천천2지구택지개발 253
 천천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257

천천2택지개발사업 257
 천천택지개발사업 253
 철도교통 106, 143
 철원 도성 27
 청광당(淸光堂)서점 127
 청년동맹운동장 313
 청명산 276, 279
 체점산 39
 최승규 30
 최진협의원 171
 축구 전용 경기장 314
 축만제 59, 82, 99, 110
 축만제둔 59, 99
 취락밀집지역 248
 취향원(翠香園) 127
 칠보산 276, 277

ㄱ 쿠루왕 피라미드 20

ㄴ 타락산 16
 답동 294
 태봉 27
 태안면 229
 태장면 140, 141
 태평양화학 235, 242
 택지개발사업 251, 255
 「택지개발촉진법」 251
 테피식 산성 32, 33, 35, 37, 38
 토목관구 130, 188
 토성 35
 토월(吐月) 127
 토지구획정리사업 235, 242,
 251, 283
 토지농산조사 116
 토진면 113
 통감부 118

ㄷ 과발참 61

과상회(巴商會) 127
 과송1지구 234
 과송지구 택지조성공사 283
 과장동 40
 과장동사거리 293
 과장정수장 243
 팔달구 256, 260, 262, 263, 282, 287
 팔달로 278, 279, 290
 팔달로3가 281
 팔달로2가 281
 팔달로1가 281
 팔달문 45, 46, 49, 50, 54, 60, 65,
 67, 80, 108, 143, 155, 166, 189,
 191, 192
 팔달문 광장 151
 팔달산 32, 40, 41, 42, 43, 44, 45,
 51, 54, 57, 59, 67, 78, 79, 84, 88,
 108, 114, 128, 276, 277, 288
 팔달산공원 130
 팔탄면 140
 평동 235, 241, 256, 267, 281
 평리 141
 평양 조씨 293
 포내면 113
 포목점 124
 폴리 신부 184
 푸른지대 294
 풍수 15, 16, 23, 24, 25, 26, 27,
 28, 29, 33, 34, 37, 39, 43
 풍수지리 64
 풍화당 169

ㄹ 하가공무소(勞賃工務所) 200

하남지 92
 하늘산 51
 하동지 92
 하라다(原田)신문점 127
 하세가와(長谷川) 175
 하지 92
 한국건축문화대상 306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연수원
 303
 한국농촌진흥부 3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7
 한국토지공사 257, 307
 한성부 수진동 195
 한성우체사 수원지사 162
 한성은행 수원지점 124, 130
 한영상회 124
 한일아파트 256
 한일 주거타운 312
 한일타운 307
 한일합섬 234, 238, 242, 253,
 256, 307, 310, 336
 한정품국 78
 향미정 133
 『해동여지도』 65
 해륙물산객주업 124
 해자 90, 91
 해대유업 249
 행궁동 사람들 337
 행궁정리사 56
 행정구 282
 행정구역 263, 282
 행정도시 232
 행정동 282
 행정중심도시 250
 향교 54
 향남면 140
 헌병분견소 188
 현대 건축 299, 300, 312, 315
 현릉원 33, 39, 41, 43, 45, 53, 54,
 276
 현암면 113
 협계열차 139, 147
 협신빌라 294
 호매실 267
 호매실동 294
 호매실리 254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284, 294

호매실택지지구 271
 호매절 57
 호매절 수레길 70
 호소카와(細川) 116
 호위대장 56
 홍만신 75
 홍법산 39
 홍사훈 182
 홍살문 50, 51
 화령전 51, 114, 128, 133, 169
 화산 33, 35, 38, 39, 276
 화서동 242, 255, 256, 281
 화서문 46, 49, 50, 60, 67, 79,
 108, 114
 화서시장 242
 화서역 255
 화서전철역 257
 화서지구택지개발사업 255
 화성 13, 40, 53, 56, 57, 67, 70,
 84, 106, 125, 191, 275, 280,
 287, 294, 317

화성관(華城館) 127
 화성군 229, 255, 280
 화성권역 158
 화성금융조합 130
 화성복원정화사업 288
 화성사업소 318
 화성생활권 286, 287
 화성 성곽 243
 화성 성역 58, 59
 『화성성역의궤』 13, 56, 78, 82, 84
 화성시 32, 33, 276, 280
 화성신도시 275, 276
 화성유수부 56, 58, 179, 317
 화성장대 128
 「화성전도(華城全圖)」 14
 화성학원 182
 화성학원유지회 182
 화성행궁 44, 67, 72, 130, 133,
 157, 158, 159, 161, 171, 188,
 189, 318
 화성행궁광장 50

화성행궁 복원공사 288
 화성행궁정리수성곡 61
 화양루 80
 화양학교 183
 화장실 문화운동 300
 화홍문 58, 65, 79, 91, 98, 133,
 313
 환경영향평가 243
 황구지천 108, 277
 후고구려 27
 후백제 27
 후쿠오카현(福岡縣) 120
 홍원창 146
 홍인지문 19
 홍호리 146
 히라다(平田)상점 127
 히후미(一二三) 127

A~Z KCC 수원공장 273
 SK케미칼 평동공장 273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백영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재국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김지석	안양시청 전문위원
백종철	자연유산보존협회 사무국장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정부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수원시사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62-8

ISBN 978-89-87738-60-4(세트)

